

01 ①	02 ③	03 ⑤	04 ④	05 ③
06 ①	07 ⑤	08 ④	09 ④	10 ①
11 ②	12 ④	13 ④	14 ③	15 ⑤
16 ④	17 ①	18 ③	19 ①	20 ③
21 ①	22 ②	23 ④	24 ③	25 ③
26 ④	27 ④	28 ⑤	29 ⑤	30 ②
31 ①	32 ②	33 ④	34 ①	
화법과 작문	35 ⑤	36 ②	37 ③	38 ⑤
	39 ③	40 ③	41 ①	42 ③
	43 ⑤	44 ⑤	45 ④	
언어와 매체	35 ③	36 ④	37 ④	38 ③
	39 ③	40 ③	41 ⑤	42 ①
	43 ①	44 ⑤	45 ①	

[01~06]

인과 논변의 원인 개념과 인과적 오류 / 루이스의 인과에 대한 반사실적 접근

㉠ 인과 논변의 원인 개념과 인과적 오류

해제 | 이 글은 인과 논변을 이해하는 데 핵심이 되는 원인 개념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을 소개하고 있다. 원인 개념은 우리의 관점에 따라 여러 가지로 쓰인다. 필요조건으로서의 원인 개념은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제거하는 실천적 고려 때문에 쓰이고, 충분조건으로서의 원인 개념은 어떤 결과가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생기게 하는 데 관심이 있을 경우에 쓰인다. 그리고 원인이 결과에 대하여 필요조건도 충분조건도 아니지만, 원인이 있을 때 결과가 일어날 확률이 높을 때는 확률 개념으로서의 원인 개념이 쓰인다. 한편 원인 개념이 특정한 조건을 갖추지 않아 인과 관계를 잘못 파악하면 논리적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주제 | 인과 논변과 인과적 오류

구성 |

- 1문단: 필요조건으로서의 원인 개념
- 2문단: 충분조건으로서의 원인 개념
- 3문단: 확률 개념으로서의 원인 개념
- 4문단: 인과적 오류

㉡ 루이스의 인과에 대한 반사실적 접근

해제 | 이 글은 반사실적 조건문의 분석을 통해 원인을 해명한 루이스의 주장을 소개하고 있다. 반사실적 조건문은 사실에 반하는 가정을 전건으로, 그러한 가정 아래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일을 후건으로 삼는 조건문이다. 루이스는 반사실적 조건문의 진위 판단은 전통 논리학의 규정이 아니라 별도의 기준에 따른다고 하였다. 즉 반사실적 조건문의 전건이 참인 가능 세계 중에서 후건이 거짓인 모든 가능 세계보다 후건이 참인 어떤 가능 세계가 현실 세계와 더 유사할 때, 반사실적 조건문이 참이 된다는 것이다. 루이스의 이런 설명에 대해 여러 반론이 제기되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인과 선점'의 문제이다. 원인이 될 수 있는 사건이 여럿일 때 그중 하나가 다른 사건보다 앞서 발생한 것을 인과 선점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루이스는 '인과적 의존'과 '인과적 연쇄'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다.

주제 | 루이스의 인과에 대한 반사실적 접근

구성 |

- 1문단: 반사실적 조건문을 통해 원인을 해명한 루이스
- 2문단: 반사실적 조건문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
- 3문단: 인과 선점의 문제를 중심으로 한 반론
- 4문단: '인과적 의존'과 '인과적 연쇄'라는 개념을 활용한 루이스의 반박

01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정답 ①

정답 해설 (나)는 루이스의 반사실적 조건문과 관련된 견해를 중심으로 원인 개념에 대한 특정한 해석을 제시하였다.

오답 해설

② (가)는 원인 개념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비교하였지만, 각 해석에 나타난 장단

점을 설명하지는 않았다.

③ (가)와 (나)는 원인 개념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제시하였으나, 이를 적용하여 개념의 새로운 해석 가능성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④ (나)는 여러 철학적 견해가 아니라 특정한 철학적 견해를 바탕으로 원인 개념을 제시하였다. 또한 인과 논변에서 원인 개념이 차지하는 위상을 설명한 것도 아니다. (가)에서도 여러 철학적 견해는 제시되지 않았다.

⑤ (가)와 (나)는 모두 철학적 방법의 통시적인 변화 양상을 언급하지 않았다.

02 중심 내용 파악

정답 ③

정답 해설 반사실적 조건문은 사실에 반하는 가정, 즉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사건을 전건으로 삼는다. 따라서 현실 세계 속에서 경험을 통해 참과 거짓을 판별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오답 해설

- ① 반사실적 조건문은 사실에 반하는 가정을 전건으로 삼는 조건문이다.
- ② 루이스는 반사실적 조건문의 분석을 통해 원인을 해명하였다.
- ④ 루이스는 반사실적 조건문은 진위를 판별할 때 전통 논리학의 규정을 따르지 않고 현실 세계와의 유사성을 기준으로 삼았다.
- ⑤ 반사실적 조건문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루이스가 제시한 것은 현실 세계와의 유사성이다. 즉 반사실적 조건문의 전건이 참인 가능 세계 중에서 후건이 거짓인 모든 가능 세계보다 후건이 참인 어떤 가능 세계가 현실 세계와 더 유사할 때, 반사실적 조건문이 참이 된다.

03 세부 내용 파악

정답 ⑤

정답 해설 필요조건으로서의 원인이나 충분조건으로서의 원인에 해당하는 것이 없이 어떤 결과가 나타났더라도, 그것을 확률 개념으로서의 원인에 의한 인과 관계로 설명할 수 있다.

오답 해설

- ① 필요조건으로서의 원인에 해당하는 것을 없앨 수 있다면 그로 인한 결과는 나타나지 않는다.
- ② 어떤 결과를 반드시 산출해 내려면 충분조건으로서의 원인이 있어야 한다.
- ③ 확률 개념으로서의 원인은 인과적 관계에 있는 결과의 산출을 확률적으로만 보장한다는 점에서, 충분조건으로서의 원인과 다르다.
- ④ 필요조건으로서의 원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인과적 관계에 있는 결과가 반드시 산출되는 것은 아니다.

04 내용의 인과 관계 파악

정답 ④

정답 해설 'A가 풍선을 바늘로 찌르지 않았다면 풍선이 터지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반사실적 조건문은 참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A가 풍선을 바늘로 찌르지 않는 가능 세계들끼리 비교할 때 풍선이 터지는 가능 세계가 그렇지 않은 가능 세계보다 현실 세계와의 유사성이 더 높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A가 바늘로 풍선을 찌르지 않더라도 B가 바늘로 풍선을 찌를 것이기 때문이다. 루이스는 반사실적 조건문의 전건이 참인 가능 세계 중에서 후건이 거짓인 모든 가능 세계보다 후건이 참인 어떤 가능 세계가 현실 세계와 더 유사할 때, 반사실적 조건문이 참이 된다고 하였다.

오답 해설

- ① 반사실적 조건문은 반사실적 조건문의 전건이 참인 가능 세계를 전제로 한다.
- ② A가 풍선을 바늘로 찌르는 가능 세계들끼리 비교할 때 풍선이 터지는 가능 세계가 현실 세계와의 유사성이 높다는 것은, 반사실적 조건문의 전건이 거짓인 가능 세계 중에서 후건이 거짓인 가능 세계가 참인 가능 세계보다 현실 세계와 더 유사하다는 것이므로 반사실적 조건문이 참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 ③ A가 풍선을 바늘로 찌르는 가능 세계들끼리 비교할 때 풍선이 터지지 않는 가능 세계가 현실 세계와의 유사성이 높다는 것은, 반사실적 조건문의 전건이 거짓인 가능 세계 중에서 후건이 참인 가능 세계가 거짓인 가능 세계보다 현실 세계와 더 유사하다는 것이므로 반사실적 조건문이 참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 ⑤ A가 풍선을 바늘로 찌르지 않는 가능 세계들끼리 비교할 때 풍선이 터지지 않는 가능 세계가 현실 세계와의 유사성이 높다는 것은, 반사실적 조건문의 전건이 참인 가능 세계 중에서 후건이 거짓인 가능 세계가 참인 가능 세계보다 현실 세계와 더 유사하다는 것이므로 반사실적 조건문이 참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05 구체적 사례 적용

정답 ③

정답 해설 독감에 걸렸을 때 두통과 몸살이 동시에 나타났으므로 두통과 몸살이 독감에 인과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몸살이 독감과 두통에 인과적으로 의존하고 있다고 본 ③의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 ① 행운의 열쇠를 산 것이 대학에 붙은 사건에 앞선다는 점은 맞지만,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반복적이고 규칙적인지는 점검하지 않았으므로 행운의 열쇠를 산 것을 대학에 붙은 사건의 원인으로 볼 수 없다.
- ② 행운의 열쇠를 산 사건과 대학에 붙은 사건 사이에는 인과적 연쇄가 없다. 따라서 행운의 열쇠를 산 사건은 대학에 붙은 사건의 원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
- ④ 어려운 문제를 빨리 푸는 것은 공부를 잘하는 것에 인과적으로 의존하지만, 그 반대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어려운 문제를 빨리 푸는 것을 공부를 잘하는 것의 원인으로 본 것은 인과적 오류이다.
- ⑤ 을과 병은 모두 원인이 되는 사건의 발생이 결과가 되는 사건의 발생에 시간적으로 앞서야 한다는 점을 간과하였다.

06 단어의 의미 파악

정답 ①

정답 해설 ㉞는 '어떤 내용이나 사실을 옳거나 그러하다고 인정하지 아니하다.'의 뜻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이를 '물리칠'로 바꿔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 ② ㉠는 '잘못을 저지르다.'의 뜻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저지르게'로 바꾸어 쓸 수 있다.
- ③ ㉡는 '까닭이나 내용을 풀어서 밝히다.'의 뜻으로 사용되었으므로, '밝히기'로 바꾸어 쓸 수 있다.
- ④ ㉢는 '어떤 사실이나 원리에 근거하다.'의 뜻으로 사용되었으므로, '따라야'로 바꾸어 쓸 수 있다.
- ⑤ ㉣는 '어떤 행동이나 작용을 베풀어 영향을 입게 하다.'의 뜻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주어지지'로 바꾸어 쓸 수 있다.

[07~10]

주주 의결권

해제 | 이 글은 주식회사의 주주가 주주 총회에서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권리인 주주 의결권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우리나라 상법에서는 의결권을 1주마다 1개로 하는 1주 1의결권을 채택하고 있다. 이와 달리 동일한 1주임에도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의 수가 다른 것을 차등 의결권이라고 한다. 1주 1의결권은 주주들의 위험 부담과 기업에 대한 영향력 사이에 비례적 균등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대리인 비용이 일정 수준으로 유지되는 효과가 있다. 차등 의결권의 적용 방식에는 여러 제도가 있는데, 기업의 창업자는 차등 의결권을 활용해 경영권을 방어하기에 유리하기 때문에 장기 계획을 세우고 경영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에 대한 소유권과 의결권의 비례성을 훼손한다는 단점이 있다. 그리고 지배 주주나 경영진이 사적 이익을 추구할 가능성도 크다. 1주 1의결권과 차등 의결권 모두 의결권의 행사는 법을 통해 제한된다.

주제 | 주주 의결권의 종류와 특징

구성 |

- 1문단: 주주 의결권의 개념과 분류 기준
- 2문단: 1주 1의결권의 특징
- 3문단: 차등 의결권의 여러 제도와 장점
- 4문단: 차등 의결권 제도의 단점
- 5문단: 주주 의결권 행사의 제한

07 세부 내용 파악

정답 ⑤

정답 해설 4문단에 따르면, 차등 의결권 제도에서는 기업에 대한 소유권과 의결권의 비례성이 훼손되기 때문에 기업에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 손해가 소유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주주에게 귀속되지 않는다.

오답 해설

- ① 2문단에 따르면, 우리나라 상법에서는 1주 1의결권을 원칙으로 채택하고 있다.
- ② 1문단에 따르면, 주식을 소유한 주주는 주주 총회의 공동의 의사 결정에 참여해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권리인 의결권을 통해 기업 재산의 관리나 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③ 5문단에 따르면, 주주의 의결권 행사는 재산권의 행사가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한다는 헌법 조항과 관련 법률을 통해 제한된다.

④ 2문단에 따르면, 1주 1의결권은 의결권을 1주마다 1개로 한다고 하였으므로 주주의 의결권은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비례한다.

08 내용의 인과 관계 파악

정답 ④

정답 해설 대리인 비용은 주주와 경영자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가리킨다. 경영자가 기업의 실적보다 사적 이익을 추구하면 주주의 이익과 경영자의 이익이 충돌하여 대리인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오답 해설

- ① 4문단에 따르면, 주식 소유가 집중되어 있는 기업 구조에서는 지배 주주와 소수 주주 사이의 이익 충돌로 인한 대리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 ② 4문단에 따르면, 소유권과 의결권의 괴리가 커지면 이익 충돌로 인한 대리인 비용은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 ③ 2문단에 따르면, 1주 1의결권 원칙하에서도 대리인 비용은 발생하며, 다만 대리인 비용이 일정 수준으로 유지되는 효과가 있다.
- ⑤ 4문단에 따르면, 주식 소유가 집중되어 있는 기업 구조에서는 경영진과 주주의 이익 충돌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에 관한 대리인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낮아진다.

09 구체적 사례 적용

정답 ④

정답 해설 <보기>는 차등 의결권 제도 중 테뉴어 보팅에 해당한다. 3문단에 따르면, 차등 의결권을 통해 경영권 확보에 필요한 법적 수단이 제공되므로 기업은 자금 조달 수단에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다.

오답 해설

- ① 차등 의결권 제도이므로 기업에 대한 소유권과 의결권의 비례성은 훼손된다.
- ② <보기>는 보유 기간에 따라 의결권이 증가하는 테뉴어 보팅에 해당한다.
- ③ 장기 투자자의 의결권이 강화되므로 경영자가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을 경영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 ⑤ 장기 투자자에게 의결권을 더 많이 주는 제도이므로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린 투자자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비용을 줄일 수 있다.

10 단어의 의미 파악

정답 ①

정답 해설 '원래 있던 것이 없어지고 다른 것으로 채워지거나 대신하게 되다.'라는 문맥상 의미로 사용되었으므로, ㉠에서 '바뀔'이 쓰인 문맥상 의미와 가장 가깝다.

오답 해설

- ② '한 언어가 다른 언어로 번역되어 옮겨지다.'라는 문맥상 의미로 사용되었다.
- ③ '자기가 가진 물건이 다른 사람에게 주어지고 대신 그에 필적할 만한 다른 사람의 물건을 받게 되다.'라는 문맥상 의미로 사용되었다.
- ④ '원래의 내용이나 상태가 다르게 고쳐지다.'라는 문맥상 의미로 사용되었다.
- ⑤ '시간이 주기적으로 흘러 다른 날이나 달, 해가 오다.'라는 문맥상 의미로 사용되었다.

[11~14]

양자 컴퓨터

해제 | 이 글은 양자적 현상을 활용한 양자 컴퓨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양자 컴퓨터가 기존의 컴퓨터보다 빠른 이유는 양자 세계의 중첩 성질 때문이다. 양자 컴퓨터는 이진법을 사용하고 이진수 한 자리를 큐비트라고 부르는데, 0과 1의 중첩 상태에 있을 때 동시에 연산이 가해지므로 순서대로 연산하는 것보다 2배 빠르다. 큐비트가 많아질수록 그 속도는 중첩 상태가 아닐 때의 연산보다 지수적으로 빨라진다. 또한 양자 컴퓨터는 연산 과정에서 정보가 손실되지 않는 가역적 연산만 하는 것이 가능하여서 발열을 동반하는 비가역적 연산을 하는 기존의 컴퓨터가 갖는 제약을 받지 않는다.

주제 | 양자적 현상을 활용한 양자 컴퓨터

구성 |

- 1문단: 기존 컴퓨터의 연산 처리 속도의 한계
- 2문단: 양자 세계의 중첩 성질을 활용한 양자 컴퓨터
- 3문단: 양자 컴퓨터의 연산 방식

- 4문단: 비가역적 연산을 하는 기존 컴퓨터의 한계
- 5문단: 양자 컴퓨터의 현황

11 세부 내용 파악

정답 ②

정답 해설 5문단에 따르면, 양자 컴퓨터의 큐비트 개수가 많아지면 중첩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 그러므로 양자 컴퓨터의 큐비트 개수가 많아지면 연산의 안정성이 높아진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 ① 3문단에 따르면, 양자 컴퓨터는 기존의 컴퓨터와 마찬가지로 이진법을 사용한다.
- ② 2문단에 따르면, 양자 물리에서는 원자와 같은 입자로 이루어진 물체도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 ④ 1문단에 따르면, 컴퓨터의 중앙 처리 장치나 메모리 칩의 용량이 약 1.5년마다 2배씩 증가되어 왔고, 이렇게 지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무어의 법칙'이라고 한다.
- ⑤ 1문단에 따르면, 메모리 한 비트의 물리적 크기가 원자에 가까워지면, 미시 세계의 양자 물리적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 전자 회로의 작동을 방해한다.

12 내용의 인과 관계 파악

정답 ④

정답 해설 2문단에 따르면, 양자 컴퓨터는 양자 세계의 중첩 성질을 활용한다. 3문단에 따르면, 양자 컴퓨터의 양자 알고리즘은 모든 큐비트를 중첩시켜서 한꺼번에 함숫값을 계산하기 때문에 기존 컴퓨터보다 훨씬 빠른 계산이 가능하다. 따라서 양자 컴퓨터는 양자 세계에서 물체가 중첩 상태인 것을 활용해 빠른 연산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는 추론은 적절하다.

오답 해설

- ① 5문단에 따르면, 양자 컴퓨터의 상용화 가능성에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따라서 양자 컴퓨터의 발전 속도가 빨라 기존 컴퓨터를 즉시 대체할 것이라는 추론은 적절하지 않다.
- ② 1문단에 따르면, 기존 컴퓨터에서 메모리 한 비트의 물리적 크기가 원자에 가까워져 양자 물리적 현상이 발생하면 전자 회로의 작동을 방해한다. 따라서 양자적 현상이 기존 컴퓨터의 연산 처리 능력의 향상 속도를 더 빠르게 할 것이라는 추론은 적절하지 않다.
- ③ 4문단에 따르면, 한 소자에 들어가는 메모리의 집적도와 연산 속도가 동시에 올라가면 발생하는 열 또한 지수적으로 증가한다. 따라서 집적도와 연산 속도가 올라가면 연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의 증가 속도가 낮아진다는 추론은 적절하지 않다.
- ⑤ 5문단에 따르면, 양자 컴퓨터는 큐비트의 개수를 늘리면 중첩 상태를 유지하기 어렵고, 1문단과 4문단에 따르면, 기존 컴퓨터는 메모리 한 비트의 물리적 크기가 작아져 원자에 가까워지면 양자 물리적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 전자 회로의 작동을 방해하며, 비가역적 연산으로 정보의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집적도와 연산 속도가 올라가 발생하는 열을 줄이는 데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연산 처리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양자 컴퓨터와 기존 컴퓨터가 공통의 문제점을 해결해야 할 것이라는 추론은 적절하지 않다.

13 세부 내용 파악

정답 ④

정답 해설 3문단에 따르면, ㉠은 연산 방식에 차이가 있을 뿐 양자 컴퓨터와 기존 컴퓨터의 모두에서 가능한 연산이다.

오답 해설

- ① 4문단에 따르면, ㉠은 정보의 손실이 발생하는 비가역적 과정으로 열이 발생한다.
- ② 3, 4문단에 따르면, ㉠은 출력으로부터 입력을 복구할 수 있으므로 가역적 연산이고, ㉡은 출력으로부터 입력을 복구할 수 없는 비가역적 연산이다.
- ③ 3, 4문단에 따르면, ㉠은 정보의 손실이 없고, ㉡은 정보의 손실이 발생한다.
- ⑤ 3, 4문단에 따르면, ㉠은 입력 신호와 출력 신호의 개수가 같지만, ㉡은 입력 신호가 두 개이고 출력 신호가 한 개여서 두 신호의 개수가 다르다.

14 구체적 사례 적용

정답 ③

정답 해설 3문단에 따르면, 기존 컴퓨터의 알고리즘은 <보기>의 $f(0)=f(1)$ 을 확

인하기 위해서 x 에 0을 넣고 함숫값을 계산하고, x 에 1을 넣고 다시 함숫값을 계산해야 한다. 그러므로 사용료는 20만 원이다. 그러나 양자 컴퓨터의 알고리즘은 모든 큐비트를 중첩시켜서 한꺼번에 함숫값을 계산한다. 따라서 0과 1의 중첩 상태로 $f(x)$ 의 함숫값을 한 번에 계산하면 된다. 그러므로 사용료는 10만 원이다.

오답 해설

- ①, ② x 에 비트를 입력하는 횟수에 따라 사용료가 달라진다. 속도는 고려 사항이 아니다. 그리고 양자 컴퓨터의 알고리즘이 기존 컴퓨터의 알고리즘보다 연산 처리 속도가 2배 빠르다.
- ④ 기존 컴퓨터의 알고리즘은 x 에 0과 1을 차례대로 넣어서 함숫값을 계산해야 한다. 비트는 0이나 1 둘 중 하나의 값만 갖는다.
- ⑤ 양자 컴퓨터의 알고리즘은 0과 1의 중첩 상태로 $f(x)$ 의 함숫값을 한 번에 계산하면 된다.

[15~17]

주제 통합적 독서

해제 | 이 글은 주제 통합적 독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하나의 화제나 주제를 다룬 여러 방면의 글을 읽고 그 주제나 화제에 대해 비판적·통합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주제 통합적 독서'라고 한다. 주제 통합적 독서는 우리가 특별히 의도하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서 자주 이루어지는 독서이다. 한편 주제 통합적 독서는 상호 텍스트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독서이기도 하다. 서로 다른 글이 상호 관련성을 갖는 경우를 상호 텍스트성이라고 한다.

주제 | 주제 통합적 독서의 의미와 가치

구성 |

- 1문단: 주제 통합적 독서의 의미
- 2문단: 일상생활에서 자주 활용되는 주제 통합적 독서
- 3문단: 상호 텍스트성을 활용하는 주제 통합적 독서

15 대안, 방안에 대한 적절성 탐구

정답 ⑤

정답 해설 주제 통합적 독서는 하나의 화제나 주제를 다룬 여러 방면의 글을 읽는 것이므로, 한 편의 글에 담긴 의미를 세밀하게 파악하여 기억에 오래 남도록 해 주는 것은 주제 통합적 독서의 효용으로 보기 어렵다.

오답 해설

- ① 3문단에 따르면, 주제 통합적 독서는 독단이나 편견에 빠지는 것을 막아 준다.
- ② 3문단에 따르면, 주제 통합적 독서는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여러 관점을 종합하고 관련짓는 과정에서 사고의 폭을 넓힐 수 있다.
- ③ 3문단에 따르면, 주제 통합적 독서는 여러 지식을 관련지어 창조적인 생각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
- ④ 3문단에 따르면, 주제 통합적 독서는 여러 관점을 바탕으로 비판적인 사고를 하는 데 도움이 된다.

16 적절한 독서 계획 수립과 독서 실천

정답 ④

정답 해설 글을 다 읽은 후에는 비판적으로 의미를 재구성해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비판적인 판단은 유보한 상태에서 모든 관점을 모두 수용하여 종합하는 것이 좋겠다는 학생의 반응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 ① 글을 읽기 전에 어떤 화제에 관한 글을 읽을지 먼저 결정해야 한다.
- ② 글을 읽기 전에 자신이 결정한 화제와 관련하여 자신이 해결해야 할 과제를 질문의 형식으로 만들어 보면 주제 통합적 독서의 목적이 분명해진다.
- ③ 질문에 답을 줄 수 있을 만한 글들을 찾아 주제 통합적 독서를 하기 위해서는 상호 텍스트성을 고려하여 여러 분야의 책이 선정되도록 해야 한다.
- ⑤ 글을 다 읽은 후에는 글의 내용을 종합해 자신의 과제가 해결되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한다.

17 구체적 사례 적용

정답 ①

정답 해설 학생은 「데미안」을 읽고, 이 작품의 주제와 관련이 있는 「우상의 눈물」과 「니코마코스 윤리학」을 더 찾아 읽었다. 이러한 독서 경험을 바탕으로 상호 텍스트성을 활용한 독서의 가치를 깨닫게 되었다고 하였다.

오답 해설

- ② 자신의 독서 경험을 통해 사고의 폭이 넓어지고 선악에 대한 비판적 관점이 생겼다고 했을 뿐 문학 작품이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되고 있음을 이해한 것은 아니다.
- ③ 자신의 독서 경험을 여러 분야에 속한 사람들과 공유하는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는 않았다.
- ④ 자신의 독서 경험을 통해 자아 성찰의 기회를 제공한 문학의 가치에 의미를 부여했다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 ⑤ 자신의 독서 경험을 인접 분야의 학문을 학습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해야겠다는 언급은 하지 않았다.

[18~21]

윤동주, 「길」 / 김명인, 「너와집 한 채」

㉠ 윤동주, 「길」

해제 | 자아 성찰을 통해 참된 삶을 향한 결연한 자세를 다지는 모습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길을 찾기 힘든 식민지의 감옥과 같은 암울한 현실을 쇠문이 굳건히 가로막고 있는 담과 길 위의 긴 그림자로 나타내고 있다. 풀 한 포기 자라기 힘든 삭막한 현실에서 화자는 잃어버린 것을 찾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쇠문으로 닫힌 문 너머에 있는 '잃어버린 것'을 찾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쇠문을 넘는 것은 화자의 삶의 의미이자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주제 | 참된 삶을 살고자 하는 의지

구성 |

- 1연: 상실에 대한 화자의 인식
- 2~4연: 상실한 것을 찾는 과정
- 5연: 자아에 대한 성찰
- 6~7연: 자아를 찾고자 하는 굳은 의지

㉡ 김명인, 「너와집 한 채」

해제 | 답답한 현실의 구속에서 벗어나 은둔과 격리의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을 간곡한 어조로 말하고 있는 작품이다. 울진은 시인의 고향인데, 시인이 어렸을 때 울진은 경상북도가 아니라 강원도에 속했었다. 시 속 공간은 현실과 다른 곳이자 어릴 적 시인의 기억과 관련 있는 곳이기도 시인은 그곳을 강원남도에서 속한 곳으로 말하고 있다. 화자는 산마루에 들어가 스스로 길을 잃어 현실로 돌아오는 길을 끊어 버리겠다고 말하고 있다. 안식의 자리를 찾기 못하고 허망한 방황을 계속하는 도시 생활에 대한 환멸감에 산마루의 너와집에서 고립된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것이다. 이렇듯 화자는 혼탁의 세계에서 벗어나 순수의 세계에 침잠하는 삶을 살고 싶어 하고 있다.

주제 | 은둔과 격리의 삶에 대한 소망

구성 |

- 1연: 안식처로서 산마루에 너와집을 얻고자 하는 소망
- 2연: 산속에서 자연에 동화되어 살고자 하는 마음
- 3연: 잊었던 연모의 순수한 마음을 되찾고 싶어 하는 마음
- 4연: 은둔과 격리의 삶에 대한 의지

18 작품 간의 공통적인 표현상의 특징 파악

정답 ③

정답 해설 (가)에서는 '하늘'의 '푸름'을 활용하여 자아 성찰을 통해 느낀 '부끄러움'의 심정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나)에서는 '단풍'의 '불붙'는 듯한 붉은 이미지와 관련지어 '너와집'에서 '눈물'을 흘리는 심정을, '불붙는 몸'의 붉은 이미지와 관련지어 자연에 동화되는 삶을 바라는 심정을, '황토흙빛'의 시각적 이미지와 관련지어 '너와집'에서 은둔의 삶을 살고 싶어 하는 심정을 나타내고 있다.

오답 해설

- ① (가), (나)에는 모두 시적 대상에 생명력을 부여하여 의지를 지닌 존재로 나타낸 것이 없다.
- ② (가)에서는 현재형 진술을 사용하고 있으나 시적 대상의 역동적 성격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다. (나)는 주로 미래 시제와 양태를 나타낼 수 있는 '-겠-'을 반복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④ (가), (나) 모두 시적 상황이 제시되어 있으나, 상황에 대한 객관적 묘사를 통해 주관적 의미의 진술이 배제되어 있지는 않다. (가), (나) 모두 화자의 주관적 인식이 드러나고 있다.
- ⑤ (가)는 '하늘', (나)는 '구름 연기' 등과 같이 상층 이미지를 내포했다고 볼 수도 있는 시어들이 사용되었으나, 그 시어들이 사물의 변화 과정을 표현하고 있지는 않다.

19 시어, 시구의 의미와 기능 파악

정답 ①

정답 해설 ㉠은 화자가 자신에게 있어야 할 무언가를 잃어버렸다는 처지를 진술한 것이다. 그런데 ㉡은 현실과 단절되고 싶어 하는 화자의 바람을 나타내고 있다. 스스로 길을 잃어 현실로 돌아오고 싶어 하지 않는 마음을 표현한 것이다.

오답 해설

- ② ㉠은 화자가 겪고 있는 시련과 관련이 있으나, ㉡은 화자의 추억을 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 ③ ㉠은 화자의 부정적 처지를 나타낸다. 화자의 경외감과 관련이 없다. ㉡은 현실과 단절된 은둔의 삶에 대한 기대감과 관련이 있다.
- ④ ㉠은 현실에 대한 화자의 인식과 관련이 있어 관조적인 자세와 관련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은 화자의 바람, 의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화자의 반성적 자세와 관련이 없다.
- ⑤ ㉠은 화자에게 고뇌를 일으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은 화자의 외적 갈등 원인이 아니라 화자가 지향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20 작품의 내용 파악

정답 ③

정답 해설 암울한 현실 속에서 화자는 상실한 것을 찾지 못하고 안타까워하며 반성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러한 눈물을 화자가 삶의 의미를 되찾으며 느낀 감동을 의미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 ① ㉡은 화자로 하여금 '담' 너머로 가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 ② ㉡은 어두운 이미지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굳게 닫힌 '쇠문'이 있는 담으로부터 화자가 느낀 절망감, 암울한 심정 등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④ ㉡은 '불붙'은 '단풍'과 동화되고자 하는 소망을 나타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⑤ ㉡은 화자가 '아주 잊었던' 것이다. 하지만 화자는 산마루 '너와집'에서 살며 '연모'를 '머리 위의 별처럼 띄워 놓고', '비포장도로처럼 멀정거리'는 마음을 다시금 느끼고 싶어 하고 있다. 잊었던 '연모'의 마음으로 두근거리는 순수한 마음을 되찾고 싶은 소망을 표현한 것이다.

21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 ①

정답 해설 (가)에서 '잃어버린 것'을 찾지 못하게 가로막는 '담'이 '끝없이 연달아' 있다는 것은 화자가 부정적 현실 속에서 느낀 절망감의 크기를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런데 (나)에서 '주저앉을 듯 겨우겨우는 '세월마저 허물어 버린 뒤'의 '너와집'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러한 '너와집'은 화자가 살고 싶어 하는 곳이다. 이를 화자가 부정적 현실 속에서 느낀 위태로움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 ② (가)에서 '길'이 '아침에서 저녁으로', '저녁에서 아침으로' 통해 있다는 것이 끊어짐 없이 이어져 있음을 나타낸다. 즉 길의 연속적인 속성을 표현한 것이다. (나)에서 '아무도 기억 못 하는', '그런 산길'은 '너와집'이 있는 곳이 바깥 세계에서 찾을 수 없는 단절된 곳을 나타내고 있다.
- ③ (가)에서 화자는 '돌담을 더듬'으며 자아 성찰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느낀 심정을 '부끄러움'이라고 표현했다. (나)에서 '세간의 슬픔'은 안식처를 찾지 못하는 도시 생활에서 느낀 심정이라고 할 수 있다.
- ④ (가)의 '풀 한 포기 없는'은 일체의 생명체가 살기 어려운 상황을 나타낸다. 즉 일제 강점하의 삭막하고 황량한 현실을 의미하는 것이다. (나)에서 '집이 없는'은 안식처를 찾기 어려운 현실에서 산마루의 '너와집'을 그리고 있음을 나타낸다.
- ⑤ (가)에서 '다만'은 '잃은 것을 찾는' 삶을 지향하고자 하는 화자의 일념을 부각하고 있다. (나)에서 '마침내'는 '돌아서지 않겠네'로 드러나고 있는 은둔의 삶에 대한 화자의 의지를 부각하고 있다.

[22~26]

안서우, 「유원십이곡」 / 박인로, 「노계가」 / 이수광, 「침류대기」

㉠ 안서우, 「유원십이곡」

해제 | 이 작품은 배경이 되는 '유원'이라는 자연 공간에서 삶을 영위하는 작가의 자족적인 면모가 잘 드러나고 있는 총 12수로 구성된 연시조이다. 작품의 구조는 크게 강호를 선택하게 된 화자의 동기 제시, 그에 대한 답변으로서 자연에서의 생활상 형상화, 자연에 정착한 이후 일어난 화자의 심적인 갈등, 마침내 자연으로 돌아갈 것을 선

택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화자는 끝내 자연에서의 삶을 선택했지만, 그 과정에서 속세에 대한 미련과 그에 대한 반성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주제 | 자연 공간에서의 삶에 대한 자족감

구성 |

- 제3수: 속세와 거리를 두고 자연에서 사는 즐거움
- 제5수: 자연을 벗으로 삼아 사는 삶의 모습
- 제7수: 자연 속에서 사는 삶에 대한 만족감
- 제9수: 속세를 등지고 자연을 선택한 것에 대한 내적 갈등

㉠ 박인로, 「노계가」

해제 | 이 작품은 작가가 76세 때 경주의 노수에 거처를 정하고 지은 가사로, 노년에 마음에 맞는 은거지를 찾은 기쁨이 그곳의 아름다운 경치와 풍요로운 자연 속에서의 한가로운 생활을 담은 내용 속에 잘 드러나 있다. 장소에 대한 강한 애착과 낭만적 흥취, 정신적 보상의 지향성이 두드러진다. 그리고 이러한 삶이 임금의 성은 덕분이라고 하며 임금의 평안함을 비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다.

주제 | 아름답고 풍요로운 자연에 대한 예찬과 자연에서 사는 삶의 흥취

구성 |

- 또 어린 이 몸은 ~ 도히 너기노라: 자연 속에서의 삶에 대한 만족감
- 바위 언덕에 핀 ~ 다시 본가 너기노라: 아름답고 풍요로운 자연 속에서의 즐거움
- 이 힘이 뉘 힘고 ~ 하늘 한쪽 끝에 떨어뜨리네: 성은에 대한 감사와 임금에 대한 염려

㉡ 이수광, 「침류대기」

해제 | 이 글은 유희경의 안내로 침류대라는 누대를 방문하여 경치를 보고 생각한 바를 기록한 고전 수필이다. 글쓴이는 침류대라는 구체적 공간의 주변 경치를 무릉도원에 비유하였다. 그리고 유희경이라는 사람의 면모를 그 사람이 살고 있는 환경과 연결하여 이해하고 있다. 침류대의 아름다운 경치를 유희경의 인덕과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미 알고 있던 유희경이라는 인물의 인격과 덕을 글쓴이가 새삼 느끼게 된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환경의 중요성을 깨우쳐 준다.

주제 | 침류대의 아름다운 경치와 유희경의 인덕

구성 |

- 하루는 내가 ~ 거처하는 곳이었다: 금천교 위에 올라가 경치를 구경하다가 유희경의 안내로 누대를 방문함.
- 흐르는 물은 ~ 미답지 않겠는가: 누대 주변의 아름다운 경치를 무릉도원에 비유함.
- 또 내가 ~ 있을 것이다: 군자의 덕을 갖춘 유희경의 진면목

22 작품 간의 공통적인 표현상의 특징 파악

정답 ②

정답 해설 (가)는 '두려워라', '흐노라' 등에서, (나)는 '밭골소냐', '너기노라', '아니신가' 등에서, (다)는 '어찌 미답지 않겠는가' 등에서 영탄적 어조로 대상에서 촉발된 인상을 표현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오답 해설

- ① (가), (나), (다)에는 색채어가 있지만, 대비를 통해 주제 의식이 부각되고 있지는 않다.
- ③ (가), (나), (다)에는 자연의 모습을 묘사하는 표현은 있지만, 계절감을 드러내는 표현으로 시간의 경과를 보여 주는 것은 없다.
- ④ (가), (나), (다) 모두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고 있지 않다.
- ⑤ (가), (나), (다) 모두 반어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

23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 ④

정답 해설 (나)의 '심산공곡에 해산물이야 보로소냐'는 깊은 산속의 험한 골짜기에서는 해산물을 맞볼 수 없다는 의미이다. 화자의 마음에 드는 은거지임을 보여 주고 있지 않다.

오답 해설

- ① (가)의 '집에 오는 이는 청풍'과 '술 상대는 명월'에서 청풍은 집에 오는 이로, 명월은 술 상대로 각각 표현하고 있으므로, 화자가 자연을 벗으로 생각한다고 볼 수 있다.
- ② (나)의 '살진 고사리'와 '향기훈 당귀초'는 산돼지와 사슴의 포와 섞여 실버들 상자에 흠족하게 담아 둔다고 하였으므로, 자연의 풍요로움을 형상화한 표현으로 볼 수 있다.
- ③ (가)의 '영산의 백운기'와 '강중 백구비'를 보며 화자는 즐거워하고 있고, (나)의 '바위 언덕에 핀 산꽃'과 '냇가에 늘어진 수양'의 아름다운 경치를 혼자 거느리

겠다고 하였으므로, 모두 화자에게 만족감을 주는 자연이라고 할 수 있다.

- ⑤ (가)의 '알고도 그칠 줄 모르니'는 화자가 도팽택(도연명)과 태부의 호연한 행색을 부러워하면서도 세속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고, (나)의 '귀훈 삼공과 이 강산을 밧골소냐'는 최고의 관직인 삼공과 강산을 바꾸지 않겠다고 하고 있으므로 세속의 가치보다 자연을 우위에 두는 화자의 가치관을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4 시어, 시구의 의미와 기능 파악

정답 ③

정답 해설 (가)의 화자는 '홍진'과 절교하고 자연 속에서 시름없이 늙어 가고자 한다. 그러므로 홍진은 화자에게 근심을 주는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나)의 화자는 임금에 대한 걱정을 하며 때때로 '복신'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으므로, 복신은 화자가 다른 대상에 대한 걱정을 드러내는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오답 해설

- ① (가)의 홍진은 화자에게 근심을 주기는 하지만 슬픔을 느끼는 공간은 아니고, (나)의 복신은 기쁨을 느끼는 공간과 거리가 멀다.
- ② (가)의 화자는 홍진과 절교하고자 하지 대상을 보며 좌절감을 느끼지 않으며, (나)의 화자는 복신을 바라보며 임금을 걱정하는 것이지 복신을 그리워하는 것은 아니다.
- ④ (가)의 화자는 자연에 머물고 있으므로 홍진은 화자가 살고 있는 현실적 삶의 공간이 아니고, (나)의 화자는 임금에 대해 걱정하는 마음으로 복신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으므로 복신은 화자가 살기를 희망하는 이상적 공간이 아니다.
- ⑤ (가)의 화자는 자연에 머물며 만족하고 있으므로 홍진은 현실 극복의 의지를 갖게 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나)의 복신은 화자의 성찰과는 관련이 없다.

25 작품의 내용 파악

정답 ③

정답 해설 [A]의 '눕히 베고 누어시니'는 아름다운 자연에서 사는 화자의 여유로운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는 대상에 대한 화자의 심리적 거리가 가까운 것으로 볼 수 있으나, [B]의 '겨우 한 척 남짓이었으니'는 누대가 물과 아주 가깝다는 의미로 누대에 대한 글쓴이의 아쉬움을 제시한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 ① [A]에서 화자는 자연에서의 만족스러운 삶을 표현하다가, 자연 경관 바깥에 있는 임금을 떠올리며 자신의 삶이 임금의 은혜 덕분이라고 하는 시상의 전환이 나타나 있다.
- ② [B]에서는 조영의 시를 인용하여 아름다운 침류대의 경치에 대한 감상을 드러내고 있다.
- ④ [A]에서 화자는 자연에서의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자신을 태평한 시절이었던 무회씨 때나 갈천씨 때의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고, [B]의 글쓴이는 자신이 보고 있는 자연 경관이 옛날의 무릉도원보다 화려하다고 그 아름다운 정도를 표현하고 있다.
- ⑤ [A]에서는 복숭아꽃이 날리는 것을 붉은 비로 비유하고 있고, [B]에서도 복숭아꽃이 흩날리는 것을 붉은 꽃비가 비단 물결에 춤을 추는 것으로 비유하는 등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대상을 묘사하고 있다.

26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 ④

정답 해설 유희경이 은자였던 허유와 소부의 삶을 따르고자 했으므로, 글쓴이가 유희경을 '대은에다 스스로를 견주'었다고 한 것을 허유와 소부의 삶을 지향하고자 했던 유희경의 의도를 드러냈다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다.

오답 해설

- ① 유희경은 미천한 신분의 사람이었으나 은자였던 허유와 소부의 삶을 따르고자 하였으므로, 글쓴이가 유희경이 '자신을 감추'고자 했다고 한 것을 유희경이 미천한 신분을 감추고자 했다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② 유희경의 성품이 담박하고 욕심이 없었다고 했으므로, 글쓴이가 물의 흐름을 '군자의 덕과 유사하다.'라고 한 것을 유희경의 성품과 군자의 성품을 대조하고자 했다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③ 유희경의 인생이 매우 곤궁하였으나 위의 정답 해설에서 알 수 있듯이, 글쓴이가 침류대를 구경하고 '유생의 진면목을 알 수 있었다.'라고 한 것은 유희경의 은자로서의 면모를 알게 되었음을 가리킨다고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 ⑤ 글쓴이는 침류대가 있는 곳이 '거마가 분주히 다니는 곳과 지척'에 있지만 그 물이 깨끗하고 더러움에 물들지 않아 군자의 덕과 유사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유

희경이 누대의 이름을 '침류'로 한 뜻이 이와 관련되었다고 보았다. 유희경의 청빈함이 허유와 소부에 미치지 못함을 평가한 말로 이해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27~30]

작자 미상, 「유충렬전」

해제 | 이 작품은 조선 후기의 영웅 소설과 군담 소설을 대표하는 작품이다. 주인공의 신이한 출생, 성장 과정에서의 시련과 극복, 영웅적 투쟁과 화려한 승리로 이루어진 작품 전개는, 영웅의 일생이라는 유형적 구조를 잘 반영하고 있다. 화려하고 다채로운 군담과 천상과 지상의 이원적 세계관, 적강의 모티프, 완벽한 영웅의 일대기 구조 등을 지닌 이 소설은 조선 후기의 대표적 영웅 소설로서 하나의 전형을 보여 주고 있다.

주제 | 고난 극복 및 나라와 가문의 위기를 구한 영웅의 활약상

전체 줄거리

명나라 영종 연간에 정언주부(正言主簿)의 벼슬을 하고 있던 '유심'은 늦도록 자식이 없어 한탄하다가 남악 형산에 처성을 드리고 신이한 태몽을 꾸 뒤 아들을 낳아 이름을 충렬이라 짓고 키운다. 이때 조정의 신하들 중에 역심(逆心)을 품은 정한담, 최일귀 등이 가달의 침입에 대한 유심의 유화적 입장을 문제 삼아 유심을 모함하여 귀양 보내고, 유심의 집에 불을 질러 충렬 모자마저 살해하려 한다. 그러나 충렬은 천우신조로 정한담의 마수에서 벗어나 많은 고난을 겪다가 은퇴한 재상 강희주를 만나 사위가 된다. 강희주는 유심을 구하려고 상소를 올렸으나 정한담의 공격을 받아 귀양을 가게 되고, 강희주의 가족은 난을 피하여 모두 흩어진다. 충렬은 강 소저와 이별하고 백용사의 노승을 만나 무예를 배우며 때를 기다린다. 이때 남적과 북적이 반기를 들고 명나라에 쳐들어오자 정한담은 자원 출전하여 남적에게 항복하고, 남적의 선봉장이 되어 천자를 공격한다. 정한담에게 여러 번 패한 천자가 항복하려 할 즈음, 충렬이 등장하여 남적의 선봉 정문걸을 죽이고 천자를 구출한다. 충렬은 단신으로 반란군을 쳐부수고 정한담을 사로잡는다. 그리고 호왕(胡王)에게 잡혀간 황후·태후·태자를 구출하며, 유배지에서 고생하던 아버지 유심과 장인 강희주를 구한다. 또한 이별하였던 어머니와 아내를 찾고, 정한담 일파를 물리친 뒤 높은 벼슬에 올라서 부귀영화를 누린다.

27 작품의 내용 이해

정답 ④

정답 해설 '전일에 정한담을 충신이라 하시더니 충신도 역적이 되나이까. 그놈의 말을 듣고 충신을 원찬해 죽이고 이런 환을 만나셨으니, 천지 아득하고 일월이 무광하옵니다.'라는 대화 내용으로 보아, 유충렬은 천자의 신임을 받던 아버지의 사연을 천자에게 아뢰며 자신의 서운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자신도 충성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고 보기 어렵다.

오답 해설

- ① 조정만은 형세의 불리함을 들어 '그대 충성은 지극하나 지금 황상이 항복하려 하시고 또한 적진의 형세가 저러하니, 그대 청춘이 전장 백골 될 것이라. 원통하고 망극하다!'라고 말하며 유충렬의 싸우겠다는 뜻을 만류하였다.
- ② '용린갑은 혼신을 감추었으며, 천사마는 비룡이 되어 운무 중에 싸이어'로 보아, 유충렬은 용린갑과 천사마를 이용해 자신의 형체를 숨김으로써 싸움을 유리하게 이끌었음을 알 수 있다.
- ③ 천자는 패색이 짙었던 전세를 뒤집은 장수를 급히 들게 하여 '그대는 뉘신데 죽을 사람을 살리는가?'라고 하며 그의 정체에 대해 궁금해하였다.
- ⑤ 천자는 정한담을 피해 변수 가로 도망하였으나 정한담은 변수 가로 가서 천자를 붙잡아 항서를 강요했다.

28 사건의 전개 양상 파악

정답 ⑤

정답 해설 충렬은 금산성 아래에서 망기하다가 '형세가 급한 것'을 보고 천사마를 채질해 바빠 명진으로 달려갔다. 또한 원수(충렬)는 천기를 살피다 도성에 살기 가득하고 천자의 '자미성이 떨어져' 변수 가에 비쳐 있는 것을 보고 천자를 구하기 위해 변수 가로 급히 이동했다. 따라서 ㉠과 ㉡은 모두 천자의 위급한 상황을 환기하여 유충렬이 이에 즉각적으로 대응하도록 유도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 ① ㉠과 ㉡은 각각 다른 사건과 관련된 것이므로, 유충렬이 ㉡을 본 이후에 ㉠을 확신하게 된 것은 아니다.
- ② ㉢은 천자가 유충렬에게 부여한 공무를 수행하던 중에 본 것이 맞지만, ㉠은 그렇지 않다.
- ③ ㉣에는 천자를 상징하는 천체의 변화(자미성이 떨어진 일)가 제시되어 있지만, ㉤은 형세가 급하다고만 했을 뿐 천자를 상징하는 천체의 변화에 대해서는 언

급하지 않았다.

- ④ ㉠은 천자와 대결하고 있는 대상의 정체를 알 수 있게 하지만, ㉡은 그렇지 않다.

29 특정 장면의 서술상 특징 파악

정답 ⑤

정답 해설 [A]와 [B]는 모두 편집자적 논평을 통해 인물이 처한 상황에 대한 서술자의 심정적 동조를 드러내고 있다. [A]에서는 '중군 조정만과 명진에 남은 군사 어찌 아니 한심하고 슬프리오.'를 통해, [B]에서는 '귀신인들 아니 울며 혼백인들 아니 울리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오답 해설

- ① [A]에는 서술자의 주관적인 해석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를 통해 사건의 숨겨진 내막이 밝혀진 것은 아니다.
- ② [B]는 전지적인 서술자에 의해 사건이 일관되게 서술되었다. 따라서 사건의 의미가 다각적으로 제시된 것은 아니다.
- ③ [B]는 동일한 시간대에 일어난 두 사건을 병렬적으로 구성하고 있지 않다.
- ④ [A]에 인물의 내적 독백은 나타나 있지 않다.

30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 ②

정답 해설 '유충렬'이 '정문걸'과 싸우기에 앞서 '이놈, 역적 정한담아!'라고 한 것은 자신이 맞아야 하는 적이 정한담의 군대였기 때문이지, 적대자와 적대자의 대리자를 동등하게 대했기 때문인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 ① '정한담'이 거느린 군대를 '그 형세 웅장함이 만고에 으뜸이더라.'라고 한 것은, 적대자가 막강한 힘을 지닌 존재임을 보여 준다. 이것은 이들을 상대로 싸우는 주인공의 영웅적인 활약상을 돋보이게 하는 장치가 된다.
- ③ '정한담'이 '황후'를 붙잡아 호왕에게 맡기고 '천자'를 붙잡아 목숨을 위협한 것은, 주인공의 주변 인물인 천자와 황후가 겪는 고초를 보여 준 것이다. 이것은 이야기 전개에 긴장감을 부여한다.
- ④ '정한담'이 '하늘이 나 같은 영웅을 내실 때는 남경의 천자가 되게 하심이라.'라고 한 것은, 적대자가 역적임을 보여 줌으로써 그가 부도덕한 인물임을 강조한다. 이것은 주인공의 복수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장치가 된다.
- ⑤ '유충렬'이 '천사마'를 재촉해 서둘러 '변수 가'로 가자고 한 것은, '정한담'을 무찔러 '천자'를 구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주인공이 대리자와의 대결에서 적대자의 직접적인 대결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31~34]

최인훈, 「회색인」

해제 | 이 작품은 지적 독백과 관념적인 경향을 강하게 보여 주는 최인훈의 대표작 중 하나이다. 작가 스스로 이 작품을 두고 '통과 의례 규정들 자기 손으로 만들어야 하겠다'는 집념에 사로잡힌 어떤 원시인 젊은이의 공방(空房)의 기록'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작가의 자전적인 모습이 투영되어 있으면서도 한국 사회의 모순과 부조리를 날카롭게 드러냄으로써 지적이며 비판적인 성찰을 담아내고 있다. 특히 인물들의 관념적 사고와 논리적 사변을 통해 6·25 전쟁 이후의 젊은이들이 겪는 갈등과 고뇌를 잘 보여 주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주제 |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는 젊은 지식인의 소외 의식과 그 내면세계

전체 줄거리

1958년 어느 비 내리는 가을 저녁에 국문학도이자 소설을 쓰는 독고준의 하숙집으로 친구인 김학이 찾아온다. 학은 학술 동인지 『간한 세대』에 실린 준의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준에게 동인지 가입을 권하지만 준은 스스로를 현실에 뿌리내리지 못하고 방황하는 이데올로기의 피해자로 여긴다. 학은 정치학도로서 사회 변혁을 꿈꾸는 급진적 행동주의자인 데 반해, 준은 사색적이며 관념적이며 사회의 변혁에도 회의적이며 소극적이다. 준은 학이 떠난 뒤 떨어지는 빗방울을 바라보며 공상과 상상이 혼합된 관념의 여행을 떠난다. 어린 시절의 집과 밭과 학교, 그리고 아버지와 자신의 모습 등 회상과 사념(思念)의 여행 속에서 준은 이데올로기와 현실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그는 현실로부터 스스로를 소외시키며 적응하지 못하고 상념의 시간을 보내는 자신의 비극함과 소심함에 끊임없이 갈등한다. 생활고를 겪던 독고준은 매형이었던 현호성의 노동당원증을 찾아, 누이를 배신하고 월남한 후 자유당의 당원으로 출세하여 살아가는 현호성을 찾아간다. 준은 현호성의 집에서 숙식과 등록금을 해결하고, 미국 유학에서 돌아온 현호성의 처제인 이유정에게 연정을 품는다. 1959년 비 내리는 어느 여름날 저녁, 친구 김학이 준을 다시 찾아온다. 두 사람은 함께 술을 마시며 많은 이야기를 나눈다. 이야기 끝에 준이 한때 사랑했던 김순임에 대한 이

이야기가 나오자 한순간 분위기는 어색해지고 만다. 이야기 끝에 시간이 늦었다는 핑계로 김혁은 돌아간다. 친구를 보내고 난 독고준은 오랫동안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아래층에 있는 이유정의 방문을 열고 안으로 사라진다.

31 서술상의 특징 파악

정답 ①

정답 해설 이 작품은 이야기 외부의 서술자에 의해 이야기가 서술되고 있는데, 주로 중심인물인 '준'의 내면 의식에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가 서술되고 있다.

오답 해설

- ② 3인칭의 서술자에 의해 이야기가 서술되고 있으므로 사건 내부 서술자의 내적 독백은 나타나 있지 않다.
- ③ 이야기 내부 서술자가 아니라 이야기 외부 서술자에 의해 이야기가 서술되고 있다.
- ④ 공간의 이동에 따라 서술자가 달라지지 않는다.
- ⑤ 시간의 역전을 통해 인과 관계를 재구성한 서사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32 인물의 심리, 태도 파악

정답 ②

정답 해설 '그것들이 흡사 남의 살처럼 신기하게 만져졌다.'라고 한 것은 자신을 낯설게 느끼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으로, 그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자기 존재에 대한 불안감을 드러낸 것이다. 따라서 이것을 자기에 대한 애착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 ① ㉠은 '준'이 평소와 다른 집 안 분위기에 대해 의아하게 생각하다가 곧 전도사가 온 것을 깨닫게 되었음을 나타낸 것이다.
- ③ ㉢은 누구보다 가까워야 할 가족이지만 멀리 떨어져 소식조차 끊긴 상황을 '준'이 떠올리고 있음을 보여 준다.
- ④ ㉣은 멀리 떨어져 소식조차 모르는 가족이지만 단단하게 연결된 인연의 속박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보여 준다.
- ⑤ ㉤은 혈통을 축으로 하는 유교적인 자기상이 다소 약화된 현재의 상황을 제시한 것이다.

33 구절의 의미 이해

정답 ④

정답 해설 "국가"는 아무래도 거북하다. 그런대로 가문이나 씨족을 넓혀서 짐작할 수 있는 '민족'은 훨씬 알아먹기 쉽다.'를 통해 볼 때, '준'은 가족을 대신할 만한 체계로 국가보다 민족이 더 유용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 ① '유교의 원리는 곧 가족의 윤리'라고 하였으므로, 유교의 원리가 가족의 윤리를 민족의 윤리로 확장한 것은 아니다.
- ② 유교의 원리가 곧 가족의 윤리였기 때문에 지난날에는 '가족'을 중요한 체계로 삼아 왔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했다. 따라서 '국가'가 '가족'의 체계를 더욱 공고하게 만들어 주고 있다는 것은 '준'의 생각으로 보기 어렵다.
- ③ '가족'을 대신할 만한 체계로 '국가'보다 '민족'이 더 유용할 것이라고 했으므로, '가족'으로 인해 '국가'와 '민족'이 모두 설 자리를 점점 잃어 가고 있다는 것은 '준'의 생각으로 보기 어렵다.
- ⑤ 국가에 대한 거부감이 있으니 민족을 중심으로 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준'의 생각이다. 그러므로 민족에 대한 거부감으로 인해 사람들이 국가를 더 쉽게 받아들여지게 되었다는 것은 '준'의 생각으로 보기 어렵다.

34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 ①

정답 해설 방 안의 '난로'를 보고 '고향 집 아궁이에서 밤을 구워 먹던 먼 옛날'을 떠올린 것은 맞지만, 그것이 떠나온 고향으로 되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 ② '셋집' 자신의 방에서조차 '이름 모를 적막함'과 '저항할 수 없는 고달픔'을 느꼈다는 것은, 그 어디에도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는 '준'의 불안한 내면을 보여 주는 것이다.
- ③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싸움을 '어쭙잖은 일'로 평가한 것은, 그가 그 어느 쪽에도 속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경계인의 시선, 즉 흑백의 논리에서 벗어난 '회색인'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있음을 보여 준다.

- ④ '영감들'은 '자신을 가지고 무슨 일'을 했을 것이고 '새 세대'는 '값있는 반항의 자세'를 가졌을 것이라고 한 것은, 그 어느 세대에도 치우치지 않은 경계인의 시선으로 두 세대를 냉철하게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 ⑤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는 자기를 보게' 되는 것이 '늘 하는 버릇'이라고 한 것은, '준'이 관념 속에서 자기 성찰을 버릇처럼 자주 하고 있는 인물임을 보여 준다.

[화법과 작문]

35 발표 표현 전략 사용하기

정답 ⑤

정답 해설 발표자는 공장식 축산의 문제점에 대해 청중과 함께 배웠던 경험에서 자신이 느낀 바를 청중에게 전달하고 반응을 확인하고 있다.

오답 해설

- ① 청중에게 친숙한 사례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
- ② 발표 중간중간에 발표자가 질문을 하고 있지만, 청중의 질문을 유도하고 있지는 않다.
- ③ 청중이 어떤 내용에 대해 알고 있는지 묻고 있지만, 발표 내용에 대한 청중의 이해 정도를 확인하고 발표 내용을 수정하고 있지는 않다.
- ④ 발표 대상인 세포 배양육에 대해 소개하고 있지만, 청중에게 기대하는 바를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36 발표에서 자료, 매체 활용하기

정답 ②

정답 해설 [자료 1]은 세포 배양육 생산이 기존의 가축 사육 방식과 비교해 에너지 소비량, 토지 사용량에서 자원 소비가 적다는 것을 비교해서 보여 주며, ㉠에서 제시할 자료로 적절하다.

오답 해설

- ① 세포 배양육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여 주는 자료는 [자료 3]이고, ㉠에 제시하는 것이 적절하다. [자료 1]은 배양육 생산이 기존의 가축 사육과 비교하여 얼마나 환경적 효과가 있는지 보여 준다.
- ③ 햄버거에 사용하는 고기 형태로 만들어진 세계 최초의 세포 배양육을 보여 주는 자료는 [자료 2]이고 ㉠에서 제시하는 것이 적절하다.
- ④ 세포 배양육 생산이 기존 가축 사육 방식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는 [자료 1]이다.
- ⑤ [자료 3]은 소의 근육 위성 세포를 추출하여 세포 배양육을 만든다는 것을 보여 주는 자료이지만, ㉠에 제시하는 것이 적절하다.

37 발표 내용 이해, 평가하기

정답 ③

정답 해설 '학생 3'은 발표를 듣고 세포 배양육을 소비할 때는 윤리적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수정하고 있다. 자신의 배경지식에 비추어 발표 내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지 않다.

오답 해설

- ① '학생 1'은 세포 배양육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궁금했는데 이를 알 수 있어서 유익했다고 발표 내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 ② 발표자는 세포 배양육을 일상에서 접하기 힘든 이유를 언급하지 않았다. '학생 2'는 그 이유로 생산 비용이 많이 들고 안전성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추론하고 있다.
- ④ '학생 1'은 식물성 배양육을 만드는 방식을 조사하겠다고 하며, '학생 3'은 세계 육류 시장에서 세포 배양육이 어느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지 확인해 보겠다고 하며 발표 내용에서 궁금한 점을 더 탐색하려고 한다.
- ⑤ '학생 2'는 세포 배양육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지만 세포 배양육의 장점이 많다는 발표 내용을 접하고 세포 배양육을 긍정적으로 보게 되었다고 자신의 생각을 수정하고 있다. '학생 3'은 세포 배양육을 소비할 때 윤리적인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보았지만 세포 배양육의 윤리적 문제를 다룬 발표 내용을 접하고 그렇지 않다고 자신의 생각을 수정하고 있다.

38 설득 글쓰기 표현 전략 사용하기

정답 ⑤

정답 해설 중심 화제인 기부가 친사회적 행위라는 개념 정의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낮은 기부 비율이 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부족한 것으로 보고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오답 해설

- ① 특정 이론을 활용하여 현상을 분석하고 있지 않다.
- ② 청소년의 기부 참여가 필요함을 근거를 들어 뒷받침하고 있으나, 근거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있지는 않다.
- ③ 예상되는 반론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 ④ 중심 화제에 대한 인식의 변화 과정이 드러나 있지 않다.

39 설득 글쓰기 내용 생성하기

정답 ③

정답 해설 (가)의 3문단을 보면, 사회 복지 분야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고 있으나 그 내용은 기부는 금액의 많고 적음이 중요하지 않은 친사회적 실천이라는 것이다. 청소년이 기부할 수 있는 단체와 적절한 기부금의 한도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해설

- ① (가)의 1문단을 보면, 학교 학생회의 모금 행사 참여 학생 비율과 청소년 기부 참여 비율에 대한 2021년 통계청 조사 결과를 구체적 수치로 보여 주고 있다.
- ② (가)의 2문단을 보면, 학교 학생회의 모금 행사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이 경제적 여력이 없거나 기부에 관심이 없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는 설문 조사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 ④ (가)의 3문단을 보면, 기부 행위가 개인의 행복을 증진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 ⑤ (가)의 4문단을 보면,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기부가 가능해졌다는 점을 들어 기부 문화 정착에 동참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40 대화 맥락 분석하기

정답 ③

정답 해설 ‘학생 1’은 글의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제안하고 있지만, 대화의 맥락을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해설

- ① 청소년의 기부를 다른 초고를 검토하기로 했다는 대화의 목적을 밝히며 이에 대해 가감 없이 이야기해 보자고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 ② 글의 제목이 내용을 제대로 포괄하지 못한다는 대화 참여자의 발화에 대해 자신이 이해한 바를 질문을 통해 확인하고 있다.
- ④ 글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대화 참여자의 발화에 공감하면서 구체적인 수정 방향이 필요하다며 논의 방향을 제안하고 있다.
- ⑤ 글의 세부 내용에 대한 검토를 글의 처음, 중간, 끝의 순서대로 살펴보자고 대화에서 다룬 내용의 순서를 정해서 제시하고 있다.

41 대화 내용 이해, 평가하기

정답 ①

정답 해설 ‘학생 3’은 많은 청소년이 기부를 통한 효과를 경험하지 못해서 기부에 동참하는 비율이 낮다는 ‘학생 2’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의견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전문가의 견해를 추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오답 해설

- ② ‘학생 3’은 ‘학생 2’의 의견을 보완할 부분을 지적하고 있지만, 의견을 재진술하거나 문제 상황을 가정하고 있지는 않다.
- ③ ‘학생 2’는 ‘학생 3’의 의견을 질문을 통해 확인하고 있지만,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수용하고 있다.
- ④ ‘학생 2’는 ‘학생 3’의 의견에 동의하고 그 의견에 따라 글을 보완하겠다고 하였다.
- ⑤ ‘학생 2’는 ‘학생 3’의 의견이 실현되기를 바라는 자신의 소망을 덧붙이고 있지 않다.

42 설득 글쓰기 내용 점검, 조정하기

정답 ③

정답 해설 글의 중간에는 학생회 모금 행사에서 기부를 하지 않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의 참여 인원, 세부 응답 비율 등을 제시하자고 논의했다.

오답 해설

- ① 글의 제목은 청소년의 기부 참여를 권유하는 내용이 되어야 한다고 논의했다.
- ② 글의 처음은 청소년의 기부 참여 비율을 다른 연령대와 비교하는 내용을 간략하게 언급하는 정도로 수정하기로 하였다. 다른 나라 청소년의 기부 참여 비율에 대한 정보를 추가하자고 논의하지 않았다.
- ④ 청소년이 기부를 통해 이루어지는 사회적 효과를 경험하지 못해서 기부에 동참하는 비율이 낮다는 이유에 대한 근거로 전문가의 견해를 추가하자고 논의했다. 기부 행위가 기부한 개인의 자아 효능감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를 추가한다는 내용은 논의하지 않았다.
- ⑤ 글의 마지막 문장은 기부에 참여하기를 바라는 주체를 밝히고 청유형으로 마무리하자고 논의했다. 청소년 기부 문화의 정착을 위한 조건으로 수정하자고 논의한 것은 아니다.

43 정보 전달 글쓰기 내용 이해, 평가하기

정답 ⑤

정답 해설 (나)의 4문단에서, 지방 자치 단체 간 협력을 통해 해양 폐기물을 줄이는 체계 구축이 진행되고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지방 자치 단체 간 협력을 통해 해양 폐기물 발생을 예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언급은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 해설

- ① (나)의 1문단에서, 지역의 해양 폐기물이 관광객과 지역 주민들의 쓰레기 무단 투기 및 어업 관련 행위로부터 발생하고 있다는 원인과 대표적인 폐기물의 종류로 플라스틱을 제시하고 있다.
- ② (나)의 2문단에서, 플라스틱이 바다 생물의 서식지를 덮어 버려 바다 밑바닥이 썩고 더 이상 생물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변한 곳도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 ③ (나)의 3문단에서, 해양 폐기물은 주기적으로 발생하지 않고, 조기에 수거되지 않으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특성이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 ④ (나)의 4문단에서, 해변에 버려진 쓰레기를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캠페인이 시민 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44 정보 전달 글쓰기 자료, 매체 활용하기

정답 ⑤

정답 해설 [자료 I]에서는 다른 지역에서 흘러온 해양 폐기물로 인해 지방 자치 단체 간 분쟁이 발생할 조짐이 있음을 알 수 있고, [자료 II-2]에서는 지역의 연도별 해양 폐기물 수거량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이 지방 자치 단체를 중심으로 해양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구체화하고 있다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오답 해설

- ① [자료 I]을 보면, 전문가는 인터뷰에서 해양 폐기물은 해양 및 바닷가에 유입·투기·방치된 폐기물로 정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나)의 1문단에서 해양 폐기물의 개념을 추가해서 설명하는 데에 활용할 수 있다.
- ② [자료 II]를 보면, 신문 기사에서 다른 지역에서 흘러온 해양 폐기물로 인해 지방 자치 단체 간 분쟁이 발생할 조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해양 폐기물 처리 주체가 누구이냐를 둘러싼 갈등 사례이므로, 해양 폐기물의 처리를 둘러싼 갈등이 생기기도 한다는 (나)의 3문단에 활용할 수 있다.
- ③ [자료 III]을 보면, 지역의 해양 폐기물 유형 중 플라스틱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지역의 연도별 해양 폐기물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나)의 1문단에서 지역의 해양 폐기물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폐기물의 종류로 플라스틱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 ④ [자료 I]을 보면, 해양 생물종의 약 90%가 플라스틱 때문에 위협받고 있고, 바다 동물이 플라스틱을 먹으면 장기 손상으로 죽을 수 있으며, 면역 반응과 생식 능력이 감소되기도 함을 알 수 있다. [자료 III-1]에서는 플라스틱이 해양 폐기물 유형별 개수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해양 폐기물 중 플라스틱이 바다 생물에게 어떤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보여 주고 있으므로, 플라스틱이 바다 생물에 미치는 영향을 언급한 (나)의 2문단에 활용할 수 있다.

45 정보 전달 글쓰기 내용 생성하기

정답 ④

정답 해설 바닷속 플라스틱이 바다 생물뿐만 아니라 인간의 건강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교 학생들 역시 해양 폐기물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수 없음을 밝혀 그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그리고 해양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학생들도 함께 힘쓰자고 권유하고 있다.

오답 해설

- ① 해양 폐기물을 수거하는 방식으로 해양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실천에 학생들이 동참할 것을 권유하고 있지만, 해양 폐기물이 인간에게 미치는 위험성을 경고하는 내용은 없다.
- ② 해양 폐기물이 인간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지만, 해양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노력에 학교 학생들의 동참을 권유하는 내용은 없다.
- ③ 해양 폐기물 투기를 감시하는 방식으로 해양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실천에 학생들이 동참할 것을 권유하고 있지만, 해양 폐기물이 인간에게 미치는 위험성을 경고하는 내용은 없다.
- ⑤ 해양 폐기물로 수산 자원이 감소하면 인간 역시 식량난으로 고통받을 것이라는 내용은 (나)의 2문단에서 언급하고 있지 않다.

[언어와 매체]

35 단어의 구성 요소

정답 ③

정답 해설 '고기잡이'를 파생어로 보는 관점은, 직접 구성 요소를 '고기잡+-이'로 분석하는 관점이다. 그런데 이때 '고기(를) 잡-'은 단어가 아니라 구이다. <보기>에서 내부 구조가 이와 동일한 단어는 '연필(을) 꽂+-이'로 분석되는 '연필꽂이'와 '떡(을) 볶+-이'로 분석되는 '떡볶이'이다.

오답 해설

- ㉠ '홀이불'은 '홀+-이불'로 분석되는 파생어이다. 내부 구조에 구의 구성이 없으므로 내부 구조가 '고기잡이'와는 다르다.
- ㉡ '겉넓이'는 '겉+넓이'로 분석되는 단어이므로, 합성어이다.

36 단어의 구성 요소

정답 ④

정답 해설 '거짓말'은 직접 구성 요소가 '거짓+말'로 분석되는 단어이므로 합성어이다. 그렇지만 '거짓말쟁이'는 직접 구성 요소가 '거짓말'과 '-쟁이'로 분석되는데, 이때 '-쟁이'는 사람의 성질·습관 또는 행동·모양 등과 일부 직종을 나타내는 말에 붙어, 그러한 사람을 낮게 이르는 접사이다. 그러므로 '거짓말쟁이'는 합성어가 아니라 파생어이다.

오답 해설

- ① '높푸르다'는 '높다'의 어간 '높-'과 '푸르다'가 결합해 만들어진 합성어이다. 여기서 '푸르다'는 어간과 어미가 결합한 말이다.
- ② '다른'은 '갖은'과 마찬가지로 '다르다'의 활용형이 새로운 단어가 된 경우이다.
- ③ '잔소리꾼'은 파생에 의해 만들어진 단어인 '잔소리'에 다시 접사 '-꾼'이 결합해 만들어진 파생어이다.
- ⑤ '정말로'는 체언인 '정말'에 조사인 '로'가 결합하여 새로운 단어가 된 것이다. 이것은 '단숨에'와 마찬가지로 파생어나 합성어로 보는 것이 모두 어렵다.

37 인용절을 안은 문장

정답 ④

정답 해설 (가)의 ㄴ을 간접 인용절을 사용한 문장으로 바꾸면, '영희는 저기 있는 인형을 잡으며 자기는 그것이 좋다고 말했다.'가 된다. 또한 (가)의 ㄷ을 간접 인용절을 사용한 문장으로 바꾸면, '영희는 오늘 학교에서 자기는 전학을 가고 싶지 않다고 했다.'가 된다. 그러므로 (가)의 ㄴ과 ㄷ에서 인용절 속에 있는 주어 '나는'은 (나)의 ㄴ과 ㄷ에서 '자기는'으로 바뀌어 사용하게 된다. '자기는' 앞에서 이 미 말하였거나 나온 바 있는 사람을 도로 가리키는 말이다.

오답 해설

- ① (가)의 ㄱ을 간접 인용절을 사용한 문장으로 바꾸면, '영희는 어제 오늘 학교에 가고 싶다고 말했다.'가 된다. 그러므로 (가)의 ㄱ에 사용된 부사어 '내일'이 (나)의 ㄱ에서는 '오늘'로 바뀌게 될 것이다.
- ② (가)의 ㄴ을 간접 인용절을 사용한 문장으로 바꾸면, '영희는 저기 있는 인형을 잡으며 자기는 그것이 좋다고 말했다.'가 된다. 이미 이야기하여 서로 아는 사실을 가리키는 경우이므로 '그것'을 사용해야 한다. 그러므로 (가)의 ㄴ에 사용된 지시 대명사 '이것'이 (나)의 ㄴ에서는 '그것'으로 바뀌게 된다.
- ③ (가)의 ㄷ을 간접 인용절을 사용한 문장으로 바꾸면, '영희는 오늘 학교에서 자기는 전학을 가고 싶지 않다고 했다.'가 된다. 그러므로 (가)의 ㄱ과 ㄷ에서 인용절 밖에 있는 부사어 '어제'와 '오늘'은 (나)의 ㄱ과 ㄷ에서도 그대로 사용된다.

- ⑤ (가)의 ㄱ, ㄴ, ㄷ에서 인용절 뒤에 붙은 조사 '라고'가 (나)의 ㄱ, ㄴ, ㄷ에서는 종결 어미와 연결되어 각각 '싶다고', '좋다고', '않다고'로 바뀌게 된다. '라고'는 직접 인용임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이고, '고'는 간접 인용임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이다.

38 국어의 음운 변동

정답 ③

정답 해설 ㉠에서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ㄷ는 → /ㄷ는/) , 비음화(/ㄷ는/ → [당는])가 일어나는데, 이때 뒤 자음인 비음 'ㄴ'의 영향으로 비음이 아닌 자음인 'ㄱ'이 비음인 'ㅇ'으로 바뀐다. ㉡에서는 거센소리되기(문히다 → /무티다/) , 구개음화(/무티다/ → [무치다])가 일어나는데 이때 뒤 모음인 'ㅣ'의 영향으로 치조음인 'ㄷ'이 구개음인 'ㅈ'으로 바뀐다. 따라서 ㉠과 ㉡은 모두 뒤에 오는 음운의 영향으로 앞의 음운이 바뀐 것이다.

오답 해설

- ① ㉠에서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ㄷ는 → /ㄷ는/)과 비음화(/ㄷ는/ → [당는])가 일어나므로 총 두 번의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 반면 ㉡에서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여섯 량 → /여섯량/) , 두 번의 비음화(/여섯량/ → /여섯냥/ → [여섯냥])가 일어나므로 총 세 번의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
- ② ㉡에서는 구개음화(/무티다/ → [무치다])가 일어나므로 조음 위치가 바뀌는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 그렇지만 ㉠에서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여섯 량 → /여섯량/)과 두 번의 비음화(/여섯량/ → /여섯냥/ → [여섯냥])가 일어나므로 조음 방법이 바뀌는 음운 변동만 일어나고 조음 위치가 바뀌는 음운 변동은 일어나지 않는다.
- ④ ㉠에서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ㄷ는 → /ㄷ는/) , 비음화(/ㄷ는/ → [당는])가 일어나는데 탈락이나 첨가, 축약이 일어난 것이 아니므로, 음운의 개수에는 변화가 없다. 반면 ㉡에서는 거센소리되기(문히다 → /무티다/) , 구개음화(/무티다/ → [무치다])가 일어나는데 거센소리되기는 축약이므로 음운의 개수는 7개에서 6개로 하나 줄어든다.
- ⑤ ㉡에서는 음운이 축약되는 음운 변동인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나지만, ㉠과 ㉡에서는 축약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이 나타나지 않는다.

39 중세 국어의 문법

정답 ③

정답 해설 ㉡에 사용된 '-기'는 용언의 어간에 붙어, 명사 구실을 하게 하는 명사형 어미로 단어의 품사를 바꾸지 않았다.

오답 해설

- ① ㉠에 사용된 중세 국어의 '-샤-'는 주체 높임의 선어말 어미로, 문장의 주체인 '똥'을 높이고 있다.
- ② ㉡에 사용된 주격 조사 'ㅣ'는 중세 국어에서만 사용된 것으로, 주격 조사의 표기가 현대 국어와 달랐음을 알 수 있다.
- ④ ㉢에 사용된 접속 조사 '와'는 현대 국어에서는 물론 중세 국어에서도 사용되었다.
- ⑤ ㉣에 사용된 어미 '-디'의 자음인 'ㄷ'은 현대 국어로 오면서 'ㅈ'으로 바뀌었다.

40 매체 유형에 따른 특성

정답 ③

정답 해설 '동기화 설정'은 자신이 전자책에 표시하거나 설정한 내용을 같은 계정의 다른 기기에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기능이다. 따라서 '동기화 설정'을 활용하더라도 다른 계정을 사용하는 다른 사용자가 같은 화면을 함께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 ① '읽어 주기'는 음성 지원 시스템을 통해 전자책을 읽어 주는 기능이다. 따라서 이 기능을 활용하면 음성 언어로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으므로 책을 읽기 어려운 상황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 ② '설정'은 전자책 화면을 다양하게 바꾸어 주는 기능이다. 글꼴이나 글자 크기는 물론 화면의 밝기, 줄 간격 등을 사용자에 맞게 바꿀 수 있다. 따라서 이 기능을 사용해 글자 크기를 확대하면 작은 글자를 보는 데 어려움이 있는 사용자의 읽기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
- ④ '스크롤바'는 자신이 읽고 있는 부분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해 주고 사용자가 원하는 페이지로 쉽게 이동할 수 있게 해 주는 기능이다. 따라서 이 기능을 활

용하면 책에서 원하는 페이지로 쉽게 이동할 수 있어서 자신이 원하는 정보만 발췌해서 읽는 데 편리하다.

- ⑤ '각주'는 각주 표시를 누르면 해당 부분과 관련된 각주의 내용이 바로 화면 하단에 표시되도록 한 기능이다. 따라서 이 기능을 사용해 각주가 하단에 표시되도록 하면 책의 본문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추가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

41 수용자 특성

정답 ⑤

정답 해설 배너 광고에는 시각적 이미지와 함께 음향이나 음악 등도 활용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은 광고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이지, 시각적 이미지를 이용할 때보다 음악을 이용할 때 목표 수용자의 행동 변화가 쉽게 일어나기 때문은 아니다.

오답 해설

- ① 광고 매체로 인터넷 배너 광고를 선택한 것은, ○○구에 거주하는 고등학생들에게 인터넷 매체가 친숙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 ② 광고를 고등학교 누리집과 인터넷 동호회 카페에 게시하기로 한 것은, ○○구에 거주하는 고등학생들이 인터넷상에서 자주 방문하는 장소들이기 때문이다.
- ③ 청소년들의 관심이 많은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며,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가수들도 찬조 출연한다는 점을 광고의 내용으로 선정한 것은, 목표 수용자의 관심과 흥미를 가질 만한 내용으로 광고를 구성한 것이다.
- ④ 제목을 주변의 다른 글씨보다 크고 밝게 표현하도록 한 것은, 제한된 배너의 크기 속에서 광고의 핵심 내용이 목표 수용자의 시선을 끌 수 있도록 한 것이다.

42 언어적 표현과 심미적 가치

정답 ①

정답 해설 ㉠에서 조사 '에게'는 어떤 행동이 미치는 상대방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로, 친숙한 매체를 선택할 때 영향을 미치는 상대방이 '목표 수용자'임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한 것이다. 그리고 선택의 대상이 되는 것은 '목표 수용자'가 아니라 '친숙한 매체'이다.

오답 해설

- ② ㉠에서 '가령'은 앞에서 언급한 내용의 구체적인 예를 제시할 것임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한 부사로, 청소년들의 관심과 흥미를 끌 만한 것으로 광고의 내용을 구성해야 한다는 앞의 내용에 대한 예가 제시될 것임을 나타내고 있다.
- ③ ㉡에서 '보다'는 둘을 비교할 때 쓰는 부사격 조사로, 앞에서 언급한 매체보다 청소년들에게 더 친숙한 매체가 있음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였다.
- ④ ㉢에서 '바로'는 '중도에서 지체하지 않고.'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므로, 배너를 클릭하면 해당 광고 메시지에 지체 없이 연결됨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한 부사이다.
- ⑤ ㉣에서 부사 '물론'은 '말할 것도 없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므로,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당연히 단점을 지닌다는 점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한 부사이다.

43 매체의 유형에 따른 특성

정답 ①

정답 해설 (가)에서는 결혼하는 담임 선생님을 축하해 달라는 사연 신청자의 요청에 따라 진행자가 '선생님 결혼을 축하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사연 신청자가 요청한 노래도 틀어 주고 있다. 이를 통해 (가)에서는 사연 신청자의 요청을 반영하여 방송 내용을 생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 ② (나)에서는 서로 다른 공간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지만, 자신이 위치한 공간의 특성을 대화에 활용하고 있지는 않다.
- ③ (가)에서는 정해진 시간에 방송을 하고 있으므로 주어진 상황에 따라 정보를 전달하는 시간을 자유롭게 조절한 것은 아니다.
- ④ 준언어적 표현을 의사소통에 활용하고 있는 (가)와 달리, (나)에서는 의사소통에 준언어적 표현을 활용하지 못한다.
- ⑤ (나)의 경우 문자 언어로만 대화를 나누고 있으며, (가)의 경우 대화 참여자의 음성 언어를 문자 언어로 바꾸어 제시하지 않았다.

44 매체 언어의 의미 전달 방식

정답 ⑤

정답 해설 ㉠은 확정된 일정을 등록하는 기능을 활용해 대화방에 일정을 공유해 놓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대화방에서 구성원의 찬반 의견을 물을 수 있는 기능은 아니다.

오답 해설

- ① ㉡은 공유하고 있는 매체 수용의 경험, 즉 학교 방송을 들은 경험을 바탕으로 함께 해결해야 할 영상 제작 계획안 작성 과제를 '세현'에게 전달한 것이다.
- ② ㉢은 '찬문'이 중학교 때 방송반에 있었고, 영상 편집도 많이 해 봤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찬문'을 대화에 참여시킬 것을 '신경'에게 제안한 것이다.
- ③ ㉣은 대화에 새로 참여하는 '찬문'을 환영한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반가움의 뜻을 나타내는 그림을 활용한 것이다.
- ④ ㉤은 파일을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을 활용하여 축제 때 불렀던 노래 녹음 파일을 제공한 것으로, '세현'의 요청에 응한 것이다.

45 매체 언어의 표현 방법

정답 ①

정답 해설 (나)의 대화에서는 신입생이 두리번거리며 고민하는 표정이 잘 드러나게 상반신 위주로 찍어 첫 장면을 구성하자고 하였다. 그렇지만 영상 제작 계획에서는 여러 동아리방을 두리번거리는 신입생을 카메라가 뒤에서 쫓아가며 촬영해야겠다고 하였다. 카메라가 뒤에서 쫓아가며 촬영을 하게 되면 처음에 계획한 의도를 표현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것은 대화 내용이 잘 반영된 매체 생산 계획이라고 보기 어렵다.

오답 해설

- ② 온갖 동아리가 화려한 모습으로 서로 자기 동아리에 들어오라고 유혹하는 장면을 보여 주며, 이때 배우들이 각 동아리의 이름이 익명으로 적힌 명패를 목에 걸고 연기하도록 하자는 매체 생산 계획이 잘 반영되었다.
- ③ 한쪽 구석에는 신입생의 눈길을 받지 못하는 환경 사랑 동아리가 쓸쓸하게 있는 모습을 보여 주자는 매체 생산 계획이 잘 반영되었다.
- ④ 환경 사랑 동아리가 뒤죽박죽된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는 모습과 함께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구의 모습을 담은 사진 여러 장을 삽입해서 화면 위로 지나가게 하자는 매체 생산 계획이 잘 반영되었다.
- ⑤ 선배와 신입생이 함께 분리수거하는 화면과 함께 환경 관련 노래가 나오고 그 화면의 하단에는 번역한 한글 가사 자막이 나타나도록 하자는 매체 생산 계획이 잘 반영되었다.

01 ③	02 ⑤	03 ②	04 ③	05 ②
06 ①	07 ①	08 ②	09 ③	10 ③
11 ⑤	12 ④	13 ①	14 ①	15 ①
16 ④	17 ②	18 ④	19 ③	20 ①
21 ②	22 ①	23 ⑤	24 ②	25 ④
26 ⑤	27 ⑤	28 ②	29 ③	30 ③
31 ②	32 ②	33 ④	34 ①	
화법과 작문	35 ⑤	36 ⑤	37 ③	38 ③
	39 ⑤	40 ⑤	41 ④	42 ③
	43 ③	44 ④	45 ⑤	
언어와 매체	35 ③	36 ⑤	37 ①	38 ③
	39 ③	40 ②	41 ④	42 ②
	43 ⑤	44 ③	45 ③	

[01~06]

브레히트의 소격 효과 / 예술의 의미

㉠ 브레히트의 소격 효과

해제 | 브레히트는 '소격 효과'를 제시하면서 그의 작품에서 이를 실현하려 하였다. 소격 효과란 관객이 연극에 도취되어 무비판적으로 연극의 내용을 받아들이는 대신 비판적으로 연극의 내용을 음미하도록 객관화시키는 것이다. 브레히트는 소격 효과를 통해 관객이 사회 현상의 개선에 대해 생각하도록 하게 하려고 하였다.

주제 | 브레히트의 소격 효과

구성 |

- 1문단: 소격 효과의 개념
- 2문단: 소격 효과의 목적
- 3문단: 소격 효과를 위해 브레히트가 사용한 방법

㉡ 예술의 의미

해제 | 전통적인 예술관으로는 현대 예술의 개념에 대해 설명하기 어려웠다. 이에 대해 듀이는 완결성을 가진 '하나의 경험'이라는 개념을 제시하며 일상과 예술 경험이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예술 정의 불가론에서는 예술 작품들에 대한 정의를 포기하여 예술 작품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 이와 달리 디키는 예술이란 예술계로부터 예술 작품으로 인정받은 인공물이라는 제도론을 주장하였다.

주제 | 현대 예술의 가치에 대한 다양한 관점

구성 |

- 1문단: 예술에 대한 개념의 변화
- 2문단: 듀이의 예술론
- 3문단: 예술 정의 불가론과 디키

01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정답 ③

정답 해설 (가)는 연극을 관람하는 관객의 각성을 유도하는 브레히트의 소격 효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가)의 1문단에서 브레히트는 관객이 연극에 도취되는 것에 문제를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가)의 3문단에서 연극을 보면서도 비판 의식을 잃지 않고 연극의 내용과 연관되는 사회 현상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는 관점을 견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는 전통적인 예술론으로는 설명하는 데 한계에 부딪힌 현대 예술을 설명하기 위한 관점들을 소개하고 있다. (나)의 2문단에서는 존 듀이의 '하나의 경험', (나)의 3문단에서는 예술 정의 불가론이 그것이다.

오답 해설

- ① (가)와 (나) 모두 예술에 대한 이론들에 대해 종합적 결론을 도출하고 있지 않다.
- ② (가)와 (나) 모두 대립되는 예술관들이 수렴되어 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지 않다.
- ④ (나)는 모방론, 표현론, 형식론으로 예술의 하위 범주를 구별하여 나열한다고 할 수 있으나, (가)는 예술의 하위 범주를 구별하거나 구별의 기준이 되는 개념들을 나열하지 않는다.

- ⑤ (가)는 브레히트의 연극론과 관련돼 구체적인 사례가 제시된다고 할 수 있고, (나)는 존 듀이의 예술론과 관련돼 구체적인 사례가 제시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가)와 (나) 모두 다양한 이론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있지 않다.

02 세부 내용 파악

정답 ⑤

정답 해설 예술 정의 불가론에서는 예술 작품들의 유사성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예술 작품들 간의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 외에 예술에 대한 정의를 포기하는 방법으로 다양한 예술 작품을 받아들였다.

오답 해설

- ① (가)의 3문단에서 이전의 연극에서 노래는 연극 내용의 한 요소로 기능한 것이라고 하였다.
- ② (가)의 2문단에서 브레히트는 관객이 아무 생각 없이 수동적인 태도에 빠지게 하는 자연주의적인 방법을 배격하였다고 하였다.
- ③ (가)의 1문단에서 전통적인 관점은 연극 속에서 관객이 주인공의 운명으로부터 공포와 동정을 느끼면서 마치 스스로의 운명이 좌우되는 것처럼 흥분하여 카타르시스에 도달하는 것이 비극의 목적인다고 하였다.
- ④ (나)의 1문단에서 전통적인 예술은 모방론, 표현론, 형식론으로 정리되어 발전하였다고 하였다.

03 구체적 사례 적용

정답 ②

정답 해설 브레히트의 관점을 적용하면,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것 외에 즐거기가 파악되지 않는다는 것에서 관객은 극에 빠져들지 않고, 전쟁 직후라는 현실의 상황을 의식하고 개선하려는 생각을 갖는다고 평가할 수 있다.

오답 해설

- ① 전통적인 관점에서 관객은 연극에 도취되어 흥분이나 카타르시스를 느낀다. 그러나 <고도를 기다리며>의 대사는 무의미한 말장난이 대부분이며 유의미한 대화를 나누지 못해 관객이 연극에 도취되지 못한다. 따라서 흥분이나 카타르시스를 느끼기 어렵다고 서술할 수 있다.
- ③ 듀이는 예술의 경험이 심미적 경험 이후까지 완결성을 가진 '하나의 경험'이라고 하였다. 또 예술적 경험이 개인 경험을 넘어 공동체 내에서 소통이 가능한 형태로 표현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고도를 기다리며>를 관람한 경험이 하나의 흐름으로 완결되고 공동체 내에서 공유될 수 있다면 예술적 경험이라고 할 수 있다.
- ④ 디키는 예술계라는 어떤 사회 제도에 속하는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에 의해 인공물을 예술 작품으로 규정하는 제도론을 주장하였다. 따라서 디키에 따르면 <고도를 기다리며>를 예술계에 속하는 사람에 의해 예술 작품으로 규정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 ⑤ 예술 정의 불가론에서는 예술 작품 간에는 유사성 외에 예술에 대한 정의를 포기하는 방식으로 예술 작품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둔다. 따라서 <고도를 기다리며>가 다른 연극과 유사한 점이 있다는 점을 발견하여 예술 작품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04 세부 내용 파악

정답 ③

정답 해설 ㉠은 관객이 비판적으로 연극의 내용을 음미할 수 있도록 객관화시키는 것이고, ㉡은 연극자가 드라마 속의 인물에 이입되어 관객이 극 중 인물에 동화되는 것이다.

오답 해설

- ① ㉠은 관객이 극 중 인물의 욕망과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쓸리게 한다.
- ② ㉡은 관객이 아무 생각 없이 연극에 도취되는 대신 비판적으로 연극의 내용을 음미할 수 있도록 한다.
- ④ ㉠은 연극이나 드라마의 내용에 몰입을 유도하지 않는다.
- ⑤ ㉡은 사회 현상에 대한 개선을 생각하게 만들지 않는다.

05 다른 견해와의 비교

정답 ②

정답 해설 예술가의 심리적 상태를 표현한 것을 예술로 보는 입장은 전통적인 예술론 중 표현론에 해당한다. 듀이나 디키는 이러한 전통적인 예술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대 예술의 가치를 설명하려 하였다. 따라서 듀이와 디키는 현대 예술의 가치에 대해 예술가의 심리적 상태를 표현한 것과 관련지었다고 할 수 없다.

오답 해설

- ① 모방론, 표현론, 형식론으로 발전한 전통적인 예술은 현대 예술의 가치를 설명하기 어려웠다.
- ③ 듀이는 순수 예술이라는 환상 속에서 예술과 일상 경험을 괴리된 것으로 오인하는 태도를 비판하였다고 하였다. 이는 예술과 일상 경험이 다르지 않다고 본 것이다.
- ④ 예술의 경험을 듀이는 심미적 경험 이후까지의 완결성을 가진 하나의 경험으로 주장하였다.
- ⑤ 디키는 현대 예술의 가치를 예술계라는 어떤 사회 제도에 속하는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에게 의해 감상의 후보 자격을 수여받은 인공물을 예술 작품으로 규정하는 제도론을 주장하였다.

06 단어의 의미 파악

정답 ①

정답 해설 '결부되는가'의 '결부되다'는 '일정한 사물이나 현상이 서로 연관된다.'라는 의미이다. '정해지느니라'의 '정해지다'는 '결정되다'의 의미이다.

오답 해설

- ② '도달하는'의 '도달하다'는 '목적한 곳이나 수준에 다다르다.'의 의미이다.
- ③ '삽입하였다'의 '삽입하다'는 '글 따위에 다른 내용을 끼워 넣다.'의 의미이다.
- ④ '간주되었다'의 '간주되다'는 '상태, 모양, 성질 따위가 그와 같다고 여겨지다.'의 의미이다.
- ⑤ '괴리된'의 '괴리되다'는 '서로 어그러져 동떨어지다.'의 의미이다.

[07~10]

자기 조정적 시장에 대한 칼 폴라니의 견해

해제 | 이 글은 시장이 외부의 도움이나 간섭 없이 스스로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본 경제적 자유주의자들의 입장과 이에 대한 반론을 제기한 칼 폴라니의 견해를 소개하고 있다. 시장 원리를 인류 역사 전반에 적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사회 질서로 인식한 경제적 자유주의자들과 달리, 폴라니는 일반적인 시장의 개념과 자기 조정적 시장을 구분하고 비시장 경제가 인류에게 오히려 더 자연스럽고 보편적인 사회 질서라고 보았다. 그리고 19세기 사회에서 경제 활동이 비시장적인 동기들과 분리되어 철저하게 시장의 원리에 따라 작동되었던 것을 일시적이고 예외적인 현상으로 보았다. 그는 모든 것을 판매 대상으로 상품화하는 자기 조정적 시장의 원리만으로는 사회가 파멸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시장의 확대를 저지하여 인간과 사회를 보호하려는 사회 방어 운동이 이중적으로 이루어져 왔기에 19세기 사회가 내적 긴장을 지닌 채 유지되었다고 보았다.

주제 | 자기 조정적 시장의 한계와 사회 방어 운동

구성 |

- 1문단: 시장의 자기 조정 기능에 대한 경제적 자유주의의 견해
- 2문단: 자기 조정적 시장의 보편적 적용에 대한 비판
- 3문단: 노동, 토지, 화폐의 상품화에 대한 비판
- 4문단: 자유 시장 운동과 사회 방어 운동

07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정답 ①

정답 해설 1문단에서 시장이 외부의 통제 없이 시장의 질서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본 애덤 스미스의 견해와 그 견해를 계승한 경제적 자유주의자들의 견해를 소개하고 있다. 그런 뒤 2문단에서부터는 시장의 원리를 인류 역사 전반에 적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사회 질서로 인식한 경제적 자유주의자들의 견해에 대한 폴라니의 반론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시장에 대한 특정한 견해를 소개하고 이를 반박하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 ② 시장의 유형을 기능에 따라 분류하지 않았고, 시장 유형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있지도 않다.
- ③ 18세기 말부터 19세기 사회 경제에 대해 통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시장 정책의 기초가 변화해 온 과정을 통시적으로 고찰하고 있지는 않다.
- ④ 시장에 관한 여러 조사 방법을 나열하고 있지 않고, 시장을 조사하는 방법을 적용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고 있지도 않다.
- ⑤ 시장과 관련한 여러 학자의 주장을 설명하고 있지만 시장의 형성을 둘러싼 주장을 설명하고 있지는 않으며, 여러 주장을 포괄하는 새로운 이론을 설명하고 있지도 않다.

08 세부 내용 파악

정답 ②

정답 해설 경제적 자유주의자들은 생산, 교환, 분배의 모든 활동을 외부의 도움이나 간섭 없이 오직 시장 가격에 따라 조절하고 통제하는 자기 조정적 시장을 보편적인 것으로 인식하였고, 자기 조정적 시장을 통해서만 경제 행위의 안정성과 통일성을 획득할 수 있다고 믿었다. 3문단에 따르면 자기 조정적 시장에서는 생산의 결과물인 재화만이 아니라 생산에 필요한 모든 생산 요소가 상품으로 취급된다. 판매하기 위해 생산된 것이 아닌 노동, 토지, 화폐와 같은 것들을 시장에서 상품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본 사람은 경제적 자유주의자들이 아니라 폴라니이므로, 이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 ① 1문단에서 애덤 스미스는 개인이 합리적으로 사익을 추구하고 정부가 자유방임적인 정책을 수행하면 경제는 조화를 이루며 발전한다고 보았다.
- ③ 1문단에서 경제적 자유주의자들은 오직 가격에 따라 생산, 교환, 분배의 모든 활동이 조절되는 자기 조정적 시장을 통해서만 경제 행위의 안정성과 통일성을 획득할 수 있다고 보았다.
- ④ 2문단에서 폴라니는 유럽에서조차 봉건제가 종언을 고하기까지 대부분의 경제 체계는 시장 원리에 기초를 두었다기보다 호혜, 재분배, 집안 살림 등 주로 이윤이 동기가 아닌 경제 행위들에 바탕을 두고 조직되어 왔던 경우가 허다하다고 보았다.
- ⑤ 3문단에서 폴라니는 19세기 사회에서 경제 활동이 비시장적인 동기들과 분리되어 철저하게 시장 가격에 따라 조절되고 통제되면서 자기 조정적 시장의 면모를 보인 것을 예외적이고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았다.

09 세부 정보 추론

정답 ③

정답 해설 2문단에서 폴라니는 19세기를 제외한 대부분의 경제 체계에서 재화의 생산과 분배 활동이 비시장적인 원리에 따라 이루어져 왔다고 보았다. 또한 인간의 모든 경제 행위가 시장 원리에 따라 이윤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은 경제를 형식적 의미로 규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따라서 그가 경제를 형식적 의미가 아닌 실제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현실에서 인간의 경제 행위가 시장 원리보다 대부분 비시장적인 원리와 밀접하게 이루어져 왔다고 보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오답 해설

- ① 2문단에서 폴라니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으려는 것을 가장 합리적인 경제 행위로 규정하고 이 가정에 따라 인간의 모든 경제 행위가 이윤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은 경제를 형식적 의미로 규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따라서 인간이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으려는 성향을 보편적으로 지녀 왔다고 보지 않았으므로 ①의 근거로 적절하지 않다.
- ② 2문단에서 폴라니는 인간 사회의 대부분의 경제 체계가 호혜, 재분배, 집안 살림 등에 바탕을 두고 조직되어 왔다고 보았고, 교역, 거래, 교환하려는 성향은 사회 조직의 질서와 통합을 돕는 보조적인 기능에 머물러 왔다고 보았다. 따라서 인간 사회의 경제 체계는 사회 조직의 질서와 무관하다고 보지 않았으므로 ①의 근거로 적절하지 않다.
- ④ 2문단에서 폴라니는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일반적으로 시장이란 그 자체로 하나의 독자적인 경제 제도로서의 의미를 갖지 못하고 사회 속에 묻혀 있거나 시장이 아닌 정치 제도에 부속된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시장이 독자적인 경제 제도로서의 의미를 유지해 왔다고 보지 않았으므로 ①의 근거로 적절하지 않다.
- ⑤ 2문단에서 폴라니는 실제 인간의 경제 행위가 이윤을 동기로 해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회 속의 자유와 연대에 대한 지향 등 다면적인 욕망을 바탕으로 이루어져 왔다고 보았다. 따라서 인간의 경제 활동이 사회 공동체와 분리되어 오직 경제적인 이윤만을 동기로 작동해 왔다고 보지 않았으므로 ①의 근거로 적절하지 않다.

10 구체적 사례 적용

정답 ③

정답 해설 3문단에 따르면 폴라니는 노동이 인간 활동의 또 다른 이름이며, 인간 활동은 인간의 생명과 함께 붙어 있는 것이므로 판매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폴라니는 노동이 상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노동자의 임금이 오르지 않는 불균형이 발생한 이유를 노동이 상품으로서 값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은 폴라니의 입장이라고 할 수 없다.

오답 해설

- ① 1문단에 따르면 경제적 자유주의자들은 시장이 외부의 도움이나 간섭 없이 오직 시장 가격에 따라 생산, 교환, 분배의 모든 활동을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2문단에서 플라니는 시장의 자기 조정 기능을 비판적으로 바라보았다. 따라서 경제적 호황에도 소비와 생산의 불균형이 일어난 것은 시장 가격이 경제 활동을 제대로 조절하고 통제하지 못한 결과이므로, 시장의 자기 조정 기능의 한계를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 ② 2문단에 따르면 플라니는 자기 조정적 시장이 사회를 정치 영역과 경제 영역으로 제도적으로 분리해야 존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일반적으로 시장은 사회 속에 묻혀 있거나 시장이 아닌 정치 제도에 부속된 것이었다고 보았다. 또한 3문단에서 경제 활동이 비시장적인 동기들과 분리되어 철저하게 시장 가격에 따라 조절되고 통제되는 것을 예외적이고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그의 견해에 따르면 외부의 간섭 없이 자유방임적으로 운영된 시장이 대공황을 일으킨 것은 시장의 자기 조정 기능의 한계를 보여 주는 것이고, 시장이 철저하게 사회와 분리되어 존재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 ④ 4문단에 따르면 플라니는 시장의 무자비한 확대가 결국 사회를 파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따라서 실업이 늘고 소비가 줄어드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상황은 자유방임적 시장의 확대에 의해 사회가 파괴되는 과정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 ⑤ 4문단에 따르면 플라니는 정치와 사회 안에서 시장의 무자비한 확대를 저지하는 사회 방어 운동이 시장의 사회 파괴 작용을 저지해 왔다고 보았다. 따라서 자유방임적 시장의 확대에 대항하기 위한 뉴딜 정책은 일종의 사회 방어 운동이라고 볼 수 있다.

[11~14]

라돈 변환과 CT

해제 | 컴퓨터 단층 촬영인 CT는 피사체를 파괴하지 않고서 그 단면을 확인하는 기술이다. 피사체에 엑스선을 투과하면 내부의 물성에 따라 사이노그램을 구할 수 있는데, 이 과정을 라돈 변환이라 한다. 반대로 각기 다른 방향에서 촬영된 사이노그램에서 내부의 모습을 구하는 과정을 역라돈 변환이라 한다. CT 촬영은 역라돈 변환의 원리를 이용하는데, CT 영상을 더욱 정밀하게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역라돈 변환을 계산하는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단점이 있다.

주제 | 역라돈 변환을 통한 CT 영상 구현

구성 |

- 1문단: CT 촬영의 개념과 용도
- 2문단: CT 촬영의 원리
- 3문단: 라돈 변환 예시
- 4문단: 역라돈 변환을 통한 단면 영상 구현

11 세부 내용 파악

정답 ⑤

정답 해설 | 2문단에서 엑스레이 촬영은 한 방향에서 한 번 촬영되어 영상이 구현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원 모양을 따라 여러 각도에서 촬영된 영상을 하나의 영상으로 합성하는 것이 아니다.

오답 해설

- ① 2문단에서 뼈, 장기, 조직 등의 물성에 따라 엑스선의 투과율이 달라진다고 하였다.
- ② 1문단에서 CT는 촬영 결과값을 컴퓨터로 계산하며, 피사체를 파괴하지 않고서 그 단면을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하였다.
- ③ 4문단에서 수학적으로 n개의 미지수가 있을 때 이 미지수들로 이루어진 1차 방정식이 n개만큼 주어진다면 이 미지수들을 구할 수 있다고 하였다.
- ④ 라돈 변환은 내부의 격자값이 주어졌을 때 사이노그램을 구하는 과정이며, 역라돈 변환은 사이노그램이 주어지면 이를 통해 내부의 격자값을 구하는 과정이다.

12 구체적 사례 적용

정답 ④

정답 해설 | <보기>에서는 라돈 변환을 통해 $\begin{bmatrix} 1 & 1 \\ 1 & 1 \end{bmatrix}$ 과 $\begin{bmatrix} 1 \\ 1 \end{bmatrix}$ 의 사이노그램이 주어졌다. 그런데 단면이 $\begin{bmatrix} 1 & 1 \\ 1 & 1 \end{bmatrix}$ 에 해당한다면 사이노그램은 $\begin{bmatrix} 2 & 2 \\ 2 & 2 \end{bmatrix}$ 와 $\begin{bmatrix} 2 \\ 2 \end{bmatrix}$ 와 같이 구해

질 것이다. 따라서 $\begin{bmatrix} 1 & 1 \\ 1 & 1 \end{bmatrix}$ 과 $\begin{bmatrix} 1 \\ 1 \end{bmatrix}$ 의 사이노그램에 해당하는 단면은 $\begin{bmatrix} 1 & 0 \\ 0 & 1 \end{bmatrix}$ 이나 $\begin{bmatrix} 0 & 1 \\ 1 & 0 \end{bmatrix}$ 으로 구현될 수 있다.

오답 해설

- ① 4개의 1차 방정식이 주어졌으므로 4개의 미지수 A, B, C, D의 값을 구할 수 있다.
- ② 격자의 수를 늘린다면 미지수의 개수도 증가하여 더 정밀한 영상을 구현할 수 있게 된다.
- ③ 엑스선의 투과 방향을 바꾼다 해도 내부의 격자값은 변하지 않으므로 사이노그램의 값도 변하지 않는다.
- ⑤ 두 방향의 사이노그램뿐만 아니라, 다른 방향에서 사이노그램을 구한다면 미지수 A, B, C, D의 값을 더 정확히 알 수 있다.

13 내용의 인과 관계 파악

정답 ①

정답 해설 | CT 영상을 개선하기 위해 격자의 개수가 늘어나면 사이노그램의 격자 역시 늘어나야 한다. 그래야 역라돈 변환을 통해 CT 영상을 개선할 수 있다.

오답 해설

- ② 촬영 대상의 엑스선 흡수율이 낮아진다면 투과율은 높아진다. 따라서 ㉠에 표시되는 값들은 커진다.
- ③ 촬영 대상을 통과하기 전 엑스선의 양과 통과한 후 엑스선의 양을 비교하여 사이노그램을 구한다.
- ④ 여러 방향에서 촬영된 사이노그램이 주어진다면 역라돈 변환 과정에서 계산 시간은 길어진다.
- ⑤ 촬영 대상의 엑스선 투과율은 엑스선 흡수율과 반비례 관계이다. 따라서 투과율이 일정하면 흡수율이 높아지지 않는다. 이는 사이노그램을 구현하는 시간과 관련이 없다.

14 단어의 의미 파악

정답 ①

정답 해설 | '의료 현장에서 요긴하게 쓰이고 있다.'의 '쓰이다'는 '어떤 일을 하는데 데 재료가 도구, 수단 등이 이용되다.'라는 의미이다. '기계가 많이 쓰인다.'의 '쓰이다' 역시 같은 의미이다.

오답 해설

- ② '불어가 공용어로 쓰인다.'의 '쓰이다'는 '어떤 말이나 언어가 사용되다.'의 의미이다.
- ③ '적재적소에 쓰일 때'의 '쓰이다'는 '사람이 일정한 돈을 받고 어떤 일을 하도록 부려지다.'의 의미이다.
- ④ '신경이 쓰여'의 '쓰이다'는 '어떤 일에 마음이나 관심이 기울여지다.'의 의미이다.
- ⑤ '자금이 많이 쓰여서'의 '쓰이다'는 '어떤 일을 하는데 시간이나 돈이 들게 되다.'의 의미이다.

[15~17]

능숙한 독자의 독해 전략

해제 | 이 글은 능숙한 독자가 독해 과정에서 사용하는 대표적인 전략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능숙한 독자는 배경지식 활성화하기, 질문하기, 글의 구조 활용하기, 요약하기, 이해 점검하기 등의 전략을 독해 과정에서 활용한다. 배경지식 활성화하기에는 예측하기, 훑어보기 등의 전략이 사용되며, 질문하기는 배경지식 활성화하기와 결합해 독해에 시너지 효과를 낸다. 글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독자는 요약하기를 잘 수행한다. 이때 글의 구조를 활용한다. 능숙한 독자는 독해 과정에서 자신의 이해가 적절한지도 잘 점검한다. 이러한 일련의 전략들은 능숙한 독자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다.

주제 | 능숙한 독자가 독해 과정에서 사용하는 전략

구성 |

- 1문단: 능숙한 독자가 사용하는 대표적인 독해 전략의 종류
- 2문단: 배경지식 활성화하기, 질문하기 전략의 활용
- 3문단: 글의 구조 활용하기, 요약하기, 이해 점검하기 전략의 활용
- 4문단: 능숙한 독자가 되기 위한 요건

15 세부 내용 파악

정답 ①

정답 해설 1문단에서 독해 전략은 독자가 성공적인 독해를 위해 사용하는 '의식적으로 통제된 과정'을 의미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독해 전략은 독해 과정에서 자각하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다.

오답 해설

- ② 2문단에서 질문하기는 글을 읽기 전·중·후의 어느 단계에서 이루어져도 효과가 크다고 제시하고 있다.
- ③ 4문단에서 독해 전략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독자는 글을 읽으면서 독서 목적에 맞게 독해 전략을 사용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는 독서 목적에 따라 독해 전략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 ④ 2문단에서 능숙한 독자는 독해 전략을 활용해 배경지식을 활성화하지만 미숙한 독자는 그렇지 않다고 제시하고 있다.
- ⑤ 4문단에서 지속적으로 독해 전략을 점검하고 조정하는 것을 능숙한 독자가 되기 위한 요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16 구체적 사례 적용

정답 ④

정답 해설 ④는 전통 인형들의 다채로운 모습에 대한 내용을 흥미롭게 읽었다는 것이다. 이는 특정 내용에 관심을 기울인 것을 나타낸다. 상하 관계를 중심으로 글의 내용 요소들의 위계를 파악하는 데 독해의 중점을 둔 것을 보여 주는 내용이 아니다.

오답 해설

- ① ⑧는 책의 목차를 통해 예측하기를 했음을 나타낸다.
- ② ⑥에서 소재목을 중심으로 내용을 대략적으로 살펴봤다는 것은 훑어 읽기를 했음을 나타내며, 한국어 시간에 공부했던 고려와 조선 왕조의 연희에 대한 지식이 필요할 것 같았다고 말한 것은 어떤 배경지식을 활성화해야 하는지 떠올렸음을 나타낸다.
- ③ ③에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질문을 생성한 것인데, 이 질문은 인형극의 개념을 기존보다 폭넓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는 필자의 관점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다.
- ⑤ ⑥에서는 목차를 통해 알게 된 내용 구조를 고려하여 필자가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내용인 시대별 인형극의 특징에 대해 이해했음을 말하고 있다.

17 중심 내용 파악

정답 ②

정답 해설 3문단에서 요약하기를 할 때 글의 내용 요소 간의 위계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위계는 글의 구조를 활용하면 원활하게 파악할 수 있다. 글의 구조에 대한 지식을 활용함으로써 필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인데, 이는 요약하기를 위한 핵심 내용의 선별에 기여한다. 이는 요약하기에 글의 구조에 대한 지식을 활용하는 것이 함께 사용되면 좋다는 것을 나타낸다.

오답 해설

- ① 3문단에서 이해를 점검하는 활동은 독해 과정 전반에서 이루어지며, 이 과정에서 질문하기가 점검을 촉진하는 전략으로 사용된다고 제시하고 있다.
- ③ 글의 내용을 머릿속에서 조직화하는 것은 내용 요소 간의 위계를 잘 파악할 수 있게 도와준다. 이러한 위계 파악을 통해 일반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일반화를 통해 이루어지는 요약하기가 선행되어야 글의 내용이 머릿속에서 조직화된다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④ 배경지식 활성화도 이해 점검하기 활동과 함께 이루어질 수 있다.
- ⑤ 2문단에서 글을 읽기 전에 질문을 생성하면 배경지식 활성화 전략과 결합해 독해에 시너지 효과를 낸다고 말하고 있다.

[18~23]

선우휘, 「불꽃」 / 이강백, 「칠산리」

㉠ 선우휘, 「불꽃」

해제 | 이 작품은 일제 강점기부터 6·25 전쟁까지의 30여 년에 걸친 역사적 격동기를 배경으로, 3대의 수난을 통해 역사에 대한 체념과 순응주의를 비판하고 적극적으로 행동적인 삶의 태도를 형성하고 있다. 아버지의 저항 정신과 할아버지의 숙명론적 태도 사이에서 방황하던 주인공 '현'은 학병에서 탈주한 뒤 할아버지처럼 현실에 순응하며 살기로 한다. 그러던 중 좌우익의 대립과 인민재판이라는 냉혹한 현실을 목격한 그는 분노를 참지 못해 폭력을 행하고 결국 쫓기는 처지가 된다. 이후 할아버지

를 인질로 삼아 투항을 종용하는 '연호'에게 방아쇠를 당기게 된 그는 아버지의 적극적 태도를 삶의 지표로 선택하기로 결심하며 '생명의 불꽃'을 느낀다.

주제 | 소극적이고 무기력한 삶에 대한 반성과 적극적이고 실천적인 삶의 의지

전체 줄거리 |

주인공 현의 아버지는 3·1 운동에 참여하여 일경의 총을 맞고 뒷산 동굴로 피신하였다가 죽는다. 현의 할아버지인 고 노인은 그런 아들을 못마땅해하며 손자 현에게 지극한 관심을 쏟는다. 현은 기독교인 어머니와 전근대적 운명론자인 할아버지의 엄한 순응주의 교육 아래에서 자란다. 일본 유학에서 돌아온 이후 현은 학병으로 참전하였다가 탈주하여 고향에서 평범한 삶을 살고자 한다. 현은 고향에서 여학교 교사로 근무하면서 사상적인 부조리와 혼란을 경험한다. 그러다가 공산주의자가 되어 돌아온 친구 연호를 만난다. 연호가 인민재판을 주관하여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려 하자 현은 인민군의 총을 빼앗아 난사한 후 동굴로 피신한다. 연호는 현의 할아버지를 인질로 앞세워 동굴로 찾아오고, 할아버지는 현에게 도망치라고 외치다 연호의 총에 맞는다. 이후 연호와 서로 방아쇠를 당기게 된 현은 총을 맞고 흐려져 가는 의식 속에서 생명의 불꽃을 느끼며 현실에 정정당당하게 맞서며 살아갈 것을 결심한다.

㉡ 이강백, 「칠산리」

해제 | 이 작품은 빨치산의 자식이라는 이유로 산속에 버려진 열두 명의 아이들을 자식으로 거두어 희생한 어머니의 삶을 소재로 전쟁과 이데올로기 대립으로 인한 상처와 아픔을 그려 낸 희곡이다. 작품의 공간적 배경이자 제목이기도 한 '칠산리'는 6·25 전쟁 때 좌우익이 치열하게 대립했던 곳으로, 일곱 개의 산봉우리로 둘러싸인 마을이다. 이곳에서 어미는 빨치산의 자식들을 데려다가 기르고 자신은 굶어 죽는다. 시간이 흐른 뒤 마을 사람들은 빨치산의 소굴이라는 칠산리의 이미지를 지우기 위해 도로를 내어 마을을 개발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어미의 무덤을 없애고 그 무덤을 찾아오는 자식들을 내쫓기로 한다. 어미의 무덤 이장 문제를 사이에 둔 자식들과 마을 사람들의 대립을 통해 40여 년이 지난 오늘에도 분단의 상처가 여전히 치유되지 않고 있음이 드러난다. 하지만 버려진 빨치산의 아이들을 자식으로 품었던 어미의 포용, 희생, 모성애를 갈등과 대립을 해소하는 실마리로 제시함으로써 민족적 비극을 치유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제시된 본문은 칠산리 이장으로부터 아들의 사망 사실을 통지 받고 할미가 울부짖는 과거의 대목과 어미의 무덤 이장 문제로 칠산리에 방문한 장남이 아버지의 죽음과 관련하여 면장과 대화를 나누는 현재의 대목이다.

주제 | 전쟁과 이데올로기로 인한 대립의 극복

전체 줄거리 |

면장이 칠산리의 개발을 위해 자식들에게 어미의 무덤을 옮길 것을 요구하고, 자식들은 면사무소에 모여 무덤 이장을 거부하고 아직 오지 않은 형제들을 기다리며 과거를 회상한다. 과거의 칠산리, 아이를 낳지 못하는 어미는 간난이를 주워 오고, 할미와 함께 가난 속에서 힘겹게 살아간다. 어느 날 간난이는 산에서 버려진 아이들을 발견하여 어미에게 알리고, 어미는 아이들을 자식으로 거둔다. 빨치산의 자식들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마을 이장과 군인들이 찾아오지만 어미의 간곡한 부탁으로 그냥 돌아간다. 어미는 이웃 아낙들이 자신을 위해 가져온 팔죽을 자식들에게 먹이고 자신은 굶어 죽는다. 다시 현재, 형사들이 면장을 찾아와 막내가 찾아오면 신고할 것을 요청하고 면장은 자식들이 말썽을 일으키는 존재라고 생각한다. 오지 않은 형제들을 기다리며 무덤 이장 문제를 결정해야 할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자식들 간에는 의견 대립이 일어난다. 결국 자식들은 어미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칠산리가 될 수 있다는 장남의 의견에 따라 어머니의 유골을 화장해 나눠 갖기로 한다.

18 작품의 내용 파악

정답 ④

정답 해설 현은 고향에서 평범하게 살고자 했던 인물이며, 할아버지가 연호의 총에 맞아 쓰러지자 연호에게 총을 쏘게 된다. '가연은 연호, 연호와 나와는 아무런 원한도 없었는데'라는 부분에서 현이 연호에게 기존에 양심을 품은 일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 해설

- ① '이처럼 가혹한 숙명의 사슬에 영키도록 자기는 조상의 뼈를 묻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골수에 젖은 풍수 원리를 굳게 믿고 조상의 뼈다귀를 메고 다닌 지난날의 노력의 공허.'라는 부분에서 고 노인이 이전까지 풍수 원리를 굳게 믿어 조상의 못자리를 중시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 ② 고 노인이 '현아! 너는 살아야 한다. 저 대포 소리를 듣거라. 어떻게든지 여길 도망해서…….'라고 소리치는 부분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 ③ 현은 소총에서 불발탄을 끄집어낸 다음 탄환을 장전하여 연호에게 쏘았고, 이후 연호가 천천히 왼쪽으로 몸을 틀면서 숲속으로 굴러떨어지는 것을 목격한다.
- ⑤ 현은 연호의 총에 맞고 어깨에 피를 흘리면서 예전에 길가에서 보았던 어린 병사를 떠올리며 '그 어린 병사 대신 내가 그 길가에 누웠어야 했을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한다.

19 서술상의 특징 파악

정답 ③

정답 해설 [A]에서는 현의 내적 독백을 제시하여 충을 맞은 뒤 살인과 죽음에 대해 성찰하는 현의 내면 의식을 서술하고 있다.

오답 해설

- ① [A]에서는 연호, 어린 병사, 부친, 할아버지 등 다양한 인물을 떠올리는 현의 내면 의식을 서술하고 있다. 하지만 [A]에서 인물의 외양을 묘사하여 인물의 성격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 ② [A]는 현의 시점에서 서술되고 있다. [A]에서 서술자가 현에게 거리를 두고 그의 인행을 묘사하고 있지는 않다.
- ④ [A]에서는 현이 연호와의 관계를 떠올리며 자신의 실존과 과거에 대해 성찰하고 있다. [A]에서 다양한 인물로 서술자가 바뀌는 부분은 없다.
- ⑤ [A]에서 현은 부친과 할아버지 등을 떠올리며 죽음에 대해 성찰하고 있다. [A]에 여러 인물에 대한 현의 내면 의식이 서술되고 있지만, 특정 인물의 부정적 면모를 부각하기 위해 서술자가 논평을 덧붙이는 부분은 없다.

20 인물의 심리, 태도 파악

정답 ①

정답 해설 면장은 칠산리 이장, 아버지들이 속한 집단에 대해 장남과 서로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다. 면장의 발화 중에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장남의 발언에 동의를 표하고 있는 부분은 없다.

오답 해설

- ② 면장은 칠산리 이장에게서 기분 나쁜 소리가 들렸다는 장남의 기억에 대해 '그건 사실이랑이보다 왜곡된 기억일 겁니다.'라며 의심하고 있다.
- ③ 면장은 아버지들이 죽을 때엔 저쪽의 이념에도 동조하지 못했다는 장남의 항변에 대해 '그렇다면 뭐니까. 당신들의 아버지는 이쪽도 버리고 저쪽도 버렸다는 것입니까?'라며 자신이 이해한 내용을 따져 묻고 있다.
- ④ 면장은 아버지들이 대부분 감정적인 이상주의자들로 보인다는 장남의 발언에 대해 '당치 않은 말'이라고 말하며 장남의 아버지가 속한 집단을 '변명의 여지가 없'는 '철저히 사상 무장을 한 냉혈적인 집단'이라고 칭하며 적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⑤ 면장은 장남에게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어떻습니까?', '기억이 없는가요?', '기억은 있지만 사실대로 말하기가 싫은 겁니까?'라는 질문을 던져 아버지에 대한 말을 이끌어 내고 있다.

21 배경 및 소재의 기능 파악

정답 ②

정답 해설 (가)의 동굴은 현의 아버지가 충을 맞고 피신하여 죽어 간 공간이며, 현이 인민재판에 분노하여 충을 난사한 뒤 자신을 향한 위협을 피해 몸을 숨긴 곳이기도 하다. 또한 (나)에서 장남은 아버지들이 우선은 살기 위해서 칠산리 산속으로 도망쳤으며, 그곳에서 최후를 맞았음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과 ㉡은 모두 인물들이 궁지에 몰려 피신한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오답 해설

- ① (가)의 현은 ㉠에서 '불타는 생애의 의욕'을 느끼며 현실에 정당당당히 맞서며 살아갈 것을 다짐한다. 그리고 (나)의 아버지들은 자신들이 택한 사상으로 인해 ㉡으로 도망쳤다가 토벌대에게 죽임을 당한다. 따라서 ㉠과 ㉡을 인물들이 현실과 타협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없다.
- ③ ㉡은 아버지들이 토벌대에게 죽임을 당한 공간이므로 아버지의 죽음과 관련이 있다. 그리고 ㉠도 현의 아버지가 3·1 운동에서 충을 맞고 피신하여 죽어 간 공간이므로 아버지의 죽음과 관련이 있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 ④ ㉠은 공산주의자인 연호와 그의 사상적 행동에 대해 반발심을 표현한 현이 대립하는 공간이다. 그리고 ㉡은 사상으로 인해 도망자의 신세가 된 아버지들과 다른 쪽의 이념에 속한 토벌대가 폭력을 저지르며 대립한 공간이다. 따라서 ㉠과 ㉡은 모두 인물들 간의 이념 대립을 표상한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 ⑤ ㉡은 과거의 현실에서 아버지들이 도망친 공간이며 결국 토벌대에 의해 죽음을 맞이한 공간이다. 또한 ㉠은 현의 부친과 현이 몸을 숨긴 공간이다. 따라서 ㉠과 ㉡ 모두 인물들의 현실에 존재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22 극적 형상화 방식의 이해

정답 ①

정답 해설 <보기>에서 모든 등장인물은 무대 위에 각자의 위치가 정해져 있다고 하였다. 그래서 각각의 인물은 자신의 역할이 끝나면 제자리로 돌아가서 앉게 된다. ㉠은 할미가 과거의 시점에서 칠산리 이장을 내쫓으며 보이는 행동이다. 이후 이장이 퇴장하고 할미가 자식들과 자리로 되돌아가면서 장면은 현재로 전환된다. ㉡에서 할미가 주저앉은 것은 무대에서의 할미의 행동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이로써 장면이 현재로 전환되었다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 ② <보기>에서 자식들이 합창하면서 코리스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하였다. ㉢는 칠산리 이장을 내쫓는 할미의 말을 자식들이 메아리처럼 흉내 내어 합창하는 부분이므로, 자식들이 작품에서 코리스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 ③ <보기>에서 등장인물들은 각자 맡은 역할에 따라 무대 가운데로 나왔다가 역할이 끝나면 제자리로 돌아가서 앉는다고 하였다. ㉣는 칠산리 이장이 해당 장면에서의 마지막 대사를 하며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부분이므로, 해당 장면에서 그의 역할이 끝났음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 ④ <보기>에서 과거와 현재는 한 무대 공간 안에서 교차되며, 장면의 전환은 소품, 조명의 변화, 인물들의 이동으로 표현된다고 하였다. ㉤에서 조명이 바뀌면서 현재 장면의 면장이 무대로 등장하고 과거 장면의 이장이 제자리로 복귀하고 있으므로, 인물의 교차뿐만 아니라 조명에도 변화를 주어 장면이 전환되는 지점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 ⑤ <보기>에서 인물들은 각자 맡은 역할에 따라 해당하는 장면에서 무대 가운데로 나온다고 하였다. ㉥은 과거 장면에 등장할 어미와 자식들이 무대 가운데로 나오기 위해 일어서는 부분이므로, 인물이 등장할 것임을 예고하여 장면이 곧 과거로 전환될 것임을 암시한다고 할 수 있다.

23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 ⑤

정답 해설 (가)에서 현은 평범하게 살고자 했던 자신의 과거를 떠올리며 밤낮을 가림 없이 도피와 외면, 도주만을 하며 살아온 스스로를 '산송장'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 부분에서 현이 그동안 현실에 순응하며 평범하게 살아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나)에 따르면 아버지들은 모리배와 악질들이 판을 치는 현실에 거부감을 느끼고, 부자도 가난한 자도 없이 평등하게 살 수 있다는 저쪽의 이념을 택해 투쟁해 온 사람들이다. 그리고 면장의 말에 따르면 아버지들은 철저히 사상 무장을 한 냉혈적인 집단으로 비취지기도 한다. 따라서 (나)의 아버지들을 현실에 순응하며 살아온 사람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답 해설

- ① (가)의 고 노인은 그동안의 자신의 노력을 허탈하게 생각하던 중 어떤 종류의 감동을 느끼게 된다. 그런 뒤 그가 순수한 자기 자신의 의지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하나의 새로운 감정이 흘러'드는 것은 각성을 통해 인식이 전환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현은 기를 쓰는 반발의 감정 속에서 '새로운 힘이 움터 오르는 것'을 느끼고 자기 껍질이 깨뜨려지는 소리를 듣는다. 이 역시 각성을 통해 인식이 전환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 ② (가)의 고 노인은 현이 피신한 동굴을 올라다보며 자기의 팔십 생애를 돌아보며 새로운 결심을 내비치고 있다. 또한 현은 연호의 충에 맞고 희미해져 가는 의식 속에서 '불발에 그친 30년'이라며 자신의 과거를 떠올리고 있다. 이는 모두 인물들이 자신의 실존을 성찰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 ③ (나)의 장남은 한 세상에 양쪽이 함께 살 수는 없다는 생각을 가졌다는 것이 칠산리 이장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는 표면적으로 한쪽의 이념을 택해 다른 쪽을 뿌리 뽑고자 했던 칠산리 이장의 행동의 내막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장남은 아버지들이 이념보다 우선은 살기 위해서 칠산리 산속으로 도망쳤다고 그 이유를 밝히고 있다. 이는 철저히 사상 무장을 하고 산속에 숨어든 행동의 내막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 ④ (가)의 '어느 하나의 선택을 재촉하는 저 소리'는 풋소리로, 이념으로 인한 갈등과 폭력을 형상화하는 소리이다. 또한 (나)의 아버지들이 '토벌대에게 죽음을 당한' 것은 이념 대립이 사람들을 결국 죽음에까지 이르게 했다는 점에서 현실의 폭력성을 암시한다. 따라서 이들 모두 폭력적인 사회 현실의 모습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24~27]

신광수, 「단산별곡」

해제 | 「관동별곡」에 영향을 받아 창작된 「단산별곡」은 신광수가 영월 부사로 재직 중 이던 1773년경 단양의 절경을 답방하고 지은 국한문 혼용체의 유람 기행 가사이다. 단양 부사로 부임한 화자는 단양 지역의 명승들을 차례로 찾아가는데, 이 과정에서 유람 동기, 부임 여정, 유람 소회 등이 나타난다. 단양 산수의 풍광과 정취를 다양한 수사와 표현 기교를 통해 노래한 이 작품은, 충청 지역 유람 기행 가사를 대표하는 작품 가운데 하나로 손꼽힌다.

주제 | 단양 팔경 유람과 그에 대한 소회

구성 |

- 서사(1~18구): 단양 부사로 부임
- 본사(19~174구): 단양 팔경 유람
- 결사(175~198구): 단잠에서 깨어남.

24 표현상의 특징 파악

정답 ②

정답 해설 '씻어 볼까'의 의문 형식을 활용하여 새로운 부임지인 단양으로 옮겨 가면서 '영운사 호남 제수'로 익숙했던 '후텋지근한 바다' 기운을 씻어 볼까 기대하고 있다.

오답 해설

- ① '풍광 사랑 고질병'과 '산수 사랑 불치병'이 대구를 이루고 있지만 이는 모두 화자가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나타낸 것이지 내적 갈등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다.
- ③ '채운봉 반기는 듯'에서 산봉우리에 감정을 이입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오랜만에 관직을 받아 돌아온 단양 땅에 대한 반가움을 나타내는 것이지 물아일체의 삶에 대한 자부심을 부각하는 것이 아니다.
- ④ 운암촌의 모습을 '우탁 놀던 바위 아홉 첩 구름 병풍을 열었'다고 우탁을 떠올리고 있지만 이것이 현실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 인식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 ⑤ '백 층 탑을 쌓아 올렸'다는 것은 오랜 시간 동안 높게 솟은 바위를 보고 감탄하는 표현으로, 인생에 대한 깨달음을 보여 주는 것이 아니다.

25 시어, 시구의 의미와 기능 파악

정답 ④

정답 해설 ㉔에서 술잔을 띄웠다는 것은 화자가 술을 마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자연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며 풍류를 즐긴다고 할 수 있다. ㉕에서 탁주로 반쯤 취한 것은 화자가 술을 마시고 취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으며, 자연 속에서 인간 세상의 부귀영화가 뜬구름과 같다고 느끼고 있다.

오답 해설

- ① ㉔는 세상과의 거리로 인한 기쁨을 잊게 하는 것이 아니다. 세상과의 단절로 인한 슬픔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㉕는 슬픔을 잊게 하는 것이 아니다.
- ② ㉔와 ㉕ 모두 술을 마시며 풍류를 즐기는 호방한 기상이 드러나고 있다.
- ③ 이 작품은 장소의 이동에 따라 여정이 이어지고 있으나, ㉔가 여정을 구분하는 것은 아니다.
- ⑤ ㉔와 ㉕ 모두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지 않다.

26 배경 및 소재의 기능 파악

정답 ⑤

정답 해설 화자는 '우레'와 같은 청각적 심상으로 '쌍룡 폭포'의 웅장하고 역동적인 모습에, '비를 갑옷'이 날리는 듯한 시각적 심상으로 '와룡암 누운 폭포'의 화려하고 역동적인 모습에 감탄하고 있다. '와룡암 누운 폭포'의 모습에서 안정감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

오답 해설

- ① '중선암'과 '상선암' 모두 계곡의 절묘한 풍광으로 화자는 바위와 물이 만든 아름다운 절경에 감탄하고 있다.
- ② 화자는 '중선암'의 맑은 물에 가을 하늘과 구름이 비치어 위아래로 어린 빛에 감탄하고 있다.
- ③ '영험한 근원 찾으리라 상선암 올라가니'에서 '영험한 근원'은 하늘이 비친 '가을 물 차가운 연못'의 근원이다. 화자는 이 '근원'을 확인하고 싶어 상류로 올라간다.
- ④ '절벽 층층 누대는 귀신 솟씨로 깎아 놓고'는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깎은 듯한 절묘한 모습에, '경천벽 높은 돌은 누구 손으로 받치고 있는가'는 높이 솟아 쓰러질 듯 누군가 떠받치고 있는 절묘한 모습에 화자는 감탄을 하고 있다.

27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 ⑤

정답 해설 '상산사호'와 만나기를 기대하며 '사선대'를 바라보는 것에서는 신선이 된 네 명의 은자를 만날 것을 기대하는 화자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실제의 화자와 가상의 화자가 중복되어 나타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오답 해설

- ① '성은이 지극하시어' '단양에 목수를 빌렸'다는 것에서는 왕명을 받들어 목민관이 된 실제의 화자가 드러나고 있다.
- ② '관아 일이 한가'한 때 '선유동'을 거쳐 '하선암에서 쉬었'다는 것에서는 선유동과 하선암을 거치는 공간적 변화가 드러나며, 공간적 변화에 따라 화자가 목민관에서 여행자로 바뀌고 있다.
- ③ '신선의 연못'에서 '선경 복숭아를 옥쟁반에 담'은 듯 '둘러앉아' 밥을 먹는다는 것은 스스로를 신선이라고 상상하는 가상의 화자가 나타나고 있다.
- ④ '수일암'을 지나 '운암촌 다다르'는 것에서는 실제의 화자가 이동하는 경로가 드러나 기행 가사의 특징을 보여 주고 있다.

[28~30]

서정주, 「춘향 유문 - 춘향의 말 3」 / 송수권, 「산문에 기대어」

㉔ 서정주, 「춘향 유문 - 춘향의 말 3」

해제 | 이 시는 소설 「춘향전」을 모티브로 하여 전개되며, 죽음을 앞둔 춘향이 도련님에게 남기는 유서 형식의 작품이다. 춘향은 도련님과의 행복했던 시간을 떠올리며 작별 인사를 건넨다. 그리고 '검은 물'과 '구름', '소나기'로 연결되는 자연 현상의 순환 과정을 통해 도련님과의 재회에 대한 믿음을 드러낸다. 이는 불교의 윤회 사상을 바탕으로 도련님을 향한 사랑이 죽음을 초월하여 영원할 것임을 강조한 것이다.

주제 | 죽음을 초월한 영원한 사랑

구성 |

- 1연: 춘향의 작별 인사
- 2연: 임의 안녕에 대한 기원
- 3연: 죽음을 초월한 사랑
- 4연: 시·공간의 한계를 초월한 사랑
- 5연: 영원한 사랑의 강조

㉕ 송수권, 「산문에 기대어」

해제 | 이 시는 불교의 윤회 사상을 바탕으로 죽은 누이에 대한 그리움과 한을 재회에 대한 소망으로 승화된 작품이다. 화자는 가을 산의 풍경에서 죽은 누이를 떠올리며 누이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정서를 노래한다. 죽은 누이에게 슬픔을 느끼기도 하지만 화자는 '물속에서 튀는 물고기', '임새에 살아서 튀는 물방울' 등과 같이 누이가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게 될 것을 믿고 있다. 이러한 믿음을 바탕으로 화자는 슬픔을 새로운 만남에 대한 소망과 확신으로 승화한다.

주제 | 죽은 누이에 대한 그리움과 재회에 대한 믿음

구성 |

- 1연: 죽은 누이에 대한 그리움과 한
- 2연: 죽은 누이와의 재회에 대한 기대와 믿음
- 3연: 죽은 누이와의 재회에 대한 확신

28 표현상의 특징 파악

정답 ②

정답 해설 (가)의 화자는 도련님, (나)의 화자는 누이라는 특정한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자신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오답 해설

- ① (가)의 화자는 자신이 죽어서 '검은 물'이나 '구름', '소나기'로 환신할 것을 가정하고 있다. 하지만 자연물에 감정을 이입하고 있지는 않다. 그리고 (나)도 자연물에 감정을 이입하여 일체감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
- ③ (나)는 마지막 연에서 '누이야 아는가'와 '가을 산 그리메에 ~ 비쳐 옴을'을 도치하여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가)의 마지막 연에서는 도치의 방식으로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지 않다.
- ④ (가)와 (나)는 모두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고 있지 않다.
- ⑤ (가)는 '오월 단옷날'을 언급하여 화자가 도련님과 함께했던 봄의 장면을 형상화하고 있다. 그리고 (나)는 '가을 산 그리메'를 언급하여 화자가 죽은 누이를 떠올리고 있는 가을의 장면을 형상화하고 있다. 그러나 (가)와 (나)는 모두 계절의 순환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지 않다.

29 배경 및 소재의 기능 파악

정답 ③

정답 해설 ㉠은 화자가 과거에 도련님과 처음 만났던 장면과 관련이 있으며 도련님을 나타내는 소재이기도 하다. 그리고 ㉡은 가을 그리메의 어두운 이미지와 어우러져 누이의 모습을 떠오르게 하는 소재이다. 따라서 ㉠과 ㉡은 모두 상대방의 모습을 떠오르게 하는 소재라고 할 수 있다.

오답 해설

- ① ㉠은 과거의 도련님의 모습을 형상화한 소재로, 도련님에 대한 애뜻함이 담겨 있는 소재일 뿐, 화자가 내면을 성찰하게 하는 소재는 아니다.
- ② ㉡은 죽은 누이의 모습을 떠오르게 하는 소재로, 화자의 안타까움이 담겨 있는 소재이다. (나)의 화자는 누이와 재회하게 될 것을 믿고 있지만, ㉡을 통해 자신의 미래를 상상하고 있지는 않다.
- ④ (가)의 화자는 죽음을 앞두고 ㉠을 떠올리며 도련님에게 작별 인사를 건네고 있고, (나)의 화자는 ㉡을 통해 죽은 누이를 떠올리고 있다. 두 시의 화자는 상대방과 재회하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이러한 기대감을 ㉠과 ㉡을 통해 갖게 되는 것은 아니다.
- ⑤ (가)와 (나)에서 화자가 이상과 현실 간의 괴리감을 드러내는 부분은 없다.

30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 ③

정답 해설 (가)의 '천 길 땅 밑을 검은 물로 흐르거나'는 춘향이 죽은 뒤 저승에서 환신하게 될 것을 가정한 구절이며, 도련님을 향한 사랑이 저승에서도 영원할 것임을 나타낸다. 또한 (나)의 '돌로 살아서 반짝여 오던 것을'은 그리운 누이와 다시 재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화자의 소망이 담긴 표현이다. 따라서 죽음에 대한 슬픔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오답 해설

- ① (가)의 화자는 저승에 대해 자신의 사랑보다 더 먼 '딴 나라'는 아마 아닐 것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자신이 죽은 이후에도 임을 향한 자신의 사랑이 계속될 것임을 강조한 것이다.
- ② (나)의 화자는 죽은 누이를 떠올리며 슬퍼하고 있다. '정정한 눈물'은 화자의 슬픔을 의미하며 이를 '돌로 눌러 죽'인다고 한 것은 슬픔을 견디려는 화자의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 ④ (가)의 '구름'과 '소나기'는 자연의 순환 과정을 통해 죽은 뒤에 부활할 새로운 자신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다. 그리고 (나)의 '눈썹 두어 날'은 죽은 누이를 나타내므로 '지금 이 못물 속에 비쳐 옴을'은 죽은 누이가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게 될 것을 형상화한 것이다.
- ⑤ (가)의 '춘향은 틀림없이 거기 있을 거예요!'는 죽은 이후에도 소나기로 세상에 내려 도련님과 재회할 것에 대한 춘향의 믿음을 드러낸 것이다. 그리고 (나)의 '물방울같이 / 그렇게 만나는 것을'은 죽은 누이가 새로운 생명으로 세상에 부활하여 재회할 것이라고 여기는 화자의 믿음을 드러낸 것이다.

[31~34]

목태림, 「종옥전」

해제 | 목태림이 1803년 가을 와룡산 산암에서 종옥의 이야기를 듣고 기록한 것을 후에 가필하여 지어진 이야기로 전해진다. 「배비장전」이나 「오유란전」과 같은 세대 소설과 달리 형식적 측면에서 「종옥전」에는 20수의 시가 삽입되어 있어 주인공들의 감정과 심리가 함축적으로 표현되는 특징이 있다. 주제적 측면에서는 양반의 허위의를 드러내다가보다 본성을 억누르는 경직성에 대한 반성을 촉구한다고 할 수 있다.

주제 | 인간의 본성을 억누르는 경직성에 대한 반성

전체 줄거리 |

종옥이라는 소년이 원주 목사로 부임하는 숙부를 따라 집을 나서고 그곳에서 학문에만 열중한다. 어느 날 숙부가 종옥의 부친으로부터 온 편지를 보이며 서울로 가 결혼을 하라고 권한다. 이에 종옥은 학문이 대성하고 등과할 때까지는 결혼하지 않겠다고 거부한다. 숙부는 종옥의 고지식함을 고쳐 주기 위해 향란이라는 기생으로 하여금 종옥을 유혹하라는 명한다. 향란의 적극적 유혹에 종옥은 사랑에 빠진다. 숙부는 종옥의 부친이 위독하다는 편지를 위조하여 종옥을 서울로 떠나게 하고, 다시 꾀쳐했다는 편지를 위조하여 종도에 종옥을 돌아오게 한다. 그사이 향란을 죽은 것처럼 꾸미고, 향란을 귀신으로 변장시켜 다시 사랑을 나누도록 한다. 자신조차 귀신이 된 줄 안 종옥은 중앙절 잔치날 숙곳 바람으로 잔치에 갔다가 망신을 당하면서 상황을 자각하고, 이후 고지식함을 버리고 혼인하며 향란을 첩으로 들여 잘 살았다.

31 작품의 내용 이해

정답 ②

정답 해설 김 공은 병풍 뒤에 향란을 숨겨 두고 종옥을 불러 요사이 요귀를 가까이하지 않았느냐고 묻는다. 김 공은 종옥을 속이기 위해 향란과 작당을 하였다. 따라서 종옥의 용모와 행동이 요귀를 가까이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다.

오답 해설

- ① '향란이 죽지 않고서도 죽었다고 한 것은 내가 시켜서 그런 것이다. 네가 귀신이 아닌데도 귀신이라 한 것은 향란의 꼬임에 넘어가서 그런 것이다.'라는 김 공의 말에서 향란이 자신과 종옥이 귀신이 되었다고 거짓말을 했음을 알 수 있다.
- ③ '김 공이 옥으로 만든 먼지떨이 끝을 휘둘러 병풍을 치면서 부르니, 한 미인이 병풍 뒤로부터 나와서 교태를 머금고 수줍어하며 김 공 앞에 와서 절을 하였다.'라는 것에서 향란을 미리 병풍 뒤에 숨겨 두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④ '부모의 연세가 이미 많으셔서 돌아가실 날이 머지않으셨거늘, 너는 특히 외아들이니 일찍 결혼하는 것이 더욱 마땅하다. 아름다운 아내와 아이들로 하여금' 부모님을 공경하여 기쁘게 하라는 김 공의 말에서 종옥의 부모는 종옥이 결혼을 하여 가정을 꾸리기를 희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⑤ '네가 결혼할 나이를 당하여 집에서 다시 온 편지에 '모처와 결혼하기로 정했다'고 하니, 너는 서울로 올라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김 공의 말에서 김 공은 종옥이 본대로 돌아가 결혼하기를 권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2 인물의 심리, 태도 파악

정답 ②

정답 해설 종옥의 학문이 성취되고 난 후에 결혼하겠다는 대답을 듣고 김 공이 크게 웃고 있다. 이는 기대했던 대답을 들어서 속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낸 것이 아니다. 종옥이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태도를 보이자 그 생각이 가소로워 웃는 것이다.

오답 해설

- ① 서울로 돌아가 결혼을 하라는 권유에 자신의 생각을 진지한 태도로 드러냈다.
- ③ 연정으로 돌아온 종옥은 '내가 성숙하지 못한 아이로서 요귀에게 속'았다고 스스로 탄식하고 책망하며 반성하였다.
- ④ 학문을 이루기 전까지는 결혼하지 않겠다고 말과 달리 향란과 사랑에 빠져 함께 지냈음을 고백하였다.
- ⑤ 김 공은 종옥을 깨우치기 위해 자신의 명을 따른 향란이 종옥에게 곤란을 당할 것을 염려하여 향란은 자신이 시킨 일만을 했다고 말했다.

33 소재의 기능 파악

정답 ④

정답 해설 결혼하기로 정하였다는 편지를 계기로 김 공과 종옥의 결혼에 대한 서로 다른 생각이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편지'는 김 공과 종옥의 서로 다른 생각이 드러나는 계기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오답 해설

- ① 미래에 인물에게 일어날 일을 예고하고 있지 않다.
- ② 편지를 통해 인물 간의 관계가 확인되고 있지 않다.
- ③ 김 공이나 종옥이 자신의 입장을 강화하는 수단이 되고 있지 않다.
- ⑤ 김 공이나 종옥에게 일어날 사건들의 비현실적 성격을 강화하고 있지 않다.

34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 ①

정답 해설 종옥이 '장성하고 학문이 성취됨을 기다'리겠다고 말하며 결혼을 거부하는 것은 윤리 규범에 매몰된 경직된 자세를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오답 해설

- ② 결혼을 하라고 권하는 김 공에게 '서전'과 '예기'를 인용하며 '구구한 사정' 때문에 명을 좇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당시 사회에 팽배하였던 엄격한 규범을 보여 주는 것이다.
- ③ 귀신과 사랑을 나누는 것이라 착각하고 있는 종옥을 불러 김 공이 '너의 마음을 숨기지 말'라고 타이르는 것은 자신의 본성을 억누르지 말고 솔직하게 말하라고 권고하는 것이다.
- ④ 김 공이 향란이 죽어서 '귀신이 되었음을 알'면서도 '미혹됨이 이와 같으'냐고 종옥을 꾸짖는 것은 여색에 대한 탐닉이 지나쳤음을 꾸짖는 것으로 과도한 탐닉을 경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⑤ 김 공이 종옥에게 '다시 혼인을 사양하'겠느냐고 묻는 것은 아직도 경직된 삶의 자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겠느냐고 일깨우는 것이다.

[화법과 작문]

35 발표 내용 이해, 평가하기

정답 ⑤

정답 해설 발표에서 발표 대상인 계영배, 사이편과 관련된 역사적 사건을 제시하여 청중의 흥미를 유발하는 부분은 없다.

오답 해설

- ① 5문단에서 □□ 과학관 누리집에 게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발표했음을 밝히며 정보의 출처를 언급하여 발표 내용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 ② 1문단에서 '과유불급'의 뜻을 아는지 질문하여 계영배에 담긴 교훈에 대한 청중의 주의를 환기하고 있다. 그리고 2문단에서 계영배의 잔과 일반적인 잔의 다른 점을 찾았는지 질문하여 계영배의 구조에 대한 청중의 주의를 환기하고 있다.
- ③ 5문단에서 계영배에 대기압과 액체의 압력, 중력의 상관관계를 이용한 사이편의 원리가 담겨 있다고 발표 내용을 요약하여 제시하면서 계영배에 담긴 사이편의 원리와 과유불급의 교훈을 강조하고 있다.
- ④ 2문단에서 계영배라는 이름에 담긴 뜻을 설명하여 계영배에 대한 청중의 이해를 돕고 있다. 그리고 3문단에서 사이편이라는 용어의 개념을 설명하여 사이편에 대한 청중의 이해를 돕고 있다.

36 발표에서 자료, 매체 활용하기

정답 ⑤

정답 해설 [자료 3]은 단순하게 표현한 계영배 잔의 단면에 액체가 관의 높이보다 높게 채워진 모습의 그림이다. 발표자는 이 자료를 ㉔에 활용하여 관의 윗부분이 저압 상태가 되면서 바깥쪽과의 기압 차로 액체가 관 속으로 끌려 올라가게 되고, 액체의 압력과 중력에 의해 관 속의 액체는 잔 밑의 구멍으로 흘러 나가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압력과 중력을 이용해 사이편이 작동하는 원리를 설명한 것이다. 하지만 ㉔에 액체가 관에 끌려 올라가는 속도와 구멍을 통해 흘러 나가는 속도의 차이를 설명하는 부분은 없다.

오답 해설

- ① [자료 1]은 계영배의 단면을 그린 그림이다. 발표자는 이 자료를 ㉑에 활용하여 일반적인 잔과 달리 계영배의 잔에는 잔 높이의 7부 정도 되는 관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 ② [자료 2]는 단순하게 표현한 계영배의 잔의 단면에 액체가 관의 높이보다 덜 채워진 모습의 그림이다. 발표자는 이 자료를 ㉔에 활용하여 잔 가운데에 있는 관이 거꾸로 된 U자 모양이므로 사이편 모양이라고 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 ③ [자료 2]는 단순하게 표현한 계영배의 잔의 단면에 액체가 관의 높이보다 덜 채워진 모습의 그림이다. 발표자는 이 자료를 ㉑에 활용하여 액체가 관의 높이까지 채워지지 않았을 때 관의 윗부분을 넘어가지 못하는 이유를 관 내부의 대기압과 액체의 압력이 같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 ④ [자료 3]은 단순하게 표현한 계영배의 잔의 단면에 액체가 관의 높이보다 높게 채워진 모습의 그림이다. 발표자는 이 자료를 ㉔에 활용하여 구멍으로 흘러 나간 액체로 인해 관 윗부분이 저압 상태가 되어 관 바깥쪽과 기압 차가 생기므로 액체가 관 속으로 계속 끌려 올라가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37 발표 내용 이해, 평가하기

정답 ③

정답 해설 '학생 3'은 책에서 읽은 대기압과 관련된 내용을 떠올리며 액체가 관을 통해 흘러 나갈 때 관 바깥쪽의 액체 표면엔 대기압이 작용하기 때문에 관 안쪽과 기압 차가 생긴다고 이해하고 있다. 이는 사이편 내부와 바깥쪽에 기압 차가 생겨 액체가 관 속으로 끌려 올라간다고 언급한 발표자의 설명을 자신의 배경지식을 활용하여 이해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오답 해설

- ① '학생 1'은 사이편을 이용하면 잔을 기울이지 않고도 액체를 옮길 수 있겠다고 반응하고 있다. 이는 발표자가 3문단에서 언급한 내용을 다시 언급한 것이지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내용을 추론한 것은 아니다.
- ② '학생 2'는 발표가 유익했음을 밝히며 사이편의 원리가 적용된 다른 사물에는 또 무엇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반응하고 있다. 이는 발표 내용과 관련한 자신의 궁금증을 드러낸 것이지 발표에서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④ '학생 1'은 계영배라는 술잔에 과유불급의 교훈이 담겨 있다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되어 좋았다고 반응하고 있다. 또한 '학생 2'는 계영배에 사이편의 원리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유익했다고 반응하고 있다. 이는 발표에서 들은 정보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드러낸 것이지, 발표에서 들은 정보를 사실과의 견으로 구분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⑤ '학생 2'는 사이편의 원리가 적용된 다른 사물에는 무엇이 있는지 자료를 따로 찾아봐야겠다고 반응하고 있다. 이는 발표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에 대해 조사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학생 3'의 반응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찾을 수 없다.

38 정보 전달 글쓰기 내용 이해, 평가하기

정답 ③

정답 해설 (가)의 2문단에서는 주민 참여 예산 사업으로 공모된 사업은 1차로 소관 부서에서 공모 분야와 관련하여 사업의 적격성을 검토한 후, 주민 참여 예산 위원회의 심의로 최종 선정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가)에서 주민 참여 예산 위원회에서 사업을 최종적으로 심의하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제시한 부분은 없다.

오답 해설

- ① (가)의 1문단에서 사업을 위한 예산의 규모가 5억 원이며, ○○시 주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고 참여 자격을 밝히고 있다.
- ② (가)의 1문단에서 8월 ×일부터 ×일까지 시청 누리집 '주민 참여 예산 사업 공모 게시판'에 접속해서 신청할 수 있다며 사업의 신청 기간과 방법을 밝히고 있다.
- ④ (가)의 3문단에서 ○○시에서는 2019년부터 주민 참여 예산 사업 제도를 도입하여 올해까지 총 221건의 주민 참여 예산 사업이 편성되었음을 제시하고 있다.
- ⑤ (가)의 4문단에서 ○○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언급하며 기대감을 드러낸 시장님의 인터뷰를 제시하고 있다.

39 정보 전달 글쓰기 내용 조직하기

정답 ⑤

정답 해설 (가)의 3문단에서 주민 참여 예산 사업 추진의 성과로 매년 신청 건수가 증가하여 올해까지 총 221건의 주민 참여 예산 사업이 편성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2021년에 추진한 ◇◇ 버스 정류장 방한 부스 설치 사업의 사례를 제시하며, 이 사업이 주민들의 불편 사항 해소와 복지 측면에서 높은 만족도로 그 성과를 인정받았음을 제시하였다. (가)의 3문단에서 사업 추진의 구체적인 성과를 비교·대조의 방법으로 제시한 부분은 없다.

오답 해설

- ① (가)의 2문단에서 사업의 공모 분야는 평소 주민들이 느꼈던 불편 사항을 개선하는 사업이나 주민 복지와 관련된 사업, 우선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한 사업, ○○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나열하여 제시하고 있다.
- ② (가)의 2문단에서 공모한 사업은 1차로 소관 부서에서 공모 분야와 관련하여 사업의 적격성을 검토한 후, 주민 참여 예산 위원회의 심의로 최종 선정된다고 그 절차를 순서대로 제시하고 있다.
- ③ (가)의 3문단에서 주민 참여 예산 사업 제도란 주민이 직접 사업을 제안하고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재정 혜택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돌아가게 하기 위한 제도라며 용어의 개념을 정의하여 제시하고 있다.
- ④ (가)의 3문단에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 왔음을 밝히며, 매년 5월마다 주민 참여 예산 사업 워크숍을 진행하여 주민들의 사업 기획 역량 강화를 위한 세미나를 실시하고, 전문가를 초청해 주민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였음을 사례로 들어 제시하고 있다.

40 대화 맥락 분석하기

정답 ⑤

정답 해설 '학생 1'은 다섯 번째 발화에서 대화 참여자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주어서 논의가 수월하게 진행된 것 같다고 말하며 논의를 마무리하고 있다. (가)에서 김□□ 시장이 시민들이 주민 참여 예산 사업 공모에 참여함으로써 우리 지역이 더욱 살기 좋은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 효과를 언급한 것과 관련하여, '학생 1'이 이 내용과 관련지어 논의의 결과를 정리하고 있는 부분은 없다.

오답 해설

- ① (가)에서는 ○○시청에서 주민 참여 예산 사업을 공모한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학생 1'은 첫 번째 발화에서 주민 참여 예산 사업 신청에 관한 기사를 함께 읽고 우리 지역의 도서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업을 신청해 보자고 이야기했다고 말하며 지난 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을 환기하고 있다.

- ② (가)에서는 주민 참여 예산 사업 제도가 주민들에게 재정 혜택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돌아가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학생 1'은 두 번째 발화에서 이 중 재정 혜택의 공정성에 대해 언급하며 사업 신청의 필요성을 밝히고 있다.
- ③ (가)에서는 주민 참여 예산 사업을 위한 예산이 5억 원임을 제시하고 있다. '학생 1'은 세 번째 발화에서 5억 원의 예산을 근거로 들어 행복 2동에 도서관을 새로 짓는 사업을 신청하자는 '학생 2'의 제안이 지닌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 ④ (가)에서는 주민 참여 예산 사업으로 주민 복지와 관련된 사업 등을 신청할 수 있으며, 특정인이나 특정 단체만의 이익을 위한 사업은 공모에서 제외됨을 언급하고 있다. 이와 관련지어 '학생 1'은 네 번째 발화에서 ◇◇ 아파트 앞에 스마트 도서관을 설치해 달라고 하자는 '학생 3'의 제안이 주민 복지가 증진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 아파트 주민들만을 위한 시설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게 걱정된다고 말하며, 장점과 우려되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41 화법의 영향력과 의사소통 윤리

정답 ④

정답 해설 [C]에서 '학생 3'은 앞서 '학생 2'가 도서관을 새로 짓는 사업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스마트 도서관 설치 사업을 새롭게 제안하고 있다. '학생 3'이 '학생 2'와 의견이 다름을 제시하기 전에 '학생 2'의 의견과 일치하는 의견을 말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발화가 ㉞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오답 해설

- ① [A]에서 '학생 3'은 지난 회의에 참여하지 못한 미안함을 드러낸 '학생 2'에게 자신도 바쁜 일이 있었기에 그날 많은 얘기를 나누지는 못했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지난 회의에 참여하지 못한 것에 대한 상대방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발화이므로 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② [B]에서 '학생 2'는 지난 회의에서 학생들이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못한 원인에 대해 자신이 회의에 빠졌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문제의 원인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는 발화이므로 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③ [B]에서 '학생 3'은 지난 회의에 불참한 '학생 2'에게 회의에서 논의된 행복동 지역의 도서관 문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는 대화의 화제인 주민 참여 예산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지난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전달하여 대화 상황과 관련한 맥락을 함께 공유하는 발화이므로 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⑤ [C]에서 '학생 2'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도서관 신축 사업 대신 스마트 도서관 설치를 대안으로 제시한 '학생 3'의 발화에 대해 훌륭한 방법이라고 칭찬하며 그 방안이 지닌 장점을 언급하고 있다. 이는 상대방의 의견에서 좋은 점을 칭찬하는 발화이므로 ㉞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42 설득 글쓰기 내용 생성하기

정답 ③

정답 해설 '학생 1'은 두 번째 발화에서 행복 2동과 행복 3동 주민들도 도서관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신청하여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현재 메모에는 수혜 대상이 ○○ 시민으로 되어 있지만 대화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수혜 대상은 행복 2동과 행복 3동 주민들이므로 이를 바탕으로 제안서에 수혜 대상을 구체적으로 밝히자는 의견은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 ① '학생 2'는 세 번째 발화에서 행복 2동에 도서관을 새로 짓는 사업을 신청하고자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 '학생 1'과 '학생 3'은 사업의 예산을 고려했을 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들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스마트 도서관 설치 사업을 새롭게 제안하였다. 이어 '학생 2'가 이에 대해 동의하였으므로, 사업명을 도서관 신축 사업으로 수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② '학생 3'은 다섯 번째 발화에서 스마트 도서관의 설치 장소로 ◇◇ 아파트 앞을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 '학생 1'은 자칫하면 ◇◇ 아파트 주민들만을 위한 시설처럼 보일 수 있다고 우려하며 스마트 도서관을 ◇◇ 아파트 앞보다 공공의 성격이 강한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고 조언하였다. 이에 자신의 기존 의견을 수정하여 ◇◇ 버스 정류장에 설치하자고 제안한 '학생 3'의 의견에 나머지 학생들도 동의하였으므로 사업의 위치에 ◇◇ 아파트 앞을 추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④ '학생 2'는 다섯 번째 발화에서 사업 위치로 논의된 ◇◇ 버스 정류장에는 방한 부스가 있으니 부스 안에 스마트 도서관을 설치해 달라고 하자고 제안하면서, 주민들이 방한 부스에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므로 그곳에 스마트 도서관을

설치하면 복지가 더 향상되었다고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에 '학생 3'은 그 점을 기대 효과에 추가해도 좋겠다고 언급했다. 복지 향상을 통한 주민 만족도 증진은 (가)의 2문단에 제시된 내용 중 주민 복지와 관련된 사업이라는 점과 관련이 있으므로 기대 효과에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이다. 따라서 이 내용을 삭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⑤ '학생 2'는 네 번째 발화에서 스마트 도서관에 대한 자료를 좀 더 찾아보고 △△ 시의 사례를 참고해서 사업 제안서를 작성하면 되겠다고 제안하고 있다. 그리고 '학생 3'은 스마트 도서관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겠다고 말하며 이에 동의했다. 따라서 참고 사항에서 스마트 도서관에 대한 자료를 삭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43 설득 글쓰기 내용 이해, 평가하기

정답 ③

정답 해설 1문단에서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수행하는 학생들의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 상황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드러내고 있는 부분은 없다.

오답 해설

- ① 4문단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질문한 뒤 그에 대한 응답으로 한 가지 일씩 순서대로 처리하도록 의식적으로 노력하기, 일의 우선순위를 정해 한 가지씩 집중하기 등 문제 상황을 해결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② 1문단에서 쉬는 시간의 교실에서 볼 수 있는 학생들의 일상적인 모습을 사례로 제시해 문제 상황을 보여 주고 있다.
- ④ 3문단에서 우리 학교 학생들을 인터뷰한 내용을 제시하여 여러 일을 동시에 수행하려 함으로써 온전히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쪽에서 실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를 뒷받침하고 있다.
- ⑤ 2문단에서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이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믿는 일반적인 학생들의 통념을 언급한 후, 오히려 주의력이 분산되어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통념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44 설득 글쓰기 자료, 매체 활용하기

정답 ④

정답 해설 2문단에서는 두 가지 일이 모두 주의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 동시에 여러 작업이 가능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학생들이 평소 수행하는 일들은 모두 어느 정도의 주의력을 필요로 하므로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게 되면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2문단에 주의력이 필요하지 않은 일들의 경우 동시에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뇌의 생산성을 높이기도 한다는 내용은 없다. 그리고 ㉠-2에서는 동시에 여러 일을 수행하려고 한 이유가 무엇이나는 질문에 대한 학생들의 응답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에서는 뇌가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제한되어 있음을 바탕으로 어떤 작업을 수행할 때 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자료들은 주의력이 필요하지 않은 일들의 경우와 관계가 없는 자료들이므로 자료의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 ① ㉠-1은 동시에 여러 일을 수행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우리 학교 설문 조사이다. 조사 대상 중 94%의 학생들이 그런 적이 있다고 답하였으므로, 이를 활용해 학생들이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는 1문단의 내용을 구체화할 수 있다.
- ② ㉠은 한 가지 일에 몰두하던 사람이 다른 일로 방해를 받게 되면 다시 원래 하던 일에 집중하는 데 23분 15초의 시간이 걸린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2문단에서는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수행했을 때 오히려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으므로, 이 자료를 활용해 2문단의 내용을 보강할 수 있다.
- ③ ㉠은 우리 뇌가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제한되어 있어 중요한 자극만을 선택하여 처리하게 된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3문단에서는 우리 뇌가 외부에서 오는 자극을 모두 처리할 수는 없기 때문에 동시에 수행하는 여러 가지 일에 골고루 주의를 기울이기 어렵다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이 자료를 활용해 3문단의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다.
- ⑤ ㉠은 다른 일로 인해 원래 하던 일에 대한 집중력이 깨어지는 경험이 반복되면 우리 뇌는 지속적인 스트레스에 노출된다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은 어떤 작업을 수행할 때 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주변의 시청각적 자극들을 최대한 차단하는 것이 좋다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4문단에는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수행하려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 자료들을 활용해 주의력 분산으로 인한 뇌의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한 가지 일을 할 때 외부의 시청각적 자극을 최대한 차단해야 한다는 내용을 보충할 수 있다.

45 설득 글쓰기 내용 생성하기

정답 ⑤

정답 해설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수행하려 하는 행동의 문제점으로 2문단에서는 오히려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3문단에서는 실수가 발생하기 쉬움을 언급하고 있다. '시간을 단축하고 실수의 위험도 줄이는'에서 두 가지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였고,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 것이다.'라며 관용적 표현을 문맥에 맞게 사용했으므로 이는 적절하다.

오답 해설

- ①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속담을 사용하였지만 앞서 제시한 두 가지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지 않았다.
- ② '손에 익다'라는 관용구를 사용하였지만 실수가 발생하기 쉽다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지 않았다.
- ③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지 않았고, 문맥에 어울리는 관용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 ④ 실수가 발생하기 쉽다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지 않았고, 문맥에 어울리는 관용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언어와 매체]

35 중세 국어의 문법

정답 ③

정답 해설 '업시너기다'는 '부사+동사'로 구성된 단어이고, '나사가다'는 '동사 어간+연결 어미+동사 어간'으로 구성된 단어이다. 따라서 두 단어를 어근으로 쓰인 동사 어간들 사이의 연결 어미 유무에 따라 구분될 수 있다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 ① '밤낮'은 대등 합성어이고, '쇠붙'은 종속 합성어이다.
- ② '뫓기숯'에는 관형격 조사 '시' 사용되었고, '쇼의고기'에는 관형격 조사 '의'가 사용되었다. 이와 같은 차이는 '뫓'이 무정물이고, '쇼'가 유정물인 것에 기인한다.
- ④ '도랏다'는 비통사적 합성어이다. '검붉다'도 비통사적 합성어이다.
- ⑤ '그림'에는 접미사 '-ㅁ'이 사용되었다. '솨'에도 접미사 '-ㅁ'이 사용되었다.

36 중세 국어 자료 탐구

정답 ⑤

정답 해설 '노퍽'은 형용사 어간 '늑-'에 접미사 '-익'이 결합하여 명사로 품사가 바뀐 단어이다. 따라서 어근의 품사가 바뀌지 않은 단어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 ① '들기얌'의 '들'은 유정물이고 양성 모음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관형격 조사 '익'를 사용하여 단어가 형성되었다. 선행 요소가 후행 요소를 수식하고 있으므로 종속 합성어에 해당한다.
- ② '저므니'는 용언의 관형사형인 '저므'와 명사 '이'가 결합해 형성된 말이다.
- ③ '뒤돌라'의 '뒤돌-'은 명사 '뒤'와 동사 어간 '돌-'이 결합해 형성된 말이다.
- ④ '므츨'은 어간 '못-'과 접미사 '-음'이 결합해 형성된 말인데, '-음'이 아니라 '-음'이 결합한 까닭은 '못-'의 모음이 양성이기 때문이다.

37 국어의 음운 변동

정답 ①

정답 해설 '깨끗하게'는 /깨끗하게/ → [깨끄타게]로 발음되는 말이다. '끗'의 '시' 'ㄷ'으로 바뀐 것은 음절 구조의 제약으로 인한 변화이다.

오답 해설

- ② '발인'은 [바친]으로 발음되는데, 이는 'ㅌ'이 'ㄷ'와 만나 'ㄷ'으로 바뀐 것이다. 이는 음절 구조의 제약으로 인한 변동이 아니다.
- ③ '꽃힌'은 [꼬친]으로 발음되는데, 이는 'ㅈ'과 'ㅎ'이 만나 'ㄷ'으로 바뀐 것이다. 이는 음절 구조의 제약으로 인한 변동이 아니다.
- ④ '갈아입는'은 [가라임는]으로 발음되는데, '입'의 'ㅍ'이 'ㅁ'으로 바뀌는 것은 음절 구조의 제약으로 인한 변동이 아니다. '는'의 초성 'ㄴ'의 영향으로 'ㅍ'이 'ㅁ'으로 바뀐 것이다.
- ⑤ '넓은'은 [널븐]으로 발음되는데 음운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38 관형사절을 안은 문장

정답 ③

정답 해설 ㉠에서 '인정이 많으신'은 관형사절로 관형어 역할을 하고 있다. ㉡에서 '수업이 끝나기'는 명사절로 명사 '전'을 수식하는 관형어 역할을 하고 있다.

오답 해설

- ① ㉠의 '초보자가 배우기'는 부사격 조사 '에'와 보조사 '도'가 결합하여, 부사어 기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에는 부사어 기능을 하는 안긴문장이 없다.
- ② ㉠, ㉡에는 모두 목적어가 생략된 안긴문장이 없다.
- ④ ㉠의 '인정이 많으신'은 주어가 생략된 안긴문장이다. 그러나 ㉡에는 주어가 생략된 안긴문장이 없다.
- ⑤ ㉡의 '내가 아까 식사한'은 부사어가 생략된 안긴문장이다. 그러나 ㉡에는 부사어가 생략된 안긴문장이 없다.

39 품사의 특성

정답 ③

정답 해설 ㉡의 '어디'는 특별하게 정해진 곳을 의미하지 않고 있다. 이를 특정할 수 있으나 미처 알지 못하는 장소를 의미한다고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 ① ㉠의 '저희'는 '우리'보다 낮춤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1인칭 대명사이다.
- ② ㉠의 '언제'는 특별히 정해진 때를 의미하지 않는다.
- ④ ㉡의 '그대'는 청자를 의미하고 있으므로 2인칭 대명사에 해당한다.
- ⑤ ㉡의 '당신'이 문장 앞쪽의 '할아버지'를 뜻하는 것으로 보면 ㉡은 3인칭 재귀 대명사에 해당한다.

40 매체의 유형에 따른 특성

정답 ②

정답 해설 우진은 카메라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였다. 관형이 우진의 의견을 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오답 해설

- ① 민섭은 뒤늦게 참여한 중서를 위해 먼저 이야기 나누고 있던 내용을 전달하며 수정된 파일을 전달하고 있다.
- ③ 화상 회의를 진행하며 우진은 자신의 생각대로 수정한 파일을 회의 참여자들에게 즉각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이는 온라인 화상 회의에서 가능한 기능을 활용한 것이다.
- ④ 중서는 휴대 전화를 통해 이동을 하면서도 소통을 할 수 있는 매체의 특성에 기반하여 화상 회의에 참여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공간적 제약에서 벗어나 회의에 참여한다고 할 수 있다.
- ⑤ 우진은 카메라에 문제가 있어 처음에는 음성 언어를 활용하여 회의에 참여하였다.

41 의사소통으로서의 매체

정답 ④

정답 해설 '글 검색' 기능을 통해 필요에 따라 검색을 할 수 있으나 이를 통해 누리집 운영에 대한 회원들의 반응을 공유할 수는 없다.

오답 해설

- ① 민호는 사정이 있어 조금 늦을 것 같다는 댓글을 달아 자신의 개인 사정을 밝히며 회원들의 양해를 구하고 있다.
- ② 운동장 사용 계약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회원들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첨부 파일로 운동장 사용 계약서를 게시하였다.
- ③ 2023년 4월 30일 운동 참여 여부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여 참여와 불참을 통해 몇 명이나 모일지 예상할 수 있다.
- ⑤ 운동장 사진과 동영상상을 통해 축구 경기를 하는 생생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42 정보 전달과 설득

정답 ②

정답 해설 종서는 포스터를 보고 누리집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축구 사랑 동호회 누리집이라는 것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도록 포스터와 누리집 상단을 같은 이미지로 꾸밀 것을 말하였다.

오답 해설

- ① 종서는 하이퍼링크와 QR 코드를 추가할 것을 말하였으나 이는 누리집 방문을 수월하게 할 목적으로 포스터에 추가하는 것이다. 누리집에 추가하는 것이 아니다.
- ③ 관형은 홍보 포스터의 내용을 요약해서 올려놓아도 좋겠다고 말하였다.
- ④ 우진은 누구나 부담 없이 즐겁게 운동할 수 있는 분위기라는 장점을 홍보 포스터에 넣고자 하였다.
- ⑤ 민섭은 동호회 회원 중 운동에 참여하는 회원을 캐릭터로 표현하자고 하지 않았다.

43 높임 표현

정답 ⑤

정답 해설 '보다'는 '보다'의 높임 표현으로 '웃어른을 대하여 보다.'라는 의미이다. '-르게요'는 비격식체로 청자를 높이는 종결 어미이다. 이를 통해 민섭은 동호회원들인 청자를 높여 말하였다.

오답 해설

- ① 민섭이 동호회원들에게 종서의 소식을 알리는 표현이다. 이때 격 조사 '께서'와 선어말 어미 '-시-'는 주체 높임으로 화자인 민섭과 주체인 종서와의 관계를 드러낸다. 화자와 청자의 관계는 '하셨습니다'의 '-습니다'인 상대 높임으로 드러난다.
- ② 우진의 '제 얼굴 보이시죠?'의 '제'는 자신을 낮추어 표현하는 높임 표현이고 선어말 어미 '-시-'는 우진의 모습을 보고 있는 민섭과 관형을 높이는 높임 표현이다. 이를 통해 발화 의도를 드러내고 있지 않다.
- ③ 민섭은 '보내 드릴게요'와 같이 비격식체 높임 표현을 통해 청자인 관형과 우진을 높이고 있다. 어미 '-르게요'는 평서형으로 청자의 참여를 독려하지 않는다.
- ④ '남자분들의 점미사' '분'은 '남자'와 결합하여 문장의 주체인 '남자'를 높이고 있다.

44 매체 언어의 의미 전달 방식

정답 ③

정답 해설 개설 목적에서는 학교 관련 소식을 제보받아 학교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하였지만, '학교 누리집 바로 가기'가 정보의 다양성을 확인하기 위한 링크는 아니다.

오답 해설

- ① ㉠은 학교 행사, 글, 사진, 동영상으로 정보의 형태에 따라 분류하고 있다.
- ② ㉡은 ○○고 학생들을 대신하여 전해 드린다는 활동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 ④ ㉢은 학생증의 얼굴 사진과 이름 일부 등을 가렸다. 이는 당사자의 동의가 없는 사진이나 개인 정보를 삭제한 후 게시한 것이다.
- ⑤ ㉣은 욕설 및 비방에 의해 스캠 처리되어 일정 기간 제보를 못 하게 되었다는 내용이다. 이는 규칙 3을 지속적으로 지키지 않아 규칙 4에 의해 처리된 것이다.

45 매체 자료의 주체적 수용

정답 ③

정답 해설 영철은 누리 소통망을 통해 휴대 전화를 놔두고 간 사람의 심정에 공감하며 주인이 휴대 전화를 찾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지만 이를 근거로 공감대가 형성된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 ① 종민은 자신의 친구들 중에는 SNS를 하지 않는 학생이 많다고 말하였다. 이는 누리 소통망의 영향력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 ② 혜영은 경찰서에 가져다주는 것이 귀찮고 멀다는 자신의 심정을 밝히며 자신의 주변엔 대부분 SNS를 적극 활용한다고 하였다. 이는 누리 소통망을 활용하는 것이 휴대 전화 주인을 찾는 데 유용할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 ④ 선미는 운동장 스탠드를 언급하며 그곳에서 고양이들을 보지 않았는지 묻고 있다.
- ⑤ 구희는 아직 동영상 게시판을 보지 못했느냐고 물으며 동영상 게시판에 올라온 고양이 동영상을 언급하였다.

3 회

EBS FINAL 국어영역

본문 43~62쪽

01 ④	02 ⑤	03 ④	04 ④	05 ①
06 ③	07 ①	08 ③	09 ⑤	10 ⑤
11 ④	12 ④	13 ⑤	14 ②	15 ④
16 ②	17 ③	18 ③	19 ④	20 ④
21 ④	22 ③	23 ③	24 ④	25 ②
26 ③	27 ②	28 ②	29 ①	30 ①
31 ③	32 ④	33 ①	34 ②	
화법과 작문	35 ②	36 ②	37 ④	38 ①
	39 ④	40 ②	41 ③	42 ⑤
	43 ④	44 ④	45 ③	
언어와 매체	35 ④	36 ①	37 ⑤	38 ⑤
	39 ③	40 ⑤	41 ④	42 ⑤
	43 ①	44 ⑤	45 ⑤	

[01~06]

최적의 범죄 억제 수준 / 최적의 기대 형벌 수준

㉠ 최적의 범죄 억제 수준

해제 | 이 글은 법경제학에서 제시한 최적의 범죄 억제 이론을 소개하고 있다. 범죄와 형벌의 문제를 분석 대상으로 삼은 법경제학에서는 범죄 발생 수준을 0으로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최적의 범죄 발생 수준을 찾으려 하였다. 그 결과 찾아낸 최적 범죄 수준의 모형을 통해 최적 범죄 수준에서의 범죄 억제 비용이 최적 범죄 억제 노력의 수준임을 밝혔다.

주제 | 법경제학에서 제시한 최적의 범죄 억제 수준

구성 |

- 1문단: 법경제학의 분석 대상과 분석 목적
- 2문단: 법경제학에서 찾아내려 한 최적의 범죄 발생 수준
- 3문단: 법경제학에서 제시한 최적 범죄 수준의 모형

㉡ 최적의 기대 형벌 수준

해제 | 이 글은 바람직한 기대 형벌 수준을 벌금형, 구금형과 관련지어 설명하고 있다. 기대 형벌 수준이란 처벌 강도와 처벌 확률을 곱한 것으로, 바람직한 기대 형벌 수준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비용이 든다. 최적의 기대 형벌 수준은 범죄 억제 곡선과 예산 제약선이 만나는 지점이다. 한편 벌금형을 통해 최적의 기대 형벌 수준을 높이려면 처벌 강도를 높이는 것이 효과적이고, 구금형을 통해 최적의 기대 형벌 수준을 높이려면 처벌 확률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러한 벌금형과 구금형을 보완적으로 집행한다.

주제 | 법경제학에서 제시한 최적의 기대 형벌 수준

구성 |

- 1문단: 기대 형벌 수준의 개념
- 2문단: 기대 형벌 수준의 결정 방법
- 3문단: 벌금형과 구금형에서의 기대 형벌 수준
- 4문단: 벌금형과 구금형의 보완적 집행 권장

01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정답 ④

정답 해설 (가)에서는 범죄와 형벌을 경제학적 분석의 대상으로 삼은 법경제학의 이론 중, 비용-편익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최적의 범죄 억제 노력 수준을 제시한 최적 범죄 수준 모형을 소개하고 있다. (나)에서는 법경제학적 관점에서 어떤 수준의 기대 형벌 수준이 범죄 억제를 위해 가장 바람직한지를 밝힌 이론을 소개하고 있다.

오답 해설

- ① (가)에서는 형벌의 종류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나)에서 범죄 처벌과 사회 경제와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다.
- ② (가)는 범죄 예방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나)에서는 벌금형이 구금형보다 대체로 범죄 억제에 효율적이지만 반드시 그러한 경우만 있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 ③ (가)에서 범죄 억제를 위한 사회적 노력이 언급되어 있지 않고, (나)에서는 형벌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지만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 ⑤ (가)는 경제적 관점에서 범죄와 형벌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지만, (나)는 정치적 관점에서 범죄와 형벌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

02 세부 내용 파악

정답 ⑤

정답 해설 (나)의 3문단에서 벌금형으로 기대 형벌 수준을 높이려면 벌금 액수, 곧 처벌 강도를 높이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반면에 구금형으로 기대 형벌 수준을 높이려면 처벌 확률을 높이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오답 해설

- ① (가)의 1문단과 (나)의 1문단에 의하면 법경제학자는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도 행위를 함에 있어 일반인처럼 효용을 극대화하려 한다고 본다.
- ② (가)의 2문단에 의하면 법경제학자는 범죄 발생 건수를 0으로 만드는 것은 사회 효용의 측면에서 최적의 범죄 발생 수준이 아니라고 본다.
- ③ (가)의 3문단에 의하면 법경제학자는 범죄를 통해 얻는 편익과 피해 비용 차이는 범죄 수준이 높아질수록 더 커진다고 가정하여 최적 범죄 수준 모형을 제시하였다.
- ④ (나)의 마지막 문단에 의하면 법경제학자들은 범죄의 효율적 억제를 위해 벌금형과 구금형을 결합하여 보완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03 세부 내용 파악

정답 ④

정답 해설 범죄와 관련하여 사회가 부담해야 하는 총비용인 TC는 순 피해 비용인 ND와 범죄 억제 비용인 RC를 합친 것이다. 따라서 범죄 수준이 같을 때의 ND는 TC에서 RC를 뺀 값과 같다.

오답 해설

- ① 최적의 범죄 억제 노력 수준은 z^* 와 RC가 만나는 지점의 비용이므로, R^* 가 이에 해당한다.
- ② TC의 최저점인 z^* 가 최적 범죄 수준이므로, 이 점이 낮아진다고 최적 범죄 수준이 변하는 것은 아니다.
- ③ RC는 범죄 수준을 낮추려면 더 많은 비용이 든다는 점을 나타내므로, RC가 위치만 이동해도 범죄 수준을 낮추기 위해 더 많은 비용이 든다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
- ⑤ ND 곡선은 범죄 행위로 인해 사회 전체가 부담하는 피해 비용에서 범죄자에게 주는 편익을 뺀 값이다. 이 값이 0 이상이라면 범죄자의 편익보다 범죄의 피해 비용이 큰 수준에 해당한다.

04 구체적 사례 적용

정답 ④

정답 해설 구금형에는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등범죄 억제 곡선과 만나는 예산 제약선의 기울기가 급하다. 따라서 구금형만으로 적정한 범죄 억제 수준을 달성하려면 처벌 확률을 높이고 처벌 강도는 낮추는 것이 효율적이다. 기대 형벌 수준이 D_2 이고 예산 제약선이 E_2 일 때, y^* 는 높이고, x^* 는 낮추어야 한다. 즉 E_2 의 기울기를 더 급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오답 해설

- ① 등범죄 억제 곡선은 처벌 확률과 처벌 강도를 나타낸 것으로, 이 곡선이 아래로 이동했다는 것은 처벌 확률과 관련 있는 경찰관과 처벌 강도와 관련 있는 교도관이 모두 감소했음을 의미한다.
- ② 등범죄 억제 곡선상의 점은 범죄 억제 수준, 곧 기대 형벌 수준을 나타낸다. 따라서 D_1 의 곡선상에 있던 점이 D_2 의 곡선상에 있는 점으로 이동했다는 것은 기대 형벌 수준이 증가했음을 의미한다.
- ③ 최적의 기대 형벌 수준은 등범죄 억제 곡선과 예산 제약선이 만나는 지점에서 형성되므로, 최적의 기대 형벌 수준은 (x^*, y^*) 에 해당한다.
- ⑤ 예산 제약선의 기울기가 완만할수록 처벌 확률을 높이기 위한 수단의 단위 비용이 처벌 강도를 높이기 위한 수단의 단위 비용에 비해 크다.

05 내용의 인과 관계 파악

정답 ①

정답 해설 범죄자가 형사적 제재를 회피할 가능성, 곧 범죄자가 체포되어 기소될 확률이 낮을수록 범죄 억제를 위한 제재의 강도를 높여야 기대하는 범죄 억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런데 이때 벌금형을 적용하면 벌금이 더욱 커져 범죄자의 벌금 지불 능력을 낮추는 효과가 발생해 아예 벌금형 집행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오답 해설

- ② 벌금형을 적용한다고 해서 범죄자의 자산이 더욱 커지지는 않는다. 오히려 벌금을 내야 하므로 자산은 줄어든다.
- ③ 벌금형을 적용할 경우, 처벌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으므로 재범을 저지를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
- ④ 범죄 행위로 인한 피해의 크기가 더 작아지면 제재할 형사적 책무, 곧 벌금이 줄어들 것이므로 벌금 집행이 가능하다.
- ⑤ 범죄자가 범죄를 통해 얻는 이익이 커지면 범죄를 제재할 형벌 수준이 높아지고 결국 범죄자의 지불 능력이 줄어든다. 그러나 이는 범죄자가 형사적 제재를 회피할 가능성과는 관련이 없다.

06 단어의 문맥적 의미 파악

정답 ③

정답 해설 ㉔의 '달리다'는 문맥상 '어떤 일이나 상태 따위가 무엇에 의존하다.'의 뜻으로 쓰였다. 따라서 '어떤 사실이나 원리 따위에 근거하다.'의 뜻을 지닌 '의거(依據)하다'로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 ① ㉓의 '일어나다'는 문맥상 '어떤 일이 생겼다.'의 뜻으로 쓰였다. 따라서 '사람에게 권리·명예·임무 따위를 지니도록 해 주거나, 사물이나 일에 가치·의의 따위를 붙여 주다.'의 뜻을 지닌 '부여(附與)하다'로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다.
- ② ㉕의 '막다'는 문맥상 '어떤 일이나 행동을 못 하게 하다.'의 뜻으로 쓰였다. 따라서 '감정이나 욕망, 충동적 행동 따위를 내리눌러서 그치게 하다.'의 뜻을 지닌 '억제(抑制)하다'로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다.
- ④ ㉖의 '쓰이다'는 문맥상 '어떤 일을 하는 데에 재료나 도구, 수단이 이용되다.'의 뜻으로 쓰였다. 따라서 '활용(活用)되다'로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다.
- ⑤ ㉗의 '바라다'는 문맥상 '생각이나 바람대로 어떤 일이나 상태가 이루어지거나 그렇게 되었으면 하고 생각하다.'의 뜻으로 쓰였다. 따라서 '어떤 일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기다리다.'의 뜻을 지닌 '기대(期待)하다'로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다.

[07~10]

과학적 탐구 방법으로서의 가추법

해제 | 이 글은 퍼스가 제시한 과학적 탐구 방법인 가추법을 소개하고 있다. 이전부터 과학적 탐구 방법으로 쓰였던 연역법은 새로운 지식을 생성하는 데 적절하지 않고, 귀납법은 하나의 반례만으로도 추론 규칙이 무너진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퍼스가 제안한 가추법은 경험할 수 있는 결과로부터 그것을 발생시킨 원리로 나아가는 추론이다. 즉 새로운 사실이 관찰되면 이를 설명할 가설을 세우고, 이를 입증할 사례를 결론으로 제시하는 방식이다. 가추법은 활용 과정에서 오류를 발생시키기도 하지만 과학적 창의성을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는 유용한 탐구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주제 | 가추법의 원리와 유용성

구성 |

- 1문단: 연역법과 귀납법의 한계
- 2문단: 퍼스가 가추법을 제안한 이유
- 3문단: 가추법의 기본 모형과 예
- 4문단: 가추법의 유용성

07 세부 내용 파악

정답 ①

정답 해설 3문단에서 가추법은 과학자가 관찰을 통해 '놀라운 사실 C'를 발견하면서 탐구가 시작된다고 하였다. 그런데 1문단에서 귀납법도 면밀한 관찰을 통해 수집한 사례를 바탕으로 규칙을 찾아낸다고 하였다.

오답 해설

- ② 4문단에서 가추법은 타당한 가설을 찾는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개선된 가설을 찾았다고 하였다.
- ③ 1문단에서 연역법은 추론의 결과가 언제나 대전제인 규칙 속에 이미 들어 있어 새로운 지식을 생성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하였다.
- ④ 3문단에서 과학자가 가추법을 활용하기 위해 관찰하는 대상에는 통계 자료나 수치처럼 양적 데이터가 포함될 수 있다고 하였다.
- ⑤ 4문단에서 가추법을 활용할 때에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이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더 타당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하였다.

08 구체적 사례 적용

정답 ③

정답 해설 가추법에서 과학자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은 '이 콩들은 모두 희다.'로, 과학자는 이와 같은 현실이 일어난 이유를 찾기 위해 '이 자루 속의 모든 콩은 희다.'는 추론의 가설을 세운 후 이것이 옳다고 짐작할 만한 사례인 '이 콩들은 이 자루에서 나왔다.'를 통해 가설이 타당한지 밝힌다.

오답 해설

- ① 연역법에서 대전제인 '이 자루 속의 모든 콩은 희다.'와 소전제인 '이 콩들은 이 자루에서 나왔다.'가 참이면 '이 콩들은 모두 희다.'라는 결론은 반드시 참이라는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다.
- ② 귀납법에서 '이 콩들은 이 자루에서 나왔다.'라는 사례가 참일지라도 반례가 되는 사례가 하나라도 나오면 '이 자루 속의 모든 콩은 희다.'라는 결론은 참이 아닐 수 있게 된다.
- ④ 가추법에서 규칙에 해당하는 '이 자루 속의 모든 콩은 희다.'는 '이 콩들은 모두 희다.'라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 과학자가 세운 가설이다.
- ⑤ 연역법의 경우 '이 콩들은 이 자루에서 나왔다.'는 소전제에 해당한다. ㉔의 경우 '이 콩들은 이 자루에서 나왔다.'는 가설이 타당함을 밝히는 결론에 해당한다.

09 구체적 사례 적용

정답 ⑤

정답 해설 '출근할 때 보니 도로가 젖어 있었다.'는 것은 새롭게 발견한 사실에 해당하고, '비가 오면 도로가 젖는다.'는 이를 설명하기 위해 세운 가설이다. 그리고 '밤에 비가 왔다.'는 사례로서의 결론에 해당한다. '그런데 사실은 밤새 공사로 더러워진 도로를 새벽에 물로 씻어 낸 것이었다.'는 가설을 잘못 세워 잘못된 결론을 도출한 것으로, 이는 가추법의 활용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라 할 수 있다.

오답 해설

- ① 일반화의 오류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가설을 세우는 과정이 없으므로 가추법을 활용했다고 볼 수 없다.
- ② 예측이 맞지 않은 결과가 발생한 사례로, 사실이나 현상의 관찰을 바탕으로 하여 결과의 이유를 예측한 경우가 아니므로 가추법에 의한 오류는 아니다.
- ③ 이 경우는 'p가 거짓이라는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p는 참이다.' 식의 오류에 해당하는 사례로, 가추법과는 관련이 없다.
- ④ 알고 있는 사실들을 바탕으로 규칙을 파악한 경우로, 귀납법에 의한 오류에 해당하지만 가추법에 의한 오류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10 단어의 의미 파악

정답 ⑤

정답 해설 ㉔와 ㉕ 모두에서 '생기다'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의 의미로 쓰였다.

오답 해설

- ① ㉔의 '들다'는 '안에 담기거나 그 일부를 이루다.'의 뜻으로 쓰였지만, '선생님이 보기를 들어 설명하셨다.'의 '들다'는 '설명하거나 증명하기 위하여 사실을 가져다 대다.'의 의미로 쓰였다.
- ② ㉕의 '무너지다'는 '질서, 제도, 체제 따위가 파괴되다.'의 뜻으로 쓰였지만, '홍수로 제방이 순식간에 무너졌다.'의 '무너지다'는 '쌓여 있거나 서 있는 것이 허물어져 내려앉다.'의 의미로 쓰였다.
- ③ ㉔의 '어렵다'는 '하기가 까다로워 힘에 겹다.'의 뜻으로 쓰였지만, '어려운 때일 수록 힘을 합쳐야 한다.'의 '어렵다'는 '겪게 되는 곤란이나 시련이 많다.'의 의미로 쓰였다.
- ④ ㉔의 '세우다'는 '질서나 체제, 규율 따위를 올바르게 하거나 짜다.'의 뜻으로 쓰였지만, '학생이 두 귀를 쫑긋 세우고 들었다.'의 '세우다'는 '처져 있던 것을 똑바로 위를 향하여 곧게 하다.'의 의미로 쓰였다.

[11~14]

해밍 거리

해제 | 해밍 거리를 이용하면 데이터의 오류를 검출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이때 해밍 거리는 길이가 같은 두 문자열을 비교하였을 때 두 문자열의 같은 위치에 있는 서로 다른 문자의 개수를 의미한다. 최소 해밍 거리는 3 이상이 될 때 한 자리의 오류를 검출하여 수정할 수 있다. 최소 해밍 거리가 충분히 멀어진다면 여러 자리의 오류를 검출하여 수정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정보의 크기가 커져 효율이 떨어진다.

주제 | 해밍 거리에 따른 오류 검출과 수정

구성 |

- 1문단: 물리적 거리와 해밍 거리
- 2문단: 해밍 거리의 활용
- 3문단: 해밍 거리가 1인 경우 사례
- 4문단: 해밍 거리가 2인 경우 사례
- 5문단: 해밍 거리가 3인 경우 사례
- 6문단: 해밍 거리와 정보 전송의 효율성

11 세부 내용 파악

정답 ④

정답 해설 1문단에서 해밍 거리는 같은 길이의 문자열을 비교하여 같은 위치에 있는 서로 다른 문자의 개수라고 하였다. 따라서 cat와 cap는 세 번째 문자만 달라 해밍 거리가 1이고, d(cat, cap)=1과 같이 표현된다.

오답 해설

- ① 1문단을 보면 해밍 거리란 길이가 같은 두 문자열을 비교하였을 때 두 문자열의 같은 위치에 있는 서로 다른 문자의 개수를 말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두 정보가 일치한다면 해밍 거리는 0으로 표현될 수 있다.
- ② 1문단을 보면 리처드 해밍은 문자열들을 추상적 거리의 개념으로 표현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지점의 물리적 거리 개념은 공간 사이의 거리라고 하였다.
- ③ 2문단을 보면 정보를 송수신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류가 발생하면 원래의 정보와 해밍 거리가 발생하므로 해밍 거리를 구할 수 있다.
- ④ 4문단을 보면 확인 코드를 사용하면 원시 부호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확인 코드는 오류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 아니라 오류가 발생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12 구체적 사례 적용

정답 ④

정답 해설 00000, 00111, 11111로 전송 부호를 정한다면 d(00000, 00111)=3, d(00000, 11111)=5, d(00111, 11111)=2가 되어 최소 해밍 거리는 2가 된다. 이 경우 10111을 수신하였다면 전송 부호와 일치하지 않으므로 오류가 발생한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10111이 00111을 나타내는지, 11111을 나타내는지 알 수 없어 수정할 수 없다.

오답 해설

- ① 00과 11의 해밍 거리는 2이지만, 00과 01 혹은 01과 11의 해밍 거리는 1이다. 따라서 이들의 최소 해밍 거리는 1이 된다. 00, 01, 11을 전송 부호로 정하면 00, 01, 11을 수신하더라도 오류가 발생했는지 확인할 수 없다.
- ② 010을 수신한 경우 한 자리에서 오류가 발생하여 000이 010이 되었는지, 두 자리에서 오류가 발생하여 111이 010이 되었는지 알 수 없다.
- ③ 0000과 1111의 해밍 거리는 4이지만, 0000과 0011 혹은 0011과 1111의 해밍 거리는 2이다. 따라서 이들의 최소 해밍 거리는 2이다. 이 경우 한 자리의 오류가 있다고 가정하고 1011을 수신했다면 0011인지 1111인지 알 수 없어 수정하지 못한다. 또 0001을 수신했다면 0000인지 0011인지 알 수 없어 수정할 수 없다.
- ⑤ 00011, 01100, 10000으로 전송 부호를 정한다면 00011과 01100의 해밍 거리는 4이고, 01100과 10000의 해밍 거리는 3이다. 따라서 최소 해밍 거리는 3이 된다. 10011이나 00001과 같이 한 자리의 오류만 있다면 00011로 수정할 수 있다.

13 내용의 인과 관계 파악

정답 ⑤

정답 해설 [C]에서 B가 11을 수신하였다면 앞의 11에서 1의 개수가 짝수이고 뒤의 11에서 1의 개수가 짝수이므로 오류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것이다.

오답 해설

- ① [A]에서 원시 부호 0과 1 중 하나를 송수신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B는 0이나 1 중 하나를 수신할 것이다. B는 0이나 1을 수신하더라도 오류가 발생한 것인지 알 수 없다.
- ② 원시 부호에 확인 코드 I을 붙여 전송 부호를 00, 11로 만들면 01이나 10을 수신한 경우 오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00을 송신했는지 11을 송신했는지 알 수 없어 오류를 수정할 수 없다.
- ③ 0이나 1을 송수신할 때 1의 개수를 홀수로 만든다면 0의 경우 01로, 1의 경우 10으로 표현될 것이다.
- ④ 전송 부호를 000과 111로 약속하였으므로 이외의 것들이 수신되었다면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14 내용의 인과 관계 파악

정답 ②

정답 해설 원시 부호에 확인 코드를 덧붙이면 전송 부호가 된다. 전송 부호의 문자열이 길어질수록 최소 해밍 거리를 멀게 할 수 있어 오류를 검출하여 수정할 수 있다.

오답 해설

- ① 원시 부호와 확인 코드의 구분이 전송 부호의 정보의 크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③ 원시 부호에 확인 코드를 덧붙여 전송 부호를 만든다. 따라서 원시 부호와 전송 부호 간의 해밍 거리를 멀게 할 수 없으며, 확인 코드를 줄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 ④ 원시 부호에 확인 코드를 덧붙여 전송 부호를 만들기 때문에 원시 부호와 전송 부호의 해밍 거리는 가까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 ⑤ 원시 부호에 확인 코드를 덧붙여 전송 부호를 만든다. 따라서 확인 코드와 전송 부호를 비교하여 정보의 크기를 줄일 수 없다.

[15~17]

독서 과정 모형의 종류

해제 | 이 글은 독자가 글의 의미를 어떤 방식으로 구성하는지를 밝히고 있는 세 가지의 독서 과정 모형을 소개하고 있다. 먼저 상향식 모형은 독서 과정이 단어, 문장, 문단, 글 전체 순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주장으로, 독서 교육의 중점을 고도의 해독 능력을 기르는 데 두었다. 하향식 모형은 독자가 글의 의미 구성이 자신의 배경지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추론 능력을 발휘한다는 주장으로, 독서 교육의 중점을 독서 목적에 어울리는 독서 전략의 습득에 두었다. 마지막으로 상호 작용 모형은 글의 의미 구성 과정에서 상향식 모형과 하향식 모형이 주장하는 모든 행위가 이루어진다는 것으로, 독서 교육의 중점을 음독과 해독의 정확성을 기르고, 배경지식을 활성화하고 예측하며 글을 읽는 능력을 기르는 데 두었다.

주제 | 세 가지 독서 과정 모형의 특성

구성 |

- 1문단: 독서 과정 모형의 등장 배경
- 2문단: 상향식 독서 과정 모형의 특성
- 3문단: 하향식 독서 과정 모형의 특성
- 4문단: 상호 작용 독서 과정 모형의 특성

15 세부 내용 파악

정답 ④

정답 해설 3문단에 따르면, 하향식 모형이 아니라 상향식 모형에서 글의 의미가 이미 글 속에 담겨 있으므로 독자는 그것을 발견만 하면 된다고 여긴다.

오답 해설

- ① 2문단에 따르면, 상향식 모형에서 고도의 해독 능력을 지닌 독자만이 글의 의미를 추론하고 글을 평가하는 독해 능력을 지닐 수 있다고 본다.
- ② 1문단에 따르면, 인지 심리학의 영향을 받은 독서 이론가들은 독서를 독자가 글의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이라 보았고, 그들이 각각 상향식, 하향식 독서 과정 모형을 제시하였다.
- ③ 3문단에 따르면, 하향식 모형 지지자들은 독서 교육의 중점을 목적에 어울리는 독서 전략을 선택하는 방법을 익히는 데 두었다.
- ⑤ 4문단에 따르면, 상호 작용 모형에서는 독서 교육의 중점을 상향식 모형처럼 음독과 해독의 정확성을 기르고, 하향식 모형처럼 배경지식을 활성화하고 예측하며 글을 읽는 능력을 기르는 데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6 글에 드러난 관점, 내용 비판

정답 ②

정답 해설 다음의 자료에 따르면, 실제 독서를 하는 독자는 모든 단어를 해독하여 글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단어만 골라 읽으며 글의 의미를 파악한다. 이는 단어 하나하나의 뜻을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해야 글의 의미를 구성할 수 있다는 상향식 모형을 비판할 수 있는 자료이다.

오답 해설

- ① 눈동자 추적 연구는 독자가 어떤 단어를 읽는지 확인하는 연구이지, 독자의 음운 확인과는 관련이 없다.
- ③ 눈동자 추적 연구는 독자가 추측을 통해 글의 의미를 이해한다는 하향식 모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이나, 독서 전략의 수정과는 관련이 없다.
- ④ 독서의 의미 구성 과정이 특정한 목적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하향식 모형을 지지하는 이들의 생각과 같다.
- ⑤ 독자가 글 읽기 중 자신이 예측한 내용을 확인하려 한다는 것은 상호 작용 모형을 지지하는 이들의 생각과 같다.

17 지역의 사회 문화적 특성 파악

정답 ③

정답 해설 <보기>는 같은 글을 읽더라도 시대와 지역에 따라 구성하는 의미가 다를 수 있음을 보여 준다. 따라서 이는 인지 심리학의 영향을 받은 독서 이론가들이 주장한 세 가지 독서 과정 모형이 독서하는 독자의 인지 과정을 보여 주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시대와 지역처럼 독서와 관련한 외적 요인이 독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을 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오답 해설

- ① <보기>에서 같은 글을 읽고도 의미를 다르게 파악한다는 것은 독자의 인지 과정이 다름을 의미한다.
- ② <보기>에서 독자는 의미 구성을 다르게 했을 뿐 의미 구성을 하지 못했다고 밝히고 있지는 않다.
- ④, ⑤ <보기>에서 독자마다 글을 다르게 구성한 것과 관련한 요소는 언어 활용 능력이나 추론 능력이 아니라 시대와 지역이다.

[18~23]

박인로, 「자경가」 / 조우인, 「자도사」 / 김용준, 「계」

㉠ 박인로, 「자경가」

해제 | 이 작품은 전체 3수로 이루어진 연시조로, 덕을 쌓지 않고 정도를 가지 않으려는 세태를 비판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유교적 수양을 권장하기 위해 창작되었다. 화자는 덕이 없는 혼탁한 세상을 살아가는 이로, 부정적 세태를 비판하며 세상 사람들을 계도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자신의 능력이 미치지 못함을 한탄하고 있다. 상징적 시어를 사용하여 주제 의식을 표현하고, 대비적 상황을 설정하여 현실의 부정적 모습을 부각하려 하였다.

주제 | 덕을 쌓지 않고 정도를 건지 않으려는 세태에 대한 비판

구성 |

- 제1수: 명덕을 닦을 줄 모르는 세태 비판
- 제2수: 정도를 가지 않는 세태 비판
- 제3수: 세상을 구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탄식

㉡ 조우인, 「자도사」

해제 | 이 작품은 작가가 인목 대비의 폐비를 반대하여 광해군의 미움을 받아 옥고를 치르는 상황에서 지은 것으로 추정된다. 임금에게 버림받아 억울하게 옥고를 치르는 심정을 남녀 관계에 의탁하여 읊고 있는 가사이다. '자도'는 '스스로 애도한다.'라는 뜻으로, 자신이 어떻게 되든 임금에 대한 마음은 변치 않을 것이라는 충정을 담고 있다. 천상과 현실의 공간을 넘나드는 설정과 다양한 고사 등을 활용하여 화자의 현실 인식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주제 | 임금에 대한 변함없는 충절

구성 |

- 1~14행: 임에게 억울함을 토로함.
- 15~29행: 임에 대한 그리움과 원망을 표출함.

㉔ 김용준, 「계」

해제 | 이 수필은 화가이자 문인인 글쓴이가 자신이 흔히 그림의 소재로 활용하던 계에 대한 독특한 관점을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다. 글쓴이는 자신이 계를 즐겨 그리는 이유를 제시하며, 계가 창자가 없어 아픔을 모르며, 어리석고 싸우기 잘하는 속성을 지녔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과 우리 민족의 삶의 자세에 대해 성찰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계의 속성을 통해 자신의 예술관을 분명히 드러내고, 나아가 인간의 속성을 풍자하는 작품으로 평가된다.

주제 | 계의 특성을 통한 인간의 삶 풍자

구성 |

- 처음: 글쓴이의 예술관
- 중간 1: 계를 즐겨 그린 이유
- 중간 2: 계를 소재로 한 한시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
- 끝: 좋은 화제인 계에 대한 글쓴이의 평가

18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

정답 ③

정답 해설 (가)에서는 '어찌따 진일 ~ 아닌 게오'처럼 의문의 형식을 활용하여 덕을 닦지 않는 현실을, (나)에서는 '하루를 벌을 ~ 추위 어찌할까', '백일이 무정하니 ~ 동이에 비칠소냐'처럼 의문의 형식을 활용하여 정치적으로 혼란한 현실을, (다)에서는 '약고 영리하게 ~ 많지 않은가.'처럼 의문의 형식을 활용하여 우리 민족 중 어리석은 이들이 많은 현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강조하고 있다.

오답 해설

- ① (가)~(다) 모두 다양한 영탄적 표현이 쓰이고 있지만, 이를 통해 대개 현실에 대한 한탄의 정서를 표출할 뿐, 환상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지는 않다.
- ② (가)~(다) 모두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는 표현이 쓰이고 있지는 않다.
- ④ (나)에는 풍상이 섞여 치고, 천지가 얼어붙는 시련의 상황을 나열하여 화자의 비참한 처지를 드러내고 있다. (가)와 (다)에는 유사한 상황이 나열되어 있지 않다.
- ⑤ (다)에 화제로서 계를 즐겨 그리는 이유가 제시되기는 하지만 계의 변화를 통해 예찬적 태도를 드러내지는 않는다. (가), (나)도 화자가 지향하는 바나 그리워하는 인물에 대해 언급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들의 변화 양상을 묘사하고 있지는 않다.

19 시어, 시구의 의미와 기능 파악

정답 ④

정답 해설 '길 잃은 행인'은 덕을 닦지 않고 정도를 걷지 않는 이들로, 화자가 궁극적으로 구하려고 하는 세상 사람들이다.

오답 해설

- ① '성의관'과 '팔덕문'은 화자가 지나가고 바라보는 대상으로, 화자는 행인들이 이곳을 오가기를 바란다. 이처럼 '성의관'과 '팔덕문'은 화자가 지향하는 바가 '성의'와 '팔덕'임을 드러낸다.
- ② '넓고도 곧다'는 것은 '한길'이 지닌 특성을 표현한 것으로, 화자가 이렇게 오가기 쉬운 '한길'을 외면하는 행인들의 모습을 안타까워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 ③ '긴 술'은 세상을 구하는 데 활용되는 '제세주'를 만드는 데 활용되는 것으로, 세상을 구하려는 의지가 강송처럼 굳고 강함을 드러낸다.
- ⑤ '모강두'는 날이 점점 어두워지는 강가로, 세상을 구하려 했던 뜻을 이룰 수 없게 된 암담한 상황을 드러낸다.

20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 ④

정답 해설 (다)에서 글쓴이가 '무장공자로써 단장의 비애를 모른다'는 글귀에서 더 감동받았다는 것은 계가 자신처럼 약고 영리하고 처세할 줄 모른다는 속성이 닮았기 때문이지, 환쟁이가 아니라 예술가로 살겠다는 작가의 인생관이 글귀에 담겨 있기 때문은 아니다.

오답 해설

- ① (나)에서 '국화'는 절개와 지조 있는 신하를 비유한 것으로, 이 꽃들이 '풍상'에 '떨어지'는 상황은 자신처럼 절개와 지조 있는 신하들이 옥고를 치러야만 하는 당대의 정치 현실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 ② (나)에서 '은침'과 '오색실'로 '임의 터진 옷을 깎고자 하'는 것은 임금과 자신의 관계를 남녀의 관계로 설정하여 임금에 대한 자신의 충정이 변함없음을 표현한 것이다.

- ③ (나)에서 '황금이 많'아 '매부'를 한다는 것은 돈으로 임금에게 보낼 글을 짓는다는 것이고, '백일이 무정하니 뒤집힌 동이에 비'지겠느냐는 것은 아무리 노력해도 임금이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살피지 않을 것이라는 한탄을 표현한 것이다.
- ⑤ (다)에서 작가는 '약고 영리하게 처세할 줄 모르는' 계의 속성이 자신과 우리 민족 중에도 있다고 했는데, 이는 자신과 타인의 삶에 대한 솔직한 자기 성찰의 내용을 표현한 것이다.

21 작품의 내용 파악

정답 ④

정답 해설 글쓴이는 어부가 계의 탐욕스러운 성질을 이용해 계를 잡는 일을 소개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계의 어리석음을 제시하기 위해 활용한 것으로, 어부의 지혜를 칭송하는 데 활용하지는 않는다.

오답 해설

- ① 글쓴이는 다른 사람에게 그림을 그려 달라고 부탁을 받는 경우, 그 청을 들어 줄 때에는 대개 계를 그려 주었다.
- ② 글쓴이는 되도록 물욕과 영달에서 벗어나 예술가답게 살아 보다가 죽자고 굳은 결심을 하였다.
- ③ 글쓴이는 계가 그리기 쉽고, 그리고 나면 붓장난이란 모미가 있는 것이라는 기쁨을 준다고 하였다.
- ⑤ 글쓴이는 계를 귀여운 놀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하지만, 어리석고 가증하기 짝이 없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하였다.

22 표현상의 특징 파악

정답 ③

정답 해설 [A]에서는 돈을 주고도 거울을 닦으려 하는 사람과 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명덕을 닦지 않으려는 사람을 대비하여 후자와 같은 사람들을 바라보는 화자의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고, [B]에서는 동짓날 자정에 집집마다 대문을 차례로 여는 것과 자물쇠를 굳게 잠가 자신의 침실을 닫는 것을 대비하여 봄이 온 것도 모르는 자신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해설

- ① 가정의 상황을 통해 화자의 절망적 처지를 표현한 것은 [A]가 아니라 [B]이다.
- ② [B]에 불가능한 상황이 제시되어 있지만 화자의 현실 극복 의지가 나타나지는 않는다.
- ④ [A]와 [B] 모두 계절감이 드러나는 시어를 사용해 화자의 관조적 태도를 나타내고 있지 않다.
- ⑤ 시간의 흐름에 따른 사상 전개는 [A]가 아니라 [B]에 나타나는데, [B]에는 변화하는 화자의 정서가 드러나 있지 않다.

23 구절의 의미 파악

정답 ③

정답 해설 ㉔에서 새벽달에 섞여 임의 잠을 깨우겠다는 것은 사랑하지만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임에 대한 원망을 표현한 것으로, 임에 대한 자신의 희생 의지를 나타낸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 ① ㉔에서 '천문구중'은 임을 만나기 위해 거쳐야 하는 하늘의 문들로, 임과의 만남이 어렵다는 점을 부각하는 데 활용된다.
- ② ㉔은 자신이 죄를 지어 옥고를 치르게 된 것을 조물주의 처분이라고 여기고 있는데, 이는 현재 상황에 순응할 수밖에 없다는 화자의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 ④ ㉔에서 '해공'은 어리석고 눈치 없고 싸우기 잘하는 속성의 계를 높여 부르는 말로, 계에 대한 조롱의 의미가 담겨 있다.
- ⑤ ㉔에서 글쓴이가 계를 좋은 화제로 생각하는 이유가 계가 다양한 상황에 따라 각각 어울리는 의미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24~26]

박재삼, 「울음이 타는 가을 강」 / 객재구, 「절망을 위하여」

㉔ 박재삼, 「울음이 타는 가을 강」

해제 | 이 시는 해 질 무렵 가을 강을 바라보며, 삶의 유한함에서 느끼는 애상적 정서를 노래하고 있는 작품이다. 물과 불의 이미지를 중심으로 시각과 청각 등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사상을 전개하고 있으며, 전통적이고 애상적인 어조를 바탕으로 화자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주제 | 인생의 유한성에서 느끼는 상실과 애상의 정서

구성 |

- 1연: 가을 산등성이에서 흘리는 눈물
- 2연: 울음이 타는 가을 강을 바라봄.
- 3연: 삶의 유한성에서 느껴지는 애상적 정서

❷ 관재구, 「절망을 위하여」

해제 | 이 시는 고난의 역사, 부정적 현실에도 좌절하지 않고 곳곳하게 삶을 이어 가려 애쓴 우리 민족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는 작품이다. 화자를 비롯한 '우리들'이 처해 있는 현실적, 심리적 상황을 구체적인 시각적 이미지로 형상화했으며, 우리들이 간직한 미래에 대한 희망을 '종이배', '풀포기', '이슬' 등 상징적인 시어를 통해 드러내고 있다.

주제 | 부정적 현실 속에서 희망을 되살리려는 의지

구성 |

- 1~5행: 부정적 현실 인식 속에서 품는 희망
- 6~8행: 억압, 수탈로 고통받은 지난날
- 9~15행: 억압과 공포, 불안에 익숙해진 우리들
- 16~19행: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우리들

24 표현상의 특징 파악

정답 ④

정답 해설 (가)는 '물(강) ↔ 불(불빛)', '기쁨 ↔ 울음'이라는 대조적 속성을 지닌 소재를 바탕으로, (나)는 '절망의 강기슭 ↔ 배', '어둠 ↔ 풀포기'와 같은 대조적 속성을 지닌 소재를 바탕으로 시의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오답 해설

- ① (가)와 (나)는 종결 어미를 통해 화자의 감정을 표출하고 있다. 영탄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두 시 모두 시적 대상을 예찬하고 있지 않다.
- ② (가)와 (나)는 모두 시적 화자의 독백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대화의 형식을 활용해서 시상을 전개하고 있지 않다.
- ③ (가)는 '-고나', '-것네'와 같은 예스러운 종결 어미를 사용하고 있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 ⑤ (가)는 '가을 햇볕'을 통해 계절적 배경이 드러나지만, (나)에는 계절적 배경이 드러나는 시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

25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 ②

정답 해설 (가)와 (나)의 화자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애상적 정서와 고통, 공포와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다. 이러한 추상적 관념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여 형상화함으로써 시적 상황 및 의미를 생생하게 전달한다. (가)의 화자는 친구의 서러운 사랑 이야기를 떠올리며 산등성이에 서서 해 질 녘 노을이 짙게 깔린 강을 바라보며 서글픈 감정을 느낀다. 화자는 친구의 이야기에 몰입하고 감정적으로 동화되어 눈물을 흘리며 '울음이 타는 가을 강'을 느끼고 있는 것이지,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사랑 이야기를 떠올리는 것이 아니다.

오답 해설

- ① 한자리에 못 앉아 있다는 것은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상태를 의미한다. 마음도 한자리 못 앉아 있는 마음이라는 것은 화자가 심리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태에 놓여 있음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 ③ 잔다는 것은 평온하고 안정된 상태를 의미한다. 바람은 자도 마음이 자지 않는다는 것은 바람이 부는 상황이 그치더라도, 마음은 평온한 상태에 머물거나 멈추지 않을 것임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 ④ 배고프다는 것은 결핍을 의미한다. 따라서 마음이 배고프다는 것은 사랑과 추억이 결핍된 화자의 심리 상태를 뜻한다고 볼 수 있다.
- ⑤ 낯선은 익숙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낯선 슬픔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익숙한 슬픔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화자가 자신의 상황을 일상적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6 배경 및 소재의 기능 파악

정답 ③

정답 해설 소리 죽은 가을 '강'은 화자가 소멸, 삶의 유한성을 토대로 애상적 정서를 느끼고 슬픔을 내면화하는 공간이고, 절망의 '강기슭'은 화자가 처한 부정적 상황의 공간이지만 동시에 배를 띄우며 풀포기와 이슬이 되고자 하는 의지를 가져 보려는 공간이기도 하다.

오답 해설

- ① ㉠은 화자가 삶의 유한성을 실감하는 공간으로 볼 수 있지만, ㉡은 삶의 유한성을 실감하는 공간으로 볼 수 없다.
- ② ㉠은 인생, 삶의 여정을 의미하는 공간을, ㉡은 화자가 현재 처한 삶의 공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지만 모두 화자가 살아온 삶의 여정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 ④ ㉠은 화자가 지니고 있는 슬픔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은 화자가 슬픔을 객관화하는 공간으로 볼 수 없다.
- ⑤ ㉠은 화자가 실감하고 있는 삶의 공간이지, 현재 처한 부정적 상황의 공간이 아니다. 그리고 ㉡은 화자가 부정적 상황을 극복하고자 노력하는 공간이지, 부정적 상황을 극복한 공간으로 볼 수 없다.

[27~30]

작자 미상, 「정을선전」

해제 | 이 작품은 많은 필사본이 남아 있고 활판본으로도 여러 번 출판되었었다. 이는 이 작품이 인기가 많았음을 나타낸다. 이 작품은 전반부는 계모형 가정 소설, 후반부는 쟁쟁한 가정 소설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여느 가정 소설과 달리 남녀 주인공인 을선과 추연의 애정 성취를 위한 적극적 자세가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면모는 중세적 질서나 규범이 약화되거나 와해되어 가는 과정에서 개인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당대 사회의 특징이 작품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주제 | 봉건 가족 제도의 구조적 모순으로 인한 가족 간의 갈등과 그 해결 과정 전체 줄거리 |

중국 송나라 때 정 승상은 자식이 없던 차에 아들 을선을 얻게 된다. 이때 정 승상의 친구인 유 승상은 딸 추연을 얻는다. 유 승상의 부인은 추연을 낳고 삼일 만에 세상을 떠나고, 후실로 들어온 노 씨는 추연을 박해한다. 을선과 추연은 사랑에 빠져 혼약을 하게 되는데, 이를 시기하는 노 씨의 음모로 을선은 추연에게 다른 남자가 있다고 의심하여 떠나고, 추연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을 혈서로 남긴 후 자결한다. 이 일로 천지신명의 화를 입은 노 씨는 죽게 되고, 추연의 원혼이 출몰하여 여러 사람이 죽게 된다. 한편 조왕의 딸과 혼인하고 승상의 자리에 오른 을선은 추연의 원혼이 출몰하는 곳으로 부임하여 선인에게서 구한 약으로 추연을 다시 살려 낸다. 재생한 추연은 을선과 결혼하여 총렬부인에 봉해진다. 이후 조왕의 딸인 정렬부인은 총렬부인을 시기하여 을선이 서용의 반란을 정벌하러 집을 비운 사이에 총렬부인을 모함한다. 임신하고 있던 총렬부인은 금섬과 월매의 도움을 받아 목숨을 연명하고 땅굴에서 아이를 낳는다. 총렬부인의 서간을 받은 을선이 집으로 급히 돌아와 총렬부인을 구하고 정렬부인은 벌을 받는다. 이후 을선과 총렬부인은 영화를 누리다가 한낱한시에 죽는다.

27 작품의 내용 이해

정답 ②

정답 해설 을선은 월매를 구하고 연고를 자세히 물었다. 이에 월매는 금섬 죽은 일과 유 부인이 화를 피하여 땅굴 속에 있음을 자세히 고했다. 이를 들은 을선은 분해하며 급히 월매를 앞세우고 땅굴로 갔다. 이와 관련하여 을선이 월매의 설명을 들으며 시비를 가릴 필요성을 느꼈다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 ① 월매는 조 씨의 고문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무릅쓰고 유 부인의 간 곳을 말하지 않았으며, 탄로 날까 겁을 내어 수건으로 목을 매어 죽고자 했다. 이를 통해 월매가 죽음을 무릅쓰고 유 부인, 즉 총렬부인을 보호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 ③ 바른대로 아뢰라는 명을 받은 옥졸들은 옥중의 시신이 얼굴과 손길이 곱지 못하여 부인과 달라 의심했었다고 을선에게 말했다.
- ④ 정렬부인이 총렬부인을 모함하기 위해 거짓으로 병든 체했음을 금연이 을선에게 고한 말을 통해 알 수 있다.
- ⑤ 을선은 정렬부인의 악행으로 총렬부인이 위험에 처했던 것이 자신이 집안을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어머니에게 말했다.

28 소재의 기능 파악

정답 ②

정답 해설 을선은 총렬부인이 칼을 쓰고 들어와 죽기에 임박해 있다고 말하는 꿈을 꾸다. 꿈의 내용 때문에 놀라 몸이 떨리는 채로 잠에서 깬 을선은 군사로부터 유 부인의 서간을 받아 읽는다. 유 부인이 을선을 다시 만나지 못하고 죽게 되었다는 사정이 적혀 있는 서간을 읽은 을선은 보기를 다 못한 채 대경하여 급히 청춘마를 채쳐 삼 일 만에 황성으로 돌아왔다. 이를 통해 ㉠이 을선의 꿈에서 총

렬부인이 한 말과 연계되어 을선이 상황의 위중함을 인식하고 급히 황성으로 돌아오게 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 ① ㉠에는 유 부인이 죽을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이 제시되어 있을 뿐 사건의 전말을 시간적 순서에 따라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 ③ 총렬부인은 을선의 꿈에 나타나 자신이 은혜를 입어 죽을 위기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이 말과 관련하여 ㉠에서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④ 을선의 꿈에서 총렬부인은 을선에게 '온당하게 여기시니 인정 아니로소이다.'와 같이 원망스러운 태도를 드러냈다. 그러나 이런 태도를 보인 이유를 ㉠에서 총렬부인을 대했던 을선의 태도를 중심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에서는 을선에게 고마움을 느꼈고 그 은혜를 갚고자 했으나 갚을 수 없게 곤 죽게 된 사정을 말하고 있다.
- ⑤ ㉠에서 총렬부인은 자신의 기구한 운수가 자신의 과거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

29 대화의 특징 파악

정답 ①

정답 해설 을선의 어머니인 왕비는 [A]에서 집안에 불측한 일이 있다고 말했다. 여기서 불측한 일은 총렬부인의 방에 간부가 있었다는 것이다. [B]에서는 이 일에 대해 왕비가 사리에 어두워 판단을 현명하게 하지 못했음을 밝히고 있다.

오답 해설

- ② [A]에서 '즐겁기 측량없'다고 한 것은 을선이 전쟁에 나가 큰 공을 세우고 무사히 돌아온 것에 대해 말한 것이다. [B]의 부끄러움은 총렬부인을 죽일 뻔한 것에 대한 것이다.
- ③ [A]의 '통한한 말'에서는 후회의 심정이 아니라 한탄하는 심정이 드러나고 있다. [B]에서 '악녀의 꾀'라고 한 것은 정렬부인의 모함을 의미한다.
- ④ [A]에서 '전장에 가 대공을 세'웠다고 평가한 것은 을선의 공에 대해 말한 것이다. 이는 [B]에서 총렬부인을 '현부'로 칭한 것과 관련이 없다.
- ⑤ [A]에서 '어찌 다 형언하리오?'라고 한탄한 것은 총렬부인의 방에 간부가 있었다는 사건에 대해 말한 것이다. 그리고 [B]에서 '대면하리오?'라고 의문을 제시한 것은 총렬부인을 대할 면목이 없다는 것이다.

30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 ①

정답 해설 월매는 조 씨가 심문하는 것을 견디던 중, 나중에라도 탄로 날까 겁을 내고 수건으로 목을 매어 거의 죽게 된 상황에 처한다. 이로 인해 서사적 긴장감이 고조되는데, 이러한 상황에 승상이 필마로 들어온 것은 그러한 긴장감을 완화하는 역할을 한다. 이에 대해 총렬부인의 처소가 드러날 위험이 최고조에 이른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 ② 을선은 땅굴에 있는 총렬부인을 찾아 월매로 하여금 부인과 아이를 보호하도록 조치를 취한다. 이는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던 유 부인이 위기에서 벗어남을 나타냄으로써 서사적 긴장감을 완화하는 역할을 한다.
- ③ 을선은 복록을 찾고 금연을 잡아들여 심문한다. 이를 통해 을선이 총렬부인을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게 만든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 ④ 금연이 정렬부인이 시킨 대로 남복을 입고 총렬부인의 침소에 들어갔었다는 말을 통해 총렬부인의 방에 있던 간부가 금연이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총렬부인이 정렬부인의 모함에 의해 위태로운 상황에 처했음을 알 수 있다.
- ⑤ 복록은 왕비 침전에 와서 여러 차례 총렬부인이 정조를 지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는 왕비가 총렬부인이 정조를 지키지 않았다고 생각한 것에 개연성을 부여한다.

[31~34]

박완서, 「황혼」

해제 | 이 작품은 1979년에 발표된 단편 소설로 중산층의 허위에 찬 생활 윤리를 풍자한 작품이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감정 대립을 통해 강남 아파트 단지로 상징되는 대도시 중산층의 물질적 풍요의 공허함과 윤리 의식의 붕괴 상태를 적절히 드러내고 있다. 이 소설은 고부간의 심리적 갈등과 함께 젊은 세대의 윤리적 마비와 늙은

세대의 소외감을 포착하고 있다. '늙은 여자'가 명치 부분을 문질러 달라는 것은 사람의 정이 그림고 쓸쓸함을 위로받고 싶은 지극히 인간적인 욕구이지만, '젊은 여자'는 불만에서 오는 증세로 치부해 버린다. 현대 사회는 핵가족화로 세대 간의 단절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단절감이 전통적인 정에 의해 유지되어 왔던 가족 사이에서 역설적으로 더 심화되고 있다는 데 치유의 어려움이 있다.

주제 | 고부간의 심리적 갈등에서 오는 시어머니의 허탈함과 소외감

전체 줄거리

아파트에 늙은 여자(시어머니)와 젊은 여자(며느리), 젊은 여자의 남편과 아이들이 함께 살고 있다. 그런데 젊은 여자는 늙은 여자에게 어머니라는 호칭 대신 '노인네'나 '할머니'라는 호칭을 쓰고 있다. 늙은 여자는 가슴앓잇병이 있다고 하며 며느리와 아들에게 명치 부분을 문질러 달라고 청하지만 그들은 이를 거절한다.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도 뚜렷한 증세가 나타나지 않는다. 어느 날, 젊은 여자와 친구들과의 통화 내용을 우연히 엿들은 늙은 여자는 심한 모욕감을 느끼고 분개한다. 늙은 여자는 기쁨과 슬픔을 나눌 대상이 그리워 명치 부분을 문질러 달라고 한 것인데 이를 오해하는 젊은 여자가 미웠다. 늙은 여자는 자기가 비록 혼자 살지는 않지만, 자기 뜻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가치한 존재라 생각한다.

31 서술상의 특징 파악

정답 ③

정답 해설 이 글에서 시어머니인 늙은 여자를 며느리인 젊은 여자는 '노인네', '할머니' 등의 호칭으로 부르고 있다. 이를 통해 두 인물 간의 심리적 거리감을 제시하고 있다.

오답 해설

- ① 이 글에는 '늙은 여자'와 '젊은 여자'로 인물이 그려지고 있다. 작품 속 서술자 '나'가 등장하여 자신의 내면을 나타내고 있지 않다.
- ② 이 글에는 두 사건이 반복적으로 교차 서술되고 있지 않다.
- ④ 이 글에는 사건 전개 속도가 완료되고 있지 않으며 인물 간의 갈등 또한 해소되고 있지 않다.
- ⑤ 이 글에 주로 제시되고 있는 공간은 늙은 여자와 젊은 여자가 살고 있는 강변 아파트이다. 공간 이동을 통해 인물 간의 관계가 변화하게 된 원인을 서술하고 있지 않다.

32 작품의 내용 이해

정답 ④

정답 해설 이 글 뒷부분의 '늙은 여자는 심심할 때 곧잘 젊은 여자의 전화를 엿 들었다.'라는 내용을 통해 늙은 여자가 자신의 방 전화를 통해 젊은 여자가 친구들과 주고받는 통화를 몰래 엿들은 경험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 ① 젊은 여자는 친구들이 오이소박이 맛을 칭찬하며 누가, 어떻게 담갔는지를 궁금해했지만 무미건조하게 간단히 답하였다. 따라서 자부심이 생겼다고 볼 수 없다.
- ② 젊은 여자와 그녀의 남편 모두 늙은 여자를 할머니라고 부르고 그것이 일상적 호칭이 되어 버렸다. 따라서 자신의 남편에게 정정을 요구했다고 볼 수 없다.
- ③ 늙은 여자는 과거 자신의 시어머니가 아플 때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며 정성을 다하였다. 그때를 추억하며 떠올리는 것이지, 그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없다.
- ⑤ 젊은 여자가 친구들과 늙은 여자를 화제로 삼아 대화한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또한 통화를 할 때는 늙은 여자를 화제로 올릴 만큼 화제에 궁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따라서 늙은 여자를 화제로 삼으며 자신의 스트레스를 해소한다고 볼 수 없다.

33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 ①

정답 해설 <보기>는 변화된 현대 사회에서 노인들이 소외당하고 있는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 작품의 주제 의식과 관련 있는 늙은 여자와 젊은 여자의 갈등을 통한 소외감과 외로움은 사회로부터, 그리고 가족으로부터 배척당하고 고립된 노인들의 실상을 잘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젊은 여자는 늙은 여자의 존재 자체를 불편해하고 있기 때문에 근심거리로 여기는 것이지, 늙은 여자가 육체적, 정신적 질병을 지니고 있어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 ② 젊은 여자와 그녀의 남편은 늙은 여자를 할머니라고 부르기 위해 대화의 방법까지 간접적인 것으로 고쳐 나갔다. 늙은 여자는 가족들이 직접적으로 말을 건네는 것을 피하는 상황을 경험함으로써 가족으로부터 소외되었다고 볼 수 있다.
- ③ 늙은 여자는 아파트의 방 가운데 유일하게 바깥으로 창이 나지 않은, 골방과도 같은 방에 거주하고 있다. 이곳에 거주하며 늙은 여자는 가족들과의 관계 단절을 경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④ 늙은 여자는 젊은 여자가 자신의 명치끝을 만져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젊은 여자는 소화제를 건네며 늙은 여자의 기대를 무너뜨린다. 이는 젊은 여자가 늙은 여자를 관심과 애정을 바탕으로 하는 가족으로 여기지 않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⑤ 젊은 여자의 친구들이 그녀의 집에 놀러 오는 경우가 있지만, 그들은 늙은 여자를 향해 간단하게 인사하거나 그조차 생략하기도 하였다. 이는 사회로부터 노인들이 거부당하고 단절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4 인물의 심리, 태도 파악

정답 ②

정답 해설 [A]에는 늙은 여자가 자신의 시어머니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 정성을 다했던 과거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B]에는 애써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젊은 여자들의 대화 내용에 충분히 공감하는 늙은 여자의 현재 모습이 나타나 있다.

오답 해설

- ① [A]에 늙은 여자가 자신의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아 조바심을 내는 모습이 나타나 있지 않고, [B]에 늙은 여자가 자신의 소망을 이룬 모습이 나타나 있지 않다.
- ③ [A]에서 늙은 여자는 시어머니의 아픔을 진심으로 위로하며 시어머니를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다. 따라서 인물 관계에 어려움을 느끼고 자신의 상황에 좌절한다고 볼 수 없다.
- ④ [B]에서 늙은 여자는 젊은 여자들의 통화를 몰래 엿들으며 그들의 대화에 공감하고 있다. 이를 주변 인물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기 위해 노력한다고 볼 수 없다.
- ⑤ [A]와 [B]에는 모두 자신의 운명에 서글픔을 느끼는 늙은 여자의 모습이 나타나 있지 않다.

[화법과 작문]

35 발표 표현 전략 사용하기

정답 ②

정답 해설 4문단을 보면 발표자는 통신 관련 위원회의 조사 자료를 제시한 뒤, 조사 질문에 답한 응답 인원에게 해당하는 비율을 구체적인 수치로 밝혀 발표의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

오답 해설

- ① 발표자는 해당 용어를 들어 봤느냐는 질문을 던지며 발표를 시작하고 있으나 발표를 하게 된 계기를 밝히고 있지 않다.
- ③ 발표자는 발표 주제인 '콜 포비아'를 청중에게 익숙한 소재에 빗대어 설명하고 있지 않다.
- ④ 발표자가 청중의 반응을 살피기 위한 질문을 던지고 답을 하고 있기는 하나, 청중의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발표 내용을 전달하고 있지 않다.
- ⑤ 발표자는 청중의 경험담을 경청하고 반응하며 청중과 친밀하게 소통하고 있지 않다.

36 발표에서 자료, 매체 활용하기

정답 ②

정답 해설 [자료 1]은 구체적 통계 수치를 바탕으로 29세 이하에서 문자, 메시지 등의 비대면 의사소통을 특히 선호하고 있음을 뒷받침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연령대에서 비대면 소통을 선호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 가능하다.

오답 해설

- ① [자료 1]은 우리나라의 특정 연령층에서 선호하는 소통 방식의 경향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를 통해 해외에서 선호하는 소통 방식은 알 수 없다.
- ③ [자료 1]은 비대면 소통을 선호하는 양상에 대해 설명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비대면 문화가 일상화되고 있는 현상의 원인을 밝히지는 못하고 있다.

- ④ [자료 2]는 25세 이하 1,000명을 대상으로 콜 포비아를 겪는 이유를 알아본 것으로, 이를 통해 젊은층의 대다수가 콜 포비아를 겪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
- ⑤ [자료 2]는 25세 이하의 젊은층의 응답 결과로, 이를 통해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간의 갈등이 일어나게 된 배경은 알 수 없다.

37 발표 내용 이해, 평가하기

정답 ④

정답 해설 '배경지식'은 자신이 원래부터 알고 있던 경험이나 지식을 포함해 자신이 직접 겪은 경험은 물론, 책이나 매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접한 것들까지도 포함한다. '학생 1'과 '학생 3'은 모두 이러한 자신의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발표 내용을 연관 짓고 있지만, 두 학생 모두 이를 바탕으로 발표 내용의 문제점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

오답 해설

- ① '학생 1'은 콜 포비아의 개념을 비롯한 새로운 내용들을 알게 된 것이 유익하며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 ② '학생 2'는 발표에서 언급하고 있지 않은 상황을 의미하는 용어, 혹은 현상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다.
- ③ '학생 1'은 친구들과 메시지나 메신저로 대화하던 자신의 습관을, '학생 2'는 평소 전화 통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자신의 경험을 발표 내용과 연결하고 있다.
- ⑤ '학생 2'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발표 내용과 다른 상황에 대한 정보를, '학생 3'은 해외에서 진행되는 콜 포비아 극복 프로그램 및 서비스 등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탐색하려 하고 있다.

38 비평 글쓰기 표현 전략 사용하기

정답 ①

정답 해설 (가)는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을 구체적인 사례로 제시하여 지나친 간접 광고가 시청자에게 거부감을 주는 부정적 측면을 지적하고, 간접 광고가 더 이상 이대로 부정적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는 자신의 견해를 뒷받침하였다.

오답 해설

- ② (가)는 자신의 의견을 나타내기 위해 속담이나 격언을 활용하고 있지 않다.
- ③ (가)는 지나친 간접 광고가 야기하는 문제 상황을 언급하고 있으나, 심각성을 부각하기 위해 전문가의 평가를 인용하고 있지 않다.
- ④ (가)는 자신의 주장을 담고 있는 글로, 질문을 던지거나 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하여 문제의식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
- ⑤ (가)는 간접 광고의 문제점을 부각하고 있지, 문제 해결 방안의 실행 가능성을 점검하고 있지 않다.

39 비평 글쓰기 내용 조직하기

정답 ④

정답 해설 (가)의 1문단은 독자들이 접해 봤을 만한 장면을 활용하여 간접 광고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4문단에서 지나친 간접 광고는 프로그램이나 콘텐츠에 대한 선호 및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시청자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글쓰기에 반영된 생각은 ㄱ과 ㄷ이다.

오답 해설

- ㄴ. 간접 광고에 대한 노출을 줄일 수 있는 공적 플랫폼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 ㄸ. 간접 광고를 통해 광고주가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

40 대화 내용 이해, 평가하기

정답 ②

정답 해설 [A]에서 '학생 2'는 자신의 의견을 제시한 뒤 '학생 3'에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학생 3'의 동의를 바탕으로 주제와 관련한 의견의 합의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해설

- ① [A]에서 '학생 1'은 지나치게 노출되는 간접 광고에 대한 우려를, '학생 2'는 간접 광고의 긍정적 측면을 언급하여 두 학생 모두 대화 상대방의 의견에 동의를 나타낸다. 하지만 그와 상반되는 자신의 의견을 뒤이어 전개하고 있다.
- ③ [B]에서 '학생 1'은 2문단에 보강해야 할 내용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계기나 원인에 대해 언급하면 더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라는 의문의 형식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바를 완곡하게 제시하고 있다.

- ④ [B]에서 '학생 2'는 '부연할 수 있는 내용을 넣을게', '수정할게', '반영해서 수정할게' 등을 통해 상대방의 요구를 수용하고 이를 반영하겠다는 뜻을 전달하고 있다.
- ⑤ [B]에서 '학생 3'은 '이를 수용하는 시청자들의 태도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면 좋겠어.'라는 의견을 통해 글에 드러나지 않은 내용을 추가적으로 제시하기를 요청하고 있다.

41 비평 글쓰기 자료, 매체 활용하기 정답 ③

정답 해설 <보기>에 제시된 자료는 소비자들의 간접 광고 제품 구매 경험 통계 자료이다. 이 자료는 (가)를 보완하기 위해 (나)에서 논의한 내용 중, 간접 광고에 노출된 시청자들이 상품을 구입하여 소비 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 오답 해설**
- ① (나)에서 간접 광고가 시청자들에게 위화감을 주지 않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었다는 원인을 뒷받침하는 내용은 전혀 논의가 되지 않았다.
 - ② <보기>의 자료는 간접 광고 제품의 구매 경험 여부를 알려 주는 것이지, 간접 광고를 통해 제품이나 브랜드에 대한 인식 제고에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입증한다고 보기 어렵다.
 - ④ (나)에서 논의한 내용이지만, <보기>의 자료는 간접 광고를 작품이나 프로그램의 이미지와 어울리게 연출하여 시청자들의 호평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뒷받침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 ⑤ (나)에서 논의한 내용이지만, <보기>의 자료가 나타내는 간접 광고 제품의 구매 경험 여부를 간접 광고에서의 유용한 정보를 바탕으로 시청자들이 상품에 관심을 가지고 검색하는 성향이 있다는 사실로 연결하는 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42 비평 글쓰기 내용 점검, 조직하기 정답 ⑤

정답 해설 (나)에서 논의된 내용의 포인트는 간접 광고의 긍정적 내용 추가, 비유적 표현을 활용한 제목 수정, 간접 광고가 광고 마케팅으로 자리 잡게 된 계기나 원인 설명 추가, 간접 광고가 지나치게 제시된 사례의 추가 제시, 간접 광고를 대하는 시청자들의 비판적 태도의 필요성 추가이다. 따라서 끝부분에 '시청자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접하는 간접 광고를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비판적 태도를 기를 필요가 있다.'라는 문장을 추가하는 것이 적절하다.

- 오답 해설**
- ① 비유적 표현이 제목에 활용되어 있지 않다.
 - ② 간접 광고가 변화해 온 과정은 논의에 언급되어 있지 않다.
 - ③ 간접 광고가 갖는 부정적 측면의 내용 추가를 요구하고 있지 않다.
 - ④ 간접 광고가 지나치게 제시된 사례의 추가 제시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간접 광고가 등장한 프로그램 관련 내용 삭제를 요구하고 있지 않다.

43 정보 전달 글쓰기 내용 생성하기 정답 ④

정답 해설 초고에서는 재생 섬유가 의류 산업에 활용되는 경우만 언급하고 있을 뿐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점에 대해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해설**
- ① 2문단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에 맞춰 국내외 여러 기업에서 재생 섬유를 만드는 기술 발전에 앞장서고 있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 ② 3문단에 재생 섬유를 활용한 옷 중 옷의 일부에만 재생 섬유를 활용했지만 이를 명시하지 않아 친환경을 위장하는 경우에 대한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 ③ 2문단에 재생 섬유를 활용하면 일반 섬유로 의류를 만들 때보다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물과 목재를 절약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 ⑤ 1문단에 플라스틱 쓰레기로 인한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플라스틱 쓰레기를 재활용해 섬유를 만드는 재생 섬유가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44 정보 전달 글쓰기 자료, 매체 활용하기 정답 ④

정답 해설 [자료 1]의 (가)는 국내외 재생 섬유 시장 규모가 증가 추세에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자료 3]은 A사가 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원단을 활용한다는 내용

과 국내 업체가 재생 섬유를 활용하고 있다는 내용을 통해 국내외 기업에서 재생 섬유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자료 1]의 (가)와 [자료 3]은 재생 섬유가 사용되는 국내외 상황을 나타낼 뿐 국내외 기업에서 플라스틱으로 재생 섬유를 만드는 기술 발전에 앞장서고 있다는 내용을 나타내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해설**
- ① [자료 1]의 (가)에서 국가별 재생 섬유 시장의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내용과, (나)에서 플라스틱병을 재생 섬유로 활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는 내용을 통해 1문단의 재생 섬유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는 내용을 보완할 수 있다.
 - ② [자료 2]의 플라스틱으로 인한 바다 오염에 대한 내용을 통해 1문단의 플라스틱 쓰레기로 인한 문제가 심각하다는 내용과 관련한 사례를 제시할 수 있다.
 - ③ [자료 3]의 재생 섬유 제조 공정에서 유해 물질을 활용한다는 내용을 통해 3문단의 재생 섬유를 만드는 과정에서 환경 오염이 일어날 수 있다는 내용을 구체화할 수 있다.
 - ⑤ [자료 1]의 (나)에서 플라스틱병의 재활용 현황 중 재생 섬유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내용과 [자료 2]의 한 번 의류로 만든 재생 섬유를 다시 재활용하기 어렵다는 내용을 통해 3문단의 재생 섬유로 인해 플라스틱의 재활용이 반복적으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내용을 보완할 수 있다.

45 정보 전달 글쓰기 내용 점검, 조정하기 정답 ③

정답 해설 재생 섬유의 장점으로 의류로 인한 환경 오염 절감과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을 열거하고 있고, 초고에 제시된 재생 섬유의 문제점인 옷의 일부에만 재생 섬유를 활용해 친환경을 위장하는 문제와 자원의 반복적 재활용 문제, 재생 섬유를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 오염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각각 밝히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오답 해설**
- ① 재생 섬유를 활용한 의류가 환경 보전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에 재생 섬유의 장점은 나타나 있지만, 열거가 활용되지 않았으며 초고에 제시된 재생 섬유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
 - ② 재생 섬유의 장점으로 재활용을 도모하고 친환경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을 열거하고 있지만, 초고에 제시된 문제 중 자원의 재활용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은 언급하고 있지 않다.
 - ④ 재생 섬유의 장점으로 쓰레기를 재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이 된다는 것과 여러 종류의 합성 섬유를 만들 수 있는 방안이 된다는 점을 열거하고 있지만, 초고에 제시된 재생 섬유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각각 언급하고 있지 않다.
 - ⑤ 초고에 제시된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각각 언급하고 있지만, 재생 섬유의 장점을 열거하고 있지 않다.

[언어와 매체]

35 주체 높임 표현 정답 ④

정답 해설 ㉔에 쓰인 높임 선어말 어미는 '-시-'로, 주체인 '언니'를 높이고 있다. 따라서 선어말 어미를 사용하여 '어머니'를 높인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해설**
- ① ㉑에서는 상대를 높이기 위해 1인칭인 '나'를 낮추어 표현하는 특수 어휘인 '저'와 종결 어미인 '-어요'를 사용해 청자인 '어머니'를 높이고 있다.
 - ② ㉒에서는 특수 어휘인 '모시다'를 사용해 객체인 '할머니'를,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해 '어머니'를 높이고 있다.
 - ③ ㉓에서는 조사인 '께서', 특수 어휘인 '드시다',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해 '할머니'를 높이고 있다.
 - ⑤ ㉔에서는 선어말 어미 '-으시-'를 사용해 '시간'을 높이고 있는데, 이는 '고모'를 높이기 위한 간접 높임 표현이라 할 수 있다.

36 중세 국어의 문법

정답 ①

정답 해설 ㉞는 주체인 '태자'를 높여야 하는 상황이다. [A]에 의하면 중세 국어에서 주체 높임은 선어말 어미 '-시-'나 '-샤-'로 실현되었는데, '-니'처럼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할 때에는 '-시-'가 쓰였다고 하였다. 따라서 ㉞는 '나가시니'로 쓰였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㉜는 객체인 '부처님'을 높여야 하는 상황이다. [A]에 의하면 중세 국어에서 객체 높임은 'ㄷ, ㅌ, ㅈ, ㅊ' 뒤에, 그리고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선어말 어미인 '-줄-'으로 실현되었다. ㉜는 객체를 높이기 위해 'ㄷ' 뒤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 선어말 어미를 활용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바즈보리라'로 쓰였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37 표준 발음법에 관한 조항 - 받침의 발음

정답 ⑤

정답 해설 '닭지'는 'ㄷ' 뒤에 'ㅈ'이 결합되는 경우로, ㉠이 아니라 ㉡에 해당하므로 [달치]로 발음해야 한다. '젓하다'는 'ㅈ'을 'ㄷ'으로 발음해야 하는 경우로, ㉢에 해당하므로 [저치다]로 발음해야 한다.

오답 해설

- ① '농고'는 'ㅎ'이 'ㄱ'과 결합되는 경우로, ㉡에 해당하므로 [노코]로 발음해야 한다. '술하다'는 'ㄷ'으로 발음되는 'ㅌ'과 'ㅎ'이 결합하는 경우로, ㉢에 해당하므로 [수타다]로 발음해야 한다.
- ② '맑던'은 'ㄴ'이 'ㄷ'과 결합되는 경우로, ㉡에 해당하므로 [만:턴]으로 발음해야 한다. '종소'는 'ㅎ'이 'ㅌ'와 결합되는 경우로, ㉢에 해당하므로 [조:쏘]로 발음해야 한다.
- ③ '만형'은 받침 ㄷ과 뒤의 'ㅎ'이 결합되는 경우로, ㉢에 해당하므로 [마형]으로 발음해야 한다. '싫어도'는 'ㄷ' 뒤에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가 결합되는 경우로 ㉡에 해당하므로 [시리도]로 발음해야 한다.
- ④ '않는'은 'ㄴ' 뒤에 'ㄴ'이 결합되는 경우로, ㉢에 해당하므로 [안는]으로 발음해야 한다. '쌍네'는 'ㅎ' 뒤에 'ㄴ'이 결합되는 경우로, ㉢에 해당하므로 [쌍네]로 발음해야 한다.

38 용언의 활용

정답 ⑤

정답 해설 '긋다'는 '긋고', '긋는'처럼 활용할 때 어간과 어미가 바뀌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긋어(긋+-어)'처럼 어간의 'ㅌ'이 탈락하는 경우도 있는 'ㅌ' 불규칙 활용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 ① '거르다'는 '걸리'처럼 활용할 때 경우에 따라 어간의 'ㄹ'이 'ㄹㄹ'로 바뀌기도 하는 'ㄹ' 불규칙 활용에 해당한다.
- ② '푸다'는 '피'처럼 활용할 때 경우에 따라 어간의 '우'가 탈락하기도 하는 '우' 불규칙 활용에 해당한다.
- ③ '(땅에) 묻다'는 활용을 할 때 어떤 경우에서든 어간과 어미가 원래의 모습을 지니는 규칙 활용에 해당한다.
- ④ '슬프다'는 활용할 때 '슬퍼'처럼 어간의 'ㄷ'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올 때 항상 탈락하는 'ㅇ' 탈락 활용에 해당한다.

39 문장의 짜임 파악

정답 ③

정답 해설 ㉠에서 '우리가 살았던'은 관형어 기능을 하고, '지붕이 매우 뽕족했다.'는 서술어 기능을 한다. ㉢에서 '늘 당당했던' 역시 관형어 기능을 하고, '그가 실제로는 소심한 사람임'은 주어 기능을 한다.

오답 해설

- ① ㉢에서 '갑자기 생긴'의 생략된 주어는 수식하는 대상인 '용돈'이다. ㉢에서 '늘 당당했던'의 생략된 주어 역시 수식하는 대상인 '그'이다.
- ② ㉢에서 '갑자기 생긴'은 안은문장의 목적어인 '용돈'을 수식하고, ㉠에서 '우리가 살았던'은 안은문장의 주어인 '집'을 수식한다.
- ④ ㉠에서 '지붕이 매우 뽕족했다.'는 서술어 기능을 하는 안긴문장으로, '매우'는 '뽕족했다'를 수식하는 부사어이다.
- ⑤ ㉢에서 '늘 당당했던'은 대명사인 '그'를 수식하고, '소심한'은 명사인 '사람'을 수식한다.

40 매체의 유형에 따른 특성

정답 ⑤

정답 해설 기사 하단에 기사에 대한 독자 반응이 제시되어 있다. 수용자는 이를 통해 기사 내용에 대한 다른 독자들의 반응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바탕으로 기사에 제시된 정보가 믿을 만한 정보인지를 검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 ① 기사 상단에 '프린터로 출력' 기능을 제공하여 기사를 지면에 인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수용자는 이 기능을 이용하여 기사의 내용을 종이에 인쇄하여 활용할 수 있다.
- ② 기사 내용 하단에 기사의 최초 작성 일시와 수정 일시가 명시되어 있다. 수용자는 기사의 수정 시간을 확인하여 기사가 최초로 작성된 이후에 수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 ③ 기사 상단에 'SNS에 공유' 기능을 제공하여 기사를 누리 소통망[SNS]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수용자는 이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기사에 담긴 정보를 온라인으로 연결된 다른 공간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
- ④ 기사 내용 하단에 기자가 작성한 다른 기사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는 하이퍼링크가 제시되어 있다. 수용자는 이를 클릭해 기사를 작성한 기자의 다른 기사들의 내용을 열람하여 기자가 주로 다루는 분야의 기사를 확인할 수 있다.

41 정보 구성 언어

정답 ④

정답 해설 기사에서는 '○○도 내 전체 학생 수'와 '농촌 유학 센터 및 유학생 수 추이'에 대한 시각 자료가 나란히 배치되어 있다. 왼쪽의 시각 자료는 ○○○도 내의 학생 수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 주고 있으며, 오른쪽의 시각 자료는 농촌 유학 사업 추진으로 ○○○도의 농촌 유학 센터와 유학생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시각 자료들을 나란히 배치한 것을 통해 사업 추진의 결과로 농촌 학생들의 학습권이 증진되었다는 정보는 확인할 수 없다.

오답 해설

- ① 기사의 '○○도 내 전체 학생 수' 자료에서는 학생 이미지를 통해 학생 수가 감소해 왔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는 기사에서 사업의 필요성으로 언급된 ○○○도의 학령기 인구수가 꾸준히 감소하였다는 내용을 뒷받침하며 이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자료이다. 따라서 적절한 반응이다.
- ② 기사에서는 몇 년 전까지 농촌 지역의 분교들이 폐교되거나 통폐합될 위기에 놓여 있었음을 사업 추진의 배경으로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이어 ○○○도 내 전체 학생 수가 2008년부터 2022년 사이에 대폭 감소했음을 보여 주는 통계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통계 자료가 기사의 내용을 뒷받침하며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으므로 이는 적절한 반응이다.
- ③ 기사에서는 ○○○도 교육청에서 사업의 규모를 확대하고자 노력하여 농촌 유학생 수가 늘었고 유학 센터와 협력 학교의 수도 확대되었음을 언급하고 있다. 이에 '농촌 유학 센터 및 유학생 수 추이' 자료에서는 화살표 모양의 이미지를 통해 유학 센터와 유학생 수의 증가 추이를 강조하여 사업의 규모를 확대하고자 노력해 온 결과를 부각하고 있으므로 이는 적절한 반응이다.
- ⑤ 기사에서는 ○○○도 교육청이 △△시 학생들을 유입하여 도농 학생 간의 교류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명회를 진행했음을 언급하고 있다. 이를 강조하기 위해 기사 마지막에서는 △△시 교육감의 인터뷰 중에서 도시와 농촌 학생들 사이의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내용, 많은 학생이 참여하기를 기대한다는 내용을 인용하여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는 적절한 반응이다.

42 매체 언어의 표현 방법

정답 ⑤

정답 해설 선어말 어미 '-겠-'은 미래의 일이나 추측, 주체의 의지, 가능성이나 능력을 나타낸다. ㉠에 사용된 '-겠-'은 협력 학교 확대와 유학 센터 추가 설치에 대한 교육청 측의 의지를 나타내는 기능을 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청 측이 농촌 유학 센터의 추가 설치에 대해 추측한 내용을 나타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 ① ㉠의 '에서'는 부사격 조사로 처소의 의미를 지녀 ○○○도 교육청이 농촌 유학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 장소가 △△시 교육청 강당임을 나타내고 있다.
- ② ㉢의 '있다'는 보조 용언으로 진행과 지속의 의미를 지녀 문장 속에서 ○○○도 교육청과 ○○○도청이 농촌 유학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 ③ ㉔의 ‘도’는 보조사로 포함과 더함의 의미를 지녀 문장 속에서 ○○도 교육청과 ○○도청의 농촌 유학 사업 추진 과정에 예산 편성뿐만 아니라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 또한 포함됨을 나타내고 있다.
- ④ ㉔의 ‘무려’는 부사로 그 수가 예상보다 상당히 많다는 의미를 지녀 문장 속에서 2023년의 유학생 수가 예상보다 많은 수로 증가하였음을 강조하여 나타내고 있다.

43 매체 자료 수용의 관점과 가치

정답 ①

정답 해설 ‘독자 1’은 요즘이 농촌 인구 감소가 우려되는 시기임을 언급하며 기사에서 소개한 농촌 유학 사업은 농촌으로 학생들을 유입할 수 있는 사업이므로 시기적으로 의미 있는 내용이라고 반응하고 있다. 이는 기사 내용의 시의성 측면을 긍정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 ② ‘독자 2’는 유학생 수가 아직 76명으로 적다는 점을 언급하며 농촌 지역 분교의 존치 문제가 농촌 유학 사업으로 해소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고 반응하고 있다. 이는 사업 확대 성과로 제시된 유학생 수에 주목해 사업의 실효성 측면을 부정적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③ ‘독자 3’은 유학생에게 경제적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라는 ○○도 교육청 측의 입장과 관련하여 모든 비용이 충분히 지급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을 표현하고 있다. 이는 기사에서 제시한 내용에 대해 긍정적으로 반응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독자 3’의 반응은 기사 분량의 충분성 측면과는 관계가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④ ‘독자 2’는 사업으로 학급 수가 늘어난 분교가 여러 곳이라는 ○○도 교육청 측의 발언과 관련해 출처가 확실한 정보가 제시되지 않아서 믿을 만하지 모르겠다고 반응하고 있다. 이는 기사의 정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없다는 점에 주목해 기사 내용의 신뢰성 측면을 부정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독자 1’은 선발 과정에 대한 자세한 정보도 함께 제공했으면 좋았겠다고 말하며 기사에서 부족한 정보를 지적하고 있다. ‘독자 1’의 반응에서 기사 내용의 신뢰성 측면을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부분은 없다.
- ⑤ ‘독자 3’은 직접 방문하지 않고 간편하게 누리집에서 유학 생활을 미리 체험해 보고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는 점이 편리하다고 반응하고 있다. 이는 사업과 관련한 정보가 온라인으로 제공된다는 점에 주목해 사업의 참여 용이성 측면을 긍정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독자 1’은 유학 신청을 누리집에서 접수할 예정이라는 기사의 내용과 관련하여 선발 과정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사업의 참여 용이성 측면을 긍정적으로 판단한 것은 아니다.

44 매체 언어와 개인적·사회적 소통

정답 ⑤

정답 해설 정연은 네 번째 발화에서 각 주민들을 인터뷰하는 장면을 하나씩 보여 주면 어떻겠냐는 서진의 제안에 대해 영상의 분량이 길지 않은 게 좋을 것 같으며 이미지 한 장으로 간단히 제시하자고 응답했다. 이는 북 트레일러 영상의 분량을 근거로 서진의 제안에 대해 거부의 의사를 표현한 것이다. 정연이 다른 참여자의 의견을 지지하면서 영상의 분량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든 부분은 없으므로 ⑤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 ① 서진은 첫 번째 발화에서 도서부 학생들이 함께 엮은 책 『○○동 골목 사람들』이 인쇄되어 나왔다고 말하며 대화방에 책 사진을 전송했다. 이는 자신이 직접 촬영한 사진 파일을 전송하여 다른 대화 참여자들과 공유한 것이다.
- ② 정연은 첫 번째 발화에서 표지의 인쇄 결과가 궁금했는데 따로 시간을 내어 만나지 않아도 메신저를 이용해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하다고 언급했다. 이는 따로 시간을 내어 만나지 않아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을 들어 메신저에 대해 긍정적으로 언급한 것이다.
- ③ 예지는 두 번째 발화에서 북 트레일러가 무엇이냐는 윤성에게 북 트레일러 영상의 사례로 바로 이동할 수 있는 하이퍼링크를 제공했다. 이는 다른 참여자가 화제와 관련이 있는 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한 것이다.
- ④ 윤성은 세 번째 발화와 네 번째 발화에서 웃는 얼굴과 손 모양의 이모티콘을 사용했다. 이는 앞서 정연이 제시한 의견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드러낸 것이다.

45 정보 전달과 설득

정답 ⑤

정답 해설 정연은 다섯 번째 발화에서 추천사 동영상의 다음 장면에 책 표지를 크게 보여 주고 책을 꼭 읽어 보라는 말을 내레이션으로 넣자고 제안하였다. 그리고 그다음 발화에서 서진은 정연의 의견에 동의하며 거기에 자막까지 넣으면 영상의 목적이 더욱 강조되어 보이겠다고 덧붙였다. #5에는 책을 꼭 읽어 보라는 말이 내레이션으로만 제시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에 자막을 추가하는 것은 적절하다.

오답 해설

- ① 예지는 세 번째 발화에서 골목 초입에서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효과를 주자고 제안했고, 정연은 이에 동의하며 효과음을 사용해서 표현하자고 제안하였다. #1에는 골목 초입에서 안으로 이동할 때 발자국 소리가 효과음으로 제시되어 있다. #1에 배경 음악을 추가하자는 내용은 논의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추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② 정연은 두 번째 발화에서 골목 안의 모습을 배경으로 주민 한 명 한 명의 사진이 하나씩 떠오르게 구성하자고 제안했고, 윤성은 그런 뒤에 오버랩 기법으로 주민들의 사진이 책 표지 안으로 녹아드는 것처럼 표현하자고 제안했다. #2에는 주민들의 사진이 책 표지 안으로 녹아드는 것처럼 오버랩 되도록 표현한다고 제시되어 있다. 주민들의 사진을 화면에 크게 확대하여 제시한다는 내용은 논의되지 않았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③ 서진은 두 번째 발화에서 각 주민들을 인터뷰하는 장면을 하나씩 보여 주자고 제안했고, 이에 대해 정연은 영상의 분량이 길지 않은 게 좋을 것 같다는 점을 들어 인터뷰를 했다는 사실만 드러나도록 이미지 한 장으로 간단히 제시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3에는 학생들이 주민을 인터뷰하는 모습이 한 장의 이미지로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주민들을 인터뷰하는 모든 장면을 하나씩 보여 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④ 윤성은 네 번째 발화에서 동영상으로 책에 대한 추천사를 넣자고 제안했고, 서진은 사서 선생님께 추천사를 부탁드리자고 제안했다. 이에 #4에는 사서 선생님의 추천사가 담긴 동영상이 제시되어 있다. 추천사 동영상을 보여 줄 때 효과음을 삽입하자는 내용은 논의되지 않았으므로 효과음을 삽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01 ②	02 ④	03 ⑤	04 ③	05 ④
06 ④	07 ③	08 ②	09 ④	10 ③
11 ④	12 ④	13 ②	14 ⑤	15 ①
16 ④	17 ②	18 ④	19 ②	20 ③
21 ②	22 ②	23 ④	24 ①	25 ③
26 ②	27 ④	28 ③	29 ③	30 ⑤
31 ④	32 ④	33 ③	34 ⑤	
회법과 작문	35 ①	36 ③	37 ⑤	38 ⑤
	39 ③	40 ②	41 ②	42 ②
	43 ④	44 ③	45 ②	
언어와 매체	35 ②	36 ④	37 ②	38 ④
	39 ⑤	40 ③	41 ⑤	42 ⑤
	43 ②	44 ④	45 ③	

[01~06]

유체의 속도와 압력의 관계에 대한 베르누이의 정리 / 에어포일의 구조와 양력 발생의 원리

㉠ 유체의 속도와 압력의 관계에 대한 베르누이의 정리

해제 | 이 글에서는 유체의 속도와 압력의 관계에 대한 베르누이의 정리를 설명하고 있다. 유체가 갖는 압력은 정압과 동압으로 구분되며, 정압과 동압의 합을 전압이라고 한다. 비압축성 유체에서 전압은 항상 일정하며 동압이 증가하면 정압이 감소하고 동압이 감소하면 정압이 증가한다. 베르누이는 벤투리관을 이용한 실험을 통해 유체의 이동 속도가 증가하면 유체의 압력이 감소하고, 유체의 이동 속도가 감소하면 유체의 압력이 증가한다는 '베르누이의 정리'를 발표하였다.

주제 | 유체의 속도와 압력의 관계와 베르누이의 정리

구성 |

- 1문단: 유체의 개념과 종류
- 2문단: 유체가 갖는 압력의 종류 - 정압, 동압, 전압
- 3문단: 벤투리관을 이용한 실험과 베르누이의 정리

㉡ 에어포일의 구조와 양력 발생의 원리

해제 | 이 글에서는 항공기 날개의 단면인 에어포일에서 양력이 발생하는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에어포일은 윗면을 따라 흘러가는 공기의 속도가 아랫면을 따라 흘러가는 공기의 속도보다 빨라 아랫면의 압력이 윗면의 압력보다 높아지면서 아랫면에서 윗면으로 떠받치는 힘인 양력이 발생한다. 또 에어포일의 받음각을 크게 하면 작용 반작용의 법칙에 의해 아래에서 위로 작용하는 힘이 발생하여 항공기를 밀어 올리게 된다.

주제 | 에어포일의 구조와 양력 발생의 원리

구성 |

- 1문단: 에어포일의 개념과 종류
- 2문단: 비대칭형 에어포일의 양력 발생의 원리
- 3문단: 대칭형 에어포일의 양력 발생의 원리
- 4문단: 비대칭형 에어포일의 장점과 단점

01 중심 내용 파악

정답 ②

정답 해설 (가)는 유체의 속도와 압력의 관계에 대한 베르누이의 정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나)는 베르누이의 정리가 적용된 에어포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오답 해설

- ① (가)의 1문단에서는 유체를 압축성 유체와 비압축성 유체로 분류하여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나)에서는 비압축성 유체인 공기가 에어포일을 통해 양력을 발생시키는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 ③ (가)에서 설명하고 있는 베르누이의 정리는 유체의 압력과 속도와 관련한 것이고 벤투리관을 이용한 실험에서는 유체의 속도와 관련한 물리적 현상이 제시되어 있다. 하지만 (나)에서는 베르누이의 원리를 통해 에어포일의 양력 발생

원리를 설명하고 있을 뿐 유체의 압력과 관련한 물리적 법칙을 도출하고 있지는 않다.

④ (가)에 유체의 특징이 일부 제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나)에서 이러한 특징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적 현상이 제시된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⑤ (가)의 벤투리관 실험에서 유체의 속도와 압력이 변화할 때 나타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지만, (나)에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된 이유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나)에서는 (가)에 제시된 베르누이의 정리를 적용하여 에어포일의 양력 발생 원리를 설명하고 있을 뿐이다.

02 세부 내용 파악

정답 ④

정답 해설 (가)의 2문단에서 정압과 동압의 합을 전압이라고 하며, 물과 같은 비압축성 유체의 경우 전압이 항상 일정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또 (가)의 3문단에서 벤투리관을 흐르는 물은 관이 좁은 곳에서는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좁은 관을 통과한 물은 다시 속도가 느려져 원래의 속도로 흐르게 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a와 c에서 물이 흐르는 속도는 같고 전압은 항상 일정하다.

오답 해설

- ① (가)의 3문단에서 a에서 b로 물이 흐르게 되면 물의 속도는 빨라지고 압력은 낮아진다고 하였다.
- ② (가)의 2문단에서 물과 같은 비압축성 유체는 속도가 빨라지면 동압이 증가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a에서 b로 물이 흘러가면 유체의 속도가 빨라지므로 동압이 점점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 ③ (가)의 3문단의 내용을 통해 b에서 c로 갈수록 물의 속도는 느려지고 압력은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는 (가)의 2문단의 내용을 통해 물의 동압은 낮아지고 정압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 ⑤ (가)의 3문단의 내용을 통해 a, c에 있는 물은 b에 있는 물에 비해 압력, 즉 정압이 높다. 그리고 정압이 높은 a, c의 물의 높이가 b에 비해 높으므로 물의 높이와 정압이 비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03 내용의 인과 관계 파악

정답 ⑤

정답 해설 (가)의 2문단의 내용을 참고할 때, (나)의 에어포일의 윗면과 아랫면을 따라 흘러가는 공기는 움직이는 유체로서, 항공기의 추력이 증가할수록 공기의 속도가 빨라지므로 동압이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공기와 같은 비압축성 유체는 전압이 항상 일정하다고 하였으므로 항공기의 추력이 커질수록 공기의 속도가 빨라져 동압이 증가하고 정압은 감소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 ① (가)의 2문단에서 공기와 같은 비압축성 유체의 동압과 정압의 합인 전압은 항상 일정하다고 하였다.
- ② (나)의 2문단에서 비대칭 에어포일 윗면의 두툼한 앞전은 윗면을 흘러가는 공기의 속도가 아랫면에 비해 빨라지게 하는 역할을 하므로 공기의 동압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 ③ (나)의 2문단에서 비대칭 에어포일의 윗면을 따라 흘러가는 공기는 아랫면을 따라 흘러가는 공기에 비해 속도가 빠르다고 하였으므로 동압이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 ④ (나)의 2문단에서 에어포일의 윗면을 따라 흘러가는 공기는 아랫면을 따라 흘러가는 공기에 비해 속도가 빠르다고 하였다. 이는 에어포일의 윗면이 아랫면에 비해 동압이 높고 정압이 낮은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에어포일의 윗면과 아랫면 사이에는 정압의 차이가 발생한다.

04 구체적 사례 적용

정답 ③

정답 해설 <보기>에서 투수가 야구공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시켜 던지면, 야구공의 오른쪽 부분은 공기의 흐름과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고, 왼쪽 부분은 공기의 흐름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된다. 그러므로 공의 우측은 공의 속도가 줄어들고 공의 좌측은 공의 속도가 빨라진다. 그리고 이런 경우 공의 좌측은 동압이 높고 정압이 낮으며, 공의 우측은 동압이 낮고 정압이 높은 상태가 된다. 그러므로 정압이 높은 오른쪽에서 정압이 낮은 왼쪽으로 공이 휘어져 나아가게 된다.

05 세부 내용 파악

정답 ④

정답 해설 ㉠은 추력에 의해 항공기가 앞으로 진행하게 되면 항공기 동체에 붙

어 있는 날개의 에어포일 주변으로 공기의 흐름이 발생한다. 또 ㉠은 동체 윗부분에 있는 로터 블레이드가 회전하며 로터 블레이드에 있는 에어포일 주변에 공기의 흐름이 발생하여 양력이 발생하게 된다.

오답 해설

- ① (나)의 4문단에서 현재 대부분의 항공기에서 비대칭형 에어포일을 사용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② (나)의 3문단에서 에어포일의 받음각이 일정 각도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커질수록 양력 발생이 증가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는 에어포일을 통해 양력을 발생시키는 ㉠과 ㉡ 모두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에서 받음각을 작게 함으로써 양력 발생을 증가시킨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③ (나)의 1문단의 내용을 통해 ㉠ 역시 에어포일을 지나는 공기의 흐름을 통해 양력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 ⑤ (나)의 내용을 통해 ㉠과 ㉡ 모두 에어포일을 지나는 공기의 흐름을 통해 양력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지만, ㉠과 ㉡이 각각 양력의 분산과 집중에 의해 위로 떠오른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06 단어 사용의 적절성 파악

정답 ④

정답 해설 ④의 '나뉘다'는 문맥상 '하나가 둘 이상으로 갈리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것이다. 그러므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전체가 몇 개로 갈리어 나뉘다.'라는 의미를 지닌 '구분되다'로 바꾸어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 ① '구성하다'는 '몇 가지 부분이나 요소들을 모아서 일정한 전체를 짜 이룬다.'라는 의미를 지닌 말로 ㉠의 '이루다'와 바꾸어 쓸 수 있는 말로 적절하다.
- ② '이동하다'는 '움직여 옮기다.'라는 의미를 지닌 말로 ㉡의 '움직이다'와 바꾸어 쓸 수 있는 말로 적절하다.
- ③ '제작되다'는 '재료를 가지고 기능과 내용을 가진 새로운 물건이나 예술 작품이 만들어지다.'라는 의미를 지닌 말로 ㉢의 '만들어지다'와 바꾸어 쓸 수 있는 말로 적절하다.
- ⑤ '상실하다'는 '어떤 것을 아주 잃거나 사라지게 하다.'라는 의미를 지닌 말로 ㉤의 '없다'와 바꾸어 쓸 수 있는 말로 적절하다.

[07~12]

아르 누보 양식

해제 | 이 글은 범유럽적으로 확산되었던 예술 운동인 아르 누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아르 누보는 공업적으로 대량 생산된 상품들이 등장했던 산업 혁명 시기를 배경으로 등장하였으며, 기계로 만들어지는 작품의 한계에서 벗어나기 위해 건축, 실내 장식, 회화, 조각 등을 비롯한 여러 매체에 예술가의 수공예 정신을 반영하려 하였다. 이에 아르 누보 양식은 자연을 모티프로 하는 문양과 기하학적 선을 활용한 장식성이 특징으로 드러났다. 아르 누보는 예술과 수공예의 관계에서 예술과 산업의 관계로 넘어가는 전이 과정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19세기 예술에서 20세기 예술로 나아가는 전환점의 역할을 하였다.

주제 | 아르 누보의 등장 배경과 특징

구성 |

- 1문단: 아르 누보의 개념과 탄생 배경
- 2문단: 총체적 예술로서의 아르 누보
- 3문단: 모두를 위한 미술로서의 아르 누보
- 4문단: 아르 누보 양식의 표현적 특징과 대표 작가
- 5문단: 아르 누보에 대한 비판과 아르 데코
- 6문단: 아르 누보의 의의

07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정답 ③

정답 해설 1문단에 아르 누보가 등장한 역사적 배경이 제시되어 있고, 2~4문단에 아르 누보의 특징이, 마지막 문단에 아르 누보의 의의가 제시되어 있으므로 적절하다.

오답 해설

- ① 1문단에 아르 누보의 개념이 제시되어 있지만, 아르 누보에 대한 통념을 비판하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는 않다.

- ② 4문단에 아르 누보 예술가인 '알폰스 무하'에 대한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만, 대표 작품들을 통시적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 ④ 아르 누보 양식에 대한 여러 인물의 견해를 분석하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 ⑤ 아르 누보에 대한 평가가 지역에 따라 다른 이유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08 세부 내용 이해

정답 ②

정답 해설 6문단에서 '아르 누보는 추상화된 기하학적 형태들로 인해 추상 미술의 단초가 되었'다고 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 ① 1문단에서 '영국에서는 이러한 대량 생산에 저항하며 기계 문명에 반발하는 '미술 공예 운동'이 일어났다.'라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 ③ 6문단에서 아르 누보는 '생활에 밀접하면서도 자연을 소재로 표현한다는 점에서 자연환경에 대한 관심이 전 생활 영역에 걸쳐 대두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다시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다.'라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 ④ 4문단에서 '예술의 독창성과 정신성을 위해 아르 누보 예술가들은 ~ 새로운 디자인, 형태, 재료, 구조 등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다.'라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 ⑤ 5문단에서 '아르 누보 예술도 실용적 측면을 ~ 가격 또한 높았기 때문에 대중이 쉽게 다가가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라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09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내용 추론

정답 ④

정답 해설 아르 누보 예술가들은 기계로 예술품이 창작되자 작품이 지닌 한계에서 벗어나기 위해 수공예적인 장식성을 회복해 예술의 독창성과 정신성을 찾으려 했다고 했으므로, 아르 누보가 기술의 발전을 수용하면서도 예술가의 독창성을 추구했다는 점이 예술과 기술의 상호 관계에 대한 질문의 응답이 됨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 ① 아르 누보가 총체적 예술이라는 특징을 갖는다고 했고 아르 누보 양식이 순수 예술과 응용 예술을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전통적인 위계를 따르지 않는다고 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② 아르 누보 예술가들이 기계로 만들어지는 작품의 한계에서 벗어나기 위해 수공예 작업에서 나타나는 장식성을 최대한 회복하여 예술의 독창성과 정신성을 찾으려 했다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만, 아르 누보가 예술가가 수작업으로 예술품을 창작하는 것을 중시했다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③ 아르 누보 예술가들이 새로운 재료를 수용했다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만, 아르 누보에서 재료를 대량 생산하여 작품을 창작하는 방식을 지향했다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⑤ 아르 누보가 산업 혁명 이후 여러 나라에서 유행한 예술 운동이라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만, 아르 누보가 산업 혁명에 저항했다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10 구체적 사례 적용

정답 ③

정답 해설 <지스몽다>에 알폰스 무하만의 차별성이 드러난다는 것을 통해 포스터에 아르 누보 양식이 반영되어 작가의 독창성이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6문단의 '그럼에도 아르 누보 양식은 관념적인 예술에서 그치지 않고 상업 논리가 가미된 생활 예술로 대중과 함께 호흡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획기적이라고 할 수 있다.'를 통해 아르 누보 양식이 반영된 포스터는 상업 논리가 가미된 생활 예술임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 ① 3문단에서 아르 누보 양식은 모두를 위한 미술을 추구하였다고 했으며, 예술품이 당시 기계의 발전으로 대량으로 제작되었고 이에 많은 사람이 예술품의 혜택을 접할 수 있었다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 ② 5문단에서 아르 누보가 나타난 19세기는 인쇄 기술이 발전했다고 했고, 3문단에서 당시 기계의 발전으로 예술품이 대량으로 제작되었다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 ④ 4문단에서 알폰스 무하가 주로 곡선미를 강조한 여인을 소재로 활용하였다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 ⑤ 4문단에서 알폰스 무하가 화려한 꽃문양을 소재로 활용하였다고 했고 자연물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작품에 재현하여 장식성을 최대한 고조하였다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11 내용 간 비교를 통한 이해

정답 ④

정답 해설 3문단에서 아르 누보 예술가들은 기계로 만들어지는 작품의 한계에서 벗어나기 위해 수공예 작업에서 나타나는 장식성을 최대한 회복하려 했다고 했지만 5문단에서 아르 데코는 기계적 생산을 적극 긍정하며 예술과 기계 생산의 경계를 허물고 생산 양식에 조응하는 예술을 강조하였다고 했으므로, 공업적 생산 방식을 통해 만들어진 예술품에 수공예 작업을 반영하려 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 ① 5문단에 아르 누보에 화려한 장식이 나타난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고, 아르 데코는 장식을 단순화하고 사물을 간결하게 표현하는 것을 추구했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 ② 3문단에 아르 누보 예술가들이 예술을 근본적으로 인간의 독창적 작업에 있다고 보았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고, 5문단에 아르 데코가 생산 양식에 조응하는 예술을 강조했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 ③ 3문단에 아르 누보 예술가들이 기계로 만들어지는 작품을 한계가 있는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고, 5문단에 아르 데코 양식에서 대량 생산으로 제조된 규격화된 수납장은 기능성이 스타일로 나타난 예라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 ⑤ 1문단에 아르 누보가 공예를 예술 영역으로 승화시키려는 시도 중 하나이며 미술 공예 운동과 그 맥을 같이한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고, 5문단에 아르 데코가 예술과 일상용품을 통합하려 한다는 점에서 미술 공예 운동을 계승하였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12 단어의 의미 파악

정답 ④

정답 해설 ④의 '언다'는 '긍정적인 태도·반응·상태 따위를 가지거나 누리게 되다.'라는 의미이며, '보람을 얻어'의 '언다'도 이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으므로 적절하다.

오답 해설

- ① ④의 '지나다'는 '바탕으로 갖추고 있다.'라는 의미이지만, '주머니에 지니고'의 '지나다'는 '몸에 간직하여 가지다.'라는 의미이다.
- ② ⑥의 '따르다'는 '관례, 유행이나 명령, 의견 따위를 그대로 실행하다.'라는 의미이지만, '의장을 따라'의 '따르다'는 '남이 하는 대로 같이 하다.'라는 의미이다.
- ③ ③의 '더하다'는 '더 보태어 늘리거나 많게 하다.'라는 의미이지만, '작년보다 올해가 더한'의 '더하다'는 '어떤 기준보다 정도가 심하다.'라는 의미이다.
- ⑤ ⑤의 '이루어지다'는 '어떤 대상에 의하여 일정한 상태나 결과가 생기거나 만들어지다.'라는 의미이지만,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게'의 '이루어지다'는 '뜻한 대로 되다.'라는 의미이다.

[13~17]

집적지의 형성과 특성

해제 | 이 글은 대량 생산 체제와 적기 생산 체제를 비교한 후 적기 생산 체제를 취한 기업들이 모여 형성하는 집적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집적 경제 중 국지화 경제의 유형을 시장적 상호 의존과 비시장적 상호 의존으로 나누어 집적지의 형성 원인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현대 집적지들의 복합적 성격에 대해 소개하며 글을 마무리하고 있다.

주제 | 집적지의 형성을 통해 집적 경제가 발달하는 이유

구성 |

- 1문단: 대량 생산 체제와 대비되는 적기 생산 체제의 특징과 집적지 발달 촉진
- 2문단: 국지화 경제의 시장적 상호 의존
- 3문단: 국지화 경제의 비시장적 상호 의존
- 4문단: 현대 집적지들의 복합적 성격

13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정답 ②

정답 해설 이 글에서는 '집적 경제'의 '국지화 경제'를 중심 화제로 삼아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이 글에 따르면, 국지화 경제는 '시장적 상호 의존'과 '비시장적 상호 의존'의 두 유형으로 나뉜다. 이 글에서는 유형별 특징을 분석적으로 제시하여 집적지의 형성 원인을 제시하고 국지화 경제의 특징적인 양상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있다.

오답 해설

- ① 중심 화제와 관련하여 이론들을 소개하고 그 이론들을 절충한 이론을 소개하고 있지 않다.
- ③ 중심 화제인 집적지의 경제적 양상과 관련하여, 문제 제기와 해당 문제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식으로 글을 전개하고 있지 않다.
- ④ 중심 화제와 관련된 개념을 설명하고 있으나, 개념의 변화 과정을 단계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 ⑤ 사례들의 공통점으로부터 일반적 특징을 도출하는 식으로 글을 전개하고 있지는 않다.

14 세부 내용 파악

정답 ⑤

정답 해설 3문단에서 비시장적 상호 의존은 집적지에서 비가시적으로 창출된다고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비시장적 상호 의존의 양상이 주로 기업들의 직접적인 거래 관계를 통해 표면적으로 드러날 수 있다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 ① 4문단에서 현대의 집적지들이 다양한 성격이 혼재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하면서 이들 집적지에 시장적 상호 의존과 비시장적 상호 의존이 다양한 양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 ② 2문단에서 공식적 결속을 맺은 기업들이 관계의 지속을 위해 드는 비용을 최소화하고자 공간적으로 집적하는 경향성을 더 강화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 ③ 2문단에서 숙련된 인력의 풍부함, 해당 산업에 필요한 서비스와 제도 사용의 용이함 등을 통해 가치를 창출하는 집적 경제로 국지화 경제가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숙련된 인력의 풍부함, 서비스와 제도 사용의 용이함 등이 집적 경제의 발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④ 4문단에서 대규모 제조업체, 중소기업, 정부 기관 등이 결속해 보여 주는 상호 의존 양상은 관계 주체의 성격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고 제시하고 있다.

15 중심 내용 파악

정답 ①

정답 해설 ㉠의 경우 단일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대규모 제조업체의 생산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의 경우 다품종 제품을 소량으로 생산하는 대규모 제조업체의 생산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4문단에서 적기 생산 체제를 통해 유연한 생산 방식을 사용하는 대규모 제조업체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오답 해설

- ② ㉠은 다수의 공급업체를 통해 낮은 빈도로 대량의 부품을 공급받는 반면, ㉡은 소수의 공급업체를 통해 높은 빈도로 소량의 부품을 공급받는다.
- ③ ㉡은 ㉠보다 공급업체들과 구매 업체들이 근접한 곳에 위치해 얻는 편익이 크다.
- ④ ㉠은 개별 소비자의 요구 사항에 맞는 맞춤형 제품을 적기에 생산하는 방식이다.
- ⑤ ㉠은 주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 비용을 절감하고, ㉡은 주로 집적 경제를 실현하여 비용을 절감한다.

16 구체적 사례 적용

정답 ④

정답 해설 ㉠은 집적지의 규모, 형성 과정, 특성 등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비시장적 상호 의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말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은 비시장적 상호 의존이 집적 경제를 실현하는 데 기여한다는 사실이다. 기술자, 연구자, 금융·법률 전문가 등의 교류 및 경제 관련 활동이 국지적인 경향을 나타내며 이들의 활동이 집중되는 거점을 중심으로 지역 경제가 번성한다는 것은 비시장적 상호 의존이 국지화 경제의 실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답 해설

- ① 도시에 다양한 기능이 집적하면 기업들의 시장 접근이 용이해진다는 것은 도시 기능의 다양성이 집적지의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언급한 것이다.
- ② 대규모 컴퓨터 제조업체가 제품을 고객의 요구에 맞추어 생산하는 것은 적기 생산 체제 방식을 보여 준다. 이러한 사실이 비시장적 상호 의존이 집적지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지는 않는다.
- ③ 교통과 통신 시스템의 발전은 기업들이 서로 멀리 떨어진 상황에서도 연계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지역적 분화는 집적 경제를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 ⑤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은 대규모 생산 체제와 관련이 있다.

17 외적 증거에 따른 비판

정답 ②

정답 해설 〈보기〉에서는 A 지역에서 전문 지식의 이전은 기업 간의 거래보다 기술자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향이 강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는 기업들의 거래 관계로 맺어지는 공식적인 결속보다 전문 인력들의 비공식적인 관계를 통해 전문 지식이 이전되는 경향이 더 강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식적인 결속을 전문 지식 이전의 주요 기반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 ① A 지역의 모터스포츠 관련 기업들은 고도로 숙련된 기술자들에 힘입어 연간 90억 달러 이상의 수입을 거두고 있다. 이렇듯 부가가치를 만들어 내는 전문 인력은 창조 계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 ③ B 지역의 영화 관련 기업들은 조직 분리를 통해 전문 업체들과 생산 네트워크를 형성하였다. 이는 수직적 분리를 시행하는 시장적 상호 의존의 국지화 경제의 특징을 나타낸다.
- ④ 대형 영화사들이 과거에 모든 생산 공정을 사내의 조직들을 통해 수행했으나 집적도가 형성되면서 전문 업체들과 생산 네트워크를 형성한 것은 수직적 조직 분리가 이루어졌음을 보여 준다.
- ⑤ 수직적 위계 관계를 맺는 기업들의 네트워크에서는 대형 영화사 같은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기업이 생산 활동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18~21]

작자 미상, 「유문성전」

해제 | 이 작품은 유문성의 애정과 영웅적 일대기를 그린 조선 후기의 영웅 군담 소설이다. 작품의 전반부에는 유문성과 이춘영의 혼사 장애에 대한 내용이 전개되고 후반부에는 두 사람의 영웅적 면모에 대한 내용이 전개되는데, 영웅 소설에 개인적 애정 문제를 결합했다는 점에서 독특한 구성을 취하고 있다. 「유문성전」은 여주인공의 역할이 확대되어 여성 영웅 소설의 일면을 보이고 있으며, 당대인들의 친명배척 사상을 소설로 형상화하여 우리 민족의 위상을 고취하고자 하는 의도가 반영되어 있다.

주제 | 유문성과 이춘영의 애정과 영웅적 활약상

전체 줄거리 |

유문성은 과거를 보기 위해 상경하다가 우연히 이춘영을 보게 된다. 상사병으로 과거를 포기하고 돌아온 문성은 부모를 움켜쥐어 약혼을 하게 되는데, 천자가 이 소저를 후궁으로 들이려 해 갈등을 겪고 이 과정에서 문성의 부모는 별세한다. 문성과 이 소저가 다시 성례를 치르려 하자 간신 달목은 이 소저를 며느리로 맞으려 하고 이 소저는 이에 자결한다. 유문성은 이 소저를 만나는 꿈을 꾸 뒤 무덤에 찾아가는데 이때 이 소저가 살아난다. 두 사람은 일광 도사를 만나 병법과 도술을 익힌 후 주원장을 도와, 천자 자리를 빼앗은 달목에 맞선다. 결국 두 사람의 활약으로 주원장은 황제가 되고 이후 문성과 이 소저는 행복하게 살다가 함께 승천한다.

18 서술상의 특징과 효과 파악

정답 ④

정답 해설 일광 도사가 문성과 이 소저에게 ‘신통한 술법과 기이한 재주를 배워 세상 풍진을 쓸어버리고, 출장입상하여 무궁지락을 누릴지라.’라고 말하는 것에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암시한 부분이 나타나 있으므로 적절하다.

오답 해설

- ① ‘영혼인들 감동치 아니하리오.’, ‘어찌 생환키 어려우리오.’, ‘깊은 정을 어찌 측량하리오.’ 등에서 서술자가 개입하여 인물이 처한 상황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지만, 인물에 대한 비판 의식을 표현하고 있지는 않다.
- ② 이 소저에 대해 ‘운변화안과 녹의홍상이 전일 선경에서 보던 모양과 조금도 다름이 없더라.’라고 한 부분과 일광 도사에 대해 ‘백발이 낮을 덮어 있고, 몸에 우의상을 입고 우수로 감중련하고 좌수로 이허중하며, 위풍이 엄숙하’다는 부분에서 인물의 외양을 묘사하고 있지만, 이를 통해 인물의 심리 변화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 ③ ‘금산 일곡’, ‘이같이 험한 심산궁곡’에 배경이 나타나 있지만 배경을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통해 긴박한 분위기를 부각하고 있지 않다.
- ⑤ 동시에 벌어진 사건들을 병렬한 부분이 나타나 있지 않다.

19 인물에 대한 이해

정답 ②

정답 해설 ‘유문성’은 ‘이곳에 절이 있는 듯하나, 여승이 없으면 남자의 거처가 불편할 듯하여 주저할 즈음’에 ‘여승’을 만났지만 ‘여승’은 유문성에게 ‘청려산에

가 공자와 남자를 찾았다가 종적을 몰라 답답하옵더니, 다행으로 도중에서 만나 오니 반갑사이다. 소송을 따라 가사이다.’라고 말하며 ‘일광 도사’에게 유문성과 이 소저를 안내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 ① ‘이 소저’가 ‘박명한 첩으로 하여금 무한한 간장을 사르시고, 이같이 험한 심산 궁곡에 근고하시니 도시 첩의 죄라, 어찌 참피치 아니하오리까.’라고 말한 부분을 통해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③ ‘노승’이 ‘동자를 명하여 옥병에 약을 따라 주거늘, 받아 마시니 정신이 씩씩하고 기운이 대발하며 의사 광활한지라.’를 통해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④ ‘여승’은 처음에 유문성을 만나 ‘공자는 어디로 가시관데’라고 물어본 뒤 유문성의 말을 듣고 ‘공자’가 ‘여남 땅 유 승상 자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므로 적절하다.
- ⑤ ‘여승’은 ‘일광 도사’의 제자로, 여승이 ‘스승의 말씀을 듣고 청려산에 가 공자와 남자를 찾았다가’라고 말하는 부분과 유문성과 이 소저가 ‘노승을 따라 점점 들어가니, 과연 한 노승’이 있었다는 부분을 통해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20 대화에 나타난 내용 이해

정답 ③

정답 해설 [A]는 이 소저가 죽은 상황에서 유문성이 이 소저에 대해 하는 말로 ‘부귀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 슬프고 애달프지 아니하리오.’에 이 소저의 행적에 대한 유문성의 서러움이 드러나 있다. [B]는 일광 도사가 유문성에게 하는 말로 ‘즉시 나아가 성공하라. 영웅이 때가 돌아오니 어찌 녹록히 산중에만 있으리오.’와 ‘적장이 또한 오봉산 ~ 천시를 어기지 말라.’에 유문성의 행동에 대한 일광 도사의 당부가 드러나 있으므로 적절하다.

오답 해설

- ① [B]의 ‘적장이 또한 오봉산 총령 도사에게 술법을 배워 재주가 신출귀몰하니 부디 조심하며’에는 유문성에 대한 염려가 드러나 있지만, [A]에는 이 소저에 대한 원망이 드러나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② [A]에는 이 소저의 상황에 대한 불신이 드러나 있지 않으며, [B]에는 유문성의 태도에 대해 불만이 드러나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④ [A]의 ‘유명은 다르나 영혼이 분명커든 혼적이나 보이소서.’에는 이 소저와의 재회를 소망하는 마음이 드러나 있지만, [B]에는 유문성과 재회할 수 없음이 드러나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⑤ [A]에는 이 소저에 대한 마음이 변했음이 드러나 있지 않으며, [B]에는 유문성에 대한 신뢰가 변하지 않았음이 드러나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21 외적 증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 ②

정답 해설 이 소저가 황성으로 가자는 유문성의 말에 황제와 달가의 화를 생각하여 아직은 가지 못할까 한다고 말하는 장면은 현재 상황에 대한 이 소저의 걱정이 드러나는 내용일 뿐, 이 소저가 지닌 비범한 영웅적 면모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는 여성 영웅 소설의 일면이 드러나는 내용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 ① 유문성이 이 소저의 묘에 이르러 제문을 읽자 이 소저가 살아나는 장면에 재생 모티프를 통해 천상계와 지상계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나타나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③ 유문성이 부모를 잃고 떠도는 것과 일광 도사가 두 사람에게 초년에 고생한다고 말하는 장면에 인물들이 지상 세계에서 고난을 겪어 왔다는 것이 나타나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④ 일광 도사가 유문성과 이 소저에게 진법과 검술을 가르치는 장면에 인물들이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비범한 능력을 지니게 되는 과정이 나타나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⑤ 일광 도사가 유문성과 이 소저가 천상의 존재였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두 사람이 인간 세계로 오게 된 사건에 대해 말하는 장면에 인물들이 천상에서 지은 죄로 적당하게 되었다는 것이 나타나 있으므로 적절하다.

[22~24]

김광욱, 「울리유곡」 / 남도진, 「낙은별곡」

㉠ 김광욱, 「울리유곡」

해제 | 이 작품은 인목 대비 폐모론으로 삭탈관직된 작가가 인조반정으로 다시 벼슬 길에 오를 때까지 약 8년 동안 한양 인근 지역인 울리에 머물면서 창작한 전체 17수

의 연시조로 『진본 청구영언』에 수록되어 있다. 이 작품에서 작가는 속세를 잊고 자연 속에 묻혀 살면서 느끼는 유유자적한 삶에 대한 만족감을 노래하고 있는데, 이는 정치적 갈등 상황을 배경으로 하는 당대의 작품들이 정치 현실에 대한 긴장감이나 시름 등을 노래했던 것과 대비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주제 | 자연 속에서 유유자적하게 풍류를 즐기는 삶에 대한 만족감

구성 |

- 제2수: 속세와 단절하여 부귀공명을 멀리하고 싶은 마음
- 제6수: 욕심 없이 살아가는 삶에 대한 자부심
- 제8수: 자연 속의 한가한 삶에 대한 만족감

㉠ 남도진, 「낙은별곡」

해제 | 이 작품은 경기도 용문산 북쪽 계곡에 자리 잡은 낙은암 주변을 완상하며 한가로이 살아가던 남도진이 지은 강호 가사이다. 이 작품은 자연 속에 은거한 사대부의 빈이무원, 안빈낙도의 태도를 노래하고 기승전결의 정연한 구조를 갖추고 있어 강호 가사의 전통적 형식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 자연 속에서 한가로운 삶을 살아가는 화자와 세속적인 가치를 추구하며 분주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대비를 통해 화자의 삶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주제 | 자연 속에서 한가로운 삶을 살아가는 만족감

구성 |

- 1~7행: 자연 속에서 즐기는 한가로운 삶의 모습
- 8~12행: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경계
- 13~20행: 자연을 즐기는 한가로운 삶에 대한 만족감

22 표현상의 특징 파악

정답 ②

정답 해설 (가)의 제6수에서 화자가 ‘백구’에게 말하는 형식으로 시상이 전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나)에서도 화자가 세속적 가치를 추구하는 ‘자네’에게 말하는 형식으로 시상이 전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 ① (가)의 제2수에서 유사한 시구가 반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나)에는 유사한 시구의 반복을 통해 주제 의식이 강조되는 부분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 ③ (가)와 (나)에는 모두 자연물이 제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를 통해 시간의 흐름이 드러나는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 ④ (가)에는 화자의 공간의 이동이 드러나 있지 않다. 또 (나)에서는 일부 화자의 공간의 이동이 확인되지만 화자의 변화하는 심리가 드러나 있지는 않다.
- ⑤ (가)와 (나) 모두에서 감각의 전이가 활용된 표현을 찾아볼 수 없다.

23 시어 및 시구의 비교와 대조

정답 ④

정답 해설 ㉠은 자연 속에 은거하고 있는 화자가 잊어버린 과거의 화자를 의미한다. 특히 ㉠은 공명, 부귀, 세상의 번우한 일과 관련되어 있었던 과거의 화자를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은 자연 속에서 한가로운 삶을 살아가는 현재의 화자로, 세속적인 부와 권력을 가진 ‘만호 제후’를 부러워하지 않을 정도로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화자를 의미한다.

오답 해설

- ① ㉠은 과거의 화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현실과 유리되어 있는 화자가 아니라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던 화자를 의미한다. 또 (가)에 ㉠이 자신의 지나온 삶을 성찰하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 ② ㉠은 공명, 부귀, 세상의 번우한 일과 관련된 삶을 살았던 과거의 화자를 의미한다.
- ③ ㉡은 자연 속에 은거하며 심리적 만족감을 느끼고 있는 화자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가)의 내용 중 ㉠이 심리적 갈등을 경험하고 있는 화자라는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 ⑤ ㉠이 과거의 화자를 의미하는 것은 맞지만, 과거의 삶에 대한 아쉬움을 느끼는 화자는 아니다. 또 (가)에는 ㉡이 미래의 삶에 대한 기대감을 느끼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24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 ①

정답 해설 (가)의 ‘잇으랴’는 다른 사람들이 자연 속에 은거하여 한가한 삶을 살고 있는 화자를 ‘아니 잇겠는가’라고 표현한 것이다. 그러므로 ‘잇으랴’가 한가한 삶을 즐기고 있는 화자의 만족감을 드러낸 것이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또

‘하느냐’는 의인화된 대상인 ‘백구’에게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는 표현으로 이 또한 한가한 삶을 즐기고 있는 화자의 만족감을 드러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오답 해설

- ② (가)의 ‘갈대숲’에서 ‘고기 옛보기’를 하는 것은 곧 ‘고기’에 대한 욕심으로 인한 것이며, (나)의 ‘대루원’에서 ‘서성이’는 것은 권력을 얻고자 하는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행위는 모두 두 작품의 화자가 경계하고 있는 세속적 가치를 추구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 ③ ‘잠만 들면 어찌리’는 자연 속에서 세속적 미련이나 욕심 없이 살아갈 것을 제안하는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 ‘아니 바꾸리랴’는 자연 속의 한가로운 삶을 세속적인 것과 바꾸지 않겠다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난 표현이다. 그러므로 이 두 표현은 모두 한가로운 삶을 즐기며 세속적인 삶을 거부하려는 화자의 의지가 강조된 표현으로 볼 수 있다.
- ④ (가)에서 ‘조각배’를 타고 ‘남싯대’를 던지는 것과 (나)에서 ‘바람 부는 창가’에 ‘다리 펴고 누’워 있는 것은 모두 자연 속에서 한가롭고 편안하게 지내는 화자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⑤ (가)의 ‘만호 제후’는 넓은 지역에 있는 많은 집을 다스리는 권력자로, 화자가 잊고자 하는 세속적 가치인 부귀와 공명을 통해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 또 ‘주옥에 빠진 분들’은 ‘부귀’를 자랑거리로 삼고 있는 사람들로 ‘주옥’으로 대표되는 세속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다.

[25~30]

정지용, 「장수산 1」 / 이기철, 「나무의 옷」 / 법정, 「겨울 숲」

㉠ 정지용, 「장수산 1」

해제 | 이 작품은 한겨울 장수산의 고요한 밤 풍경을 통해 현실의 괴로움을 견디기 위한 탈속적 정신을 형상화한 시이다. 겨울 장수산은 큰 나무가 많고 산짐승의 움직임조차 없는 깊은 산으로, 그 산에 비친 흰 달빛은 탈속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화자는 장수산과 도승처럼 세속의 일을 잊은 채 절대적인 고요에 잠기고 싶은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주제 | 탈속적 세계에 대한 염원

구성 |

- 별목 정정 ~ 걸음이란다?: 깊고 울창한 장수산의 적막함
- 옷절 종이 ~ 좁는다?: 옷절 중에게서 느껴지는 자족과 여유의 정신
- 시름은 ~ 흔들리우노니: 시름에 흔들리는 화자의 내면
- 오오 ~ 한밤내-: 장수산의 고요 속에 묻힌 슬픔과 꿈

㉡ 이기철, 「나무의 옷」

해제 | 이 작품은 화자가 초록이 가득한 산에 취한 경험을 통해 인간 세상의 고뇌와 욕망으로부터 벗어나 자연에 귀의하고자 하는 마음을 드러낸 시이다. 특히 이 작품에서 화자는 인간과 달리 욕망과 고뇌에 시달리지 않는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과 인간 세상을 대비하고 세속적 가치에 얽매어 있는 인간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드러낸다. 그리고 인간 세상의 삶을 버리고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선승을 떠올리며 자연에 귀의하고자 하는 소망을 은연중에 드러내고, 이를 실행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해 안타까워하고 있다.

주제 | 자연에 대한 동경과 자연으로 귀의하고자 하는 마음

구성 |

- 1연: 인간의 고뇌로부터 벗어나 있는 자연
- 2연: 햇살이 비추는 잎새를 통해 느끼는 자연의 아름다움
- 3연: 껌질의 옷을 입은 나무의 생리와 대비되는 인간의 삶
- 4연: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선승의 모습과 인간 세상의 대비
- 5연: 자연에 귀의하지 못하는 안타까움

㉢ 법정, 「겨울 숲」

해제 | 이 작품은 겨울 숲에 있는 자연의 모습과 자연 현상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자연 속의 고요가 주는 의미와 가치를 언급하며 현대인들의 삶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이 작품에서 글쓰이는 ‘있음’에만 의존하며 자연이 주는 순수한 내면의 고요를 감내하지 못하는 현대인들이, 자연의 원초적 질서로부터 변질되어 가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자연 속의 고요를 경험하며 ‘허가 없는’ ‘실’은 존재할 수 없다는 삶에 대한 통찰을 제시하고 있다.

주제 | 자연 속의 고요가 지닌 가치와 현대인들에 대한 비판

구성 |

- 1문단: 겨울 숲을 거닐며 자신의 삶을 되돌아봄.
- 2문단: 가랑잎을 통해 깨닫게 되는 자연의 질서
- 3문단: 지난가을 숲에서 경험하게 된 자연 속의 고요

- 4~5문단: (산)바람이 주는 혜택과 가치
- 6문단: 허를 통해 부각되는 실
- 7~8문단: 자연 속의 고요를 감내하지 못하는 현대인들에 대한 비판
- 9문단: 침묵과 허가 일깨워 주는 통찰

25 표현상의 특징 파악

정답 ③

정답 해설 (가)는 장수산이라는 공간적 배경의 분위기를 드러내기 위해 눈, 달 등의 시각적 이미지를 사용하고 청각적 이미지를 환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나)는 산이라는 공간적 배경의 분위기를 드러내기 위해 물소리, 쓰르라미 소리와 같은 청각적 이미지와 초록이 가득한 산과 햇살의 시각적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다)는 가을과 겨울의 숲이라는 공간적 배경의 분위기를 드러내기 위해 산의 모습을 드러내는 시각적 이미지와 바람 소리의 청각적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 ① (나)에는 영탄적 표현을 활용하여 고조된 감정을 표현한 부분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 ② (가), (나), (다) 모두에서 구체적 청자를 설정하여 시상이나 내용을 전개한 부분을 찾아볼 수 없다.
- ④ (가), (나), (다) 모두에 계절감이 드러나는 시어나 표현들이 사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를 통해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다.
- ⑤ (가), (나), (다) 모두에 대립적 속성을 지닌 대상이 제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대상을 병치함으로써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는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26 작품 간 비교 감상

정답 ②

정답 해설 (가)의 '오오 견디란다'는 겨울내 새하얀 장수산에서 침잠하며 순수한 내면 의식을 유지하고자 하는 화자의 의지와 태도가 드러난 시구로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 ① (가)의 '다람쥐'와 '뱃새'는 추운 겨울 활동이 끊어져 생명력이 잦아든 자연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자연물은 겨울 장수산이라는 시간적, 공간적 배경의 상황과 분위기를 제시하기 위해 활용된 것일 뿐 무기력한 화자를 형상화한 자연물은 아니다.
- ③ (나)의 '사람들만'은 '만'이라는 보조사를 통해 자연과 사람의 차이를 부각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이러한 표현의 반복이 자연과 대비되는 인간의 역동적인 생명력을 부각하고 있지는 않다.
- ④ (가)의 '땡아리 소리'는 장수산의 고요함을 부각하기 위해 환기한 소리이다. 그러므로 이 소리는 인간 세상의 번잡함을 정화하는 자연의 속성을 나타내기 위한 것은 아니다.
- ⑤ (가)의 '슬픔도 꿈도 없이'는 화자가 겪고 있는 심리 상태를 드러내기 위한 표현으로 볼 수 있지만, 화자의 절망적인 인식이 투영되어 있지는 않다. 또 (나)의 '고뇌란 오직 인간의 몫'은 자연 속에서는 고뇌가 존재하지 않는 데 반해 인간 세상과 인간의 삶 속에서만 '고뇌'가 존재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한 시구이다. 그러므로 이 시구를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화자의 절망적인 인식이 투영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27 시어, 시구의 의미와 기능 파악

정답 ④

정답 해설 (다)의 글쓴이가 자연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고요'는 글쓴이로 하여금 자신이 살아온 삶을 돌아보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가)의 '고요'는 '시름은 ~ 심히 흔들리우노니'라는 표현을 통해 화자의 '시름'을 더욱 심화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가)의 '고요'가 화자로 하여금 자아를 성찰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 ① (가)의 '고요'는 겨울철 장수산 깊은 곳에서 자연물의 생명 활동이 중지된 무음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다)의 '고요'는 어디에도 의존함이 없이 순수하게 홀로 있는 시간으로서 글쓴이는 이러한 '고요' 속에 시냇물 소리와 새소리가 존재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므로 (가)는 (다)와 달리 절 대적인 정적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 ② (가)의 '고요'는 화자가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회복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다)의 글쓴이는, '고요'를 번잡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회복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

- ③ (가)에서 '시름은 ~ 심히 흔들리우노니'라고 표현하였으므로 '고요'가 화자의 심리적 동요를 심화하는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또 (다)에서 글쓴이는 겨울 숲의 '고요'를 평화와 정적이 깃든 내면을 만들어 준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므로 (다)의 '고요'는 화자의 심리적 안정을 유도하는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 ⑤ (가)의 '고요'는 겨울 장수산의 깊은 산골에서, (다)의 '고요' 역시 마음의 평화와 정적을 가져올 정도로 인간 세상과 동떨어진 숲속 공간에서 나타나고 있다.

28 시어, 시구의 의미와 기능 파악

정답 ③

정답 해설 (가)의 ㉠은 시의 맥락상 장수산 깊은 산골에서 기거하는 '옷걸 중'을 의미하며, '옷걸 중'은 여섯 판에 여섯 번 지고도 슬퍼하거나 분노하지 않고 웃고 올라간 존재이므로 여유로운 마음을 가진 존재임을 알 수 있다. 또 (다)의 ㉡은 산 속의 고요를 감내하지 못하고 불안해하는 현대인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은 자연에 적응하지 못하고 불안을 느끼는 인물로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 ① ㉠은 일반적인 인간을 초월한 마음을 가진 인물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은 자연 속의 고요의 가치와 의미를 인식하지 못하는 인물로서 자연이 지닌 무한함을 추구하는 인물로 보기 어렵다.
- ② ㉠은 장수산에서 기거하며 여섯 번 지고도 웃음을 짓는 인물이므로 자연 속에서 무욕의 삶을 살아가는 인물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은 자연 속의 고요에 적응하지 못한 채 불안을 느끼며 트랜지스터를 틀어 대거나 고래고래 고향을 지를 것 같은 인물이므로 세속적 욕망을 거부한 인물로 볼 수 없다.
- ④ ㉠은 자연 속에 기거하고 있지만 타인과의 교감을 거부하는 인물인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또 ㉡은 자연에 있으면서도 트랜지스터를 틀어 대거나 고래고래 고향을 지를 것 같은 인물이므로 인간 세상과의 접촉을 거부하는 인물로 보기 어렵다.
- ⑤ ㉠은 마음의 평화에 도달한 인물로 볼 수 있지만, ㉡은 자연 속의 고요에 적응하지 못하는 인물이므로 인간적 욕망을 극복하고 마음의 평화를 지향하는 인물로 보기 어렵다.

29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 ③

정답 해설 (나)의 '뺨을 갈아 끼우지 못하는 육신'을 지닌 '산에 든 자'는 삭발을 하고 베옷을 입은 채 산속에서 기거하는 사람이므로 속세를 떠나 자연 속에서 마음의 평안함을 추구하던 '선승'과 같은 존재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인물은 자연에 귀의하여 살아가는 인물로 볼 수 있으므로 화자가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현대인으로 볼 수 없다.

오답 해설

- ① (나)의 화자는 산속에서 '잎새'에 비추는 '햇살'을 보며 초록에 취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다)의 글쓴이는 가을과 겨울 숲에서 부는 바람 소리를 듣고 떨어진 '가랑잎'을 조심스럽게 밟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② (나)의 '사람들만 아침저녁 옷 벗고 옷 갈아입는다'라는 표현은 나무들은 껍질의 옷으로 일생을 넉넉히 살아가지만 사람들은 욕망에 쌓여 분주하게 살아간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표현에는 사람들에게 대한 화자의 비판적 태도가 드러나 있다고 할 수 있다. 또 (다)의 '현대인들이' 원초적 질서와 고요를 망각하고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표현에도 (다)의 글쓴이가 지닌 비판적 태도가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있다.
- ④ (나)의 화자는 '맨발로 서'면 자연물인 '다람쥐 족제비'들도 맘에 닿는다고 하였으므로 '맨발로 서'는 행위는 곧 자연과 동화되려는 행위로 이해할 수 있다. 또 (다)의 '어느 하나 허를 배경 삼지 않은 실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글쓴이의 생각은 자연 속 고요를 통해 화자가 깨닫게 된 삶에 대한 통찰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 ⑤ (나)의 화자는 '옷과 신발을 벗어' '던질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의문을 품고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은 화자가 자신을 성찰함으로써 도달할 수 있는 심리 상태로 이해할 수 있다. 또 (다)의 '지금 어디쯤에 와 있는가를 헤아리'는 행위는 글쓴이가 겨울 숲에서 자신의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고 성찰하는 행위로 이해할 수 있다.

30 작가의 관점, 주제 의식 파악

정답 ⑤

정답 해설 7~8문단에서 현대인들은 무엇인가 기대지 않고는 홀로 설 수가 없는 존재이며, 자연 속의 고요를 즐기지 못하고 불안해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 해설

- ① 2문단에서 글쓴이는, 세상 모든 것은 있어야 할 필연적인 이유 때문에 그것이 있는 특정한 곳에 존재하게 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 ② 4문단에서 글쓴이는, 산바람 소리가 우리들 마음속을 차분하고 정결하게 가라앉혀 준다고 하였다.
- ③ 4문단에서 산에서 듣는 바람 소리는 인간의 도시에서 묻은 온갖 오염을 씻어 준다고 하였다. 그리고 7문단에서 현대인들은 도시의 혼잡과 소음에 잔뜩 중독된 나머지 원초적인 질서와 고요를 잊어버렸다고 하였다.
- ④ 9문단에서 침묵이 없이 어떻게 인간의 언어가 발음될 수 있단 말인가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31~34]

김소진, 「아버지의 자리」

해제 | 이 작품은 자신의 중학교 등록금을 빼돌려 바람을 피웠던 아버지와 화해를 한 경험이 있는 '나'가, 어느덧 딸아이를 둔 아버지가 되어 과거 아버지가 느꼈던 미안함과 책임감을 느끼게 된다는 내용의 소설이다. '나'는 딸아이를 둔 무직자 아버지로서 자신을 창피하게 생각하는 딸아이와의 화해를 시도하다가 실패하게 되면서 과거 자신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과 사랑을 다시금 생각해 보며 아버지로서의 책임감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된다.

주제 | 아버지에 대한 추억과 아버지로서의 책임감

전체 줄거리

잘 다니던 출판사를 그만두고 무직자가 된 '나'는 비 오는 날 유치원에 딸을 데리러 가지만 딸은 아버지를 창피하게 생각하며 친구의 차를 얻어 타고 간다. 무안해진 '나'는 과거 자신과 '아버지' 사이에 있었던 일을 회상한다. '나'는 아버지가 자신의 등록금을 빼돌려 바람을 피우는 바람에 중학교에 입학하지 못한다. 그러자 '나'는 약국에서 허드렛일을 하며 약품을 빼돌려 내다 팔고, 약품을 사는 손님들에게 술을 얻어 마시는 등 일탈을 한다. 그리고 1년이 지나 다시 중학교에 진학하기로 한 어느 날 아버지는 그런 '나'에게 자신의 미안함을 전하며 놀린 돼지고기를 먹인다. 열혈에 아버지와 화해를 한 '나'는 잠이 들어 아버지에게 업혀 내려오며 아버지의 사랑을 느낀다. 다시 출근을 하게 된 '나'는 과거 자신과 아버지의 화해를 떠올리며 유치원으로 딸을 데리러 간다. 모범택시까지 대기시키며 딸을 기다렸지만 여전히 딸은 자신을 외면하고 '나'는 과거 아버지의 마음을 떠올리며 어찌할 바를 모른다.

31 서술상의 특징 파악

정답 ④

정답 해설 [A]에는 '나'가 딸을 기다리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불안했던 마음이 점점 서늘퍼지는 정서의 변화 양상이 서술되어 있다.

오답 해설

- ① [A]에는 '나'가 딸을 기다리는 모습이 순차적인 시간의 흐름을 통해 서술되어 있을 뿐 동시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사건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 ② [A]는 '나'의 시점에서 서술된 부분으로, 여러 인물의 시점에서 사건에 담긴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③ [A]에는 유치원 앞의 횡단보도라는 공간적 배경이 제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공간의 특징이 부각되고 있지 않으며, 사건의 원인을 밝히고 있지도 않다.
- ⑤ [A]에는 '나'가 딸을 기다리는 모습이 제시되어 있을 뿐 오랜 시간 동안 벌어진 일을 요약적 진술을 통해 전달하는 부분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32 구절의 의미 이해

정답 ④

정답 해설 ㉔에는 '아버지'가 '나'를 들쳐 업고 내려온 '나'의 기억이 제시되어 있다. '나'의 이러한 경험은 최초이자 마지막이었다고 언급되어 있으며, 이는 '나'가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게 된 기억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 맥락에서 ㉔을 사랑을 표현하는 데 서툴렀던 '아버지'에 대한 연민이 드러나 있다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 ① ㉔에는 이전에 딸에게 외면을 당했던 '나'가 다시 딸을 데리러 가게 되면서 느끼는 불안감과 긴장감이 드러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화자의 심리는 이전과 같은 일이 반복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으로 볼 수 있다.

- ② ㉔에 따르면, 딸은 횡단보도 건너편에 있는 '아버지'를 보고도 느릿느릿 걸어 오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딸의 반응은 자신을 데리러 온 아버지가 여전히 달갑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 ③ ㉔의 앞부분에는 '나'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진 '아버지'가 '나'에게 말을 건네고 있으며, ㉔의 뒷부분에는 자식에 대한 미안함과 걱정이 담겨 있는 '아버지'의 어쭈잡은 변명이 제시되어 있다. 그러므로 ㉔에는 아들에게 미안하고 뭇뭇하지 못한 '아버지'의 마음이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있다.
- ⑤ ㉔에는 '나'가 운전사의 재촉에도 대꾸하지 못하고 경직된 채로 서 있는 모습이 드러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나'의 반응은 또다시 자신을 외면하고 가 버린 딸로 인한 충격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33 인물의 심리, 태도 파악

정답 ③

정답 해설 무직자인 '나'는 딸을 다시 데리러 가며 모범택시를 대기시켜, 딸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감춤으로써 딸이 더 이상 자신을 창피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나'의 행동은 어린 딸을 기만하기 위한 허세로서 '나' 스스로가 유치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오답 해설

- ① '나'는 딸이 무직자인 자신을 더 이상 창피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모범택시를 대기시키고 지붕에 손을 얹으며 거만한 자세를 취한 것이다. 그러므로 '나'가 단순히 '택시 기사'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여 딸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였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② 딸을 다시 데리러 간 '나'의 행위는 딸의 신뢰를 회복하고 싶은 마음 때문이지 다른 학부모에게 느꼈던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 ④ '나'가 모범택시를 대기시키고 거만한 자세를 취한 것은 딸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지만 다른 사람들 앞에서 태연한 척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 ⑤ 모범택시를 대기시킨 것은 '나'의 처지에 비해 과도한 소비를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통해 딸에게 자신이 다시 취업하게 된 사실을 알리려 한 것은 아니다.

34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 ⑤

정답 해설 '나'가 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채 손님들의 술을 받아 마신 것은 '아버지'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해 불안해진 상황에서 나타난 일탈 행동이며, '나'는 이와 관련한 '아버지'의 질문을 듣고 자신의 행동을 부끄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세련이'가 자신을 데리러 온 '나'를 두 번이나 외면한 것은 맞지만 이러한 자신의 행동에 대해 되돌아보는 모습은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 해설

- ① '나'는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며 가정에 경제적 어려움을 유발하였다는 점에서 딸에게 뭇뭇하지 못한 아버지가 되었다. 그리고 과거 '나'의 '아버지'는 등록금을 빼돌려 외도를 한 탓에 자식의 중학교 진학을 무산시키는 바람에 '나'에게 뭇뭇하지 못한 아버지가 되었다.
- ② '아버지'가 '나'에게 주었던 '돼지 머릿고기'는 미안한 자식에게 아버지가 준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돼지 머릿고기'에는 자식에 대한 미안한 마음과 사랑의 감정이 모두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 ③ '나'는 과거 자신과 '아버지'가 심겁게 화해에 도달했던 것처럼, 모범택시를 대기시켜 가며 다시 딸을 데리러 감으로써 과거 자신이 경험했던 것처럼 딸과 화해하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 ④ '나'는 딸이 자신을 또다시 외면하고 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아버지라면 이럴 때 어떻게 했을 것인가.'라는 말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있다. 그리고 '나'는 이러한 경험을 통해 과거 '아버지'가 했던 화해의 시도와 그때의 아버지의 마음을 환기하게 되었을 것이라고 추론해 볼 수 있다.

[화법과 작문]

35 발표 표현 전략 사용하기

정답 ①

정답 해설 발표자는 사이클로이드의 개념을 설명하고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가 되시나요?'라고 청중에게 묻은 뒤 잘 이해가 안 된다는 청중의 답변을 듣고 다시 개념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오답 해설

- ② 발표자가 정보의 출처를 언급하고 있지 않다.
- ③ 발표자가 발표의 순서를 안내하고 있지 않다.
- ④ 발표자가 발표 주제를 선정한 이유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
- ⑤ 발표자가 발표 소재를 친숙한 대상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지 않다.

36 발표에서 자료, 매체 활용하기

정답 ③

정답 해설 4문단에서 발표자는 자료를 제시하며 'A 지점은 가장 높은 위치에 있어 중력의 영향으로 속도가 빠르게 증가하지만 상대적으로 C 지점은 수평에 가까워 출발할 때 속도를 낼 수 없다'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사이클로이드 위에 지정된 지점 사이가 멀수록 속도의 차이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 ① 2문단에서 발표자는 자료를 제시하며 사이클로이드 용어의 유래와 관련된 '바퀴'의 궤적을 통해 사이클로이드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 ② 5문단에서 발표자는 자료를 제시하며 아까 보여 드렸던 바퀴의 궤적에서 사이클로이드가 활용된 예를 유추해 볼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 ④ 1문단에서 발표자는 자료를 제시하며 롤러코스터의 급강하하는 부분이 멀리서 보면 원의 일부처럼 곡선을 이룬 형태임을 설명하고 이 곡선이 사이클로이드임을 언급하고 있다.
- ⑤ 3문단에서 발표자는 자료를 제시하며 롤러코스터 중 사이클로이드를 활용한 경우가 직선을 활용한 경우보다 빠르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37 발표 내용 이해, 평가하기

정답 ⑤

정답 해설 '학생 3'은 '사이클로이드 위의 지점 중 지면과 가까울수록 지면에 도착하는 시간이 빠른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라고 하며 발표에서 언급된 내용을 통해 자신이 알고 있던 바를 수정하고 있지만 '학생 1'의 반응에는 평소 자신이 알고 있던 바를 수정하는 내용이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 ① '학생 1'이 '전통 한옥의 지붕처럼 요즘 지붕에서도 빗물을 내려보내기 위해 사이클로이드를 활용하는지 찾아봐야겠어.'라고 한 부분을 통해 알 수 있다.
- ② '학생 2'가 '하지만 건축물에 사이클로이드를 활용했을 때 왜 일반 아치보다 더 큰 하중을 견딜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 주지 않아 아쉬웠어.'라고 한 부분을 통해 알 수 있다.
- ③ '학생 3'이 '예전에 직선 형태의 미끄럼틀과 사이클로이드 형태의 미끄럼틀 중 어떤 미끄럼틀에서 더 빨리 내려올 수 있는지 실험을 해 본 적이 있어서 롤러코스터에서 사이클로이드를 활용한다는 내용은 쉽게 이해할 수 있었어.'라고 한 부분을 통해 알 수 있다.
- ④ '학생 1'이 '사이클로이드가 어디에 활용되는지 궁금했는데 구체적인 예들을 알게 되어 좋았어.'라고 한 부분과 '학생 2'가 '생활 속에서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에 과학적 원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돼서 유익했어.'라고 한 부분을 통해 알 수 있다.

38 글쓰기 표현 전략 사용하기

정답 ⑤

정답 해설 (가)의 '그렇다면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소년과 학교는 각각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할까?'에서 묻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고, '가장 먼저 청소년은 자신에 대해 진지하게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와 '다음으로 학교에서는 진로 분야에 대한 실질적인 체험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진로 체험 활동을 운영해야 한다.'에서 답하는 방식을 활용해 진로를 탐색하지 못한 청소년에 대한 문제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오답 해설

- ① 용어의 개념을 정의한 부분이 나타나 있지 않다.
- ② 비유적 표현을 활용한 부분이 나타나 있지 않다.
- ③ 다른 지역의 경우를 사례로 든 부분이 나타나 있지 않다.
- ④ 실질적인 체험 활동과 이벤트성의 체험 활동 등에 대조의 방식을 활용하고 있지만, 대조의 방식을 활용하여 진로 탐색의 중요성에 대한 청소년의 연령별 인식 차이를 드러내고 있지 않다.

39 글쓰기 내용 조직하기

정답 ③

정답 해설 3문단에서 신문 기사를 언급하여 '최근에는 학교를 비롯해 각 지역의 진로 심리 상담 센터에서 학생 맞춤형 진로 상담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며 진로 상담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을 뿐 학교마다 진로 상담 참여율이 다르게 나타나는 상황에 대해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 ① 1문단에서 뉴스 보도를 언급하여 '최근 청소년의 자기 탐색과 진로 준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진로를 정하지 못한 청소년의 비율은 늘고 있다'고 하며 진로를 정하지 못하는 청소년이 증가하는 실태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② 2문단에서 보고서의 내용을 인용하여 '청소년들이 진로를 정하지 못한 가장 큰 원인은 자신이 잘하고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하며 청소년이 진로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의 원인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④ 4문단에서 연구 결과를 인용하여 '실제로 진로 체험 활동이 계기가 되어 진로를 정하게 된 경우도 있다'고 하며 진로 체험 활동이 진로를 결정하는 계기로 작용한 경우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⑤ 마지막 문단에서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하여 '청소년기에 진로를 정하면 진로의 방향에 맞게 필요한 능력을 충분히 키워 나갈 수 있어 발달 차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하며 청소년기에 진로를 결정할 때의 장점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40 토의 표현 전략 사용하기

정답 ②

정답 해설 '학생 1'의 다섯 번째 발화에서 '학교에서 실질적인 진로 체험이 이뤄지는 활동을 운영해야 한다는 내용에 지역 사회 연계 프로그램을 사례로 제시하는 거네.'에 진로 관련 체험을 다룬 내용에 대해 토의 참여자들의 발언을 듣고 이를 요약하고 있는 내용이 나타나 있으므로 적절하다.

오답 해설

- ① '학생 1'의 발화 중 토의 참여자에게 발언 기회를 고르게 배분하는 내용이 나타나 있지 않다.
- ③ '학생 1'은 진로 상담에 대한 내용에 대해 '너희가 말한 내용을 반영할게.'라고만 언급하고 있을 뿐, 토의 참여자가 제안한 의견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덧붙이고 있지 않다.
- ④ '학생 1'은 토의의 시작 부분에서 토의의 주제를 선정하게 된 계기를 밝히고 있지 않다.
- ⑤ '학생 1'은 토의의 마무리 부분에서 토의 참여자별로 찾을 자료를 구분하고 있지 않다.

41 토의 맥락 분석하기

정답 ②

정답 해설 ㉠의 '자료를 찾아보니 보고서 내용을 인용한 부분 대신 작년 대비 올해 진로를 정하지 못한 청소년이 얼마나 늘었는지에 대한 내용'에 '학생 2'의 의견과 관련된 추가 자료를 제시한 내용이 나타나 있다고 할 수 있지만, '학생 2'의 의견이 지닌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 ① ㉠의 '그럼 먼저 진로를 정하지 못한 청소년이 많다는 내용에 대해서 말해 볼게.'에 '학생 1'이 제시한 논의 순서를 고려하여 의견을 제시한 부분이 나타나 있다.
- ③ ㉡의 '네 말은 그 문단에 청소년이 진로 심리 검사를 통해 자신의 적성과 소질을 탐색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자는 거지?'에 '학생 3'이 제안한 의견에 대해 자신이 이해한 바가 적절한지 확인하는 내용이 나타나 있다.
- ④ ㉢의 '뉴스에서 지역 사회와 연계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실제 직업인이 하는 활동을 경험할 수 있다고 했잖아.'에 '학생 2'가 언급한 내용에 대한 자신의 배경지식이 드러나 있고, '그렇다면 실질적인 진로 체험 활동에 대한 사례로 제시하기에 적절할 듯해.'에 '학생 2'의 의견에 동의하는 내용이 나타나 있다.
- ⑤ ㉣의 '청소년들이 자신의 적성과 소질을 파악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뿐 아니라 학교 측에서 해야 할 노력에 대한 내용을 함께 제시해 주는 것이 적절할 것 같아'에 '왜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지 자세히 말해' 달라는 '학생 3'의 요청에 따라 마지막 문단에 수정이 필요하다는 자신의 의견을 구체화하여 제시하는 내용이 나타나 있다.

42 글쓰기 내용 생성하기

정답 ②

정답 해설 진로 교육의 만족도에 대한 내용에 대해 '학생 2'는 '진로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아닌, 기존의 진로 체험 활동이 진로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내용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고, '학생 1'이 이를 반영한다고 했으므로 진로 교육의 만족도에 대한 내용을 진로 체험 활동의 중요성에 관한 인식도 조사에 대한 내용으로 바꾸자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 ① 진로를 정하지 못한 청소년이 많다는 내용에 대해 '학생 2'는 '뉴스에서는 진로를 정하지 못한 청소년의 비율이 늘고 있다고 했'지만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실제로 확인할 수 없었음을 밝히고 있고, '학생 3'이 이에 대해 '작년 대비 올해 진로를 정하지 못한 청소년이 얼마나 늘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제시해 주는 게 좋겠'다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 ③ 진로 상담에 대한 내용에 대해 '학생 3'이 '나는 청소년 차원의 해결 방안에서, 진로 상담에 대한 내용뿐 아니라 진로 심리 검사에 대한 내용까지 다뤄 주면 좋겠어.'라고 하며 '진로 심리 검사지를 살펴보면 자신의 적성과 소질이 자세히 제시되어 있'다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 ④ 진로 체험 활동에 대한 내용에 대해 '학생 2'가 '그 부분에는 진로 체험 활동에 대한 사례가 추가됐으면 좋겠어.'라고 하며 '지역 사회와 연계된 프로그램 중에는 실제 직업인이 참여하는 경우도 있어 진로와 관련된 심화 활동을 할 수 있다'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 ⑤ 다섯 번째 문단에 대해 '학생 2'가 '마지막 문단에서도 청소년들이 자신의 적성과 소질을 파악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뿐 아니라 학교 측에서 해야 할 노력에 대한 내용을 함께 제시해 주는 것이 적절할 것 같아.'라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43 정보 전달 글쓰기 표현 전략 사용하기

정답 ④

정답 해설 초고에서는 국내 10대 청소년의 24%가 포모 증후군을 경험했다는 연구 결과를 언급하면서 통계 자료의 구체적인 수치를 활용하였다. 하지만 해당 자료의 출처를 밝히지 않았으므로 신뢰성을 확보했다고 보기 어렵다.

오답 해설

- ① 2문단의 첫 번째 문장('국내에서 포모 증후군을 겪는 청소년들이 점점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와 3문단의 첫 번째 문장('포모 증후군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모두 물음의 형식을 활용하여 '포모 증후군의 원인'과 '포모 증후군의 극복 방안'이라는 핵심 내용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 ② 1문단에서 '포모 증후군'의 의미를 '주변의 흐름을 놓치거나 소외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을 느끼는 증상'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포모 증후군에 대해 모르는 예상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 ③ 1문단에서 포모 증후군이 마케팅 기법의 용어로 사용된 양상을 설명하면서 '매진 압박', '한정 판매' 등의 문구를 예시로 들고 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흡소핑이라는 특정 분야에서 '포모'라는 개념이 사용된 양상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⑤ 2문단에서 포모 증후군을 겪는 청소년들이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문제 상황을 유발한 원인을 제시하고 있다. 더불어 3문단에서 포모 증후군을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이를 통해 포모 증후군의 원인과 그에 따른 극복 방안이라는 흐름으로 글이 논리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44 정보 전달 글쓰기 내용 생성하기

정답 ③

정답 해설 불필요한 정보에 대한 관심을 버리고 유용한 정보만을 취하기 위해 여유를 갖자는 것은 초고의 3문단에서 언급한 두 번째 해결 방법에 해당한다. 두 번째 해결 방법은 너무 많은 정보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기보다 여유를 갖고 공백(비어 있음)에서 오는 불안감을 견뎌 내야 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더불어 '잘 비우는 것이 잘 채우는 것이다.'라는 구절에서 역설법을 사용하여 불필요한 정보를 잘 비울수록 유용한 정보들로 잘 채울 수 있다는 뜻을 전달하고 있다.

오답 해설

- ① '마감 압박', '한정 판매'는 포모 증후군이 마케팅 기법의 용어로 사용된 과거의 상황을 보여 주는 사례에 해당한다. 따라서 해당 문구를 경계하는 것은 학생들이 겪는 포모 증후군을 해결하는 방안과 무관하다. 또한 역설법도 사용되지 않았다.

② '멀어질수록 가까워진다'는 구절에서 역설법이 적절하게 사용되었다. 또한 주어진 일에 집중하라는 것은, 초고의 3문단에 제시된 첫 번째 해결 방법에 해당한다. '잡은 연락을 최소화'하라는 것은, 디지털 기기의 중독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세 번째 해결 방법과 관련된다. 다만, 이러한 방법들은 상대적 박탈감과 고립감을 극복하기 위한 목적 혹은 타인의 관심에 집착하는 것에서 벗어나기 위한 목적이므로 'SNS 친구들과 친밀한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라는 진술이 적절하지 않다.

④ 사회 전체의 디지털 금식을 주장하고 캠페인 활동을 제안하는 것은, 앞서 언급한 해결 방법 중 하나를 다시 강조하는 것이 아니다. 세 번째 해결 방안을 달성하기 위한 요건을 부연 설명한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또한 역설법도 사용되지 않았다.

⑤ '효율적인 사회가 곧 비효율적인 사회이다.'라는 구절에서 역설법이 사용되었다. 그러나 포모 증후군으로 인한 사회 문제의 심각성을 우려하며 효율성을 추구하는 사회에 대한 비판 의식을 드러내는 것은 초고에서 언급한 해결 방법과 무관하다.

45 정보 전달 글쓰기 자료, 매체 활용하기

정답 ②

정답 해설 (나)에 따르면, 10대 청소년은 SNS를 이용하는 시간 중 3시간 이상의 비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제일 높다. 따라서 10대 청소년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SNS 이용 시간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는 2문단에서 포모 증후군을 겪는 국내 청소년들이 점점 늘어나는 원인으로 'SNS의 확산'을 주장한 것을 논리적으로 뒷받침해 준다. 즉 (나)는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포모 증후군 발병이 증가되는 현상이 10대 청소년의 높은 SNS 사용 시간에서 비롯되었다는 의미의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하지만 국내 청소년들의 포모 증후군 발병률이 다른 세대보다 급증했다는 것은 초고에서 언급된 내용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 ① (가)는 포모 증후군 자가 진단 항목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자료이므로, 포모 증후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이를 통해 1문단의 끝부분에 언급된 '현대인들이 호소하는 포모 증후군의 증상은 ~ 정밀한 자가 진단을 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완할 수 있다.
- ③ (다)는 SNS의 특정한 기능이 타인의 평판과 관심에 대한 집착을 유발해 심리적 불안감을 느끼게 만든다는 전문가의 인터뷰이다. 따라서 (다)를 활용하면 초고의 2문단에서 언급된 '사람들의 관심과 인정을 즉각적으로 확인받을 수 있는 SNS의 기능'이 '좋아요'나 '팔로워 수'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또한 해당 SNS 기능이 질투심과 소외감 등을 유발하며 인간 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이유를 설득력 있게 제시할 수 있다. 이를 통해 2문단에서 언급된 SNS의 역기능에 대한 경고를 구체적으로 보완할 수 있다.
- ④ (가)를 보면, 포모 증후군 자가 진단 항목 전체가 SNS의 사용 양상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를 보면 '좋아요', '팔로워 수'와 같은 SNS 기능이 심리적 불안감을 유발하고 우울증을 초래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두 자료를 종합하면, SNS의 잦은 사용과 '좋아요', '팔로워 수'와 같은 SNS의 기능에 대한 집착이 포모 증후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포모 증후군을 극복하기 위해서 SNS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한 3문단의 내용을 보완할 수 있다.
- ⑤ (나)를 보면, 국내 10대들의 SNS 사용 시간이 다른 연령대보다 높음을 알 수 있다. (다)를 보면, 청소년들이 다른 세대에 비해 스마트폰에 더 익숙하여 SNS 상 사람들의 반응에 훨씬 더 민감할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청소년이 다른 세대에 비해 SNS 사용 정도도 높고 SNS와의 친밀도도 높음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다른 세대보다 SNS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주장한 2문단의 내용을 보완할 수 있다.

[언어와 매체]

35 품사의 개념

정답 ②

정답 해설 ㉠의 '살다'는 '어느 곳에 거주하거나 거처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며, 과거를 나타내는 관형사형 어미 '-니'와 결합하여 '산'으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동사이다. 또 ㉡의 '마르다'는 '입이나 목구멍에 물기가 적어져 갈증이 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며, 현재를 나타내는 관형사형 어미 '-는'이 결합하여 '마르는 중이다'와 같이 사용될 수 있으므로 동사이다. 이에 비해 ㉢의 '없다'는 '어떤 일이나 현상이나 증상 따위가 생겨 나타나지 않은 상태이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으며, 예외적으로 현재를 나타내는 관형사형 어미 '-는'을 사용하는 형용사에 해당한다. 또 ㉣의 '부르다'는 '먹은 것이 많아 속이 팍 찬 느낌이 들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으며 관형사형 어미 '-니'가 결합하여 '배가 부른 상태'와 같이 사용되지만 '배가 부르는 상태'와 같이 사용되지 못하므로 형용사이다.

36 단어의 분류

정답 ④

정답 해설 '있다'의 경우 동사와 형용사로 모두 사용될 수 있는데, 3문단에 따르면 '있다'가 아닌 용언에서 '-은'은 형용사와 결합할 경우 관형사형 어미이며, 동사와 결합하면 과거를 나타내는 관형사형 어미가 된다. 그리고 '있다'가 형용사로 사용될 경우 현재를 나타내는 관형사형 어미 '-는'이 붙고 과거를 나타내는 관형사형 어미 '-은'이 붙어 사용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은 '있을'과 같이 '-은'이 붙었으며 '나'의 과거를 나타내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있다'가 형용사로 사용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 ㉠ ㉡의 '있다'는 '어떤 사실이나 현상이 현실로 존재하는 상태이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으므로 형용사이다.
- ㉢ ㉣의 '있다'는 '사람이나 동물이 어떤 상태를 계속 유지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고, 청유형 어미 '-자'와 결합하여 쓰이고 있으므로 동사이다.
- ㉢ ㉣의 '있다'는 '개인이나 물체의 일부분이 일정한 범위나 전체에 포함된 상태이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고 현재를 나타내는 관형사형 어미 '-는'이 결합하여 사용되고 있으므로 형용사이다.
- ㉤ ㉤의 '있다'는 '사람이나 동물이 어느 곳에서 떠나거나 벗어나지 아니하고 머물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으며 의도를 뜻하는 어미 '-려'가 결합하여 사용되고 있으므로 동사이다.

37 표준 발음법에 관한 조항 - 받침의 발음

정답 ②

정답 해설 '논밭을'은 '논밭'이라는 말 뒤에 형식 형태소인 '을'이 온 경우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나 자음군 단순화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논바^ㄷ를]과 같이 발음해야 한다. 그런데 [논바^ㄷ를]이라는 잘못된 발음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ㄷ'이 대표음인 'ㄷ'이 되어야 하고 이것이 연음되면 [논바^ㄷ를]로 발음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논바^ㄷ를]이라는 잘못된 발음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하여 잘못 발음한 것이 아니다.

오답 해설

- ㉠ '부엌이'는 '부엌' 뒤에 형식 형태소 '이'가 온 경우로 [부어^ㄱ키]와 같이 발음해야 한다. 그런데 이를 [부어^ㄱ키]로 잘못 발음한 것은 '부엌'의 'ㄱ'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해 'ㄱ'으로 교체한 후 연음하였기 때문이다.
- ㉢ '닭이'는 '닭' 뒤에 형식 형태소 '이'가 온 경우로 [달기]와 같이 발음해야 한다. 그런데 이를 [다기]로 잘못 발음한 것은 '닭'의 겹받침을 자음군 단순화를 통해 'ㄹ'을 탈락시킨 후 연음하였기 때문이다.
- ㉣ '값있다'의 '값'과 '있다'는 모두 실질 형태소이므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나 자음군 단순화가 적용된 후 연음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자음군 단순화에 의해 'ㅅ'을 탈락시킨 후 연음을 하게 되어 [가^ㄴ빈느]으로 발음해야 한다.
- ㉤ '팔알'의 '팔'과 '알'은 모두 실질 형태소이므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나 자음군 단순화가 적용된 후 연음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 'ㅌ'을 대표음 'ㄷ'으로 교체한 후 연음을 하게 되어 [파^ㄷ달]로 발음해야 한다.

38 문장 성분의 특성 - 관형어와 부사어

정답 ④

정답 해설 '만일'과 '앞으로' 모두 후행하는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문장 부사어이다. 하지만 '만일'은 '~면'과 호응 관계를 이루지만 '앞으로'는 호응 관계를 이루는 특별한 말이 없다.

오답 해설

- ㉠ '아침에'의 '에'는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이고, '이곳에'의 '에'는 처소를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이다. 그리고 각각의 단어는 '아침'과 '에', '이곳'과 '에'가 결합하여 부사어가 된 것이다.
- ㉡ '멋지게'와 '어떻게'는 각각 '멋지-', '어떻-'이라는 어간에 부사형 어미 '-게'가 결합하여 부사어가 된 것이다.
- ㉢ '이곳에', '나에게', '취미로'는 모두 생략할 경우 불완전한 문장이 되므로 필수적 부사어에 해당한다.
- ㉤ '어떻게'와 '또'는 각각 후행하는 문장 성분을 수식하는 성분 부사어로 사용되고 있다.

39 중세 국어 자료 탐구

정답 ⑤

정답 해설 중세 국어 자료에서 '과'가 사용된 경우는 '업과', '법과', '밤과', '낮과'와 같이 자음 아래에서 실현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불와'는 현대 국어와 달리 '와'가 결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불'의 경우 '르'로 끝나는 말임을 알 수 있다. 또 '니왜', '승괘'를 통해 '와'와 '과'가 각각 앞 체언뿐만 아니라 뒤 체언에도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0 매체 유형에 따른 특성

정답 ③

정답 해설 (가)에 댓글을 달 수 있는 기능이 있기는 하지만 (가)는 이미 방송된 내용을 방송사 홈페이지에 탑재한 것이다. 그러므로 (가)의 댓글 기능은 뉴스 진행자와 정보 수용자 사이의 의사소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오답 해설

- ㉠ (가)는 텔레비전을 통해 방송된 뉴스를 방송사 홈페이지에 탑재한 것이다. 그리고 해당 홈페이지에서 뉴스 영상의 재생 표식을 통해 재생 기능이 탑재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정보 수용자는 이러한 기능을 활용해 수시로 뉴스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 (가)의 제목 우측단의 아이콘을 통해 뉴스의 공유 기능이 탑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공유 기능은 뉴스 내용을 다른 정보 수용자에게 손쉽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 ㉣ (가)의 하단부에는 '관련 뉴스'라는 항목이 있으며 이를 통해 정보 수용자들이 뉴스 내용과 관련한 다른 뉴스를 손쉽게 접하고, 이를 통해 뉴스 내용과 관련한 추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 (가)는 원래 텔레비전을 통해 방송되었던 영상을 방송사 홈페이지에 탑재한 것이다. 그런데 (가)에는 영상뿐만 아니라 뉴스에 등장하는 인물의 말을 텍스트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가)는 기술적, 환경적 이유 등으로 인해 뉴스 영상을 재생할 수 없는 경우에도 뉴스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1 매체 언어의 표현 방법

정답 ⑤

정답 해설 ㉠에 '안 된다고'와 같이 간접 인용의 방식이 사용된 것은 맞지만, 이러한 간접 인용의 표현은 농림 축산 식품부에서 마련한 대응 수칙을 객관적으로 전달하고 있음을 드러내기 위해 사용한 것이지 농림 축산 식품부의 정책 실행의지를 강조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 ㉠ ㉠의 앞부분에는 정부가 개 물림 사고 방지를 위해 여러 가지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그리고 ㉠에는 이러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비판이 많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그러므로 ㉠에 사용된 역접의 접속 부사 '하지만'은 개 물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 정책의 효과가 미흡하다는 견해를 전달하기 위해 사용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 ㉡은 '비판이'를 주어로 '제기되고 있습니다'와 같은 서술어가 사용된 피동문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피동문은 비판을 한 주체가 주어가 되는 능동문에 비해 주어인 '비판이'를 부각하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이처럼 '비판이'가 주어가 될 경우 정부 정책의 효과가 미흡하다는 내용이 두드러지게 된다.

- ③ '-지만'은 어떤 사실이나 내용을 시인하면서 그에 반대되는 내용을 말하거나 조건을 붙여 말할 때 쓰는 연결 어미이다. 그러므로 ㉠을 통해 ㉡ 앞에 제시된 반려인이 지켜야 할 공공 예절도 중요하지만 이와 더불어 비반려인이 지켜야 할 공공 예절도 중요하다는 내용이 제시되고 있다.
- ④ 뉴스 진행자는 '~ 중요하다고요?'와 같은 의문형 문장을 사용하여 기자에게 질문을 던져, 질문 내용과 관련한 기자의 발언을 유도하고 있다.

42 매체 언어의 의미 전달 방식

정답 ⑤

정답 해설 (가)에 반려인뿐만 아니라 비반려인이 공공 예절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나)에 반려인이 지켜야 할 수칙과 비반려인이 지켜야 할 수칙이 구분되어 제시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가)의 기자가 언급한 비반려인의 과잉 방위와 관련한 내용은 (나)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오답 해설

- ① (가)의 '관련 뉴스'에는 국립 국어원에서 '펫티켓'이라는 용어를 '반려동물 공공 예절'로 순화하였다는 내용의 뉴스가 제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나)에서는 '펫티켓'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지 않고 '반려견 공공 예절'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② (가)에서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지켜야 할 수칙이 기자의 말과 홈페이지의 텍스트를 통해 진술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나)에서는 이러한 수칙들이 관련된 그림과 함께 제시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③ (가)에 제시된 반려인들이 지켜야 할 수칙에는 강아지 유모차 등의 이동 장치를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나)에는 이와 관련한 내용이 제시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나)에 엘리베이터, 공용 공간에서 반려견을 안거나 목덜미 부분의 목줄을 잡으라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는데, 이는 (가)에 제시되지 않은 내용으로 (나)를 제작하며 추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 (나)에 타인의 반려견에게 갑자기 다가가거나 소리를 지르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도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④ (가)에 동물 등록과 관련한 내용이 제시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나)에는 동물 등록의 구체적인 방법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가 제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3 매체 자료의 주체적 수용

정답 ②

정답 해설 '학생 2'는 (나)의 내용이 생활 속에서 자주 경험할 수 있는 상황과 관련한 공공 예절을 안내하여 도움이 된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므로 '학생 2'는 (나)의 내용이 정보 수용자의 삶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어 매우 유용하다는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오답 해설

- ① '학생 1'은 (나)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학생 1'은 다양한 반려동물과 관련한 수칙을 제시하지 못한 점에 대한 비판적 평가를 내린 것일 뿐 포스터의 제작 목적과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한 것은 아니다.
- ③ '학생 3'은 포스터를 다른 매체를 통해 전파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면 좋겠다는 견해를 드러냈을 뿐 포스터 자체의 범용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는 않다.
- ④ '학생 1'과 '학생 3' 모두 (나)에 제시된 정보의 정확성과 적절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지는 않다.
- ⑤ '학생 2'는 실생활과 밀접한 내용이 제시된 것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학생 3'도 다양한 매체의 형태로 전파하는 방법에 대해 언급했을 뿐 실생활에서 구현되기 어렵다는 견해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44 매체 언어의 표현 방법

정답 ④

정답 해설 이 방송의 마지막 부분에 화재 안전 대응 방법에 대한 동영상은 제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영상을 활용하여 대피 과정을 나누어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해설

- ① 방송에서 진행자가 대피 방법을 설명하며 코와 입을 가리고 허리를 숙이고 벽을 두드리는 시범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② 방송에서 진행자가 코와 입을 가리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수건과 에코 백, 천 조각과 같이 준비해 둔 소품을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③ 방송에서 진행자는, 화재가 났을 때 제일 먼저 할 일은 무엇인지, 대피는 어떻게 하는지를 물으며 접속자들이 교육받은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할 일과 관련하여 접속자들이 잘못 알고 있는 정보를 바로잡고 있다.
- ⑤ 방송의 마지막 부분에서 진행자가 더 궁금한 사항은 댓글로 문의해 달라는 말을 확인할 수 있다.

45 매체 언어와 개인적·사회적 소통

정답 ③

정답 해설 '자유인'은 '기관지나 폐를 보호해 주는 효과는 처음 알았네요.'라고 말하며 진행자에게 우호적인 반응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새롭게 알게 된 정보를 언급한 것이지 자신이 알고 싶은 추가적인 정보가 제공되도록 유도한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 ① 진행자는 화재가 났을 때 처음으로 해야 할 일과 대피 방법에 대해 묻고, 이에 대한 수용자의 반응을 접하고 그것과 연계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이 정보는 수용자가 잘못 알고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진행자가 전달하려고 했던 정보라고 볼 수 있다.
- ② '세이프티맨'은 방송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동안 몰랐거나 놓치기 쉬운 것들 알려 주셔서 너무 유익했어요. 최오!'라는 글을 남겼으며, 진행자는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에게 힘을 주시는 세이프티맨 님도 최고예요.'라는 말을 전하고 있다. 따라서 '세이프티맨'은 진행자와의 정서적 유대를 증대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④ '번개'와 '안전빵'은 진행자의 물음에 대해 짧고 간단한 답변을 즉각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즉각적인 반응은 진행자가 방송을 원활하게 진행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볼 수 있다.
- ⑤ '물길'은 '허리는 또 왜 숙이는 건가요?'라는 질문을 통해, '해송화'는 '근데 코와 입을 뭘로 가려요?'라는 질문을 통해 진행자에게 자신이 알고 싶어 하는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요청은 수용자가 궁금해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방송이 진행되도록 하는 데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01 ①	02 ②	03 ②	04 ⑤	05 ④
06 ⑤	07 ③	08 ②	09 ①	10 ⑤
11 ③	12 ⑤	13 ①	14 ②	15 ⑤
16 ④	17 ①	18 ①	19 ⑤	20 ②
21 ②	22 ④	23 ②	24 ②	25 ④
26 ④	27 ③	28 ③	29 ②	30 ⑤
31 ②	32 ④	33 ③	34 ④	
화법과 작문	35 ④	36 ④	37 ⑤	38 ③
	39 ⑤	40 ④	41 ③	42 ③
	43 ①	44 ③	45 ⑤	
언어와 매체	35 ④	36 ④	37 ③	38 ①
	39 ⑤	40 ⑤	41 ④	42 ④
	43 ⑤	44 ⑤	45 ③	

[01~06]

소비자 의사 결정 과정 / 온라인 환경에서 소비자 의사 결정 과정의 특징

㉠ 소비자 의사 결정 과정

해제 | 이 글은 소비자가 구매를 결정하기 위해 거치는 소비자 의사 결정 과정을 단계별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소비자 의사 결정의 첫 단계는 '문제 인식'으로, 소비자가 자신의 실제 상태와 바람직한 상태를 비교하여 둘 사이의 격차를 느끼게 되는 상태를 말한다. 두 번째 단계는 '정보 탐색'으로 소비자가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이며, 내부 탐색과 외부 탐색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세 번째 단계는 '대안 평가'로 소비자가 대안을 선택하기 위해 평가 기준과 평가 방식을 선정하여 상표들을 비교·평가하는 것이며, 대안 상표를 평가하는 방식에는 보완적 상표 평가 방식과 비보완적 상표 평가 방식이 있다.

주제 | 구매를 결정하기 위한 소비자 의사 결정 과정의 단계 구성 |

- 1문단: 소비자 의사 결정 과정의 개념과 시사점
- 2문단: 소비자 의사 결정 과정의 첫 번째 단계 - 문제 인식
- 3문단: 소비자 의사 결정 과정의 두 번째 단계 - 정보 탐색
- 4문단: 소비자 의사 결정 과정의 세 번째 단계 - 대안 평가

㉡ 온라인 환경에서 소비자 의사 결정 과정의 특징

해제 | 이 글은 온라인 환경에서 소비자 의사 결정 과정의 특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첫째, 의사 결정 과정의 첫 단계인 문제 인식에서 온라인 환경의 소비자는 모바일이나 PC를 통해 끊임없이 제시되는 광고 자극에 노출되면서 구매 욕구를 인식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둘째, 온라인 환경의 소비자는 다양한 정보 원천을 통해 오프라인 환경보다 활발하게 정보 탐색을 하며, 이때 제품에 대한 타인의 경험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셋째, 온라인 환경의 소비자는 정보의 검색과 저장에 용이하다는 온라인 환경의 이점을 바탕으로 대안 평가 과정에서 오프라인 환경보다 많은 제품을 고려 상표군에 포함하여 비교·평가한다.

주제 | 온라인 환경에서 소비자가 구매를 위한 의사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보이는 특징 구성 |

- 1문단: 온라인 환경의 특징
- 2문단: 구매 욕구를 인식하는 과정에서 온라인 환경의 소비자가 보이는 특징
- 3문단: 정보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온라인 환경의 소비자가 보이는 특징
- 4문단: 대안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온라인 환경의 소비자가 보이는 특징

01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정답 ①

정답 해설 (가)는 소비자 의사 결정 과정이 소비자가 합리성을 기준으로 신중하게 구매를 결정해야 함을 시사한다는 점을 제시하고, 소비자 의사 결정 과정을 세 가지 단계로 나누어 설명했다.

오답 해설

② (나)는 디지털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미디어가 소비자의 소비 환경이 변화한 원인임을 밝히고 있으나, 변화한 환경에서 소비자가 구매를 결정할 때의 유의

점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 ③ (가)와 (나) 모두 소비자 의사 결정 과정을 분석한 이론적 관점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고, 이를 통시적으로 서술하지도 않았다.
- ④ (가)는 소비자 의사 결정 과정의 개념을 정의했으나 (나)는 소비자 의사 결정 과정의 개념을 정의한 부분이 없으며, (가)와 (나) 모두 소비자 의사 결정 과정과 관련한 구체적 사례를 나열하지는 않았다.
- ⑤ (가)와 (나) 모두 소비자의 구매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언급한 부분이 있으나, 그 요인을 분석한 다양한 견해를 소개하거나 각 견해의 한계점에 대해 언급하지는 않았다.

02 구체적 사례 적용

정답 ②

정답 해설 가. 갑이 ㉠을 사용할 때, 가장 먼저 1순위 속성인 '모발 윤기'에서 상표들을 비교하게 된다. 이때 A와 C가 동일하게 4점이므로 가장 우수한 대안을 선택할 수 없다. 따라서 2순위 속성인 '보습'에서 A와 C를 다시 비교하여 '보습'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은 C를 최종 선택하게 된다.

다. 갑이 ㉡를 사용할 때, '보습' 속성을 특히 중요시하고 이에 대한 최소 수용 기준을 4점으로 설정한다면 '보습' 속성에서 4점을 받아 기준을 충족한 B가 선택된다.

오답 해설

나. 갑이 ㉢를 사용할 때, A~D 중 1순위 속성인 '모발 치료 효과'에서 최소 수용 기준인 3점에 미달하는 상표는 없다. 다음으로 2순위 속성인 '모발 윤기'에서 1점을 받은 D가 탈락한다. 3순위 속성인 '보습'에서 2점을 받은 A가 탈락하고, 마지막으로 4순위 속성인 '향'에서 1점을 받은 B가 탈락하여 최종적으로 끝까지 살아남은 C가 선택된다.

라. '모발 윤기' 속성에서 A는 4점, D는 1점을 받았으므로 갑이 ㉣를 사용할 때, '모발 윤기' 속성에서는 D만 갑이 설정한 최소 수용 기준인 3점에 미달된다.

03 세부 내용 파악

정답 ②

정답 해설 (가)의 4문단에 따르면, 보완적 상표 평가 방식은 한 속성에서의 낮은 평가가 다른 속성의 높은 평가에 의해 보완되는, 즉 단점이 장점에 의해 상쇄되는 평가 방식이다.

오답 해설

- ① (가)의 2문단에 따르면, 소비자는 자신의 실제 상태와 바람직한 상태 간의 차이가 있다고 느끼면 문제를 인식하게 된다.
- ③ (나)의 3문단에 따르면, 온라인 환경에서 구매 전 탐색을 하는 소비자는 기업이 제공하는 정보보다 제품에 대한 다른 소비자의 경험담과 같은 타인의 경험 정보를 더 신뢰하고 의존한다.
- ④ (가)의 3문단과 (나)의 3문단에 따르면, 특정 제품에 대한 평소의 관심 때문에 관련 정보를 꾸준히 탐색, 수집하는 것은 지속적 탐색에 해당하며, 이때 탐색, 수집하는 정보에는 인터넷상의 사용 후기, 상품평과 댓글 등이 있다.
- ⑤ (가)의 4문단에 따르면, 소비자가 고려하는 모든 속성에 대해 대안 상표들 간에 비교·평가가 이루어진 후, 그 결과를 모두 합쳐 평균적인 값을 산출하는 것은 보완적 상표 평가 방식이다.

04 세부 내용 파악

정답 ⑤

정답 해설 (나)의 4문단에 따르면, 온라인 환경은 오프라인 환경과 비교하여 정보의 검색과 저장이 용이하므로, 일반적으로 대안 평가 과정에서 오프라인보다 많은 수의 제품이 고려 상표군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오답 해설

- ① (나)의 3문단에 따르면, 온라인 환경에서는 제품을 직접 경험할 수 없으므로 소비자는 정보 탐색을 할 때 타인의 경험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된다.
- ② (나)의 1문단과 2문단에 따르면, 시·공간의 제약이 사라진 온라인 환경에 접속해 있는 소비자는 끊임없이 제공되는 광고에 빈번하게 노출되면서 구매 욕구를 자극받게 된다.
- ③ (나)의 3문단에 따르면, 온라인 환경은 오프라인 환경과 비교하여 정보 탐색 단계에서 구매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한 물리적 노력이 크게 줄어들게 되어 소비자는 구매하고자 하는 대상에 대한 정보 탐색을 더 활발하게 하게 된다.

④ (나)의 4문단에 따르면, 소비자가 검색 엔진을 통해 제품 관련 정보를 검색한 결과를 어떤 순서로 보게 되는가가 구매를 결정하는 의사 결정 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05 구체적 사례 적용

정답 ④

정답 해설 (가)의 3문단에 따르면, 내부 탐색은 외부 탐색에 비해 신속하게 원하는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그러나 준희는 자신의 기억 속에 저장된 정보를 떠올리는 내부 탐색뿐만 아니라 인터넷 검색이라는 외부의 정보원을 통해 추가적으로 정보를 탐색하였다.

오답 해설

- ① (가)의 3문단에 따르면, 소비자는 내부 탐색과 외부 탐색의 결과를 합하여 고려 상표군을 구성하게 된다. 준희는 자신이 이미 알고 있던 상표 2개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2개의 상표를 합하여 구매를 고려할 대안 상표를 구성하였다.
- ② (가)의 2문단에 따르면, 실제 상태와 바람직한 상태 간의 불일치가 소비자에게 구매의 필요성을 느끼게 한다. 또한 (나)의 2문단에 따르면, 소셜 미디어 콘텐츠에서 보는 소비재와 서비스들이 구매 욕구를 자극하는 원인이 된다. 준희는 자신의 스마트폰과 소셜 미디어를 통해 목격한 최신 스마트폰 간에 사진 보정 기능 면에서 격차가 있음을 인식하고, 최신 스마트폰을 자신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스마트폰으로 여기고 이에 대한 구매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③ (나)의 3문단에 따르면, 소비자는 온라인 환경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성과 신뢰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준희는 정보 탐색 시 참고한 다양한 정보 원천 중에서 특히 구독자 수가 100만이 넘는 정도로 온라인 환경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이 제공하는 정보를 전문성과 신뢰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이 추천하는 '△△'를 선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⑤ (나)의 3문단에 따르면, 소비자는 제품 생산자에 의해 제공되는 정보뿐만 아니라 인터넷 카페, 블로그,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해서 정보를 탐색, 수집한다. 준희는 각 상표의 제조사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제품 정보뿐만 아니라 온라인 구매 사이트의 상품평, 사용 후기에 관한 블로그 게시 글과 같은 온라인 환경에 존재하는 타인의 경험 정보를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정보를 탐색하였다.

06 단어의 의미 파악

정답 ⑤

정답 해설 '노출'의 사전적 의미는 '겉으로 드러나거나 드러냄.'이다. '비밀이나 정보 따위가 밖으로 새어 나감.'은 '누출'의 사전적 의미이다.

[07~10]

정약용의 심성론(心性論)

해제 | 이 글은 성리학의 심성론과 다른 주장을 펼친 정약용의 심성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정약용은 성을 기호로 보는 입장을 바탕으로 심을 실체로 보았다. 그에게 심은 성보다 중요한 위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인간만이 지닌 영체를 지칭하는 것이다. 지각 능력을 발휘하는 주체로 심을 이해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심성론에서 실체가 되는 것은 영체이며 영체로서의 심이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

주제 | 정약용의 심성론에서의 심의 의미

구성 |

- 1문단: '성(性)'에 대한 성리학과 정약용의 입장 차이
- 2문단: 성을 실체로 보는 성리학의 심성론에 대한 정약용의 비판적 입장
- 3문단: 성과 심의 전통적인 위상을 바꾸어 놓은 정약용의 주장
- 4문단: 정약용이 제시한 심의 개념

07 세부 내용 파악

정답 ③

정답 해설 3문단에서 정약용이 '성(性)'이 '심(心)'과 '생(生)'의 조합으로 '마음에서 생겨남.'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 ① 맹자의 성선설에 대해 형이상학적인 사변을 근거로 제시한 것은 성리학이다. 1, 2문단을 통해 이를 알 수 있다.

② 1문단에 따르면, 정약용은 『맹자』와 『중용』에서 사용하는 성의 용례가 모두 성을 기호로 보고 있음에 근거하여 성이 기호라고 주장했다.

④ 3문단을 통해, 정약용이 영체를 인간만이 지닌 것으로 보았음을 알 수 있다.

⑤ 3문단에서 성리학이 아니라 정약용이 영체를 심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08 중심 내용 파악

정답 ②

정답 해설 정약용은 '심'이 '영체'를 지칭하는 말이라고 본다. 그는 영체로서의 심은 결코 기일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에게 영체는 실체이므로, 심은 영체를 나타내는 것으로 기일 수 없는 실체라고 할 수 있다.

오답 해설

- ① 정약용은 영체로서의 심이 기일 수 없다고 보았다. 심을 기 중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인식의 주체로 본 것은 성리학이다.
- ③ 정약용은 심이 영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심장과 다른 것이라고 보았다.
- ④ 정약용은 영체가 유형의 인간 안에 존재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형과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심을 형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⑤ 정약용은 심이 영체를 의미한다고 보았다. 영체는 지각 능력을 지닌 본체를 뜻하므로 심을 지각 능력이 아니라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09 중심 내용 파악

정답 ①

정답 해설 성리학에서는 성을 실체로 보았다. 그러나 정약용은 인간의 본성 그 자체가 실체일 수 없다고 보았다. 정약용이 생각한 인간의 본성, 즉 성은 마음이라는 실체의 속성으로서의 기호일 뿐이다.

오답 해설

- ② 성리학에서는 성과 심을 각각 리와 기로 정의하여 성이 심보다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에서는 성이 심보다 더 중요한 위상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정약용은 이러한 성과 심의 위상을 바꾸어 놓았다. 이에 따라 ㉡에서는 심이 성보다 더 중요한 위상을 갖고 있다.
- ③ 맹자의 성선설이 경험적 사실에 의해 입증된다고 본 것은 정약용의 심성론이다.
- ④ 성리학에서는 사람의 성이 천지 사이에 있는 리의 속성을 받아 선하다고 본다.
- ⑤ 성리학에서는 사람과 사물이 생성될 때 천지 사이의 기를 받은 것이 형체가 된다고 본다.

10 글에 드러난 관점, 내용 비판

정답 ⑤

정답 해설 정약용에게 심은 영체이므로 (다)의 '마음을 바르게 하라'는 것은 영체를 바르게 하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영체는 성과 독립적인 것이 아니다. 정약용은 성은 마음에서 생겨난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심과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즉 성은 영체와 구별되는 것이 아니므로 영체를 성과 독립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 ① 정약용은 성을 기호로 보았으며, 성의 기호로 선을 좋아하는 것을 제시했다. 정약용에 따르면, (가)에서 의로운 행동에 대해 '마음이 즐겁고', 잘못된 행동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은 성이 선을 좋아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 ② 정약용에게 사람이 선을 좋아한다는 것은 성이 기호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 ③ '마음이 넓어지고 강대해진다', '초월하게 쇠잔해진다'는 것은 각각 선으로 길러나가는 것과 선으로 배양하지 않은 것의 결과이다. 이는 정약용이 제시한 '최종 결과로 나타나는 효과'에 해당한다.
- ④ 영체는 신령하고 밝은 지각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심을 지칭하는 말이다. 이러한 정약용의 견해에 따르면, 심은 밝은 지각 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라는 마음의 기능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11~14]

NFT

해제 | 메타버스 속에서 디지털 콘텐츠는 무한히 복제되거나 공유될 수 있다. 이때 NFT를 통해 해당 파일이 원본임과 그에 대한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다. NFT는 메타데이터, 고유 식별자, 미디어 파일로 구성되고 해시값으로 표현되어 블록체인에 저장

된다. 따라서 복제되거나 내용의 일부가 바뀌더라도 해시값이 전혀 다르게 생성되어 복제나 변조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NFT를 통해 디지털 콘텐츠가 거래될 때마다 판매 금액의 10%가 저작자에게 돌아간다.

주제 | NFT의 원리와 경제적 가치

구성 |

- 1문단: 메타버스에서의 체험과 가치
- 2문단: NFT의 개념
- 3문단: NFT가 발행되는 과정
- 4문단: NFT 구성과 위조 방지 기술
- 5문단: NFT를 통해 소유권과 저작권을 구분하여 예술계 발전에 기여

11 세부 내용 파악

정답 ③

정답 해설 경매에서 NFT의 판매 금액이 높게 책정된다고 하여 NFT가 제작되는 과정이 달라진다는 정보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NFT를 구성하는 내용에 변화가 생긴 파일이 제작되는 과정이 제시되지 않아 그 과정이 더 복잡할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오답 해설

- ① 3문단에서 NFT는 경매의 방식을 통해 거래가 성사되면 해시값이 블록체인에 등록되어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② 3문단에서 NFT는 거래가 성사되면 판매자와 구매자의 정보, 판매 금액과 거래 일시 등과 함께 해당 파일이 만들어진다고 하였다.
- ④ 4문단에서 NFT에 어떠한 항목에는 작은 변화라도 생기게 되면 해시값을 통해 표현되는 난수가 전혀 다르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 ⑤ 3문단과 4문단을 통해 'NFT로 제작하기 원하는 파일'을 경매를 통해 구매하여 'NFT'가 만들어지고, NFT의 메타데이터나 고유 식별자 등에 변화가 생긴 파일은 '해당 파일'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 ㉡, ㉢ 모두에는 콘텐츠에 해당하는 미디어 파일이 들어 있다.

12 구체적 사례 적용

정답 ⑤

정답 해설 비플의 <Everyday: The First 5000 Days>가 미화 6,930만 달러의 경매가, 마리킴의 <Missing and Found>가 한화 6억 원의 경매가로 차이를 보이는 것은 각 작품에 대한 사람들의 선호도나 가치 판단이 다르기 때문일 것이다. 둘의 NFT에는 모두 품명, 작품 세부 내역, 계약 조건 등 해당 파일의 속성에 대해 설명하는 메타데이터가 들어 있으며 메타데이터 때문에 값에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 ① 비플의 예술 작품이 큰 금액으로 거래된 것은 해당 NFT가 원본 인증서나 소유권 증명서로 활용되어 경제적 가치를 보장하기 때문이다.
- ② 디지털 콘텐츠는 무한히 반복될 수 있지만 NFT는 해당 파일이 원본인지, 복제된 것인지 표시하는 고유 식별자가 있기 때문에 원본의 희소성이 보장된다.
- ③ 50개만 발행된 코비 브라이언트의 NFT들은 각기 원본임을 표시하는 고유 식별자를 포함하고 있고, 서로 다른 고유 식별자를 포함하고 있어 각기 다른 정보들로 만들어지는 NFT가 된다. 이때 각각의 해시값은 전혀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 ④ 50개 발행된 코비 브라이언트의 NFT 중 24번이 가장 비싼 것은 다른 한정판 번호와는 구별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13 세부 내용 파악

정답 ①

정답 해설 창작자들이 자신의 창작물이 인터넷상에서 복제, 유포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없는 이유를 묻고 있다. 창작자는 저작권을 가지며, 소유권에 대한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날수록 판매 금액이 높아진다. 소유권이 이전되는 거래가 일어날 때마다 저작자는 판매 금액의 10%를 수익으로 얻게 된다. 이는 저작권과 소유권이 구별되어 보장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오답 해설

- ② 해당 디지털 콘텐츠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하게 밝혀져 있어야 소유권 거래가 일어날 수 있다.
- ③ 디지털 콘텐츠가 자주 거래될수록 대중적 인지도와 문화적 중요성을 인정받는 것은 맞지만 이 때문에 해당 작품을 유일무이한 작품으로 인정받으며 팔 수 있게 된 것은 아니다.

④ 판매자와 구매자는 디지털 콘텐츠를 생산하지 않는다. 메타버스 속에서 디지털 콘텐츠를 생산하는 것은 창작자이다.

⑤ 메타버스 속에서 복사되고 공유되는 것과 미디어 파일로 표현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14 어휘의 문맥적 의미 파악

정답 ②

정답 해설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명확히 밝히는'의 '밝히다'는 '드러나지 않거나 알려지지 않은 사실, 내용, 생각 따위를 드러내 알리다.'의 의미로 쓰였다. '그녀가 사건의 전모를 자세히 밝혔다.'의 '밝히다'도 '드러나지 않거나 알려지지 않은 사실, 내용, 생각 따위를 드러내 알리다.'의 의미로 쓰였다.

오답 해설

- ① '두뇌를 밝혀'의 '밝히다'는 '눈, 신경, 두뇌 따위의 작용을 날카롭게 하다.'의 의미로 쓰였다.
- ③ '사방을 밝히기 때문에'의 '밝히다'는 '불빛 따위로 어두운 곳을 환하게 하다.'의 의미로 쓰였다.
- ④ '노름을 밝히던'의 '밝히다'는 '드러나게 좋아하다.'의 의미로 쓰였다.
- ⑤ '밤을 거의 뜬눈으로 밝히고'의 '밝히다'는 '자지 않고 지내다.'의 의미로 쓰였다.

[15~17]

독자의 의미 구성 과정

해제 | 독서의 본질은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은 독자의 머릿속에서 이루어지는 비가시적인 인지 작용으로, 독자는 정보 처리의 과정을 거쳐 의미를 얻게 된다. 수동적 독자와 달리, 능동적 독자는 각 단계마다 활용할 수 있는 전략들을 풍부하게 갖추고 있으며, 각 단계의 목표, 즉 문제 해결에 적합한 전략을 적절하게 활용함으로써 글의 의미를 온전히 구성해 낸다. 그런데 목표를 달성하는데 쓰이는 전략만 중요한 것은 아니다. 각각의 처리 단계가 올바르게 수행되었는지를 점검하고 조정하는 또 다른 전략도 필요하다. 각각의 처리 단계에 적용된 전략을 점검하고 조정하는 정신적 기제를 초인지라고 부른다.

주제 | 독자가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

구성 |

- 1문단: 독자의 정보 처리 과정
- 2문단: 능동적 독자와 수동적 독자의 의미 구성 과정의 차이
- 3문단: 의미 구성 과정에 활용되는 초인지

15 세부 내용 파악

정답 ⑤

정답 해설 수동적 독자는 글의 의미를 온전히 구성하지 못하는데, 그 이유는 각각의 단계마다 요구되는 전략을 능동적으로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오답 해설

- ① 초인지는 각각의 처리 단계에 적용된 전략을 점검하고 조정하는 정신적 기제를 일컫는 말이다. 이로 보아 초인지가 독서를 하는 독자의 머릿속에서 작용하는 정신적 기제라는 설명은 적절하다.
- ② 독서의 본질은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은 독자의 머릿속에서 이루어지는 비가시적인 인지 작용이라 할 수 있다.
- ③ 독자가 중심 내용을 파악해야 한다면 핵심어를 찾는 처리 단계를 거쳐야 하며, 이 단계를 올바르게 처리하려면 핵심어를 확인하는 전략을 적용해야 한다.
- ④ 의미 구성 과정은 구분 가능한 각각의 단계로 진행되며, 각각의 단계는 목표 달성에 필요한 각각의 전략이 있다.

16 구체적 사례 적용

정답 ④

정답 해설 학생이 도해 조직자를 떠올린 것은 글의 구조를 파악하는 것에 대한 전략들을 갖추었기에 가능한 것이다. 글의 구조를 파악하는 것에 대한 전략들을 갖추지 못했다면 도해 조직자를 적용하려 하지 못했을 것이다.

오답 해설

- ① 학생은 글의 내용이 이해되지 않은 이유를 '아마도 각 문단 내용들 사이의 관계가 잘 파악되지 않아서 그런가 봐.'와 같이 자기 점검을 통해 추측하고 있다.
- ② 학생은 '이 방법을 활용하면 도움이 될 거야.'와 같이 도해 조직자를 활용하는 것이 자신이 당면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 ③ ‘어떤 전략을 활용해서 핵심어를 찾고자 했지만 올바르게 찾아내지 못했다면 그 전략을 다른 전략으로 바꾸어 적용해 보아야 한다.’를 고려할 때, 학생이 도해 조직자라도 글의 의미를 온전히 구성하지 못했다면 다른 적절한 전략을 찾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 ⑤ 학생은 ‘이 글은 어려워서 그런지 제대로 구분해 가며 읽었는데도 글의 내용이 이해가 잘 안되네.’와 같이 중심 내용과 세부 내용을 구분해 가며 글을 읽는 것만으로는 글의 의미를 온전히 구성하는 데 실패하였음을 드러내고 있다.

17 생략된 내용 추론

정답 ①

정답 해설 A 집단은 자기 점검 후 적용된 전략을 조정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초인지를 활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실험 전 중심 내용 찾기 능력을 측정했을 때는 A 집단과 B 집단의 점수가 균등하였으나, 실험 후 중심 내용 찾기 능력을 측정했을 때는 A 집단, B 집단 순으로 점수가 높게 나와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했다고 하였다. 이로 보아 연구자는 실험 후 초인지가 중심 내용 찾기 능력 향상에 영향을 미친다고 여겼을 것이다.

오답 해설

- ② 초인지의 활성화로 인해 중심 내용 찾기 능력의 점수가 향상된 것이다. 중심 내용 찾기 능력의 점수가 초인지의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③ 중심 내용 찾기 활동에서 핵심어를 찾는 것에 대한 언급은 연구에 드러나 있지 않다. 중심 내용 찾기 활동에서 핵심어를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확인했을 것이라는 이해는 적절하지 않다.
- ④ 능동적 독자는 각 단계마다 활용할 수 있는 전략들을 풍부하게 갖추고 있으며, 각 단계의 목표, 즉 문제 해결에 적합한 전략을 적절하게 활용함으로써 글의 의미를 온전히 구성해 낸다. B 집단은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 ⑤ 자기 점검을 하면 전략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활동 중 전략을 조정하는 것이 자기 점검을 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라는 이해는 적절하지 않다.

118~201

신석초, 「꽃잎 절구」 / 이성복, 「그 여름의 끝」

㉠ 신석초, 「꽃잎 절구」

해제 | 이 시는 꽃이 피고 지는 과정에서 가냘픈 꽃잎이 보여 준 생명력과 생에 대한 열정을 예찬하는 작품이다. 화자는 ‘-이어(여)’라는 영탄적 어조를 통해 ‘비바람’이라는 고난을 견뎌 낸 꽃잎의 생명력, ‘하늘과 구름’이라는 이상을 간절히 열망하는 꽃잎의 열정, 소멸의 순간에도 환한 모습을 보이는 꽃잎의 아름답고 충실한 삶의 태도를 예찬하고 있다. 이처럼 의인화된 자연물을 활용해 삶의 의미에 대해 우의적으로 노래함으로써 주어진 운명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열정적인 태도의 가치를 드러내고 있다.

주제 | 꽃잎의 생명력에 대한 감탄과 삶의 의미

구성 |

- 1연: 시련을 이겨 내고 피어난 가냘픈 꽃잎
- 2연: 이상을 향한 그리움으로 붉게 무르익는 꽃잎
- 3연: 최후의 순간에도 강렬한 삶의 의지를 보여 주는 꽃잎

㉡ 이성복, 「그 여름의 끝」

해제 | 이 시는 폭풍을 이겨 내고 붉은 꽃들을 피워 낸 ‘백일홍’의 모습을 통해 절망의 극복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여러 차례의 폭풍에도 쓰러지지 않고 여름을 견뎌 백일홍의 강인한 생명력을 보면서 화자도 절망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즉 백일홍과 화자는 고통을 겪으면서도 절망을 극복해 가는 강인한 의지를 보여 준다는 점에서 서로 대응되고 있다.

주제 | 자연의 생명력을 통한 시련 극복의 의지

구성 |

- 1연: 폭풍을 이겨 내고 꽃을 피운 백일홍의 생명력
- 2연: 시련과 절망을 견뎌 내려는 화자
- 3연: 백일홍의 강한 생명력을 보여 절망을 극복한 화자

18 표현상의 특징 파악

정답 ①

정답 해설 (가)는 ‘-이어’라는 영탄적 어조의 호격 조사를 반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대상을 예찬하는 화자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오답 해설

- ② (나)에서는 화자가 자신의 체험을 고백하는 어투로 말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청자를 설정하지는 않았다.
- ③ (가)에서는 반어적 표현이 활용되지 않았다. 한편 (나)에서는 백일홍이 힘들게 시련을 극복해 낸 것과 달리 화자는 ‘장난처럼’ 쉽게 절망을 극복해 냈다고 표현하였다. 하지만 2연에서 화자도 백일홍 나무처럼 여러 차례 폭풍을 견뎌야 할 정도로 힘든 시련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절망을 극복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장난처럼’이라는 표현은 힘겨운 과정을 거쳐야만 시련을 이겨 낼 수 있다는 의미를 반어적으로 드러낸 것으로도 볼 수 있다.
- ④ (나)는 ‘무사하였습니다’, ‘매달았습니다’, ‘있었습니다’ 등에서 ‘-았/었-’이라는 과거 시제의 어미를 사용하고 있다. 오히려 (가)에서 현재형 진술을 통해 작중 상황을 생동감 있게 드러내고 있다.
- ⑤ (나)는 ‘쏟아지는 우박처럼’이라는 구절에서 직유법을 사용해 나무에 매달린 ‘붉은 꽃들’의 강인한 생명력을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가)에서는 직유법이 사용되지 않았다.

19 외적 증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 ⑤

정답 해설 〈보기〉에 따르면 (가)의 ‘꽃잎’은 가냘프지만 시련을 이겨 낸 강인한 생명력을 지닌 존재이다. 그리고 ‘저문 산 길가에 저 / 뒤뚱굴지라도’라는 구절은 꽃잎이 떨어지면서 삶을 마무리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그러한 상황에서 ‘붉게 타다 가는’ 꽃잎의 모습은 뜨거운 삶의 열정을 유지하며 죽음을 맞이하는 태도에 해당한다. 이러한 삶의 태도에 대해 화자는 ‘환한 목숨’이라며 경탄하고 있다. 따라서 ‘환한 목숨’은 열정적인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꽃잎’의 삶의 자세를 예찬하는 표현이므로 삶의 유한성을 극복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보기〉에 따르면 (나)의 ‘나무 백일홍’은 시련을 이겨 내고 여름을 견뎌 낸 강인한 생명력을 지닌 존재이다. ‘넘어지면 매달리고 타올라 불을 뿜는’다는 구절에서 상상의 이미지를 통해 절망을 극복한 백일홍의 강인한 생명력이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불을 뿜는 나무’는 강한 생명력을 발휘하여 절망을 극복한 ‘나무 백일홍’의 강인한 생명력을 드러내는 것이다.

오답 해설

- ① (가)의 ‘꽃잎’은 ‘가냘픈 살갓’으로 표현되는 약한 외형이지만 ‘비바람’이 부는 시련 속에서도 ‘다툼아 피어’ 내는 강인한 생명력을 지닌 존재이다. (나)의 ‘나무 백일홍’은 ‘폭풍’이 지속되는 시련의 상황에서도 쓰러지지 않고 ‘붉은 꽃들’을 피워 내는 강인한 생명력을 지닌 존재이다.
- ② (가)의 ‘꽃잎’은 여리고 유한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시련을 이겨 내고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태도를 보여 줌으로써 화자에게 삶의 의미에 대한 교훈을 제시해 주는 대상으로 그려지고 있다. (나)의 ‘나무 백일홍’은 시련의 상황을 꿰뚫어 견뎌 내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는 점에서 화자와 유사성을 띠며 서로 대응되는 존재로 그려지고 있다.
- ③ (가)의 1연에서 ‘비바람’은 ‘가냘픈 살갓’으로 표현되는 여린 ‘꽃잎’에게 가해지는 시련을 상징한다. (나)의 1연에서 ‘폭풍’은 ‘나무 백일홍’을 쓰러뜨릴 수 있는 시련과 고난을 상징한다.
- ④ (가)에서 ‘하늘과 구름 / 혼자 그리워 / 붉어져 가노니’라는 구절을 통해 꽃잎의 붉은색은 ‘하늘과 구름’에 대한 그리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보기〉에서 말하는 ‘이상에 대한 동경과 갈망’의 의미를 드러내는 붉은색에 해당한다. 한편 (나)에서 백일홍 꽃들이 ‘좁은 마당을 피로 덮’을 때는 작품의 제목이기도 한 ‘여름의 끝’을 의미한다. 여름이 끝났을 때 비로소 백일홍의 붉은 꽃들이 떨어져서 마당을 덮었다는 것은, 그전까지 나무 백일홍이 힘겹게 시련을 버텨 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따라서 ‘피’는 〈보기〉에서 말하는 ‘붉은색을 연상시키는 시어’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시련을 감내하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고통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20 소재의 기능 파악

정답 ②

정답 해설 (나)의 2연에서 ‘나의 절망은 장난처럼 붉은 꽃들을 매달았’다는 구절을 통해 ㉠은 화자의 절망이 심화된 상태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화자가 극복하고자 하는 부정적인 심리 상태를 표상한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 ① ㉠은 ‘폭풍’을 극복하고 피어난 것으로 ‘나무 백일홍’이 강인한 생명력을 통해 이루어 낸 결실을 형상화한다. 따라서 화자가 이루어 낸 결실을 형상화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③ ㉔은 화자가 시련 극복의 의지를 갖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내면 변화의 계기에 해당한다. 즉 화자의 내적 변화의 요인으로 기능할 뿐, 외부 상황을 변화시키는 주된 요인은 아니다.
- ④ ㉔은 '나무 백일홍'에 매달린 것으로 화자가 관찰하고 있는 외부 대상에 해당한다. 하지만 ㉔은 화자의 절망이 심화된 상태를 빗댄 것이므로 화자의 내면 심리를 드러내는 것이다. 따라서 화자가 관찰하는 외부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 ⑤ ㉔은 시련을 극복하고 피어난 결실이므로 강인한 생명력을 상징한다. 반면에 ㉔은 화자의 절망이 심화된 상태를 상징하기 때문에 화자가 궁극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가치를 상징한다고 볼 수 없다.

[21~24]

작자 미상, 「갑민가」 / 정극인, 「상춘곡」

㉑ 작자 미상, 「갑민가」

해제 | 이 작품은 조선 영·정조 때 성대중이 함경도 북청 부사로 있을 당시 근처 갑산(甲山) 지역에 살았던 사람이 지은 것으로 추정된다. 갑산은 변방인 함경남도 북동부에 위치한 곳으로, 조선 시대에 삼수와 더불어 유명한 귀양지 중 하나였다. 기온이 낮고 지형이 험준하여 경작지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곳의 사람들은 신역으로 인한 부담이 클 수밖에 없었다. 특히 몰락 양반이나 힘이 없는 민중은 족징(族徵)과 지방 관리의 학정 등으로 신역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었는데 이를 견디다 못하고 결국 고향을 떠나는 경우가 많았다. 이처럼 조선 후기 백성들의 삶을 힘겹게 하는 당대 사회의 모습을 작품 속 갑민의 삶의 모습을 통해 고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작품은 현실 비판적인 성격의 가사 작품으로 평가받는다.

주제 | 부조리한 현실 비판

구성 |

- 서사: 갑민을 본 생원의 말
- 본사: 생원의 말에 대한 갑민의 대답
- 결사: 갑민의 소원과 인사

㉒ 정극인, 「상춘곡」

해제 | 이 작품은 정극인이 만년(晩年)에 벼슬에서 물러나 고향인 전라도 태인에서 지내면서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가사이다. 화자가 자연에 머물며 봄을 맞이한 정취를 그려 내고 있다. 제목인 '상춘곡'은 봄을 기리는 노래라는 뜻이다. 봄철에 경험할 수 있는 온갖 즐거움을 시각, 청각, 후각, 미각을 모두 동원하여 감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주제 | 봄철의 풍경에 대한 예찬과 흥취

구성 |

- 서사: 풍월주인으로서 가지는 자부심
- 본사: 봄날의 풍경과 거기에서 오는 흥취
- 결사: 백년행락에의 소망

21 표현상의 특징과 효과 파악

정답 ②

정답 해설 (가)에서는 '해마다 맞춰 무니 석송인들 당할소냐', '불점성화 이 극변에 복분하라 비칠소냐', (나)에서는 '청풍명월 외에 엇던 빗이 잇스올고' 등과 같은 물음의 형식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여 (가)에서는 임금의 관심에서 소외된 극한 변방에서 친족들의 신역까지 감당해야 하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비애와 원통함과 같은 화자의 정서를, (나)에서는 봄철에 자연물을 접하며 경험하는 화자의 만족감과 흥취 등과 같은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오답 해설

- ① (가)와 (나) 모두에 과거와 현재의 대비가 드러나 있지 않다.
- ③ (가)와 (나) 모두에 반어적 표현을 사용하여 화자의 내적 갈등을 드러낸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 ④ (가)와 (나) 모두에 연쇄적 표현을 통해 주변 사물을 사실감 있게 제시한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 ⑤ (가)에는 '그대'에게 자신의 말을 들어 보라며 말을 건네는 방식이 나타나 있으나 이를 통해 상대방의 행동 변화를 촉구하고 있지는 않다. (나)에는 '이바 니웃드라 산수 구경 가자스라'와 같이 말을 건네며 '니웃'의 행동 변화를 촉구하는 부분이 나타나 있다.

22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 ④

정답 해설 (가)의 '구중천문'은 임금이 계시는 궁궐을 의미하는 말일 뿐, '구중천문'에 세속적인 성공을 지향하는 화자의 소망이 드러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의 '공명도 날 띄우고 ~'라는 구절을 볼 때, (나)의 '공명'에는 자연과 대비되는 혼탁한 인간 세상에 대한 화자의 심리적 거리감이 드러나 있다고 할 수 있다.

오답 해설

- ① (가)의 '고추바람'은 돈피를 구하기 위해 산에 들어간 화자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나)의 '화풍'은 '청향', '낙홍'과 어우러지며 화자의 흥취를 돋우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 ② (가)는 화자가 '입산'하여 사냥에 앞서 산신께 발원하고, 사냥에 실패한 일 등 화자가 경험한 일을 형상화하고 있고, (나)는 화자가 '봉두'에 올라 바라본 자연의 아름다운 모습을 '연하일회는 금수를 재떨는 듯'과 같은 진술을 통해 형상화하고 있다.
- ③ (가)의 화자는 세금을 물어야 하는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생존을 위해 '인삼 싹'을 찾고 있으며, (나)의 화자는 자연 속에서 '도화'를 감상하고 있다.
- ⑤ (가)의 '이웃'은 화자가 지금까지 생활해 온 삶의 터전을 공유했던 갑산의 주민이라고 할 수 있으며, (나)의 '니웃'은 화자가 산중 생활의 풍류를 함께 즐기고자 하는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23 시구의 의미와 기능 파악

정답 ②

정답 해설 갑산을 떠나 부사가 선정을 베풀고 있는 북청으로 옮겨 가게 된다면 모든 식솔들이 안보하고 과중한 신역의 부담을 짊어지지 않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드러나 있으므로, 미래의 상황에 대한 염려가 드러나 있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 ① '돈피'를 얻기 위한 사냥에 앞서 산신께 발원하였으나 자신의 정성이 부족한 탓인지 뜻대로 되지 않고 사냥에 실패하며 좌절하게 된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 ③ '오늘'과 '내일', '아침'과 '나조히'와 같이 시간을 표현하는 시어를 대응시켜 '담청', '육기', '채산', '조수'와 같이 자연을 즐기는 생활이 반복적으로 이어질 것임을 드러내고 있다.
- ④ 바람에 실려 오는 맑은 향기를 맡은 후각적 경험과 떨어지는 꽃잎을 바라본 시각적 경험을 묘사하여 봄기운에 취한 화자(인간)와 자연이 어우러지는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 ⑤ 자신이 거처하는 공간이 '무릉'과 같은 이상적 세계와 견주어 다르지 않다고 여기며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감을 표출하고 있다.

24 작품의 종합적 이해와 감상

정답 ②

정답 해설 '그대 또한 내년 이때 처자 동생 거느리고 / 이 영로로 접어들 때 그때 내 말 깨치리라'를 통해 ㉔가 미래에 ㉔도 갑산을 떠나게 될 것이며 그때 자신의 생각에 동조하게 될 것이라고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 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나님께 비나이다 / 충군애민 북청 원님 우리 고을 빌이시면'을 통해 ㉔가 '하나님'에게 소원을 비는 방식을 통해 ㉔와 같은 존재가 필요함을 피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㉔에게 소원을 비는 방식이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③ ㉔은 '인읍 백성 이 말 듣고 남부여대 모여드니'를 통해 이미 북청으로 옮겨간 사람들을 바탕으로 갑산 원님과 같은 존재에 대한 불만을 갑산의 한 민중인 자신만 가진 것은 아닐 것이라는 추측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추측은 ㉔에게서 직접 들은 말을 토대로 한 것이 아니며, ㉔가 ㉔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 ④ ㉔가 ㉔에게 타관 소식을 전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타관 소식의 진위에 대한 의구심을 바탕으로 ㉔의 삶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⑤ '불점성화 이 극변에 복분하라 비칠소냐'를 통해 ㉔가 ㉔의 덕이 미치지 못하는 변방인 갑산의 현실을 개탄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으나, ㉔에게 직접 상소를 올려 자신의 원통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5~30

작자 미상, 「홍보전」 / 차범석, 「불모지」

㉠ 작자 미상, 「홍보전」

해제 | 이 작품은 판소리 「홍보가」를 기반으로 한 조선 후기 판소리계 소설로 「박홍보전」, 「놀부전」, 「박타령」 등 다양한 이름의 이본이 전해지고 있다. 가난하고 마음씨가 착한 홍보와 부사이면서 욕심이 많은 놀보를 대비하여 표면적으로는 형제간의 우애를 말하고 있으며, 이면적으로는 조선 후기 빈부 격차에 의한 경제적 갈등을 다루고 있다. 그리고 「홍보전」에 영향을 미친 설화로는 착하고 나쁜 형제가 각각 등장하는 선악 형제담, 동물이 사람에게 은혜를 갚는다는 동물 보은담, 어떤 물건에서 재물이 한 없이 쏟아져 나온다는 무한 재보담 등이 있다. 또한 가난한 현실이나 갈등 상황을 비극적으로 그리기보다는 웃음을 유발하는 해학적 상황으로 형상화함으로써 '웃음으로 눈물 닦기'라는 한국 문학의 전통을 잘 보여 주고 있다.

주제 | 형제간의 우애와 권선징악, 조선 후기 빈부 격차로 인한 갈등

전체 줄거리 |

충청도 · 전라도 · 경상도 접경에 악하고 사나운 형 놀보와 착하고 순한 홍보 형제가 살았는데, 부친이 세상을 떠나자 놀보는 유산을 독차지하고 동생 홍보를 쫓아낸다. 아내와 많은 자식들과 함께 쫓겨난 홍보는 헐벗고 굶주린 처지로 갖은 고생을 하면서 살아간다. 홍보는 놀보의 집에 쌀을 구하러 갔다가 수모를 당하고 돌아오기도 하고, 매편팔이도 하려 하지만 이마저도 뜻대로 되지 않는다. 어느 날 홍보는 자신의 집에 동지를 틀고 살던 새끼 제비가 구렁이를 피하다가 땅에 떨어져 다리가 부러지자, 새끼 제비를 정성껏 돌본다. 제비는 은혜를 갚기 위해 이듬해 봄에 홍보에게 박씨를 몰려다 주었고, 홍보는 그 박씨를 심어 그 속에서 나온 금은보화로 인해 부자가 된다. 이 소식을 들은 놀보는 새끼 제비 한 마리를 잡아다가 일부러 다리를 부러뜨린 뒤 실로 동여매어 날려 보낸다. 이듬해 봄, 제비는 놀보에게도 박씨를 몰려다 주지만, 그 박씨가 자란 밖에서는 온갖 몹쓸 것들이 나와 놀보의 집은 아수라장이 되고 집안이 망하게 된다. 마음씨 고운 홍보는 놀보에게 자신의 재물을 나누어 주고 놀보도 개과천선하여 형제가 행복하게 산다.

㉡ 차범석, 「불모지」

해제 | 이 작품은 1957년에 발표된 2막짜리 장막극으로, 전후의 혼란스러운 상황과 당대인들의 현실 인식을 사실주의적으로 형상화한 희곡이다. 최 노인 일가가 살고 있는 낡은 기와집이 극 중 공간으로 설정되어 주위의 최신식 고층 건물들과 대비를 이루는데, 이는 각각 최 노인이 고수하려는 전근대적 가치와 급격한 근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그리고 집을 지키고자 하는 최 노인과 집을 팔고 이사 가기를 바라는 자식들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나는데, 이는 전통적 가치를 고수하는 구세대와 새로운 것을 지향하는 신세대 간의 갈등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최 노인이 운영하던 전통 혼구 대여업이 몰락해 가는 상황과, 실업 상태에 놓여 있는 제대 군인 경수와 허영심에 차 영화배우를 꿈꾸던 경애가 결국 파멸하는 장면은, 작품이 발표된 당시의 어둡고 불안한 시대 상황을 극적으로 보여 준다.

주제 | 전후 근대화에서 소외된 가족의 해체와 신규 세대 간의 갈등

전체 줄거리 |

최 노인 부부는 서울 도심에서 전통 혼구 대여업을 하며 슬하에 2남 2녀를 두고 살고 있다. 그들은 주위에 고층 건물이 들어서 주거 여건이 나빠지고 최 노인의 사업도 쇠퇴하자, 셋째 경운이 식자공으로 일하며 버는 수입에 의존하며 근근이 살아가게 된다. 가족들은 생활을 개선하기 위해 집을 팔고 교외로 이사 갈 것을 최 노인에게 권하지만, 집에 애착을 가진 최 노인은 단호히 이를 거부한다. 한편 제대 군인인 장남 경수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자 삶을 비판하고 자포자기의 상태에서 강도질을 하다가 경찰에 체포되는 신세가 되며, 배우를 꿈꾸던 장녀 경애 역시 사기를 당해 울분을 품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두 자녀의 비극을 목격한 최 노인은 대성통곡한다.

25 서술상의 특징 파악

정답 ④

정답 해설 (가)에서는 '부부 앉아 탄식할 제, ~ 뉘 아니 슬퍼하리.'와 같이 서술자가 개입하여 자식들이 배를 굶는 궁핍한 상황에서 홍보 부부가 느끼는 서러운 심정을 서술하고 있다.

오답 해설

- ① (가)에 매편을 파는 일에 대한 홍보와 홍보 아내의 견해 차이가 드러난 부분은 나타나 있으나, 권위 있는 인물의 중재를 통해 인물 간의 갈등이 해소되는 부분은 나타나 있지 않다.
- ② (가)에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작중 상황을 드러낸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 ③ (가)에 인물의 외양을 우스꽝스럽게 묘사하며 인물을 풍자하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 ⑤ (가)에 같은 시간대에 다른 공간에서 일어난 사건을 병치하여 인물의 내력을

드러낸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26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 ④

정답 해설 호방은 지방관아의 재정을 관리하는 하급 관리일 뿐, 상품 경제의 확산으로 부를 축적한 신흥 계층과는 관련이 없다.

오답 해설

- ① 지방관아의 우두머리인 좌수가 병영에 부름을 받아 매를 맞게 되었다는 사실과, 호방이 이러한 좌수를 대신하여 홍보에게 매편을 권하는 모습은 모두 조선 후기 당시 사회의 부조리한 일면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② 매편을 파는 대가를 돈으로 받고, 그 돈으로 양식을 사려는 홍보를 통해 상품 경제의 발달로 화폐가 널리 유통된 당대 사회의 모습을 짐작할 수 있다.
- ③ 환자를 빌리러 가는 홍보의 모습을 통해 경제적으로 가족을 부양할 능력이 결여된 가부장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 ⑤ 홍보는 앞다투어 가난 자락을 하는 다른 사람들 때문에 자신의 차례가 언제 돌아올지 몰라 매편을 팔지 못하고 그냥 돌아오고 있다. 이를 통해 당시 많은 서민들의 삶이 매편팔이로 생계를 유지해야 할 정도로 힘겨웠음을 짐작할 수 있다.

27 소재의 기능 파악

정답 ③

정답 해설 ㉠은 홍보가 매편을 팔기로 약속하고 교통비 조로 받아온 돈으로 매편을 팔아 돈을 벌면 배불리 먹게 될 수 있다는 기대로 홍보에게 일시적인 만족감을 느끼게 하는 기능을 하고 있으며, ㉡는 경찰에 붙잡히는 처지가 되면서 취업의 의미가 없게 되어 버린 경수의 좌절감과 절망적인 심리를 부각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오답 해설

- ① ㉠은 홍보가 매편을 팔기로 약속하고 교통비 조로 받아온 돈이므로 ㉠을 받아온 것이 홍보가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과 같은 문제를 더욱 악화하는 원인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
- ② 경수는 뒤늦게 도착한 ㉡를 보고 허탈함과 자조적인 심정을 표출하고 있으므로 ㉡가 인물이 내면 심경을 직접 토로하지 못하도록 억제하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치 않다.
- ④ (가)에서 매편을 파는 것에 대한 홍보와 홍보 아내 간의 견해 차이가 드러나 있으나, ㉠이 인물 간의 화해를 유도한다고 볼 수는 없다. (나)에서 ㉡로 인해 인물 간의 갈등이 유발되지 않으므로 역시 적절하지 않은 진술이다.
- ⑤ ㉠과 ㉡ 모두 인물이 자신의 지난 삶을 반성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28 희곡의 갈래적 특성 이해

정답 ③

정답 해설 조명의 변화는 있으나 이는 등장인물이 마루에서 방으로 이동하는 공간의 이동을 보여 주고 있을 뿐, 이를 통해 등장인물의 심리 변화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오답 해설

- ① 무대 밖에서 이미 발생한 일을 등장인물의 대사를 통해 전달해 주어 이를 통해 관객들이 최 노인 일가가 살고 있는 동네의 상황을 쉽게 상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② 희곡은 무대 위에서의 상연을 전제로 한 갈래로, 인물 수의 제약이 따른다. '군중'이라는 다수의 인물을 등장시키기가 어려우므로 음향 효과를 활용하여 무대 밖의 상황을 관객에게 전달하고 있다.
- ④ 등장인물의 대사를 통해 새로운 사건이 발생함을 암시하여 관객의 긴장감을 유발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 ⑤ 등장인물이 한 장의 종이라는 소품을 가지고 등장하며 관객이 그것에 집중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29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 ②

정답 해설 (가)의 '제집'은 홍보가 '음식 노래'를 부르며 아내를 위로하는 공간으로, 실제로는 먹을 것이 없어 끼니를 걸러야 하지만 노래를 통해 맛있는 음식들을 상상하며 배고픔을 달래고 있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홍보 아내의 회상 속에서 보존되고 있는 유년 시절의 추억을 통해 현실의 고통을 견디어 내는 공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답 해설

- ① (가)의 '제집'은 흥보 아내가 자식들의 배를 굶게 하는 설움을 토로하는 곳으로, 흥보 가족이 기본적인 의식주도 영위하기 힘든 궁핍함에 시달리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 ③ (가)의 '제집'은 흥보 부부가 장래에 좋은 때를 만날 것이라는 희망을 바탕으로 고단한 현실을 함께 극복하고자 하는 공동체적 연대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 ④ (나)의 '이 집'은 최 노인의 고집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이 집'을 떠나 새로운 곳으로 가고자 하는 자식들과 최 노인 사이의 갈등과 대립이 구체화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 ⑤ (나)의 '이 집'은 장남 경수의 강도 사건과 큰딸 경애의 자살로 파국을 맞이한 최 노인 일가의 비극적 현실이 극대화되어 나타난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30 인물의 심리, 태도 파악

정답 ⑤

정답 해설 경수는 뒤늦게 받아본 취직 통지서를 보고 발작적으로 웃고 있는데, 이는 범죄자가 되어 감옥에 가게 된 자신의 처지에서는 이제 아무 소용이 없게 되었기에 나오는 자조적 웃음이라고 할 수 있다.

오답 해설

- ① 최 노인은 경애의 자살로 큰 충격을 받고 발광하듯 방으로 뛰어들려고 하였다.
- ② 경운은 '이따위 골목 구석에서 살고 싶어 살고 있니?'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경운도 경애와 마찬가지로 낡은 집을 떠나고 싶어 함을 알 수 있다.
- ③ 어머니는 체포되어 나가는 경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내고 있을 뿐, 경수에 대한 원망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 ④ 최 노인 일가는 낡은 집이나마 자신의 집을 소유하고 있으며, 경애가 원하는 것은 현재 살고 있는 집을 떠나 '물 흔한 집'으로 이사하는 것이다.

[31~34]

황순원, 「어둠 속에 찍힌 판화」

해제 | 이 작품은 액자식 구성을 활용하여 '나'와 주인 사내가 술자리에서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사냥꾼 부부의 유산에 얽힌 과거의 체험을 제시하고 있다. 새끼를 밴 노루를 죽인 사건이 유산의 원인인 것처럼 다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비과학적인 믿음에는 새끼를 밴 노루를 죽였다는 죄책감과 생명 존중의 사상이 전제되어 있다. 새끼를 밴 노루의 피를 마신 뒤에 유산을 거듭하게 된 주인 사내의 아내는 남편의 사냥을 만류하기 시작한다. 한편 주인 사내는 여전히 사냥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여 '총알'을 가끔 꺼내 보며 삶의 기쁨을 얻는다. 이러한 주인 사내와 아내의 갈등이 이 작품의 주된 갈등으로 나타나는데, 이를 통해 '생명에 대한 외경심'과 '욕망을 향한 인간의 집착'이라는 주제 의식을 다루고 있다.

주제 | 생명에 대한 외경심과 욕망을 향한 인간의 집착

전체 줄거리 |

6·25 전쟁 중에, '나'는 피란지 대구의 허름한 집으로 이사를 한다. '나'는 신문팔이를 하는 자식들 때문에 자책감과 불안감을 안고 있다. '나'는 이사 온 날 저녁에 주인 사내의 초대를 받고 술자리를 갖게 되었는데, 주인 사내와 대화를 나누다가 그가 전직 사냥꾼임을 알게 된다. 이튿날, 주인 사내는 다시 나를 불러서 술자리를 갖는다. 술심부름을 이유로 아내를 내보낸 주인 사내는 '나'에게 아내가 자식을 유산하게 된 경위를 말한다. 새끼를 밴 노루의 피를 마신 아내가 유산을 거듭하면서 남편의 사냥을 만류하고 언니의 아이를 입양하여 극진히 키우게 되었다는 것이다. 사냥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사내는 아내 몰래 감추어 둔 총알을 보여 준다. 하지만 심부름을 갔던 아내가 돌아오자 황급히 그것을 감추러 나가고, 그의 아내는 남편의 행동을 알지만 묵인하고 있음을 언저리 '나'에게 얘기한다. '나'는 총알이 담긴 상자를 감추는 주인 사내의 모습이 그려진 한 장의 판화를 떠올리다가, 신문을 팔고 돌아온 자식들의 이불자락을 여며 주기 위해 집으로 돌아가고자 한다.

31 서술상의 특징 파악

정답 ②

정답 해설 이 작품은 현재 '나'와 주인 사내의 대화를 통해 전개되는 외부 이야기와 주인 사내 부부가 겪은 과거 경험담이 내부 이야기로 구성된 소설이다. 과거의 사연은 3인칭 시점으로 서술되고 있고, '나'와 주인 사내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현재 상황은 1인칭 시점으로 서술되고 있다. 따라서 서술 시점에 변화를 주는 방식을 사용하여 주인 사내의 사연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 ① 주인 사내와 '나'가 대화를 나누는 방 안, 노루 사냥이 이루어진 산속, 안택네가

피를 토했던 산 밑 마을의 집 등 다양한 공간적 배경이 등장하지만, 그러한 공간적 배경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대목이 없다. 또한 시대적 상황을 드러내는 부분도 찾을 수 없다.

- ③ 외부 이야기에서는 주인 사내와 '나'가 술자리에서 대화를 나누는 현재의 상황을 보여 주고 있다. 내부 이야기에서는 노루 사냥으로 인해 주인 사내의 아내가 유산하게 된 경위와 주인 사내가 사냥을 하지 못하게 된 과거의 경험을 보여 주고 있다. 서로 다른 장소에서 동시에 벌어지는 사건을 병렬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다.
- ④ 외부 이야기는 1인칭 관찰자 시점을 취하고 있고, 내부 이야기는 3인칭 관찰자 시점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전지적 서술자가 사건에 담긴 의미를 직접 해설한 부분은 없다.
- ⑤ 이야기 내부 서술자는 '나'를 가리키는데, '나'는 중심인물인 '주인 사내'를 관찰하고 있을 뿐 자기 고백적 진술을 활용하지도 않았고 자신이 처한 심리적 상황을 드러내지도 않았다. 오히려 '주인 사내'가 친자식을 낳지 못하게 된 사연, 현재 자신의 처지와 심리적 상황 등을 이야기 내부 서술자인 '나'에게 고백하고 있다.

32 구절의 의미 파악

정답 ④

정답 해설 '듣지 않으니 나중에는 총과 함께 사냥에 관한 도구 일체를 어디엔가 없애 버리고 말았다.'라는 구절과 '전에 한창 사냥을 당길 때는 모든 사업이 뜻대로 잘되드니만 이제는 모든것이 파이요.'라는 구절을 통해 주인 사내는 아내에게 사냥 도구를 빼앗긴 이후로 사냥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아내 몰래 '총알'을 숨겨 두고 정성껏 관리하는 행위를 통해 사냥을 하지 못하는 아쉬움을 달래며 대리 만족을 하고 있을 뿐이다. 이를 통해 사냥에 대한 집착이나 미련을 보이는 것은 주인 사내의 집에서 용인되지 않는 일임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㉞은 집에서 부정적으로 간주되고 있는 사냥 이야기가 언급된 것으로 인해 당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 ① 노루의 피를 먹은 이후 안택네는 유산을 거듭하여 친자를 낳지 못하게 되었다. 그래서 언니에게서 데려온 아이를 양자로 삼아 정성껏 키우며 삶의 기쁨을 느끼고 있다. 따라서 ㉠은 아이를 낳지 못한 안택네가 양자에게 지극한 애정을 쏟고 있음을 보여 준다.
- ② 안택네는 방 밖의 소리를 통해 자신이 마신 피가 새끼를 밴 노루를 죽인 결과임을 인식하게 되면서 구토를 하여 마신 피를 토해 낸다. 태아를 밴 어머니로서 자신과 유사한 처지의 짐승, 즉 새끼를 밴 노루를 죽인 것에 대한 거부감을 느낀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은 노루의 처지를 알게 된 안택네가 충격을 받은 결과이다.
- ③ 주인 사내의 '우리 집사람은 아즉도 지 아 몬 놓는 걸 내가 사냥을 해 싸서 그란 줄로 압니더.'라는 발언을 토대로, 안택네는 자신의 유산이 남편의 사냥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하여 사냥을 만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은 안택네가 유산을 겪으면서 그 책임을 남편의 사냥 탓으로 돌리고 있음을 보여 준다.
- ⑤ ㉞에서 주인 사내는 사냥과 사업을 연계하여 생각한다. 사냥을 나갈 때 사업이 잘되었는데, 사냥을 나가지 못하자 사업이 잘되지 않는다고 본다. 이를 통해 주인 사내가 사냥을 단순한 취미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는 것이자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소중한 가치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3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 ③

정답 해설 안택네는 유산을 겪자 남편의 사냥을 막는다. 유산이 반복될수록 남편의 사냥 도구 일체를 없애 버릴 정도로 강경하게 사냥을 만류한다. '우리 집사람은 아즉도 지 아 몬 놓는 걸 내가 사냥을 해 싸서 그란 줄로 압니더.'라는 주인 사내의 발언을 통해, 아내는 자신의 배 속 생명을 잃은 경험이 짐승의 생명을 빼앗는 사냥과 인과 관계가 있다고 믿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는 자연의 훼손과 파괴가 인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는 시각으로 <보기>에서 말하는 '훼손된 자연을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것'에 해당한다. 또한 사냥을 만류하는 것은 <보기>에서 말하는 '생명을 파괴하고 훼손시키는 현실을 반성'한 결과이기에, 살생에 대한 죄책감과 거부감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 ① <보기>에서 말하는 심리적 집착은 생명을 존중하는 모성적 세계에 대한 지향을 의미한다. 주인 사내는 사냥 총알을 아내 몰래 숨겨 놓을 정도로 사냥에 대

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존재이므로, 모성적 세계에 대한 집착을 보여 준다고 볼 수 없다.

- ② 수놈 노루는 주인 사내의 사냥으로 인해 암늪과 새끼를 모두 잃고 구슬프게 우는 존재로 그려지고 있다. 따라서 사냥으로 인해 생명을 상실한 슬픔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안택네 부부 중 아내는 사냥을 경험한 이후 유산을 겪으면서 태아를 상실한 슬픔을 겪었다. 이로 인해 남편의 사냥을 만류함으로써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지향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안택네의 남편인 주인 사내는 사냥으로 인해 자식을 잃었으나 숨겨 둔 사냥 도구를 소중하게 관리할 정도로 사냥에 대한 갈망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지향을 드러낸다고 볼 수 없다.
- ④ 입양된 아이는 아이를 낳지 못하게 된 안택네의 결핍을 충족해 주는 존재이다. 하지만 주인 사내와 안택네의 갈등은 사냥을 하고 싶은 자와 사냥을 만류하려는 자의 입장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사냥'을 둘러싼 갈등이다. 더불어 주인 사내는 아내의 강경한 태도 때문에 사냥을 중단했을 뿐, 여전히 사냥에 대한 미련을 드러내고 있다. 아이를 입양한 후에도 사냥은 여전히 금지되고 있기 때문에, 아이가 사냥을 둘러싼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도록 만들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보기>에 따르면 모성적 세계관은 근대적 가치관을 비판하기 때문에 모성적 세계관과 근대적 가치관이 조화를 이룰 가능성이 있다고도 볼 수 없다.
- ⑤ <보기>에 따르면 모성적 세계는 인간과 자연의 구분 없이 모든 생명에 대한 무조건적 보살핌과 이타적인 자기희생을 추구한다. 그런데 안택네가 태아를 위해 노루 피를 마시는 행위는 자신의 배 속 생명을 보살피기 위해 자연의 생명을 해치는 것이다. 즉 인간을 위해 자연을 함부로 훼손했다는 점에서 모성적 세계가 추구하는 생산성의 가치를 드러낸다고 볼 수 없다.

34 소재의 기능 파악

정답 ④

정답 해설 ④를 듣고 유산을 하게 된 안택네는 이후에도 거듭된 유산을 하였다. 이로 인해 자식을 낳고 싶은 소망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다. 더불어 주인 사내 역시 아내의 만류로 인해 사냥을 하고 싶은 소망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처럼 ④는 안택네와 주인 사내가 소망을 충족하지 못하게 만듦으로써 두 인물이 결핍을 겪는 상황으로 이어지도록 기능하고 있다. 한편 주인 사내는 사냥을 하지 못하는 대신 ⑥를 은밀하게 보관하고 정성껏 관리하는 행위를 통해 사냥에 대한 아쉬움을 달래고 있다. 따라서 ⑥는 주인 사내가 잠정적으로 결핍을 해소할 수 있도록 만듦으로써 주인 사내에게 심리적 위안을 주는 소재로 기능하고 있다.

오답 해설

- ① ④에 대해 주인 사내는 '오늘 낮에 잡은 노루의 수놈'이 내는 소리라고 해석했다. 하지만 아내가 소리의 정체를 해석한 내용은 드러나지 않고 있다. 또한 소리를 쫓아 나가려는 주인 사내의 행동을 둘러싸고 의견 충돌이 있을 뿐, 소리의 정체와 관련된 의견 충돌은 찾을 수 없다.
- ② ④를 들은 아내가 그 자리에서 쓰러지면서 유산을 하게 된다. 이후 아내는 남편의 사냥을 만류하며 사냥 도구를 모두 없애 버린다. 주인 사내는 아내가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사냥 도구 중 하나인 ⑥를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다. 따라서 ⑥는 아내에 대한 주인 사내의 죄책감이 투영된 소재가 아니라, 사냥에 대한 주인 사내의 미련이나 욕망이 투영된 소재로 볼 수 있다.
- ③ ④를 들은 아내가 그 자리에서 쓰러지면서 유산을 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사냥을 만류하려는 아내와 사냥을 지속하려는 남편의 갈등이 초래되었다. 이러한 갈등은 남편이 ⑥를 통해 미련을 달래면서 사냥을 중단했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해소될 수 있었다. 따라서 ⑥를 통해 갈등이 고조되었다고 볼 수 없다.
- ⑤ ④를 들은 아내는 유산을 하게 되면서 남편의 사냥을 만류하고 사냥 도구를 빼앗는다. 더불어 '우리 집사람은 아즉도 지 아 몬 놓는 걸 내가 사냥을 해 싸서 그란 줄로 압니더.'라는 남편의 발언을 통해 아내가 유산을 남편의 사냥 탓으로 돌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아내가 남편을 원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남편은 아내의 당부를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 주면서 ⑥를 통해 자신의 미련을 달래고 있다. 따라서 남편이 아내를 원망한다고도 볼 수 없고, ⑥가 원망의 감정을 갖는 계기로 작용했다고도 볼 수 없다.

[화법과 작문]

35 토론 표현 전략 사용하기

정답 ④

정답 해설 '반대 1'은 동아리 장터 매출액을 동아리들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방식이 동아리 장터 매출액의 반을 지역 사회에 기부하는 기존의 방식이 가지는 경제 활동의 '결과물을 서로 나눔으로써 더불어 사는 삶의 소중함을 깨닫게' 한다는 의미를 무색하게 할 수 있음을 근거로 새로운 방식에 반대하고 있다.

오답 해설

- ① '찬성 1'은 입론에서 논제와 관련된 용어(예 '매출액', '자율적' 등)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지는 않다.
- ② '찬성 1'은 기존 방식이 학생들이 기울인 노력의 대가로 충분치 않고, 기부의 자발성이 없다는 측면에서 학생들의 자율권을 무시한 처사이며 기부 문화의 활성화라는 취지와도 어울리지 않는다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방식에 대한 학생들의 부정적 반응을 언급하며 변화의 필요성을 제기하지는 않았다.
- ③ '반대 1'은 기존 방식이 더불어 사는 삶의 가치를 체험하며 지역 사회와의 연대를 중시해 온 학교의 전통을 지키는 의미가 있음을 들어 새로운 방식의 도입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 방식에 비해 새로운 방식의 장점이 더 많은 점을 내세우고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⑤ '반대 1'은 기존 방식이 가지는 의미에 가치를 부여하며 새로운 방식의 도입에 대해 반대하고 있을 뿐, 새로운 방식의 시행상의 어려움을 들어 기존 방식이 새로운 방식보다 더 낫다고 주장하지는 않았다.

36 토론 맥락 분석하기

정답 ④

정답 해설 [B]는 순수익금에 대한 통계 자료를 근거로 들인 비용에 비해 매출액이 적어서 적자를 본 동아리들이 여럿 있었다는 점을 밝히며, '우리 학교 동아리 장터 매출액이 유난히 많았다'는 상대측의 주장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가 있음을 지적하고 그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오답 해설

- ① [A]는 상대측 주장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고 있을 뿐 상대측 논거에 선행되어야 할 전제가 없음을 문제 삼고 있지는 않다.
- ② [A]에서 상대측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의 출처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는 등 상대측 논거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부분은 드러나지 않는다.
- ③ [B]는 통계 자료를 근거로 상대측 주장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으나 상대측의 주장이 가지는 내부적 모순점을 들어 논리에 일관성이 없음을 지적하고 있지는 않다.
- ⑤ [A]에는 상대측의 주장을 부분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이 드러나지 않으며, [B]에서는 '우리 학교 동아리 장터 매출액이 유난히 많았다'는 상대측의 주장에 대하여 매출액만을 보면 그렇다고 언급하며 상대측의 주장을 부분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37 토론 내용 이해, 평가하기

정답 ⑤

정답 해설 ㉠보다 ㉡이 시장 경제의 원리를 체험해 보자는 동아리 장터의 취지에 더 부합하는 방식임을 근거로 들고 있는 것은 찬성 측이다.

오답 해설

- ① 찬성 측은 ㉠이 학생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무조건적이라는 점에서 학생들의 자율권을 무시한 처사임을 들어 ㉠에 반대하고 있다.
- ② 찬성 측은 ㉡이 학생들의 자발적인 기부를 이끌어 내고 더욱 다양한 형태의 기부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을 통한 자발성이 없는 기부보다 더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다.
- ③ 찬성 측은 동아리들이 노력의 대가를 충분히 받을 수 있어야 더 많은 수익을 올리려고 노력함으로써 이를 통해 동아리 장터 전체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들어 ㉠보다 ㉡이 더 적합한 방식이라고 보고 있다.
- ④ 반대 측은 ㉡보다 ㉠이 지역 사회와의 연대를 중시해 온 학교의 아름다운 전통을 지키는 방법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38 대화 표현 전략 사용하기

정답 ③

정답 해설 '학생'의 발화 중 '강 대표'가 제시한 통계 자료의 출처에 궁금증을 표하며 이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고 있는 부분은 없다.

오답 해설

- ① '학생'은 첫 번째 발화에서 '면담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강 대표'에게 감사를 표하며, 교지의 기획 기사를 작성하기 위한 참고 자료를 얻고자 폐지 수거 노인을 돕기 위한 사업을 구상해 낸 사회적 기업과 관련해 정보를 얻고 싶다는 면담의 목적을 밝히고 있다.
- ② '학생'은 여덟 번째 발화에서 앞서 '강 대표'가 회사 운영과 관련한 어려움에 대해 설명한 부분 중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한 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계속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라고 추가 질문을 던지고 있다. 또한 아홉 번째 발화에서도 노인 빈곤 문제의 해결 방안에 대해 '강 대표'가 설명한 내용 중 핵심적인 부분을 요약한 후에 '혹시 '페이퍼 캔버스 아트' 외에도 대표님께서 노인들을 위해 추가로 구상하고 있는 사업이 있으신지요?'라고 추가 질문을 하고 있다.
- ④ '학생'은 네 번째 발화에서 '강 대표'의 회사가 손해를 보는 사업을 하는 것이 회사에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것이라는 자신의 사전 지식과 불일치함을 드러내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강 대표'에게 손해를 메우고 수익을 내는 방안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
- ⑤ '학생'은 다섯 번째 발화에서 '페이퍼 캔버스'에 대하여 노인들이 수거한 폐지를 재활용하여 만든 캔버스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자신이 추측한 바를 말하고, '강 대표'에게 이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묻고 있다.

39 대화 내용 이해, 평가하기

정답 ⑤

정답 해설 [A]는 '페이퍼 캔버스 아트'가 제작되는 과정을 단계별로 제시하며 설명하고 있고, [B]는 '폐지 수거'에 대한 경제적 가치가 낮게 평가되고, 사회적인 인식도 부정적인 현 상황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를 드러내고 있다.

오답 해설

- ① [A]는 '페이퍼 캔버스 아트'의 제작 과정에 대해, [B]는 '폐지 수거'가 가지는 사회적 가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나, 이를 대상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 ② [A]는 '페이퍼 캔버스 아트'의 제작 과정에 대해, [B]는 '폐지 수거'가 가지는 사회적 가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나, 이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과거와 현재의 상태를 비교하며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 ③ [A]는 '페이퍼 캔버스 아트'의 제작 과정을 단계별로 설명하고 있으나 이를 원인과 결과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B]는 노인 빈곤 문제와 이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 ④ [A]는 '페이퍼 캔버스 아트'의 제작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나 '페이퍼 캔버스 아트'의 종류에 따른 적합한 제작 방법에 대해 설명한 부분은 없다. [B]는 '폐지 수거'와 관련한 통계 자료를 언급한 부분이 있지만 '폐지 수거'와 관련한 연구 내용을 병렬적으로 나열한 부분은 없다.

40 정보 전달 글쓰기 내용 생성하기

정답 ④

정답 해설 '강 대표'가 (가)의 여덟 번째 발화에서 사람들이 폐지 수거를 푼돈 보는 일, 연민의 감정이 드는 일로 보는 시각이 문제라고 지적한 부분은 (나)의 1문단에 폐지 수거 노인을 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는 언급으로 제시되었다. (나)의 2문단에 폐지 수거 노인 지원을 위한 사회적 비용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시되지 않았다.

오답 해설

- ① '학생'이 (가)의 두 번째 발화에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폐지 수거'라는 불가피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노인들의 상황과 관련하여 언급한 내용이, (나)의 1문단에 노인 빈곤 문제의 배경으로 제시되었다.
- ② '강 대표'가 (가)의 두 번째 발화에서 폐지 수거 노인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하여 언급한 내용이, (나)의 1문단에 폐지 수거에 매우 낮은 경제적 가치가 매겨지고 있다는 문제점으로 제시되었다.
- ③ '강 대표'가 (가)의 여덟 번째 발화에서 폐지 수거 노인이 자원 순환에 기여하는 바에 관하여 언급한 내용이, (나)의 2문단에 자원 순환을 통해 우리 사회를 깨끗하게 만들고 환경을 지키는 일이라는 사회적, 환경적 가치로 제시되었다.

- ⑤ '강 대표'가 (가)의 여덟 번째 발화에서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노인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내용이, (나)의 3문단에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의 사례로 제시되었다.

41 정보 전달 글쓰기 자료, 매체 활용하기

정답 ③

정답 해설 <보기>의 첫 번째 자료에서 사업 수익으로 폐지 수거 노인을 위한 지원 물품을 구입하는 사회적 기업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지만, 노인을 위한 일자리 제공보다 노인들의 생계를 위한 구호 물품 지원이 더 시급하다는 내용은 (나)에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보강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 ① <보기>의 첫 번째 자료에서 폐지 수거 리어카에 광고를 게재하고 광고료를 폐지 수거 노인에게 지급하여 노인들이 보다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기업의 사례가 제시되어 있다. 이를 바탕으로 (나)에서 폐지 수거에 더 높은 경제적 가치를 부여해야 한다는 3문단의 내용을 보강할 수 있다.
- ② <보기>의 두 번째 자료에서 폐지 회수와 유통 과정을 돕는 노인들의 폐지 수거가 보다 원활한 폐지 재활용에 기여한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나)에서 폐지 수거가 환경을 지키고 자원 순환에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큰 노동이라는 2문단의 내용을 보강할 수 있다.
- ④ <보기>의 두 번째 자료에서 폐지 수거 노인에 대한 새로운 명칭으로 '자원 재생활동가'가 선정되었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이를 바탕으로 (나)의 3문단에 폐지 수거 노인에 대한 부정적 사회 인식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내용을 보강할 수 있다.
- ⑤ <보기>의 첫 번째 자료에서 폐지 수거 노인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리어카의 무게를 줄이고, 반사판을 부착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의 사례가 제시되어 있다. 이를 바탕으로 (나)의 3문단에 폐지 수거 노인들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보강할 수 있다.

42 정보 전달 글쓰기 내용 점검, 조정하기

정답 ③

정답 해설 '개선되다'는 '잘못된 것이나 부족한 것, 나쁜 것 따위가 고쳐져 더 좋게 되다.'라는 의미로, 명사 '개선'에 피동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인 '-되다'가 결합된 표현이다. 문맥상 폐지 수거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이 고쳐져야 한다는 의미이므로 '개선되어야'는 적절한 표현이며, 이를 '개선해야'로 고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 ① 서술어 '놓여 있다'는 주어인 '원인은'과 호응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어와 서술어가 잘 호응되도록 서술어를 '놓여 있다는 것이다'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 ② 일자리가 없어 생계를 유지하기 힘든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폐지 수거를 할 수밖에 없는 노인들의 처지를 설명한 문장에 이어지는 내용이 폐지 수거에 매겨지는 경제적 가치가 매우 낮고, 폐지 수거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부정적이라는 것이므로, 문맥을 고려하여 앞뒤 문장을 '하지만'으로 연결하는 것이 적절하다.
- ④ '더 높은 경제적 가치를 부여하고 ~에서 무엇에 가치를 부여하는지 드러내지 않다. 즉 필수 문장 성분이 생략되어 있으므로 문맥을 고려하여 부사어인 '폐지 수거에'를 추가하는 것이 적절하다.
- ⑤ ㉞은 각 지자체에서 폐지 수거 노인 인구에 대한 실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내용으로 폐지 수거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 제공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하는 내용 사이에 놓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좋다.

43 설득 글쓰기 내용 생성하기

정답 ①

정답 해설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같은 전문 용어가 사용되었으나, 이에 대한 개념을 설명한 부분은 없다.

오답 해설

- ② 매점을 '약방의 감초'라고 비유한 표현을 통해 매점이 학생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공간임을 강조하며 글을 시작하고 있다.
- ③ 매점에 대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두 가지 문항의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매점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있다.

- ④ 매점 사업자와의 인터뷰 내용을 통해 매점에서 판매하는 품목이 고열량·저영양 식품에 국한된 이유를 드러내며 학생뿐만 아니라 매점 사업자의 입장도 드러내고 있다.
- ⑤ 교사 및 교직원도 예상 독자로 고려하여 판매 품목의 부족 문제와 비싼 가격 문제는 학교 측에서 매점 사업자와의 협상을 통해 학생들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44 설득 글쓰기 자료, 매체 활용하기 정답 ③

정답 해설 Ⅲ을 통해 매점 사업자가 구매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비싼 임대료를 충당하기 위한 최대한의 수익을 내려면 학생들이 선호하는 저가의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많이 들여놓을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매점에서 판매하는 품목이 주로 고열량·저영양 식품인 이유는 '학생들의 주머니 사정을 고려한' 불가피한 선택이므로 ㉔는 적절한 진술이다.

오답 해설

- ① I-1을 통해 설문 조사 결과 매점에 대한 학생들의 가장 큰 불만 사항은 '적은 수의 판매 품목'임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㉓는 '적은 수의 판매 품목'으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 ② Ⅱ를 통해 고열량·저영양 식품에 대한 판단 기준은 식품 의약품 안전처에서 규정한 기준에 따른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반영하여 ㉑ 바로 앞에 '식품 의약품 안전처의 기준에 따르면'을 추가하는 것이 적절하다.
- ④ I-1을 통해 매점에 대한 불만 사항 중 '판매대 앞 학생들의 무질서' 문제가 학생들의 줄서기 의식의 부족과 매점에 판매 창구가 하나뿐이라는 문제가 겹쳐져 나타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㉒를 '판매대 앞 학생들의 무질서 문제'로 구체화하는 것이 적절하다.
- ⑤ IV에는 매점 사업자가 매달 학교 측에 비싼 임대료를 내기 위해 주로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판매할 수밖에 없는 기존의 최고가 입찰제 방식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매점의 운영 주체 및 운영 방식을 바꾼 다른 고등학교의 사례가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이를 고려하여 ㉕는 '학교 매점의 운영 주체 및 운영 방식을 바꾸는 것을 고려하는'으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45 설득 글쓰기 표현 전략 사용하기 정답 ⑤

정답 해설 '푸른 숲에서 생기 있는 꽃들이 피어나듯이'라는 비유법을 통해 학교 매점의 가지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학생이 제시한 해결 방안이 수용될 경우 학생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건강한 학교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

오답 해설

- ① 전달 효과를 높이기 위한 비유법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 내용은 학생이 제시한 해결 방안이 수용될 경우 기대되는 내용이 아니다.
- ② 전달 효과를 높이기 위해 비유법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기대 효과도 잘 드러나지 않았다.
- ③, ④ 학생이 제시한 해결 방안이 수용될 경우 기대되는 내용을 언급하고는 있으나 전달 효과를 높이기 위한 비유법이 사용되지 않았다.

[언어와 매체]

35 소리에 관한 조항 - 제10, 11, 12항 정답 ④

정답 해설 [롭십]은 'ㄹ' 뒤에 반모음 'j'가 오는 환경이므로 3문단에 따르면 두 가지 두음 법칙이 연쇄적으로 적용되는 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

오답 해설

- ① 4문단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두음 법칙을 인정하지 않는다.
- ② 4문단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두음 법칙을 인정하지 않으며 이는 표기에도 적용된다.
- ③ 1문단에 따르면, 두음 법칙은 한자어에 적용되는 것이다. '라디오'에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 한자어가 아니기 때문이다.
- ⑤ 3문단에 의하면, 한글 맞춤법에서는 두음 법칙이 적용되는 경우 적용된 대로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36 소리에 관한 조항 - 제10, 11, 12항 정답 ④

정답 해설 '년(年)'은 한자어이고, 단어의 첫머리에 'ㄴ'이 오므로 두음 법칙이 적용될 수 있는 환경이다. 하지만 1문단에서 언급했듯이 의존 명사는 의존하는 대상과 하나의 단위로 쓰여 독립적인 단어로 잘 인식되지 않으므로 이에 따라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오답 해설

- ① '년'은 단어의 첫머리에 'ㄴ'이 오는 것은 아니지만 '녀'가 오는 형태의 한자어이므로 두음 법칙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다.
- ② '년'에 두음 법칙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앞에 오는 '몇'과 관련이 없다.
- ③ '년'은 두 가지 종류의 두음 법칙이 연쇄적으로 적용되기 힘든 한자어는 맞지만, 2문단에서 언급하는 두 번째 두음 법칙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다.
- ⑤ '몇 년'에서 '년'은 단어의 첫머리에 해당한다.

37 형태소의 종류 정답 ③

정답 해설 ㉑은 어근 '끓-'과 '주리-'가 결합한 합성어에 종결 어미 '-르까'가 결합하고 보조사 '요'가 결합한 형태이다.

38 관형사절을 안은 문장 정답 ①

정답 해설 ㉑에는 '내가 물건을 산'이 관형사절로 안겨 있으며 여기에는 '가게에서'라는 부사어가 생략되었다. 따라서 ㉔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 ④ '쥐를 잡은'이 관형사절로 안겨 있으며 여기에는 '고양이가'라는 주어가 생략되었다. 따라서 ㉑에 해당한다.
- ⑤ '내 친구가 해낸'이라는 관형사절이 안겨 있다. 여기에는 '일'이라는 목적어가 생략되었다. 따라서 ㉑에 해당한다.
- ⑥ '저는 그 선생님을 만난'이라는 관형사절이 안겨 있다. 여기에는 관형사절이 수식하는 체언이 생략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㉓에 해당한다.

39 국어사전 정보 정답 ⑤

정답 해설 (3)에서 밑줄 친 부분은 '-다고 해'가 줄어든 말인 '-대¹⁷'에 해당한다. 따라서 '있대'로 붙여 써야 적절하다.

오답 해설

- ① (1)의 밑줄 친 부분은 관형사형 어미 '-ㄴ'에 '데'이 붙은 것이다.
- ② (1)의 밑줄 친 부분의 '데'는 '일'의 뜻을 나타내는 말이 맞지만,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써야 한다.
- ③ (2)의 밑줄 친 부분의 '데'는 어미 '-ㄴ데'가 사용된 것으로 붙여 쓰는 것이 적절하다.
- ④ (2)의 밑줄 친 부분은 의미상 어미 '-ㄴ데'가 사용되어야 자연스럽다.

40 매체의 유형에 따른 특성 정답 ⑤

정답 해설 기사 입력 시간과 최종 수정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를 바탕으로 후속 기사가 나올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 ① 해당 인터넷 기사에는 댓글 창이 있으므로 수용자가 기사에 대해 다른 수용자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 ② 기사 상단에 '인쇄' 기능과 '기사 듣기' 기능이 있으므로 이런 기능을 통해서도 해당 인터넷 기사를 수용할 수 있다.
- ③ 기사 우측에 '△△ 의류'의 광고 배너가 있어, 클릭을 통해 수용자가 기사와 관련 없는 내용으로 이동할 수도 있다.
- ④ 기사 좌측 상단에 있는 공유 버튼을 통해 기사 내용을 누리 소통망(SNS)과 같은 다양한 곳에 전달할 수 있다.

41 언어적 표현과 심미적 가치 정답 ④

정답 해설 보조사 '도'가 사용된 것은 맞지만 여기서의 '도'는 이미 어떤 것이 포함되고 그 위에 더함의 뜻으로 사용되었다.

오답 해설

- ① 의문의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지'를 사용하여 대출 금리와 관련된 기사의 제목을 제시하고 있다.
- ② 부사 '즉'이 사용되어 뒤의 내용이 앞의 내용을 다시 설명한 것임을 드러내고 있다.
- ③ '-기 마련이다' 구성을 통해 앞의 내용이 당연히 그러한 것임을 표현하고 있다.
- ⑤ 진행상을 표현하는 '-아 오다'를 사용하여 '금융 당국'의 요구가 진행되어 왔음을 표현하고 있다.

42 매체 자료의 주제적 수용

정답 ④

정답 해설

'학생 4'는 대출 금리 변화와 관련된 정보의 출처를 확인하였으므로 공정성이 아니라 정보의 신뢰성을 점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 ① '학생 1'은 기사가 오래된 정보를 다루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으므로 정보의 시의성을 점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② '학생 2'는 기준 금리와 대출 금리의 관계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었다며 정보의 실효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 ③ '학생 3'은 자금 조달 지수 산출에 다른 요인들도 포함된다는 것을 언급하면서 기사의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아쉬워하고 있다.
- ⑤ '학생 5'는 다른 기사에서 대출 금리 인하의 원인을 다른 것으로 분석한 것을 언급하며 해당 기사의 정보가 정확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43 매체 언어의 의미 전달 방식

정답 ⑤

정답 해설

인터뷰 영상이 첫 슬라이드에 배치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금융 당국자'가 아니고 '대출 사용자'의 인터뷰 내용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 ① 중심 제재인 '대출 금리'와 관련된 은행들의 대출 금리 변화 현황이 두 번째 슬라이드에 도표로 제시되어 있다.
- ② 중심 제재인 '대출 금리'가 세 슬라이드의 제목에 모두 포함되어 슬라이드 상단에 배치되어 있다.
- ③ 중심 제재인 '대출 금리'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화살표를 통해 도식화되어 있는 내용이 세 번째 슬라이드에 제시되어 있다.
- ④ '은행채'의 개념을 확인할 수 있는 하이퍼링크가 세 번째 슬라이드 하단에 제시되어 있다.

44 매체 언어의 의미 전달 방식

정답 ⑤

정답 해설

2부 마무리에 광고를 듣고 오겠다고 '진행자 1'이 공지하고 있으나 소개한 책의 내용을 요약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해설

- ① '진행자 1'과 '진행자 2'는 모두 경어체를 사용하고 있다.
- ② 라디오 영상 화면에 따르면 방송 중인 내용에 대해 자막으로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다.
- ③ '진행자 1'의 첫 번째 발화에서 호우로 인한 도로 통제 상황을 안내하고 있다.
- ④ '진행자 1'은 마지막 발화에서 청취율 조사에서 해당 방송을 청취 중이라고 응답해 달라고 언급하고 있다.

45 매체 자료 수용의 관점과 가치

정답 ③

정답 해설

'랑뚜'가 자신의 생각을 언급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예정된 방송 순서가 바뀌는 데 영향을 주고 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오답 해설

- ① '연어'는 자신이 '진행자 2'의 '팬'이라고 반응하면서 진행자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아자'는 공부에만 열중했던 경험을 언급하면서 책을 선물로 받기를 바라고 있다.
- ④ '비타민'은 자막에 책 제목이 잘못되어 있는 것을 언급하여 '진행자 1'이 해당 내용을 정정하도록 하고 있다.
- ⑤ '운동왕'은 '금연'과 관련된 정보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고, 이후 '진행자 2'는 관련된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

6 회

EBS FINAL 국어영역

본문 105~124쪽

01 ①	02 ⑤	03 ④	04 ④	05 ③
06 ③	07 ⑤	08 ④	09 ②	10 ③
11 ④	12 ②	13 ③	14 ⑤	15 ①
16 ⑤	17 ⑤	18 ⑤	19 ⑤	20 ②
21 ③	22 ②	23 ⑤	24 ①	25 ⑤
26 ①	27 ⑤	28 ①	29 ②	30 ④
31 ⑤	32 ⑤	33 ②	34 ⑤	
화법과 작문	35 ②	36 ④	37 ②	38 ③
	39 ③	40 ⑤	41 ④	42 ③
	43 ③	44 ②	45 ③	
언어와 매체	35 ③	36 ②	37 ①	38 ⑤
	39 ②	40 ⑤	41 ④	42 ③
	43 ④	44 ③	45 ②	

[01~06]

육식에 대한 피터 싱어의 입장과 그에 대한 비판 / 육식에 대한 톰 리건의 입장과 그에 대한 비판

㉠ 육식에 대한 피터 싱어의 입장과 그에 대한 비판

해제 | 피터 싱어의 동물 해방론에서는 육식을 윤리적으로 허용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에서는 육식을 윤리적으로 허용하기 어려우나 '대체 가능성 논변'의 입장에서는 육식을 윤리적으로 허용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대체 가능성 논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대체 가능성 논변의 한계를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대체 가능성 논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입장도 한계는 있다. 이 글에서는 대체 가능성 논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 사전 존재적 견해에서만 가능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주제 | 육식의 윤리적 허용 문제에 대한 피터 싱어의 입장과 그 입장의 한계

구성 |

- 1문단: 육식의 윤리적 허용에 대한 피터 싱어의 입장
- 2문단: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에서의 육식의 윤리적 허용에 대한 입장
- 3문단: '대체 가능성 논변'으로 주장하는 육식의 윤리적 허용
- 4문단: '대체 가능성 논변'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입장의 한계

㉡ 육식에 대한 톰 리건의 입장과 그에 대한 비판

해제 | 톰 리건의 동물 권리론에서는 육식을 윤리적으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 글에서는 '최소 침해의 원리'를 중심으로 완전한 채식에 해야 한다는 리건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완전한 채식을 주장하는 리건 입장의 한계를 데이비스의 입장을 중심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데이비스의 주장도 한계가 있다. 데이비스의 주장은 희생되는 동물의 머릿수만 계산하고 사육되는 동물의 삶의 질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은 것이다. 이 글에서는 데이비스의 주장도 한계가 있음을 언급하며 글을 마무리하고 있다.

주제 | 육식의 윤리적 허용 문제에 대한 톰 리건의 입장과 그 입장의 한계

구성 |

- 1문단: 육식의 윤리적 허용에 대한 톰 리건의 입장
- 2문단: '최소 침해의 원리'에서의 육식의 윤리적 허용에 대한 입장
- 3문단: 리건의 입장에 대한 데이비스의 비판
- 4문단: 데이비스 주장의 한계

01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정답 ①

정답 해설

(가)는 육식의 윤리적 허용이라는 화제와 관련하여 피터 싱어의 동물 해방론의 입장을 제시하고 대체 가능성 논변에 대한 문제 제기를 중심으로 피터 싱어 입장의 한계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나)는 육식의 윤리적 허용이라는 화제와 관련하여 톰 리건의 동물 권리론의 입장을 제시하고 데이비스의 주장을 중심으로 톰 리건의 입장의 한계를 제시하고 있다. 두 글 모두 화제와 관련된 특정 입장을 설명하고 그 입장의 한계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오답 해설

- ② (가), (나) 모두 특정 입장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화제에 대해 대립된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가), (나) 모두 대립된 두 입장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있지는 않다.
- ③ (가), (나) 모두 육식의 윤리적 허용이라는 화제와 관련하여 여러 입장을 소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입장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규명하고 있지는 않다.
- ④ (가), (나) 모두 화제가 대두된 사회적 배경을 소개하고 있지 않으며, 논의의 의의를 평가하고 있지 않다.
- ⑤ (가), (나)에는 모두 쟁점이 제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쟁점을 중심으로 논의의 변천 과정을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02 세부 내용 파악

정답 ⑤

정답 해설 싱어의 '대체 가능성 논변'은 육식이 동물들을 죽게 만들으로써 쾌락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 동물들이 자연 상태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 쾌락의 총량을 크게 만들고 고통 없이 죽게 하여 쾌락이 감소되는 양을 최소화하고 죽은 만큼 새로운 동물들이 태어나 행복한 삶을 산다면 우주 전체적으로 쾌락의 총량이 늘어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싱어가 육식을 위한 도살이 동물의 쾌락을 감소시키지 않는다는 주장에 동의한다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 ① (가)의 1문단에서 싱어가 공리주의를 기반으로 동물을 자연 상태에서 사육하고 아무 고통 없이 도살하는 것과 관련하여 동물의 이익을 산출할 수 있다고 여겼음을 알 수 있다.
- ② (가)의 1문단에서 싱어가 동물이 고통을 느끼는 것을 이익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봤음을 알 수 있으며, 2문단에서 동물의 고통이 이익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입장을 통해 싱어가 동물이 인간처럼 고통을 느낀다고 생각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나)의 2문단에서 리건이 축산업이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것을 문제 삼았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동물이 인간처럼 고통을 느낀다고 생각했음을 나타낸다.
- ③ (나)의 1문단에서 본래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개체를 수단으로 대할 수 없다고 생각한 리건의 입장을 알 수 있다.
- ④ (가)의 1문단에서 싱어는 육식을 윤리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나)의 1문단에서 리건이 육식을 윤리적으로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했음을 알 수 있다.

03 핵심 개념에 대한 이해

정답 ④

정답 해설 '대체 가능성 논변'에서는 동물이 죽으면 그에 따라 쾌락이 감소된다는 입장을 전제하고 있다. 죽은 동물의 쾌락이 살아 있는 동물 전체의 쾌락으로 대체된다고 보지 않는다. 동물이 육식을 위해 죽은 후, 죽은 동물의 수만큼 새로 태어난 동물이 자연 상태에서 행복하게 산다면 육식의 쾌락이 더해져 우주 전체의 쾌락의 총량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오답 해설

- ① '대체 가능성 논변'에서는 공리주의 입장에서 쾌락의 총량이 최대여 함을 고려한다. 대체 가능성 논변에서는 동물들의 쾌락이 최대가 되기 위해서는 동물들이 자연 상태에서 살아야 하고 고통 없이 죽어야 한다고 본다. 즉 동물들이 자연 상태에서 산다는 것을 전제로 죽은 동물들의 쾌락의 총량이 새로 태어난 동물들의 쾌락의 총량과 같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 ② '대체 가능성 논변'은 공리주의 입장에서 육식을 윤리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뒷받침한다.
- ③ '대체 가능성 논변'에서는 죽은 동물들의 쾌락의 양이 새로 태어난 동물들의 쾌락의 양으로 동일하게 대체되고 거기에 육식으로 인한 쾌락이 더해지면 우주 전체의 쾌락의 총량이 증가한다고 주장한다.
- ⑤ '대체 가능성 논변'에서는 육식을 위해 죽은 동물과 새로 태어난 동물의 쾌락의 양과 질이 동일하다는 것을 전제로 대체 가능성에 대해 주장한다.

04 구체적 사례 적용

정답 ④

정답 해설 <보기>의 B는 의사로부터 3개월 후에 임신을 하면 건강한 아이를 출산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이를 근거로 B가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 3개월 후에 임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쾌락을 고

려한 것이다. 이처럼 앞으로 존재할 가상의 쾌락을 고려하는 것은 '전체적 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오답 해설

- ① '사전 존재적 견해'는 현재 존재하는 대상만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기>의 A와 관련해 출산 후 행복감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은 앞으로 존재할 가상의 쾌락을 고려한 것이므로 '사전 존재적 견해'를 바탕으로 제시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② 출산 후에 윤리적인 비난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가상의 일을 고려한 것으로 '전체적 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 ③ '대체 가능성 논변'은 '사전 존재적 견해'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 ⑤ 현재의 상태만을 고려하는 것은 '사전 존재적 견해'의 입장에 해당한다. 의사가 B의 현재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고 진단한 것은 대체 가능성 논변에 대한 문제 제기와 관련이 없다.

05 세부 내용 파악

정답 ③

정답 해설 ㉠은 어떤 행위에 의해 영향을 받을 모든 대상의 같은 이익들에 대하여 동등한 비중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고통의 크기나 가치가 동일하다면 인간의 고통인지 돼지의 고통인지를 구별해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는 ㉠이 동물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의 윤리적 부당성을 판단하는 준거가 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도 ㉠처럼 동물 권리 침해의 부당성을 판단하는 준거가 될 수 있다. ㉢은 본래적 가치를 지닌 개체들에 대한 어떤 선택을 할 때는 소수의 권리를 침해하는 쪽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을 준거로 삼으면, 육식을 위해 동물을 죽이는 것은 다수 동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부당한 것이 된다고 판단할 수 있다.

오답 해설

- ① ㉠도 ㉠처럼 동물을 죽이는 행위가 동물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리를 제공한다.
- ② 동물이 인간과 마찬가지로 본래적 가치를 지녔다고 보는 것은 ㉡의 입장이다.
- ④ ㉢은 권리 침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으로 동물에게 인간과 동등한 권리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기준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 ⑤ ㉠, ㉡ 모두 동물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낸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이 동물이 얻게 되는 이익을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06 외적 준거에 따른 비판

정답 ③

정답 해설 싱어는 윤리적 판단과 관련하여 '이익 평등의 원칙'을 내세웠다. 이 원칙에 따르면, 동물들이 느끼는 두려움과 고통의 크기도 윤리적 판단을 할 때 고려해야 할 대상이 된다. 싱어는 육식의 관행을 옹호하는 것과 관련하여, '대체 가능성 논변'을 제시했는데, 이 논변은 동물의 도살로 감소되는 쾌락의 양을 고려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가)에서 육식으로 인간이 얻게 되는 이익의 크기를 고려해 육식을 옹호하는 입장이 도살 과정에서 동물들이 느끼는 두려움과 고통의 크기를 고려하지 못했다고 문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 ① (가)에 따르면, 어떤 행위에 대해 중 차별주의라고 판단하는 것은 동등하게 고려될 이익을 고려하지 못했다고 비판하는 것이다. 이는 돼지, 닭, 젓소 등의 본성을 존중하지 못하는 행태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는 것이다.
- ② (가)에서 동물들도 인간처럼 고통을 받지 않고 기쁨을 누리고 싶어 하는 욕구를 지니고 있다고 보는 것은 동물을 인간과 동등하게 보는 것이다. 이는 <보기>와 관련지를 때, 동물이 자연적인 본성을 지니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과 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 ④ (나)에서는 육식을 위해 고기를 생산하는 축산업이 다수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동물 사육 시설의 밀집화·대량화를 문제 삼는 것과 입장이 서로 통한다.
- ⑤ (나)에서 동물들을 집약된 형태의 공장식 농장에서 목축해야 한다는 입장을 언급하고 있다. 이 입장은 동물이 받는 고통의 크기를 늘리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 동물의 권리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될 수 없다.

[07~12]

세포 내외로의 물질 이동 방법

해제 | 세포막은 외부 환경으로부터 세포를 분리하고 보호하는 울타리와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세포막을 구성하는 단백질들은 세포막을 구성하는 구조적 기능뿐만 아니라 물질의 선택적 이동에 관여하기도 한다. 세포 내외로의 물질 이동 방법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 단순 확산과 촉진 확산,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능동 수송 등으로 구분된다.

주제 | 세포 내외로의 물질 이동 방법

구성 |

- 1문단: 세포막의 특성
- 2문단: 세포막을 통한 물질 이동
- 3문단: 단순 확산의 과정과 특징
- 4문단: 촉진 확산의 과정과 특징
- 5문단: 능동 수송의 과정과 특징

07 세부 내용 파악

정답 ⑤

정답 해설 | 1문단에 따르면, 세포막을 구성하는 단백질은 인지질의 이중 층 사이에 모자이크를 이루듯이 끼어 있는 내재성 단백질과, 세포막 바깥쪽 극성 부위에 붙어 있는 표재성 단백질로 구분된다. 세포막 바깥쪽 극성 부위에 붙어 있는 단백질은 인지질의 이중 층 사이에 모자이크를 이루듯이 끼어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

- ① 1문단에 따르면, 내재성 단백질이나 표재성 단백질은 세포막을 구성하는 구조적 기능뿐만 아니라 물질의 선택적 이동에 관여하기도 한다. 표재성 단백질이 물질의 선택적 이동에 관여하는 단백질 중 하나라는 설명은 적절하다.
- ② 3문단에 따르면, 극성 분자나 전하를 띠는 이온들은 세포막의 단백질을 통한 촉진 확산에 의해 이동이 일어난다. 극성 분자나 전하를 띠는 이온들의 이동이 촉진 확산에 의해 일어난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 ③ 2문단에 따르면, 인지질의 이중 층으로 된 세포막은 소수성 지질 층으로 인해 외부 환경, 즉 세포 외 액으로부터 세포를 분리하고 있다. 인지질의 이중 층으로 된 세포막이 세포 외 액으로부터 세포를 분리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 ④ 5문단에 따르면, 대표적인 2차 능동 수송으로는 장 점막 세포에서의 포도당 흡수와 세뇨관에서의 포도당 재흡수를 들 수 있다. 장 점막 세포에서의 포도당 흡수나 세뇨관에서의 포도당 재흡수가 2차 능동 수송의 예에 해당한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08 중심 내용 파악

정답 ④

정답 해설 | 4문단에서 촉진 확산은 물질의 운반을 위해 단백질의 작용을 필요로 한다고 하였고, 5문단에서 능동 수송은 운반체 단백질을 필요로 한다고 하였다. 이로 보아 촉진 확산과 능동 수송은 모두 물질의 운반을 위해 단백질의 작용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오답 해설 |

- ① 5문단에서 능동 수송은 물질이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동한다고 하였다.
- ② 4문단에서 촉진 확산의 예로 특정 단백질 통로를 인지질 층을 통과하는 물의 이동 사례를 제시하였다.
- ③ 5문단에서 ATP를 이용하여 물질을 이동하는 것은 능동 수송임을 알 수 있다.
- ⑤ 5문단에서 능동 수송이 물질의 이동 시 단백질의 펌프 작용이 일어난다고 하였다. 촉진 확산은 이러한 과정이 일어나지 않는다.

09 세부 내용 파악

정답 ②

정답 해설 | 세포 내외에서 운반체 단백질에 물질이 결합되면 모양이 변형되는 것은 운반체 단백질을 통한 촉진 확산에 해당한다. <보기>는 이온 통로 단백질을 통한 촉진 확산에 해당하므로, 이온 통로의 구멍에 어떤 이온이 들어가게 되면 이온 통로 단백질로 인해 그 이온의 모양이 변형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

- ① '이온 통로 단백질은 주로 내재성 막 통과 단백질에 해당하는데'라는 설명을 볼 때 적절하다.
- ③ '포도당이나 아미노산과 같이 큰 물질들은 이온 통로의 구멍을 통하지 않고 운반체 단백질을 통해 세포막을 가로질러 운반된다.'라는 설명을 볼 때 적절하다.

- ④ '친수성이 있는 이온 통로의 구멍은 이온들이 통과하게 한다.'라는 설명을 볼 때 적절하다.
- ⑤ '나트륨, 칼륨, 칼슘 등의 이온들은 각각의 이온 통로에 선택적으로 들어간다.'라는 설명을 볼 때 적절하다.

10 생략된 내용 추론

정답 ③

정답 해설 | 세포 내 나트륨 이온의 농도가 증가하면 나트륨-칼륨 펌프의 모양이 변하면서 ATP 분해로 생기는 에너지를 이용해 세포 내 나트륨을 밖으로 방출시키고, 동시에 칼륨은 나트륨과 반대 방향으로 역 수송되기도 한다. 이로 인해 나트륨은 세포 외 액에서, 칼륨은 세포 내 액에서 높은 농도로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오답 해설 |

- ①, ② 나트륨은 세포 외 액에서, 칼륨은 세포 내 액에서 높은 농도로 유지될 수 있다.
- ④ 칼륨은 세포 내 액에서 높은 농도로 유지될 수 있다.
- ⑤ 나트륨은 세포 외 액에서 높은 농도로 유지될 수 있다.

11 구체적 사례 적용

정답 ④

정답 해설 | 5문단에서 2차 능동 수송은 농도 차이에 의한 물질 이동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이용해 농도에 역행하는 물질이 같은 방향 또는 다른 방향으로 수송되는 것을 말한다 하였고, 2차 능동 수송이 운반체 단백질을 필요로 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만, 농도에 역행하는 물질이 같은 방향으로만 수송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

- ① 역 수송에서는 세포 내 나트륨 이온의 농도가 증가하면 세포 내 나트륨을 밖으로 방출시킨다. 세포 내 액의 나트륨이 역 수송되어 세포 외 액으로 방출된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 ② 역 수송에서 세포 내 나트륨 이온의 농도가 증가하면 나트륨-칼륨 펌프의 모양이 변한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 ③ 2차 능동 수송은 농도 차이에 의한 물질 이동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이용해 농도에 역행하는 물질이 같은 방향 또는 다른 방향으로 수송되는 것을 말한다. 2차 능동 수송에서 농도 차이에 의한 물질 이동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이용한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 ⑤ 단일 수송, 역 수송, 2차 능동 수송은 모두 ATP를 이용해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농도가 높은 곳으로 물질의 이동이 일어나는 능동 수송이다. 이들 모두가 ATP 분해로 발생하는 에너지가 물질의 이동에 관여한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12 단어의 의미 파악

정답 ②

정답 해설 | '세포막 바깥쪽 극성 부위에 붙어 있는'과 '전신주에 구인 광고 쪽지가 붙어 있었다.'에 쓰인 '붙다'는 '맞닿아 떨어지지 아니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오답 해설 |

- ① '자동차에 가속도가 붙어 무서웠다.'에 쓰인 '붙다'는 '어떤 것이 더해지거나 생겨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 ③ '우리 언니가 입사 시험에 붙어 기분이 좋았다.'에 쓰인 '붙다'는 '시험 따위에 합격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 ④ '오빠는 권력자에게 붙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에 쓰인 '붙다'는 '좃아서 따르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 ⑤ '대형 화재로 옆 아파트에까지 불이 붙어 큰일이다.'에 쓰인 '붙다'는 '불이 옮겨 타기 시작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13~17]

채권

해제 | 이 글은 채권의 개념과 가격, 속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채권은 원금과 이자의 지급액과 시기가 약속된 고정 소득 증권을 일컫는다. 정부, 공공 기관, 그 밖에 주식회사 등도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채권을 발행한다. 채권은 발행 주체에 따라서 개별적 특성을 갖고 있지만, 발행 시 약속한 시기에 지급해야 하는 이자와 원금의 기준이 정해져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채권의 가격은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에 의해 결정된다. 채권은 비교적 안정적인 투자 상품으로 여겨지나, 투자성을 지니고 있어 투자한 돈이 손실될 수 있다.

주제 | 채권의 개념과 균형 가격

구성 |

- 1문단: 채권의 개념과 특징
- 2문단: 이표 채권과 무이표 채권의 개념
- 3문단: 채권의 가격 책정 ①
- 4문단: 채권의 가격 책정 ②
- 5문단: 채권 가격 책정의 사례
- 6문단: 시장 이자율에 따른 채권 가격
- 7문단: 채권의 장단점

13 세부 정보 파악

정답 ③

정답 해설 7문단에서 채권은 신용 평가 회사들에 의해 등급 공개가 이루어진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 ① 1문단에 따르면, 발행된 채권과 주식은 모두 자본을 조달하는 수단으로 이용된다.
- ② 3문단에 따르면, 변동 금리 채권은 이자 지급액이 이자를 지급하는 기간마다 달라진다.
- ④ 1문단에 따르면, 채권은 발행 시에 채무자가 지급해야 하는 이자와 상환 금액이 확정되어 있거나 또는 그 기준이 확정되어 있다.
- ⑤ 4문단에 따르면, 무이표 채권은 액면가를 현재 가치로 환산한 값이므로 무이표 채권은 항상 액면가보다 낮게 발행된다.

14 내용의 인과 관계 파악

정답 ⑤

정답 해설 6문단에 따르면, 채권의 가격은 시장 이자율에 반비례하여 변동된다. 결국 만기 이전에 채권을 판다고 할 때, 판매 시기의 시장 이자율이 구매 시기의 시장 이자율보다 높을 경우 구매 시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채권을 팔아야 한다.

오답 해설

- ① 6문단에 따르면, 채권의 균형 가격은 시장 이자율에 반비례하여 변동된다.
- ② 1문단에 따르면, 채권의 액면가는 발행 시에 정해진다.
- ③ 3문단에 따르면, 표면 금리가 변하는 것은 변동 금리 채권이다.
- ④ 2문단에 따르면, 이표 채권의 경우 발행자는 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이는 만기가 된다고 발행자에게 반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15 중심 내용 파악

정답 ①

정답 해설 1문단에 따르면, 금융 상품은 투자성이 있는 금융 투자 상품과 투자성이 없는 비금융 투자 상품으로 나눌 수 있는데, 채권은 금융 투자 상품에 속하므로 'ㄱ'에는 '그리함.'이 들어가야 적절하다. 2문단에 따르면, 주식의 경우 순이익 발생 여부에 따라 배당 정책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ㄴ'에는 '그릴 수 있음.'이 들어가야 적절하다. 7문단에 따르면, 채권은 주식과 달리 매도 당일에 출금이 가능하여 현금화하기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하였으므로 'ㄷ'에는 '가 능함.'이 들어가야 적절하다.

16 구체적 사례 적용

정답 ⑤

정답 해설 3, 4문단의 채권 가격을 구하는 수식에 따르면 액면가의 현재 가치는 $\frac{M}{(1+y)^n}$ 이다. 이때 y는 시장 이자율이므로 ⑤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 ① 4문단에 따르면, 모든 이자 지급액의 현재 가치와 액면가의 현재 가치를 합한 값이 채권의 균형 가격(P)이 되므로 적절하다.
- ② 1문단에 따르면, 채권 1장의 가치를 '액면가'라고 하고 이것이 만기 시점에 채권 보유자에게 상환해야 할 원금이 되므로 적절하다.
- ③ 3문단에 따르면, 시장 이자율이 만기 수익률이기도 하다. ⑦의 발행 가격을 안다면 시장 이자율을 계산할 수 있으므로 '만기 수익률'을 계산할 수 있는 셈이다.
- ④ 6문단에 따르면, 시장 이자율이 표면 금리보다 높을 경우 채권의 가격은 액면가보다 낮게 되므로 적절하다.

17 단어의 의미 파악

정답 ⑤

정답 해설 ㉔의 의미는 '어떤 사정이나 사실, 현상 따위를 나타내 보인다.'이므로

로 문맥상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⑤이다.

오답 해설

- ① '평하거나 논하다.'의 의미로 쓰였다.
- ② 확인·강조의 뜻을 나타낸다.
- ③ '어떠한 사실을 말로 알려 주다.'의 의미로 쓰였다.
- ④ '무엇을 부탁하다.'의 의미로 쓰였다.

[18~23]

채득기, 「봉산곡」 / 이침, 「원수」

㉒ 채득기, 「봉산곡」

해제 | 이 작품은 채득기가 35세 되던 해인 1638년에 볼모로 잡혀간 소현 세자와 봉림 대군을 모시러 청나라의 심양으로 가면서 지은 가사이다.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하는 작품 중에 작자가 분명히 전한다는 점에서 이 작품은 가사 문학사상 귀중한 자료로 주목받고 있다.

주제 | 왕명을 받들어 먼 길을 떠나는 신하의 심회

구성 |

- 서사: 은거지를 찾게 된 과정
- 본사 1: 은거지인 경천대의 자연 경물 칭송
- 본사 2: 임금의 명을 받아 은거지를 떠나는 심회
- 결사: 임금의 은혜를 갚고 은거지로 돌아오고 싶은 소망

㉓ 이침, 「원수」

해제 | '원(原)'이란 한문 문체의 하나로 사물이나 현상의 근원을 탐색하며 의견을 논하여 진술하는 글이다. 현상만 보는 단편적인 시각과 숨은 원리까지 아는 지혜를 대조해 주제를 부각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 작품은 물의 근원을 통찰하는 글로, 물의 속성을 밝혀 인재를 등용하는 일에 있어서도 물의 근원을 보는 것처럼 해야 함을 말하고 있다. 또한 유주의 방식을 통해 자연의 속성을 인간사로 확장해 나가고 있으며, 성현의 말을 인용하여 자신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주제 | 물의 근원에 대한 통찰과 인재 등용 비판

구성 |

- 1문단: 땅 위에서는 보이지 않는 물의 근원
- 2문단: 물의 근원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 3문단: 물의 근원을 알아내어 우물을 만든 경험
- 4문단: 사람의 본성을 헤아려 등용하는 일의 중요성
- 5문단: 물의 근원을 아는 것의 중요성

18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

정답 ⑤

정답 해설 (가)의 '어느 누구 일이라 잠시인들 머물겠는가', '동해 물 어찌 퍼올려 이 굴욕 씻을런가' 등에서, (나)의 '은미한 것도 알고 드러난 것도 아는 자가 아니면, 누가 능히 이를 살피겠는가.', '또 어찌 이 물과 다르겠는가.' 등에서 질문의 형태를 활용하여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

오답 해설

- ① (나)에서 심리적 거리감을 드러내기 위해 원경과 근경을 대비하는 부분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 ② (나)에서 내면적 갈등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이를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하는 방식을 통해 드러내지는 않았다.
- ③ (가)에서 현실의 부정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이를 구체적 사물을 추상적 시간으로 형상화하여 드러내지는 않았다.
- ④ (나)의 '방울방울'에서는 음성 상징어를 통해 상황을 생동감 있게 제시하고 있지만, (가)에서는 그러한 방식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19 소재의 기능 파악

정답 ⑤

정답 해설 ㉔는 '이 굴욕 씻을런가'를 볼 때 치욕을 청산하고 싶은 화자의 심정이 반영된 소재라고 할 수 있고, ㉕는 '그 근원은 알지 못함과 같다.'를 볼 때 현상에만 집착하는 이들에 대한 글쓴이의 비판이 반영된 소재라고 할 수 있다.

오답 해설

- ① ㉔를 통해 굴욕을 씻는다는 점에서는 화자에게 내면의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소재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㉕가 글쓴이에게 심리적 위안을 주는 소재로 보기는 어렵다.

- ② ⑥를 통해 인재 등용에 대한 글쓴이의 심경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는 현실에 대한 글쓴이의 불만이 반영되는 소재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③가 자연 친화적 태도를 갈구하는 화자의 소망이 반영된 소재로 보기는 어렵다.
- ③ ③를 통해 치욕을 청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화자에게 근심과 시름을 떨쳐 내게 하는 소재로 볼 수도 있지만, ⑥가 글쓴이에게 과거의 굴욕을 떠올리게 하는 소재로 보기는 어렵다.
- ④ ④를 통해 자연 속에서 느끼는 화자의 고독감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 그리고 ⑥를 통해 인재 등용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지만 글쓴이의 심경 변화를 드러내는 소재로 보기는 어렵다.

20 화자의 태도 및 어조, 정서 파악

정답 ②

정답 해설 '굴욕이 이리한데 꿇은 무릎 언제 펴까'에서 굴욕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우리 임', '임금'과 관련한 것으로, 자신이 과거에 저지른 잘못을 반성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오답 해설

- ① '쓸데없는 이 한 몸을 찾으시니 망극하구나'에서는 재주 없는 자신을 임금이 알고 찾아 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드러내었다.
- ③ '삼백 년 예악 문물이 어디로 갔단 말고'에서는 고유의 전통이라 할 수 있는 예악 문물을 잃어버린 당대 사회의 모습을 안타까워하는 화자의 마음을 드러내었다.
- ④ '아무리 힘들다고 대의를 잊겠는가'에서는 대대로 은혜를 입었으니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왕명을 따르겠다는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었다.
- ⑤ '방 안에서 눈물 내면 아녀자의 태도라'에서는 부정적 현실에 대해 슬퍼하고 만지지 않겠다는 생각을 드러내었다.

21 감상의 적절성 평가

정답 ③

정답 해설 화자는 '우리 임 생각하니' '이국의 겨울 달을 누 땅이라 바라보며' '타국 풍상을 어이' 겪을지 걱정했다. 이는 심양으로 향하며 소현 세자와 봉림 대군을 떠올리고 심란해하는 것과 관련된다. 자신의 앞날을 걱정하며 심란해하고 있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답 해설

- ① 화자는 '시비 영욕 다 버리고 갈매기와 늑' 고자 했다. 이를 통해 세속을 떨리하고 은거지였던 상주의 경천대, 즉 자연 속에서 살아가고자 소망했던 작가의 태도를 엿볼 수 있다.
- ② 화자는 '심양 가라'는 왕명을 받고 '잠시인들 머물겠'냐고 한다. 이를 통해 신하로서 왕명을 받들고 볼모로 잡혀간 소현 세자와 봉림 대군을 모시러 지체 없이 청나라의 심양으로 떠나고자 하는 작가의 생각을 엿볼 수 있다.
- ④ 화자는 '생사'를 '깃털처럼 여기고' '왕명 좇아 다니'겠다고 한다. 이를 통해 충군의 태도와 결의를 다지는 작가의 태도를 엿볼 수 있다.
- ⑤ 화자는 '성은'을 '갖고 다시 돌아오'겠다고 한다. 이를 통해 신하의 도리를 다한 후 다시 자신의 은거지인 경천대로 돌아오겠다는 작가의 희망을 엿볼 수 있다.

22 서술상의 특징 파악

정답 ②

정답 해설 (나)는 유추의 방식을 통해 자연의 속성을 인간사로 확장해 나가고 있는 글이다. 즉 물의 속성을 밝혀 인재를 등용하는 일에 있어서도 물의 근원을 보는 것처럼 해야 함을 말하고 있다.

오답 해설

- ① 물의 근원에 대한 통찰, 인재 등용에 대한 비판을 드러내고 있는 글로, 여러 공간에서 발생한 사건을 병치하여 입체감을 주고 있지 않다.
- ③ 현재와 과거의 삶의 대비가 드러나 있지도 않고, 과오를 성찰하는 모습도 드러나 있지 않다.
- ④, ⑤ 현상만 보는 단편적인 시각과 숨은 원리까지 아는 지혜를 대조해 주제를 부각하고 있는 글로, 종교적 깨달음을 일반화하거나 통념의 한계를 수용할 것을 중용하고 있지 않다.

23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 ⑤

정답 해설 '물을 보는 데는 방법이 있으니, 반드시 그 물결을 보라.'는 맹자가 언

급한 것이다. 글쓴이는 이를 변주하여 '물을 보는 데는 방법이 있으니, 반드시 그 근원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라고 언급하였다. 하지만 이것이 성현의 지혜를 섭렵하여 물에 숨겨진 원리를 통찰해 내야 함을 드러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답 해설

- ① '사람들이 다 반충·동백·곤륜·민산에서 나오는 것만 알고, 그것이 이 네 산에 달하기 전의 근원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라고 하며,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물의 근원은 지상에 드러나 있지 않다는 생각을 드러내었다.
- ② '은미한 것도 알고 드러난 것도 아는 자가 아니면, 누가 능히 이를 살피겠는가. 이것을 사람들이 다 같이 보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하며, 겉으로 드러난 물의 모습만을 볼 뿐 물의 근원에 대해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의 인식을 드러내었다.
- ③ '하동에 있을 때에 집 곁에 작은 샘이 있는데, 그 근원이 수풀 속에 파묻혀 나오는 방향을 알지 못하므로, 이웃 사람들이 더러운 흙에서 나오는 것이라 억측하고, 더럽게 여겨 먹지 않으려 하였다.'라고 하며, 단편적인 현상만 보는 시각이 팽배한 현실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드러내었다.
- ④ '사람이 세상에 쓰이고 버림을 당하는 것도 이와 비슷함이 있다.'라고 하며, 사람이 세상에 쓰이고 버림을 당하는 현실과 물의 근원을 겉부 지어 인재를 등용할 때에 사람의 본성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함을 드러내었다.

[24~26]

김수영,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 이형기, 「호수」

㉠ 김수영,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해제 | 이 시에서 화자는 자신의 소시민적 행동을 고백하고 있다. 화자는 힘 있는 자에게는 반항하지 못하면서, 힘없는 자에게는 사소한 일로 흥분하는 자신의 모습을 성찰한다. 커다란 불의에는 대항하지 못하면서 사소한 것에만 흥분하고 분개하는 자신의 모습을 반성하고 있는 것이다. 시인은 이 시를 통해 자유를 억압하는 정치권력에 정면으로 대항하지 못하고 방관하는 지식인의 무능과 허위의를 폭로하며 진지한 자기반성을 하고 있는 것이다.

주제 | 사회적 부조리에 저항하지 못하는 삶의 태도에 대한 반성
구성 |

- 1연: 조그만 일에 분개하는 '나'의 옹졸함
- 2연: 사회 부조리 대신 작은 일에 반항하는 '나'
- 3연: 포로수용소 시절부터 이어져 온 옹졸한 태도
- 4연: 무기력한 자신의 모습에 대한 인식
- 5연: 절정에서 비켜서 있는 '나'의 삶
- 6연: 옹졸하게 반항하는 현재의 삶
- 7연: 자조적인 자기반성

㉡ 이형기, 「호수」

해제 | 이 작품에서 화자는 청춘이 쇠락하는 자리에서 인생과 존재에 대해 깊이 성찰함으로써 존재의 본질을 발견하고 있다. 이때 '호수'는 화자의 내면적 동일화의 대상이 된다. 결국 사랑이 지배하던 청춘이 소멸해 감을 바라보면서 화자는 기다림의 눈을 지니게 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 기다림은 일종의 성숙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주제 | 호수와 같은 기다림의 태도

구성 |

- 1연: '너'를 기다리는 '나'
- 2연: 청춘이 지나간 '나'의 모습
- 3연: 사랑에 대한 '나'의 태도
- 4연: 고요해진 호수의 모습
- 5연: 기다림에 대한 '나'의 인식

24 표현상의 특징 파악

정답 ①

정답 해설 (가)는 '찾아오는 야경꾼들만 증오하고 있는가' 등에서 스스로의 모습에 대한 화자의 부끄러움을 표현하고 있다. (나)는 '이렇게 고요해질 수 있는 신비는 어디서 오는가'에서 호수의 모습 및 내면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표현하고 있다.

오답 해설

- ② (가)에서는 '모래야', '바람아 먼지가 돌아'가, (나)에서는 '너'가 시 표면에 드러나긴 하나, (가), (나) 모두 의지적인 어조라고 보기 어렵다.
- ③ (가), (나) 모두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대상의 경이로움을 나타내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 ④ (가)의 '떨어지는 은행나무잎'과 (나)의 '어느덧 잎 지는'에 계절감이 드러나고 할 수 있으나 자연의 순환을 표현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 ⑤ (가)와 (나) 모두 후각적 이미지를 찾기 어려우며, 공간의 따뜻한 분위기도 찾기 어렵다.

25 시어, 시구의 의미와 기능 파악

정답 ⑤

정답 해설 (가)의 '바람'은 '모래', '먼지', '풀'과 유사한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작고 보잘것없는 자연물에 해당한다. 따라서 '바람'에게 화자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를 확인하는 것은 현재의 소시민성을 부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나)의 '바람'은 호수를 일렁이게 하는 것으로, 짙은 날의 눈물, 사랑과 연결된다. 다시 말해 화자의 과거 모습과 연결되는 소재라고 할 수 있다.

오답 해설

- ① (가)의 '바람'은 보잘것없는 존재로서 화자와 동일시된다고 볼 수 있으나, (나)의 '바람'이 화자가 닮기를 바라는 대상인 것은 아니다.
- ② (가)의 '바람'은 화자의 소망을 기원하는 소재가 아니며, (나)의 '바람'도 화자의 소망을 상징하는 소재로 해석하기 어렵다.
- ③ (가)의 '바람'은 화자가 '이성'을 찾게 해 주는 소재가 아니라 화자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부각하게 하는 소재이며, (나)의 '바람'이 화자와 본성을 연결하는 소재로 볼 근거를 찾기 어렵다.
- ④ (가)의 '바람'은 화자의 소시민성을 부각한다는 점에서 화자의 고뇌와 연결될 수 있으나, (나)의 '바람'이 화자의 고뇌를 해소해 준다고 보기 어렵다.

26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 ①

정답 해설 (가)에서 '너스들과 스펀지를 만들고 거즈를 / 개기'된 것은 '용출한 나의 전통'으로 평가되는 것은 맞지만, '왕궁의 음탕'과 다름없는 것은 아니다. '왕궁의 음탕'은 '나'가 저항해야 하는 일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 ② (가)에서 '조금쯤 옆으로 비켜서 있'는 화자의 상태는 조그마한 일에만 분개하는 화자의 모습에 해당하는 것으로 '절정 위에는 서 있'는 것과 대조된다. 그리고 화자는 이를 비겁한 것이라 평가하고 있다.
- ③ (나)에서 '잎 지는 이 호숫가'의 모습은 '너'를 기다리는 현재의 이미지이며, 이는 '나무와 같이 무성하던 청춘'과 대조되는 쇠락한 모습이다.
- ④ (나)에서 '어길 수 없는 약속'처럼 조용히 '너를 기다리'는 화자의 모습은 화자의 기다림의 태도를 나타내며, '호수처럼 눈을 뜨고 밤을 새'우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다.
- ⑤ (가)에서 '야경꾼들만 증오하'는 것은 조그마한 일에 해당하는 것으로,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는 것과 대조된다. 또한 (나)에서 '조용히 우러르는 / 눈'은 화자의 현재의 모습으로, '사랑'이 '나를 울리'는 과거의 모습과 대조된다.

[27~30]

작자 미상, 「흥계월전」

해제 | 이 작품은 여주인공이 부모와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게 되는 내용을 다루면서 남녀 간의 애정을 함께 다룬 소설이다. 남성보다 우월한 여성이 영웅으로 등장하는 영웅 소설의 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여성 영웅의 전쟁 활약을 다루어 군담 소설의 성격도 지니고 있다. 이를 통해 이 작품에는 여성의 봉건적 역할을 거부하는 근대적 가치관이 담겨 있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이는 조선 후기 여성 의식의 성장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주제 | 여성 영웅의 수난과 극복

전체 줄거리 |

흥무의 딸로 태어난 계월은 장사랑의 난으로 다섯 살 되던 해에 부모와 헤어지게 된다. 이후 계월은 여공에 의해 구조되어 그의 아들 보국과 함께 성장한 후, 전쟁에 나가 공을 세우고 헤어졌던 부모와도 만난다. 계월이 여자임이 밝혀지자 천자가 계월을 용서하고 보국과 혼인할 것을 명하고 계월은 보국과 혼인하게 되나, 계월이 보국의 애첩을 죽인 일로 보국과 계월이 불화를 겪는다. 이후 전쟁 중 위기에 처한 보국과 천자를 구한 계월은 대사마 대장군에 봉해지고, 오랫동안 부귀영화를 누린다.

27 구성 및 서사 구조의 이해

정답 ⑤

정답 해설 계월과 보국의 대화, 보국과 여공의 대화 등을 통해 계월과 보국의 갈등이 심화되는 과정이 드러나고 있다.

오답 해설

- ① 과거와 현재를 교차하여 사건을 입체적으로 전개하고 있지 않다.
- ② 배경 묘사를 통해 인물의 신분이 변화하는 과정을 드러내는 부분은 찾기 어렵다.
- ③ 두 공간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을 병렬적으로 배치하고 있지 않다.
- ④ '갑주'라는 소재가 반복하여 등장하지만, 이 소재가 인물의 가치관 변화를 암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28 작품의 내용 이해

정답 ①

정답 해설 '천자 태사관을 불러 택일할새'라고 하였으므로 보국의 부모가 결혼 날짜를 직접 지정한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 ② '다시는 군례를 하지 못할까 하오니 이제 망중 군례나 차리고자 하오니 이 뜻을 천자에게 상달하소서.'에서 군례를 하고자 하는 계월의 뜻을 알 수 있으며, '위공이 즉시 천자에게 주달하니 천자 즉시 군사 오천과 장수 수백여 원을 갑주와 기치, 창검을 갖추어 원수께 보내니'에서 천자가 계월의 뜻을 허락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③ 계월이 '네 중군의 세로 교만하여 내의 행차를 보고 감히 난간에 걸터앉아 요동하지 아니하고 교만이 태심하니'라고 말하였으므로 적절하다.
- ④ 보국이 '소장은 신병이 있어 치료하옵다가 미처 당치 못하였사오니'라고 말하였으므로 적절하다.
- ⑤ 여공이 '폐하의 덕택으로 현부를 결친하오니 감사하와 아뢴 말씀 없나이다.'라고 말하였으므로 적절하다.

29 대화의 특징 파악

정답 ②

정답 해설 [A]는 전일 부하로 부리던 보국을 다시 부리지 못할까 하여 희롱하는 것이라는 계월의 속마음을 설명해 주는 여공의 말이다. [B]는 계월이 보국보다 능력이 좋음에도 아내로서의 예를 갖추었으며, 영춘이 거만하다가 죽었으므로 계월을 탓할 수 없음을 설명하는 여공의 말이다.

30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 ④

정답 해설 보국이 계월의 방에 들지 아니하는 것은 계월이 영춘을 죽인 것에 불만을 가지고 하는 행동으로, 당대 남성들에게 요구되는 가치에 굴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오답 해설

- ① 계월이 여복을 벗고 갑주를 갖추는 것은 군례를 위한 것으로, 이는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바탕으로 보국을 희롱하기 위함이다.
- ② 작품에 드러난 여성의 우월함이 조선 후기의 여성들의 정서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때, 보국이 몸을 굽히는 모습에는 그러한 정서가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 ③ 계월이 무사를 통해 영춘을 베는 것은 계월의 높은 지위를 바탕으로 하는 것으로 남성적 질서에 따른 것이다.
- ⑤ 계월이 남자 못됨을 분하여 눈물을 흘리는 것에는 보국에 대한 불만이 담겨 있으며, 여기에는 자신이 남자였으면 겪지 않았을 대우라는 계월의 심리가 반영되어 있다.

[31~34]

최일남, 「부끄러움」

해제 | 이 작품은 친일 행위를 했던 '나'와 아사무라(조기철)의 모습을 통해 부끄러움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하는 소설이다. 성인이 된 '나'가 자신의 어린 시절을 고백적으로 회상하며 성찰하는 방식으로 서사가 전개되는 작품으로, 미성숙한 가치관으로 인해 옳고 그름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던 어린 시절 '나'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주제 | 부끄러움의 의미

전체 줄거리 |

한때의 친일 행위로 인해 평생을 속죄하며 부끄러움으로 살았던 아사무라(조기철)의 부음을 듣고 '나'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회상한다. 일제 강점기 시절 조기철은 자신의

이름을 순일본식 이름의 '아사무라'로 바꾸고 일본식 복장을 입고 일본인 행세를 한다. '나' 역시 친구들에게 친일파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일본화를 위해 갖은 노력을 다 한다. 하지만 일본의 행복으로 세상이 다시 바뀌자 아사무라는 자신을 역사의 죄인으로 여기며 두문불출하고 부끄러움을 속죄하며 살아간다. 성인이 된 '나'는 불일이 있어 고향에 간 김에 그를 찾아가고, 그와 이야기를 나누며 그의 부끄러움이 '신념'보다 강하게 한 인간의 생애를 붙들어 매는 동아줄보다 튼튼한 삶의 울'이 되었을 것이라 여긴다. 장례식에 참석한 '나'는 그의 관이 땅에 묻힐 때 그가 역사를 알고 그 역사 속에 파묻힐 줄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31 작품의 내용 이해

정답 ⑤

정답 해설 '나는 나 자신의 일본화 노력뿐만 아니라, 나 이외의 다른 아이들이 조선인으로 머물러 있거나, 일본인화하는 데 주춤거리는 모습을 가만 놔두지 않았다.'를 볼 때 조선인으로 머물러 있는 친구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 ① "'요꾸 양또루, 기미와 릿빠나 고꾸민다(잘한다, 너는 훌륭한 국민이야.)' / 여전히 전투모에 국민복을 입은 그의 칭찬을 듣자 나는 기분이 좋았다.'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다.
- ② '그때 내 최상의 목표는 소년 비행 학교에 들어가는 것이었다.'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다.
- ③ '우리 아버지는 죽었다 깨어나도 아사무라 면장 같은 저런 품모는 지니지 못할 것이라고 여겼었다.'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다.
- ④ '시속의 변화라고 하면 그만이었으나, 그 시속 앞에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도 있는가를 생각하면, 어떤 때는 약간의 무섭증이 들기도 하였다.'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다.

32 작품의 종합적 이해와 감상

정답 ⑤

정답 해설 '이래도 되는 것인가? 이래도 괜찮은 것인가에 대해 더러는 회의에 빠지는 적도 있었다.'라는 내용은 어린 시절의 '나'가 '시속 앞에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도 있는가'에 대한 인식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후 '나'는 회의가 들 때마다 회의를 털어 버리고 일본화에 노력을 더욱 가속화했다고 했으므로 이는 성인의 시점에서 과오를 고백하며 성찰하는 주인공의 모습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답 해설

- ① '온 세상이 일본화로 치닫고 충성된 신민으로서의 몸가짐을 강요당했'다는 점을 볼 때, 일제 강점기를 배경으로 한 소설임을 알 수 있다.
- ② 주인공인 '나'는 '일본 국민이 되기에는 아직 멀어 보'이는 '부모까지도 원망'하며 자신이라도 '먼저 훌륭한 일본인이 되'려 한다. 이는 어린 시절 주인공의 미성숙한 가치관을 드러내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 ③ '나'의 '아버지, 어머니'의 얼굴은 '가난과 일에 찌들어' '심산유곡의 형상을' 한 것으로 그려져 있다. 이를 통해 우리 민족의 가난했던 삶의 일면을 엿볼 수 있다.
- ④ 아사무라는 '별 볼 일 없는 면 서기에 불과했'지만 '열렬한 일본인이 되어' 면장의 지위에 오른다. 이를 통해 아사무라가 일본화를 통해 얻은 권세를 확인할 수 있다.

33 서술상의 특징 파악

정답 ②

정답 해설 '나'는 '학교에 나갔다 하면' 충성된 신민으로서의 몸가짐을 강요당하는 '교육만 받는 처지'였고, 이에 '나'의 '의식은 그런 쪽으로 굳게 응고될 수밖에 없었다. 이를 통해 학교 교육이 학생들을 세뇌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었음을 직접 드러내었다. 그러나 ㉠에서는 반어를 활용하지 않았다.

오답 해설

- ① '나'가 어린 시절 살던 마을의 사람들은, '남자는 무릎이 불쑥 나오고 땃국이 데레 데레 낀 핫바지 저고리'를 입고, '여자는 삼베에 검정 물을 들인 치마'를 입었다. ㉠에서는 마을 사람들의 일반적인 복장과 비교되는, 면장의 모습('하오리에 계다(왜 나막신)를 끌고 다니는')을 묘사하며 이를 '천하에 둘도 없는 만화같은 풍경'으로 비유하고 있다.
- ③ '나'는 '새로운 세상이 당도하여,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자랑스럽기 짝이 없는 제대로의 일본인이 될 수 있는데' 자신의 아버지, 어머니는 세상의 변화에 적응하지 않고 '알량한 자기를 고수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 불만을 느낀다. ㉡에서는 세상의 변화에 적응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던 부모에 대한 불만을 어린 시절

'나'의 시점에서 서술하고 있다.

- ④ '나'는 '군마를 먹이기 위한 마초 베기, 비행기 연료로 쓴다는 피마자 열매 따기, 그리고 우리 교실을 텅텅하기 위한 솔방울 따기 등에 동원될 때마다' 있는 힘을 다했다. ㉢에서는 '전쟁에 이기는 데 필요한 일을 해내는 데 있어 나의 모든 것을 바치려고 마음먹'고 자신이 노력했던 바를 나열의 방식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 ⑤ 남보다 더 많이 하려고 노력하였던 '나'의 의지는 '알게 모르게 드러나' 그 노력을 '아사무라 면장이 먼저 인정을 해' 준다. ㉣에서는 이런 '나'의 의지가 헛된 것이 아니었음을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관용 표현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34 구절의 의미 이해

정답 ⑤

정답 해설 '아마 모르면 몰라도 아사무라 면장도 나와 비슷한 입장이었을 것이다.'와 같이 '나' 자신과 면장의 처지가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여겼다. 그리고 '그는 일단 올라탄 배이므로, 거기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인지도 몰랐다.', '처음부터 그 길이 옳다고 생각하고 달리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었다.'와 같이 면장의 생각을 짐작해 보았다.

오답 해설

- ① 특별한 공간적 배경을 드러내지 않았다.
- ② 면장과의 갈등이 해소되는 과정을 보여 주지 않았다.
- ③ 여러 경우의 수를 떠올려 보았다고 할 수도 있으나, 면장의 행동에 드러난 모순을 지적하지 않았다.
- ④ 면장이 앞으로 겪을 수 있는 일을 예측하지 않았다.

[화법과 작문]

35 협상 표현 전략 사용하기

정답 ②

정답 해설 아파트 입주인 대표의 일곱 번째 발언을 보면, 합의 도출을 위해 자신의 입장을 일부 양보하여 도서관 이름과 아파트 이름을 병기하는 대안을 제안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도서관에 '도서 기증' 등의 경제적 지원까지 제안함으로써 상대방에게 혜택을 제시하여 합의를 도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지역 주민 대표는 명칭의 유래가 공공 기관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기준으로 정류장 명칭의 공공성을 따져 보고 있다. 하지만 아파트 입주인 대표는 두 번째 발언에서 시설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공익적인 목적의 유무로 공공성을 판단하고 있다. 즉 공공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명칭의 유래'가 아닌 '공익적 목적의 유무'로 설정하는 식으로 공공성에 대한 관점을 달리하여 지역 주민 대표의 말을 반박하고 있다(㉡).

아파트 입주인 대표는 네 번째 발언에서 아파트 신축 덕분에 버스 정류장이 신설되었음을 언급하고 있다. 즉 정류장이 신설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아파트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자기 측이 기여한 바를 강조하여 유리한 위치를 선점함으로써 자신의 주장에 힘을 얻고자 하고 있다(㉢).

오답 해설

- ① 상대방의 제안에 반영된 의도를 직설적으로 언급한 것으로는 '지역 주민 대표'의 두 번째 발언을 들 수 있다. '아파트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려는 사적인 목적'이라고 함으로써 아파트 입주인들이 자신들의 경제적 이득을 추구하려는 의도가 있음을 직설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 ② 공공시설물 지침에 관한 배경지식을 활용한 것은 '지역 주민 대표'이다. 이는 '실제로 이를 제한하는 법적 규정이 있습니다.'라는 두 번째 발언과 '공공시설물 관련 매뉴얼'을 토대로 명칭 선정 우선순위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는 여섯 번째 발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지식을 활용하여 상대방의 제안이 지침에 위배되는 것임을 지적하고 있다.

36 협상 내용 이해하기

정답 ④

정답 해설 [A]에서 아파트 입주인 대표는 입주인 규모가 1,000세대임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자신의 제안을 지지하는 인원이 많다는 정보를 드러내어 상대측을 압박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지역 주민 대표는 '인원이 많다고 능사는 아니'라며 지지하는 인원이 많은 것이 주장의 타당성을 입증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즉 인원수와 같은 비본질적인 요소가 사안 해결의 기준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하여 상대측의 압박을 무력화하고 있다.

오답 해설

- ① 아파트 입주민 대표는 공공시설물 명칭 선정 기준에 대한 법적 강제성을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 주민 대표는 법적 강제성에 대한 지역적 차이가 있을 가능성을 제시했을 뿐 법적 강제성을 확신하지는 않았다.
- ② 아파트 입주민 대표는 다른 구의 사례를 제시하여 기초 단체마다 공공시설물 관련 지침에 대한 적용이 같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형평성의 위배를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 주민 대표는 기초 단체 간의 차이가 있어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일 뿐, 차별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적극적인 입장을 피력하는 것은 아니다.
- ③ 아파트 입주민 대표는 입주민이 구청에 집단 반발을 할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정류장 명칭을 둘러싼 갈등의 책임 소재가 구청에 있는 것처럼 주장했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지역 주민 대표는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선불리 약속한 건설 회사의 책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책임 소재를 두었다고 볼 수 없다.
- ⑤ 아파트 입주민 대표는 공공시설물 관련 지침을 따르지 않은 다른 지역의 사례를 제시하여 그 지침이 강제 조항이 아니므로 엄격하게 따를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해당 지침에 근거하여 아파트 명칭을 사용해서 안 된다는 상대측의 반박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반면, 지역 주민 대표는 지자체의 재량에 따라 지침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다른 지역의 사례를 우리 지역에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즉 다른 지역의 사례에서 드러나는 부작용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의 사례를 논거로 삼아 지침의 강제성을 부인하는 상대측의 논리를 비판하는 것이다.

37 협상 맥락 분석하기

정답 ②

정답 해설 ㉠은 지역 주민 대표가 특정한 집단의 사유 재산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정류장 명칭이 정해져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한 발언이다. 아파트 입주민 대표가 아파트를 지역의 '랜드마크'라고 지칭함으로써 가장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지역 주민인 것처럼 표현했지만, 실상은 아파트의 가치가 높아져서 가장 이득을 보는 사람들은 아파트 소유자들이지 지역 주민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따라서 ㉠은 상대방의 발언에 드러난 논리적 허점을 지적하기 위한 문제 제기이다. ㉡은 도서관이 원래부터 있었을 때 신설되지 않았던 정류장이 아파트 신축 이후에 신설되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진술이다. 이는 도서관 이용객의 불편 해소를 위해 정류장이 신설되었다는 상대방 발언의 논리적 허점을 지적하기 위한 문제 제기이다.

오답 해설

- ① ㉠, ㉡ 모두 상대방의 발언에 드러난 논리적 허점을 지적하기 위한 질문에 해당한다.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단순한 의도의 질문이 아니다.
- ③ ㉠, ㉡ 모두 상대방의 발언에 드러난 논리적 허점을 지적하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 자신의 제안에 대한 상대방의 의문을 짐작한 것이 아니다.
- ④ ㉠, ㉡ 모두 상대방의 발언에 드러난 논리적 허점을 지적하려는 의도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답변 기회를 차단하려는 목적을 지닌다고도 볼 수 없고 상대방이 모를 만한 정보를 바탕으로 질문했다고도 볼 수 없다.
- ⑤ ㉠, ㉡ 모두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상대방의 발언에 드러난 논리적 허점을 지적해 반박하려는 의도이다.

38 다양한 맥락을 고려한 작문

정답 ③

정답 해설 1문단에 따르면, (가)는 재능 기부 봉사 활동 선발 방식의 개선을 요청하는 건의문이다.

오답 해설

- ① 3문단에 따르면, 학생회에서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 재능 기부 봉사 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이 많았다고 하였으므로 예상 독자인 학생회에서 공동체의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 ② (가)는 공동체의 문제의 원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보고서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요청하는 건의문이라고 할 수 있다.
- ④ 1문단에 따르면, '학생회 누리집 게시판'에 게시한 글로 이는 개인적인 성격이 강한 매체가 아니다.
- ⑤ 4문단에서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자는 면접 방식을 선발 절차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39 건의 글쓰기 내용 이해, 평가하기

정답 ③

정답 해설 4문단에서는 면접을 선발 절차에 포함시키는 것을 요구하고 있을 뿐 과거의 면접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해설

- ① 3문단에서 재능 기부 봉사 활동의 선발 방식으로 인한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
- ② 3문단에서 재능 기부 봉사 활동 선발 방식의 문제를 제시하면서 설문 조사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 ④ 4문단에서 유사한 문제 상황을 겪은 학교들이 선발 방식을 개선하여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인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 ⑤ 5문단에서 학생들의 만족도 및 학생회에 대한 신뢰도 제고라는 기대 효과를 제시하고 있다.

40 대화 내용 이해, 평가하기

정답 ⑤

정답 해설 '학생 1'은 마지막 발화에서 논의의 결론을 정리하고는 있으나, 이는 '학생 2'와 '학생 3'의 발화를 종합한 것일 뿐, 자신의 추가 의견을 더한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 ① '학생 1'의 네 번째 발화에서 '학생 2'와 '학생 3'의 의견을 결합하여 간소화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 ② '학생 1'의 세 번째 발화에서 '학생 2'와 '학생 3' 의견의 장단점을 생각해 보자고 제안하고 있다.
- ③ '학생 1'의 두 번째 발화에서 모든 지원자를 대상으로 하는 긴 면접을 추가하지 않으면서도 재능과 열의를 갖춘 지원자를 선발해야 한다고 제안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 ④ '학생 1'의 첫 번째 발화에서 학생회 누리집 게시판에 올라온 글을 논의의 계기로 삼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41 대화 표현 전략 사용하기

정답 ④

정답 해설 [A]에서 제시하는 방안에는 면접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가)의 요구를 수용했다고 할 수 있으며, [B]에서는 인근 학교의 사례를 구체화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오답 해설

- ① [A]에서는 (가)의 주장에 추가 근거가 요구됨을 표명하고 있지 않다. [B]는 (가)에서 제시된 사례를 구체화하고 있으므로 (가)의 주장에 동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② [A]는 (가)의 요구가 잘못되었음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 [B]는 '면접' 도입이라는 (가)의 최우선 요구를 수용하고 있지 않다.
- ③ [A]는 면접을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하므로 (가)의 기대를 충족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B]는 (가)에서 사례로 제시된 대안을 구체화해서 제안하므로 (가)의 기대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⑤ [A]는 (가)에서 제시한 문제보다 더 시급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지 않으며, [B]는 (가)의 요구에 대한 대화 참여자들의 인식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있지 않다.

42 대화 내용 조직하기

정답 ③

정답 해설 서류 전형은 보완하는 방안의 장단점을 검토하면서 '학생 2'는 서류 전형 역시 평가자의 주관에 개입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학생 3'도 평가자의 주관에 배제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오답 해설

- ① '학생 2'는 (가)의 문제의식에 동감하면서 선발된 학생들 중 재능이 부족한 학생이 있었음을 언급하였다.
- ② '학생 3'은 작년에 선발된 학생들 중 봉사 활동을 열심히 하지 않는 학생들이 있었음을 지적하였다.
- ④ '학생 3'은 선발 절차를 나누는 방안은 면접 준비와 실행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 ⑤ 대안을 결합하는 과정에서 '학생 2'는 면접 시간을 5분으로 제한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학생 3'은 봉사 계획서의 최소 분량을 A4용지 2장으로 줄이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43 글쓰기 내용 생성하기

정답 ③

정답 해설 (나)에서는 방학 때의 독서 경험과 관련하여 그 책에서 다루고 있는 김○○ 화백을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소개하고 있다. 박□□ 문화 평론가가 '최소의 선으로 최대의 내용을 담아내는 장인'이라고 찬사한 구절을 인용하여 그 인물을 존경하는 이유를 밝히고 있다. 박□□ 문화 평론가는 책의 저자이기 때문에 저자 외의 다른 권위자의 말을 인용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인용된 발언에서는 김 화백의 작품에서 드러나는 특징을 평가했을 뿐, 김 화백의 업적을 평가하지는 않았다.

오답 해설

- ① (나)의 3문단에서 존경하는 인물인 김○○ 화백과 관련된 책을 읽은 경험을 밝히면서 김 화백처럼 존경을 받는 삽화가가 되겠다는 장래 희망을 밝히고 있다.
- ② (나)의 마지막 문단에서 교지 편집반 동아리 부원이 되면 멋진 삽화를 그리겠다는 활동 포부를 밝히고 있다. 그러면서 김 화백의 뒤를 이을 삽화가이자 만평가를 꿈꾼다는 장래 희망을 다시 언급하면서 강조하고 있다.
- ④ (나)의 2문단에서 그림 그리기와 관련된 활동 경험을 언급하고 있다. 중학교 때 미술 학원에 다닌 내용, 교내의 대회에서 입상한 이력, 고등학교 때 회화반 동아리에서 활동한 경험, 학생회의 부탁으로 웹툰을 만들어 학교 축제를 홍보해 공로상을 받은 이력 등을 밝힘으로써 활동한 순서에 따라 일련의 경험을 순차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⑤ (나)의 4문단에서 '고등학생의 하루'라는 주제하에 7개의 소주제로 나누어서 친구들의 평범한 일상과 감정을 담아낸 만평을 그리겠다는 세부 계획을 밝히고 있다. 더불어 입시 준비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친구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건네고 공감과 재미를 느끼게 만들으로써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다는 창작 의도를 밝히고 있다.

44 내용 점검 및 조정하기

정답 ②

정답 해설 <보기>에서 학생은 성공한 경험만을 선택적으로 다룸으로써 경험의 폭이 제한적으로 보이고 도전 정신이 부족해 보이는 인상을 준다며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따라서 [A]에서 성공한 경험만 다룬 것이 아니라 미술 대회에서의 탈락, 회화반 동아리 활동에서의 시행착오 등 실패하거나 어려움을 겪은 경험도 추가해야 한다. 이를 통해 경험의 다양성이 강조되고 학생의 도전 정신이 드러날 수 있으므로 <보기>에서 요구하는 적절한 수정 방향이라고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 ① 탈락, 실수 등 실패한 경험을 다루려는 것은 적절하나 임원 선거나 봉사 활동은 그림과 관련된 활동이 아니다. 따라서 '그림 그리기'와 관련된 활동 경험을 다루어야 한다는 (가)의 자기소개서 요건에서 벗어났다.
- ③ 성공한 경험만을 다룬 것을 보완하자는 취지이므로, 성공하지 못했던 경험을 추가하면 된다. 굳이 기존에 작성한 대회 수상 경력을 삭제할 필요는 없다.
- ④ 성공한 경험만을 다룬 것을 보완하자는 취지이므로, 성공하지 못한 경험을 추가하는 것이 적절한 수정 방향이다. 각종 미술 대회와 축제 홍보 등 현재 다루고 있는 성공 경험에만 한정해서 참여 계기를 설명하는 것은 <보기>에서 요구하는 수정 방향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A]에는 각종 미술 대회에 출전하게 된 계기, 학교 축제 홍보 웹툰 그리기에 참여하게 된 계기가 이미 구체적으로 진술되어 있다.
- ⑤ 성공한 경험만을 다룬 것을 보완하자는 취지이므로, 실패한 경험을 추가하는 것이 적절한 수정 방향이다.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다는 것도 성공한 경험에 한정된 것이기 때문에, 성공한 경험에만 주목한 초고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에서 <보기>의 수정 방향에 해당하지 않는다.

45 고쳐쓰기의 적절성

정답 ③

정답 해설 앞선 구절에서 필자는 김 화백의 삶을 보며 존경을 받는 삽화가가 되겠다는 장래 희망을 갖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각종 신문사의 삽화와 만평을 비교하고 디지털 드로잉을 배우며 그림 연습을 하는 현재의 노력이 드러나고 있다. 장래 희망의 결심이 장래 희망을 이루기 위한 노력으로 이어지는 문맥적 흐름을 고려했을 때, ㉠은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의 원인이나 근거, 조건 따위가 될 때 쓰는 접속 부사'인 '그래서'로 수정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렇지만'은 '앞의 내용을 인정하면서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대립될 때 쓰는 접속 부사'이므로 자연스럽지 않다. '그래도' 역시 '뒤 문장의 내용이 앞 문장을 양보한 사실과는 상관이 없음을 나타내는 접속 부사'이므로 자연스럽지 않다.

오답 해설

- ① 해당 진술은, 글자를 배우기 전에 책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던 것은 삽화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베풀어 준 은혜나 도움'을 의미하는 말인 '덕분'을 추가하여 '삽화 덕분에이었습니다'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 ② '내면'은 '물건의 안쪽, 밖으로 드러나지 아니하는 사람의 속마음'을 뜻한다. '글'은 구체적 형태를 갖춘 물건도 아니고 사람의 속마음도 아니기 때문에 '내면'이라는 어휘와 어울리지 않는다. '겉으로 나타나거나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뜻하는 '이면'으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 ④ 해당 문단은 교지에 실을 만평을 구상한 계획을 설명하는 문단이다. 소주제의 골자, 만평에 담은 내용, 창작 의도를 설명하는 흐름 중에 학생의 집필 계획과 무관한 정보인 '만화'와 '만평'의 요건에 대한 이론적 설명이 포함되어 있다. 문단의 중심 내용과 어울리지 않으므로 삭제해야 한다.
- ⑤ 앞 구절에서는 자신의 만평에서 학생들의 일상을 담은 내용을 다루고 싶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어진 구절에서는 친구들에게 공감과 재미, 위로와 격려를 건네고 싶다는 창작 의도를 밝혔다. 즉 일상의 내용을 통해 친구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베풀고 싶다는 의미로 연결되는 흐름이다. 이러한 의미적 연결 관계를 고려하여 '이를 통해'를 삽입하는 것이 적절하다.

[언어와 매체]

35 품사의 특성

정답 ③

정답 해설 '그가 밖에를 보지 않았다.'의 '밖에를'은 '밖+에+를'로 분석된다. 여기에서 '에를'은 부사격 조사와 목적격 조사가 결합한 예라고 할 수 있다. 보조사 '밖에'는 결합되지 않았다.

오답 해설

- ① '그녀는 친구조차도 외면했다.'의 '친구조차도'는 '친구+조차+도'로 분석된다. 여기에서 '조차'와 '도'는 모두 보조사로, '조차도'는 보조사끼리 결합한 예라고 할 수 있다.
- ② '형이 너하고는 닮았다.'의 '너하고는'은 '너+하고+는'으로 분석된다. 여기에서 '하고'는 두 단어나 구를 같은 자격으로 이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접속 조사가 아닌 부사격 조사라 할 수 있다. 즉 '하고는'은 부사격 조사와 보조사가 결합한 예라고 할 수 있다.
- ④ '학교에서만 가능한 일이다.'의 '학교에서만'은 '학교+에서+만+이'로 분석된다. '에서만'은 부사격 조사, 보조사, 주격 조사가 결합된 것으로, 두 개의 격 조사 사이에 보조사가 결합한 예라고 할 수 있다.
- ⑤ '나는 소식을 너에게로부터 들었다.'의 '너에게로부터'는 '너+에게+로+부터'로 분석된다. '에게로부터'는 부사격 조사 두 개와 보조사 한 개가 결합한 예라고 할 수 있다.

36 시대·사회에 따른 국어 자료 탐구

정답 ②

정답 해설 '올사(올+사)'는 목적격 조사와 보조사가 겹쳐 실현된 예이다. 격 조사와 보조사가 겹쳐 실현되었다는 점에서 '아츠미논'의 '인'과 동일한 유형이라 할 수 있다. 둘 다 보조사가 격 조사 뒤에 온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격 조사가 보조사 뒤에서 실현되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 ① '잇(잇+시)'은 부사격 조사와 관형격 조사가 겹쳐 실현된 것이다. 현대 국어와 마찬가지로 부사격 조사가 다른 격 조사보다 선행하였다.
- ③ '괘(괘+시)'는 접속 조사와 주격 조사가 겹쳐 실현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正齒齶'의 '왜(왜+시)'와 동일한 유형이다.
- ④ '와로서(와+로+서)'와 '브터서(브터+서)'에는 동일한 형태를 가진 보조사 '서'가 사용되었다.
- ⑤ '괘(괘+시)'에는 접속 조사 '과'가, '와로서(와+로+서)'에는 접속 조사 '와'가 실현되었다. 하지만 나머지 예에서는 접속 조사가 실현되지 않았다.

37 국어의 음운 변동

정답 ①

정답 해설 '살리--+어라 → [살려라]'에서는 j-반모음화가 일어난다. 하지만 '(우산울) [퍼서]'는 반모음화와 상관이 없다. '퍼다'는 '접히거나 개긴 것을 젖히어 벌리다.'라는 의미의 한 단어로, 'ㅣ'로 끝나는 용언 어간 뒤에 '-어'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답 해설

- ② '지우--어라 → [지워라]'에서는 w-반모음화가 일어난다. '(기술을) [배워서]'도 '배우--어서 → [배워서]'에서처럼 w-반모음화가 일어난다.
- ③ '살리--어라 → [살려라]', '지우--어라 → [지워라]'에서 보듯이 반모음화가 일어나면 음절의 개수가 4개에서 3개로 줄어든다.
- ④ '살리-나' '지우-'에 어미 '-어', '-어도', '-어야'를 결합하더라도 '[살려/살려도/살려야]', '[지워/지워도/지워야]'에서처럼 반모음화가 일어난다.
- ⑤ 'ㅣ'가 'ㅜ'로, 'ㅜ'가 'ㅗ'로 바뀐 것에 주목할 때, 'ㅣ'와 음성적으로 유사한 반모음은 'ㅣ'이고 'ㅜ'와 음성적으로 유사한 반모음은 'ㅗ'라고 할 수 있다.

38 단어 배열법에 따른 합성어 종류

정답 ⑤

정답 해설 '걸어가다'(용언의 연결형+용언 어간), '큰집'(용언의 관형사형+명사), '팔죽'(명사+명사)은 국어의 문장 구성 방식에 맞는 통사적 합성어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어간이 어미 없이 다른 용언의 어간과 바로 연결된 '검붉다'나 자립성이 없는 어근이 바로 명사를 꾸며 주는 '보슬비', 어간이 어미 없이 바로 명사에 연결된 '접칼'과 같은 단어는 국어의 문장 구성 방식에 맞지 않는 비통사적 합성어에 해당한다.

39 문장의 짜임과 활용

정답 ②

정답 해설 ㄱ에서 '다섯', ㄴ에서 '우리'는 모두 체언을 꾸며 주는 문장 성분인 관형어이다. '우리'는 체언이 그대로 관형어로 쓰인 것에 해당하지만, '다섯'은 관형사가 그대로 관형어로 쓰인 것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 ① ㄱ에서 '살이'의 '이'는 보격 조사로 '살이'는 보어이다. 하지만 ㄴ에서 '모듬이'의 '이'는 주격 조사로 '모듬이'는 주어이다.
- ③ ㄱ에서 '예쁜'은 용언 어간 '예쁘-'에 관형사형 어미 '-ㄴ'이 결합된 형태이고, ㄴ에서 '성실한'은 용언 어간 '성실하-'에 관형사형 어미 '-ㄴ'이 결합된 형태이다. 둘 다 문장에서 관형어로 쓰였다.
- ④ ㄱ의 '되었다'는 주어와 보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지만, ㄴ의 '여겼다'는 주어, 목적어, 부사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세 자리 서술어이다. '되었다'는 목적어를 요구하지 않지만, '여겼다'는 목적어를 요구한다.
- ⑤ ㄱ에서 '정말로'는 문장에서 생략이 가능한 부사어이다. ㄴ에서 '본보기로'는 필수적 부사어로 문장에서 생략이 불가능한 부사어이다.

40 매체 소통의 특성

정답 ⑤

정답 해설 '상은'이 대화방에서 문자 언어를 사용하고는 있으나 음성 언어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다. 문자 언어와 음성 언어를 함께 사용해 의사소통함으로써 정보 전달의 정확성을 높이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 ① '연구'는 '쓸 만한 음악 두 개를 링크할게. / https://○○○.kr/경쾌한_분위기.mp3 / https://○○○.kr/무거운_분위기.mp3'와 같이 하이퍼링크를 통해 대화 내용과 관련한 자료를 공유하고 있다.
- ② '연구'는 '역시 상은이야! 😊', '나도 동의! 😊'와 같이 이모티콘을 활용하여 상대의 의견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③ '성국'은 '그런데 누구나 사용해도 되는 음악인지는 확인해 보아야겠다.'와 같이 공유된 자료가 저작권 위배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해 볼 것을 언급하고 있다.
- ④ '상은'은 '오전에 이야기한 내용을 정리한 문서 파일을 공유해 줄게. / [첨부파일] 공익_광고_제작.txt (유효 기간:~2023.11.16.)'와 같이 자신이 소유한 파일을 다른 학생들에게 파일 첨부 기능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41 매체 자료의 생산

정답 ④

정답 해설 연구가 '첫 장면부터 경쾌한 분위기의 음악이 흐르다가, 장면 #4부터는 무거운 분위기의 음악이 흐르게 하자.'라는 의견을 내었지만, (나)의 제작 계획서에서 장면 #3에만 <음악> 경쾌한 분위기와 같이 음악에 대한 언급이 드러나 있다. 이로 보아 ㉠이 (나)에 반영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 ① 장면 #4에 카페 직원이 종이컵을 만들기 위해 도끼로 나무를 베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 ② '깡! 깡!'과 같이 장면 #4에 나무를 도끼로 찍을 때 나는 음향을 함께 넣어 주었다.
- ③ 장면 #7에 공장 레일을 따라 이동하는 종이컵을 보여 주었고, 장면 #8에 카페에서 직원이 커피를 따르는 종이컵을 보여 주었다.
- ⑤ 장면 #10에 종이컵이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42 매체 언어의 표현과 가치

정답 ③

정답 해설 성국, 상은, 연구의 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나무가 자라는 데는 오래 걸린다는 내용, 종이컵을 사용하는 시간이 짧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고, 구체적 수치 및 대구적 표현을 활용해야 한다. 이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문구로 '자라는 데는 30년, 버려지는 데는 3분'이 적절하다.

오답 해설

- ①, ②, ④ 대구적 표현이 활용되었으나 구체적 수치가 없고, 나무가 자라는 데는 오래 걸린다는 내용, 종이컵을 사용하는 시간이 짧다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 ⑤ 구체적 수치 및 대구적 표현, 종이컵을 사용하는 시간이 짧다는 내용이 반영되었다. 하지만 나무가 자라는 데 오래 걸린다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43 매체의 소통 방식

정답 ④

정답 해설 ○○ 대학 연구진은 스크린 타임의 역기능에 초점을 두어 인터뷰를 하고 있다. 순기능과 역기능을 모두 언급하며 균형 잡힌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 ① 진행자는 '호주 ○○ 대학의 연구 결과, 지난해 청소년들의 스크린 타임은 크게 늘어난 반면, 그린 타임은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와 같이 호주 ○○ 대학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언급하며 보도를 시작하고 있다.
- ② 기자는 '스크린 타임은 영상에 노출되는 시간, 그린 타임은 자연에 노출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와 같이 '스크린 타임'과 '그린 타임'의 의미를 밝히며 보도 내용에 대한 시청자의 이해를 높이고 있다.
- ③ 기자는 '충분한 그린 타임은 정서의 안정, 신체 리듬의 효율적인 조절, 적절한 수면 패턴 유지 등에 영향을 주어 청소년의 정신 건강에 긍정적인 작용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와 같이 충분한 그린 타임을 갖는 것이 청소년의 정신 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부각하고 있다.
- ⑤ 기자는 '청소년 정신 건강 문제 발생과 직결될 수 있는 것인 만큼 스크린 타임과 그린 타임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와 같이 스크린 타임과 그린 타임에 대한 관심이 필요함을 촉구하며 보도를 마치고 있다.

44 매체 언어의 표현 방법

정답 ③

정답 해설 [C]의 화면에서는 전문가의 강연(자료 화면)을 활용하고 있다. 전문가와의 인터뷰 영상은 활용하지 않았다.

오답 해설

- ① [A]의 화면 화면에 제시된 자막인 '늘어난 스크린 타임과 줄어든 그린 타임'을 [B]~[D]의 화면 왼쪽 상단에 보여 주며 보도의 중심 내용을 드러내고 있다.
- ② [B]의 화면은 보도에서 언급된 '호주 ○○ 대학'의 실제 연구 보고서의 일부분을 보여 주며 보도의 신뢰성을 드러내고 있다.
- ④ [D]의 화면 하단에서는 '다음 뉴스' 독감 다시 확산세... 청소년층, 유행 기준 3배 육박'이라는 자막을 활용하여 다음에 이어질 보도의 중심 내용을 보여 주고 있다.
- ⑤ [A]~[D]의 화면 오른쪽 하단에서는 수어를 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 주며 음성 언어가 아닌 방식으로 보도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45 매체 언어의 표현

정답 ②

정답 해설 ㉠과 ㉡을 비교할 때 '지도시키고'가 '지도하고'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불필요하게 쓰인 사동 표현을 삭제한 것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 ① 외국어 '스크린 타임'을 우리말로 순화하여 표현하지 않았다.
- ③ 이중 피동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다.
- ④ '지도시키고'가 '지도하고'로 바뀌었으나, 이는 중의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 ⑤ 문장 성분이 추가되지 않았다.

01 ④	02 ②	03 ②	04 ⑤	05 ②
06 ⑤	07 ④	08 ②	09 ⑤	10 ⑤
11 ③	12 ⑤	13 ④	14 ③	15 ④
16 ①	17 ②	18 ③	19 ③	20 ⑤
21 ③	22 ②	23 ②	24 ③	25 ⑤
26 ④	27 ③	28 ③	29 ①	30 ⑤
31 ③	32 ③	33 ⑤	34 ④	
화법과 작문	35 ⑤	36 ⑤	37 ②	38 ②
	39 ④	40 ④	41 ④	42 ⑤
	43 ③	44 ⑤	45 ⑤	
언어와 매체	35 ④	36 ③	37 ③	38 ⑤
	39 ④	40 ④	41 ②	42 ⑤
	43 ③	44 ③	45 ⑤	

[01~06]

원핵생물의 개념과 분류 / 원핵생물의 유전자 전달 방식

㉠ 원핵생물의 개념과 분류

해제 | 이 글은 원핵생물의 개념을 밝히고 그 특징을 소개하면서 다양한 기준에 따라 원핵생물을 분류하여 제시하고 있다. 원핵생물은 핵막이 없는 원핵 세포로 되어 있는 생물로, 산소를 만들어 내기도 하고 유전적인 다양성을 증가시키는 데 기여한다. 원핵생물의 세포에는 DNA가 있으나 핵막이 없으며, 인간에게 대체로 무해하다. 원핵생물은 그 형태에 따라 분류할 수 있고, 탄소원이나 에너지원, 산소의 필요 유무에 따라서도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분류를 통한 원핵생물의 지칭은 해당 원핵생물의 특징을 잘 드러낸다.

주제 | 원핵생물의 개념과 종류

구성 |

- 1문단: 산소를 생산하고 유전적인 다양성을 증가시키는 원핵생물
- 2문단: 원핵생물의 개념과 특징
- 3문단: 원핵생물의 다양한 분류
- 4문단: 인간에게 대체로 무해한 원핵생물

㉡ 원핵생물의 유전자 전달 방식

해제 | 이 글은 원핵생물의 유전자 전달 방식을 설명하고 있다. 원핵생물은 유전자를 수직적으로도 전달하고 수평적으로도 전달한다. 수평적 전달이란 동일한 세대의 생물체 간에서도 유전자가 직접적으로 이동하거나 다른 매개 수단을 이용해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유전자의 수평적 전달은 형질 전환, 형질 도입 등의 과정을 통해 일어나는데, 형질 전환과 형질 도입을 통해 전달된 유전자는 이를 받은 세포에 새로운 형질을 부여해 주게 된다.

주제 | 원핵생물의 유전자 전달 방식

구성 |

- 1문단: 유전자의 수직적 전달과 수평적 전달
- 2문단: 원핵생물의 수직적 전달
- 3문단: 원핵생물의 수평적 전달
- 4문단: 형질 전환과 형질 도입의 과정

01 서술상의 특징 파악

정답 ④

정답 해설 (가)에서는 원핵생물을 형태에 따라, 탄소원에 따라, 에너지원에 따라, 산소의 필요 유무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나)에서는 원핵생물의 유전자 전달 방식을 수직적 전달, 수평적 전달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수평적 전달을 형질 전환과 형질 도입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오답 해설

- ① (가)에서는 원핵생물이 지구 생물권의 필수적인 집단이라고 하였지만 그 연구의 필요성을 역설하지는 않았다. (나)에서 원핵생물 연구가 어려운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았다.

- ② (가)에서 원핵생물의 개념과 특징을 소개한 것은 맞지만, (나)에서 원핵생물이 인간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지는 않았다.
- ③ (가)에서 많은 사람은 원핵생물을 병원균으로 인식한다며 원핵생물에 대한 통념을 제시하였지만, (나)에서는 원핵생물에 대한 통념이 지닌 과학적 오류를 설명하지는 않았다.
- ⑤ (가)에서 원핵생물이 지구 생물권에서 중요한 생물이라고는 하였지만 생물계에서 원핵생물의 지위에 대해 분석한 것은 아니다. (나)에서 원핵생물의 유전에 대해 설명한 것은 맞지만, 원핵생물의 유전과 생물학적 진화의 관계를 설명하지는 않았다.

02 세부 내용 파악

정답 ②

정답 해설 (나)의 2문단에서 세포 분열이 일어나기 전 원핵 세포의 DNA는 세포 중심부의 핵양체에 존재하고, 세포 분열이 일어나면 DNA가 세포막에 부착된다고 하였다. 원핵 세포가 핵막이 없는 이유가 DNA가 세포막에 부착되어 있기 때문은 아니다.

오답 해설

- ① (가)의 4문단에서 원핵생물은 인간에게 대체로 무해하다고 하였고 고세균은 일반적인 세균과 다르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원핵생물 중 병원성을 갖고 있는 것도 있음을 알 수 있다.
- ③ (가)의 4문단에서 고세균은 세균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직사각형인 경우도 있다고 하였다. 원핵생물 중에 구균, 간균, 나선균에 해당하지 않는 것도 있는 것이다.
- ④ (가)의 3문단에서 원핵생물이 증식이나 생식을 하는 데 필요한 탄소 화합물에 대해 언급하였다.
- ⑤ (나)의 3문단에서 원핵 세포에서는 유전자의 수평적 전달도 일어난다고 하였고, (나)의 1문단에서 수평적 전달이란 동일한 세대의 생물체 간에서도 유전자가 직접적으로 이동하거나 다른 매개 수단을 이용해 이동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를 통해 동일한 세대의 생물체 간에서도 유전자 전달이 일어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03 세부 내용 추론

정답 ②

정답 해설 (나)에서는 원핵생물의 유전자의 수평적 전달에 대해 설명하며, 이때 전달된 유전자는 이를 받은 세포에 원래는 갖고 있지 않았던 새로운 형질을 부여해 주게 된다고 하였다. 이 때문에 원핵생물은 유전적인 다양성을 증가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오답 해설

- ① 하나의 세포가 두 개의 세포로 증식하는 것은 이분법인데, 이는 유전자의 수직적 전달에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수직적 전달은 원핵생물만의 특징은 아니다.
- ③ 형질 도입의 과정에서 복제된 박테리오파지의 DNA가 숙주 내에서 생성된 또 하나의 바이러스 구성 성분인 단백질과 함께 조립되어 새로운 박테리오파지를 만든 후 숙주 세포를 망가뜨린다. 원핵생물이 숙주 세포인 세균을 완전히 파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다.
- ④ 이분법은 유전자의 수직적 전달에서 이루어진다. 원핵생물은 수직적 전달뿐만 아니라 수평적 전달을 통해서도 유전자를 전달한다.
- ⑤ 형질 도입의 과정에서 복제된 박테리오파지의 DNA가 외부로 방출된다. 또한 원핵생물의 DNA가 유전적 형질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원핵생물이 유전적인 다양성을 증가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04 내용의 인과 관계 파악

정답 ⑤

정답 해설 자연계에 존재하는 박테리오파지의 수가 대단히 많다는 것은 유전자의 이동이 많을 수 있음을 의미하지만, 박테리오파지는 특정한 세균만을 숙주로 하기 때문에 형질 도입에 의한 유전자의 이동은 제한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

오답 해설

- ① 현재 학자들에 의해 발견되어 유전자은행에 등록된 원핵생물은 약 14,000종이지만 자연계에 최소 100,000종, 최대 1,000,000종이 존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하였으므로, 현재까지 발견된 원핵생물보다 더 많은 수가 지구상에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 ② 화학 합성 영양생물은 유기물이나 무기물을 산화시켜 에너지를 얻는 생물이다. 원핵생물의 모양은 한 개체의 경우에도 영양물질의 양과 같은 요인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였으므로 유기물이나 무기물의 공급 정도에 따라 그 모양이 달라질 수 있다.

- ③ 에너지원이 태양광인 생물을 광합성 영양생물이라고 하고, ATP 합성을 위해 산소가 필요하면 호기성 생물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어떤 원핵생물이 호기성 광합성 영양생물이라면 태양광으로부터 에너지를 얻고 산소를 필요로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④ 세포 분열이 일어나면서 DNA가 세포막에 부착되고 DNA의 복제가 두 방향으로 시작되는데, 복제되고 있는 두 DNA 가닥의 부착점의 가운데 부분에서 세포막의 성장이 일어나기 때문에 DNA 가닥들이 서로 멀어지게 되는 것이다.

05 구체적 사례 적용

정답 ②

정답 해설 <보기 1>은 한 세포로부터 다른 세포로 특정한 형질이 그대로 전달되는 사례로, 형질 전환에 해당한다. Ⅲ형 페렴 쌍구균의 형질이 Ⅱ형 페렴 쌍구균에 전달되었기 때문에 열처리되어 파괴된 Ⅲ형을 Ⅱ형과 함께 혼합하여 쥐에게 주입하였을 때 쥐가 죽게 되는 것이다. 형질 도입은 하나의 세포에서 다른 세포로 DNA가 전달될 때 박테리오파지를 매개체로 삼으며, 세균에 박테리오파지의 DNA가 복제된다.

06 단어 사용의 적절성 파악

정답 ⑤

정답 해설 '파괴하다'는 '때려 부수거나 깨뜨려 헐어 버리다.'라는 뜻으로, ㉠와 바뀌 쓰기에 적절하다.

오답 해설

- ① '습득하다'는 '학문이나 기술 따위를 배워서 자기 것으로 하다.'의 뜻이다.
- ② '폭로되다'는 '알려지지 않았거나 감춰져 있던 사실이 드러나다.'의 뜻이다.
- ③ '표출되다'는 '겉으로 나타나다.'의 뜻이다.
- ④ '발견되다'는 '미처 찾아내지 못하였거나 아직 알려지지 아니한 사물이나 현상, 사실 따위가 찾아내지다.'의 뜻이다.

[07~10]

구조적 폭력에 대한 베나민과 아렌트의 견해

해제 | 이 글은 제도화된 구조적 폭력에 대한 베나민과 아렌트의 견해를 설명하고 있다. 근대 사회에서 폭력은 반문명과 야만의 요소로 여겨졌기 때문에 제도화된 구조 자체의 폭력에 대한 비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베나민은 제도화된 구조적 폭력에 대한 비판 견해를 제시한 학자로, 폭력을 '승인된 폭력'과 '승인되지 않은 폭력'으로 구분하고 법 정립적이거나 법 보존적인 폭력을 신화적 폭력으로 개념화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신화적 폭력을 중단할 수 있는 순수한 수단으로서의 폭력을 신적 폭력이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제시하였다. 한편 아렌트는 권력은 그 자체로 정당성이 보증되지만 폭력은 도구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정당화를 필요로 한다고 하면서, 권력과 폭력은 대립적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아렌트의 이러한 견해는 베나민의 견해를 진전시킨 것이라고 평가된다.

주제 | 구조적 폭력에 대한 베나민과 아렌트의 견해

구성 |

- 1문단: 폭력을 반문명과 야만의 요소로 여기는 근대 사회의 관점
- 2문단: 구조적 폭력에 대해 비판한 베나민의 견해
- 3문단: 신화적 폭력과 대비되는 개념으로서의 신적 폭력
- 4문단: 권력과 폭력을 구분하여 설명한 아렌트
- 5문단: 아렌트의 폭력론에 대한 평가

07 세부 내용 파악

정답 ④

정답 해설 아렌트의 폭력론이 베나민의 신적 폭력에 대한 이해를 진전시킨 것이라고는 언급하였지만, 아렌트가 베나민의 폭력에 대한 구분이 체계화되어야 한다고 말하였다고 언급하지는 않았다. 그 까닭에 대해서도 설명하지 않았다.

오답 해설

- ① 2문단에서 베나민은 어떤 행위가 폭력이 되는 것은 그것이 윤리적 상황에 개입할 때 가능한 것이기에 폭력은 본원적으로 법과 관련될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베나민은 승인된 폭력과 승인되지 않은 폭력을 구분하는 주체가 바로 법이라고 주장하였다고 하였다.

- ② 3문단에서 베나민의 관점은 우리가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폭력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일깨웠다는 점에서 가치를 인정받았다고 하였다.

- ③ 4문단에서 아렌트가 권력을 폭력으로 보완하거나 대체하려는 시도는 권력의 상실을 의미하거나, 권력의 본질을 명령과 복종으로 환원하고자 하는 욕망에서 비롯하는 것이기 때문에 권력이 폭력을 수단으로 요구하는 순간 이미 그 권력은 몰락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라고 하였다고 언급하였다.

- ⑤ 1문단에서 근대의 사회 이론들에서 폭력에 대한 철학적 접근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였다. 또한 폭력을 이성과 합리에 기반한 근대 사회에서 극복되어야 하는 반문명과 야만의 요소라고 보는 관점으로 인해 제도화된 구조 자체의 폭력에 대한 비판이 유예되었다고 하였다.

08 생략된 내용 추론

정답 ②

정답 해설 폭력을 인간의 파괴적 본성으로 간주하는 시각이 폭력을 근대의 문명화 과정과 대립하는 것으로 보는 관점으로 이어졌다고 하였다. 이성과 합리에 기반한 근대화, 문명화 과정이 파괴적 본성에 기인하는 폭력과 대립하고 그것을 극복한다는 인식은 근대화되고 문명화된 사회 구조에서 어떠한 폭력도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낳는다. 이 때문에 근대 사회의 제도화된 구조적 폭력을 인지하거나 비판하는 일이 유예된 것이다.

오답 해설

- ① 근대 사회에서 폭력을 인간의 반문명적 본성으로 여긴 것은 맞지만, 폭력을 교육을 통해 제어할 수 있다는 관점을 강조하여서 폭력에 대한 비판이 유예된 것은 아니다.
- ③ 폭력을 인간의 파괴적 본성으로 간주하고, 근대 사회에서 극복해야 하는 반문명적 요소라고 본 것이다. 근대 사회의 법과 제도에 야만성이 내재할 수밖에 없다고 본 것은 아니다.
- ④ 근대 사회에서는 인간의 파괴적 본성을 인간 본성으로 간주하고 폭력을 일탈적인 것이며 문명화의 주변적인 현상으로 여기고 이를 극복해야 할 요소라고 보았다. 폭력을 제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본 것이 아니며, 이 때문에 폭력에 대한 비판이 유예된 것도 아니다.
- ⑤ 근대화의 목적이 인간의 폭력성을 제어하는 것에 있었던 것은 아니며, 인간의 폭력성을 근대화의 일탈적이고 주변적인 현상이라고 인식하였다.

09 내용의 인과 관계 파악

정답 ⑤

정답 해설 신적 폭력은 법과 관련성을 갖지 않는다. 신적 폭력은 법 정립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적 폭력은 정당화를 필요로 하지 않는 순수한 폭력이다. 법과 폭력 사이의 관련성을 폐기함으로써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 ① 베나민에 따르면, 법에 의해 승인된 폭력과 승인되지 않은 폭력이 구분되는 것이 법 정립적 폭력이다. 이러한 법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법 보존적 폭력이 자행된다. 이때 법은 실정법을 전제로 한다. 한편 신적 폭력은 목적에 의한 정당화를 필요로 하지 않는 순수한 수단으로서의 폭력으로, 법 정립을 요구하지 않는다. 실정법을 통해 확인될 수 없는 것이다.
- ② 신적 폭력은 목적에 의한 정당화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신화적 폭력은 신적 폭력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법적 목적을 좇는다.
- ③ 신화적 폭력은 법 정립적이거나 법 보존적인 폭력으로, 제도화된 구조적 폭력이다. 이는 법으로 운영되는 사회 구조 안에 폭력이 내재해 있음을 증명한다.
- ④ 베나민에 따르면 법 정립적 폭력은 영속성과 적용 가능성을 관찰하기 위해 법 보존적 폭력으로 나아간다.

10 다른 견해와의 비교

정답 ⑤

정답 해설 (C)에 따르면, 빈민들이 배고픔을 못 이겨 슈퍼마켓을 약탈하고 불태운 것을 그 누구도 비난할 수 없다. 이러한 빈민들의 행위는 국가의 폭력으로 인한 반응이라고 보는 것이다. 베나민은 이러한 빈민들의 행위가 제도화된 폭력과 대립하는 행위라고 인정할 것이며, 아렌트는 공동체의 합의에 의해 권력을 양도 받은 사람이 공동체 전체를 위한 행위를 해야 한다고 말할 것이다. 아렌트가 폭력이 권력을 생산할 수 없다고 본 것은 맞지만, 권력의 정당화를 위해서 이러한 인식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한 것은 아니다. 아렌트는 권력은 그 자체로 정당성이 보증된다고 하였다.

오답 해설

- ① (A)에서는 권력을 갖게 된 사람은 폭력을 끊어 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폭력이 권력에 내재한 것이 아니라 권력과 구분되는 것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폭력과 권력을 구분하여 제시한 아렌트의 생각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 ② (A)에서는 공동체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통해 구조적 폭력을 중지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신적 폭력을 통해 신화적 폭력, 즉 법과 폭력의 연결을 중지해야 한다고 말한 베냐민의 생각과 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 ③ (B)에서는 순수한 수단으로서의 폭력은 인간에게 가능하지도 않고 절박하지도 않으며 확실하게 인식될 수도 없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목적에 의한 정당화를 필요로 하지 않는 순수한 수단으로서의 폭력인 신적 폭력을 상징하고 강조한 베냐민의 주장과 대립한다고 할 수 있다.
- ④ (C)에서는 빈민들이 배고픔을 못 이겨 슈퍼마켓을 약탈한 행위는 법의 기준에서 부정적인 행위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빈민들의 행위가 법에 의해 승인되지 않은 폭력이기 때문에, 폭력이 법에 규정된다는 베냐민의 생각과 관련 있다고 할 수 있다.

[11~14]

물권의 개념과 특징

해제 | 이 글은 물권의 개념과 종류, 그리고 물권의 특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특정한 물건을 독점적으로 지배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물권이라고 하며, 크게 점유권과 본권으로 구분된다. 소유권은 본권에 해당하는 물권으로 승계 취득과 원시 취득에 의해 취득할 수 있다. 원시 취득을 발생시키는 취득 시효는 물권에 대한 소유권을 획득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소유 의사를 가지고 20년 이상 평온하고도 공연하게 점유하면 부동산에 대한 원시 취득을 획득할 수 있다. 이때 점유 기간을 계산하기 위한 기산점을 정할 때에는 역산설과 고정시설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거래상의 안전을 위해 원칙적으로 고정시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주제 | 물권의 개념과 종류 및 취득 시효에 의해 본권을 취득하는 방법

구성

- 1문단: 물권의 개념
- 2문단: 물권의 종류 - 점유권과 본권
- 3문단: 소유권의 개념과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법
- 4문단: 취득 시효를 통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획득하기 위한 요건
- 5문단: 기산점을 정하는 방법과 우리나라 민법에서 고정시설의 입장을 취하는 이유

11 세부 내용 파악

정답 ③

정답 해설 2문단에서 점유권의 취득 유무를 가릴 때에는 사용 가치나 교환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므로, 특정 물건에 대한 점유권은 그 물건을 다른 물건과 교환할 수 있는 권리 유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 ① 2문단에 제시된 사례처럼, 물건의 점유권을 가진 점유권자와 물건의 본권을 가진 소유권자가 다른 경우도 존재한다.
- ② 1문단에서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특정한 물건을 독점적으로 지배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물권이라고 하였으므로, 물권을 취득한 자는 법률에 의해 해당 물건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④ 2문단에서 본권은 물건이 갖는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의 지배를 목적으로 한다고 하였으므로, 본권의 취득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물건에 대한 교환 가치와 사용 가치의 지배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 ⑤ 3문단에서 본권에 해당하는 소유권은 승계 취득을 통해 취득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승계 취득은 물건의 매매나 상속과 같이 타인의 물권에 기초하여 취득하는 것으로서, 이때 취득하는 물권은 기존의 물권이 지닌 범위를 넘어서지 못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매매를 통해 물권을 취득한 자는 기존의 물권 범위 내에서 해당 물건에 대한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를 지배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12 생략된 내용 추론

정답 ⑤

정답 해설 4문단에서 취득 시효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할 필요가 없다.'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다고 하였다. 취득 시효 기간 중 소유권을 가진 자가 동

일하고 점유 취득 시효가 충족되었다면 원래의 소유자가 물건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유권자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에 해당하므로 보호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소유권보다 점유권을 우선시하는 역산설을 취해도 상관없는 것이다.

오답 해설

- ① ①은 점유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소유권자가 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 ② 소유 의사를 가지고 20년 이상 평온하고 공연한 점유 행위를 한 점유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통해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권리 관계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따라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소유권자의 평온하고 공연한 점유 행위를 인정하는 법적 절차에 해당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③ 역산설은 점유권을 소유권보다 더 우선시하는 것이므로, 역산설을 취하는 것이 소유권을 가진 자의 물권이 점유자가 지닌 물권보다 우선시되기 때문이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④ 점유자의 취득 시효 기간의 기산점을 소유권이 바뀐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역산설과 고정시설 모두와 관련이 없다.

13 구체적 사례 적용

정답 ④

정답 해설 병이 A 토지를 승계한 시점은 2009년 12월 1일로, 이 시점에서는 을이 A 토지를 점유한 시점부터 아직 20년이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병은 A 토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오답 해설

- ① 정이 매매를 통해 A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획득했으므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통해 A 토지에 대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승계 취득에 해당한다.
- ② 갑이 토지를 매매하지 않았다면 A 토지의 소유권자가 동일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역산설에 의해 병은 점유 취득 시효를 위한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주장할 수 있다.
- ③ 을이 사망한 시점인 2009년 12월 1일에는 을이 A 토지를 점유한 시점부터 아직 20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며, 현재 시점은 정이 토지를 매수한 시점부터 아직 20년이 경과하지 않았다. 따라서 두 시점 모두 취득 시효에 의해 A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획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 ⑤ 병이 A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A 토지의 소유권자가 바뀌었으므로, 현재 시점에서 A 토지에 대한 병의 취득 시효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고정시설에 의해 기산점을 산정해야 한다.

14 단어의 의미 파악

정답 ③

정답 해설 ㉠과 '그는 자신의 업무의 권한을 넘어서는 일을 하려고 한다.'의 '넘어서다'는 모두 '일정한 시간, 시기, 범위 따위를 넘어서 벗어나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오답 해설

- ① ㉡는 '어떤 대상을 무엇이라고 이름 붙이거나 가리켜 말하다.'의 의미로 사용되었지만,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아이들에게 이르는 것은 꼭 필요하다.'의 '이르다'는 '무엇이라고 말하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 ② ㉢는 '사람이나 물건 따위를 다른 곳으로 가게 하다.'의 의미로 사용되었지만, '누나가 동생을 시장에 심부름을 보냈다.'의 '보내다'는 '일정한 임무나 목적으로 가게 하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 ④ ㉣는 '지켜야 할 도리나 절차를 따르다.'의 의미로 사용되었지만, '할아버지는 위엄을 갖추고 말하기 시작하였다.'의 '갖추다'는 '필요한 자세나 태도 따위를 취하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 ⑤ ㉤는 '어떤 일에 대한 방책으로 어떤 행동을 하거나 일정한 태도를 가지다.'의 의미로 사용되었지만,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한다.'의 '취하다'는 '자기 것으로 만들어 가지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15~17]

반복적 읽기와 연쇄적 읽기

해제 | 이 글은 다독을 반복적 읽기로 설명하고 반복적 읽기의 과정에서 의문을 해결해 나가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연쇄적 읽기를 통해 글 읽는 사람의 역량을 키울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반복적이고 집중적인 읽기를 통해 책의 내용을 하

나하나 곱씹어 새기는 독서를 할 때 책을 읽는 사람의 역량이 커질 수 있다. 이때 책을 읽으면서 생긴 의문점에 대해 끝까지 답을 찾으려는 노력을 하고, 의문점과 관련된 정보를 다양하게 수집하고 관계를 지어 보려고 하는 적극적 자세가 필요하다.

주제 | 반복적 읽기와 연쇄적 읽기의 중요성

구성 |

- 1문단: 같은 책을 반복적으로 읽는 것의 중요성
- 2문단: 의문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의 중요성
- 3문단: 연쇄적으로 책을 찾아 읽는 것의 중요성

15 세부 내용 파악

정답 ④

정답 해설 이 글에서는 가치 있는 몇 가지 책을 반복적으로 읽음으로써 책의 내용을 완전히 자기화하는 속독, 책을 읽으면서 생긴 의문이 해결될 때까지 자세히 읽는 정독, 책과 관련된 다른 책을 찾아 연쇄적으로 읽기를 강조하였다. 지식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고난도의 책을 읽으라고 하지는 않았다.

오답 해설

- ① 1문단에서 가치 있는 몇 권의 책을 반복적으로 읽음으로써 책의 내용을 완전히 자기화하는 속독을 강조하였다.
- ② 2문단에서 책 속의 내용과 여러 정보를 관계 지어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
- ③, ⑤ 3문단에서 반복적이고 집중적인 읽기를 통해 책의 내용을 하나하나 곱씹어 새기는 독서를 할 때 지식은 체화되고 글 읽는 사람의 역량은 커진다고 하였다.

16 내용 해석의 적절성 평가

정답 ①

정답 해설 '한갓 읽기만 해서는 비록 날마다 백 번 천 번을 읽는다고 해도 읽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한 것은 책의 내용을 완전히 자기화하지 못하고 수박 겉 핥기 식으로 대충 읽는 것을 비판한 것이다. 계획한 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독서 습관에 대한 비판을 드러낸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 ② '한 글자를 읽을 때마다' '자세히 궁구하여'야 한다고 하는 것은 독서에 깊이 몰두하여 내용 하나하나를 음미하면서 자세히 읽는 정독을 강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③ 「자객열전」을 읽으면서 '조란 짓은 무슨 말입니까?' 하고 묻는 것은 책의 구절을 읽으면서 생긴 의문점에 대해 묻는 것이므로 의문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 ④ '사전을 바탕으로 다른 책에 미쳐서 그 풀이와 해석을 살'핀다는 것은 하나의 책을 통해 관련된 정보를 다양하게 찾아보며 꼬리에 꼬리를 무는 연쇄적 읽기를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⑤ '그 지엽적인 의미까지 모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읽은 책이 내일 읽는 책과 연계되면서 다양한 지식과 정보가 모아지고 쌓이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7 적절한 독서 계획 수립과 독서 실천

정답 ②

정답 해설 학생은 독서량을 중시하여 책을 빨리, 많이 읽으려고 했던 독서 방식에 대해 반성하며, 책의 내용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며 깨달은 바를 실천하려고 하고 있다.

오답 해설

- ① 자신의 경험에 대해 언급한 것은 맞지만 독서의 실용적 가치를 강조하고 있지는 않다.
- ③ 속독, 정독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를 실천하려고 하고 있으나 이를 교과 학습에 적용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다.
- ④ 독서 상황에 따라 독서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고 여기지는 않고 있다.
- ⑤ 가치 있는 몇 권의 책을 반복적으로 읽음으로써 책의 내용을 완전히 자기화하는 속독을 중시한 선인들의 독서법에 대해 알게 된 것은 맞지만, 이를 현대인의 독서법과 비교하여 차이점을 분석하고 있지는 않다.

[18~23]

전광용, 「사수」/ 박상연 원작·박찬욱 외 각색, 「공동 경비 구역 JSA」

㉠ 전광용, 「사수」

해제 | 1인칭 서술자 '나'가 회상하는 형식을 통해 간결한 문체를 사용하여 속도감 있게 내용을 전개하고 있는 작품이다. 이 작품은 '나'가 B의 사형을 집행하고 그 충격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장면에서 시작한다. '나'가 과거의 일을 회상하며 자신과 B의 운명적 대결 의식과 그 원인에 대해 탐구하는 식으로 서술하고 있다. 이 작품에서 전쟁은 비극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전쟁에 대한 비판적 의식도 환기하고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주제 | 인간 사이에 존재하는 운명적 대결 의식

전체 줄거리 |

'나'는 병원에서 깨어나 과거를 회상한다. 학창 시절에 곰 선생에게 서로의 뺨을 때리는 벌을 받게 되면서 '나'는 B와의 대결을 시작했다. '나'와 B는 경회를 좋아했다. 그래서 '나'와 B는 경회를 놓고 공기총 대결을 벌이게 되는데, 이 대결에서 '나'는 승리하는 했으나 귓바퀴에 상처를 입는다. 6·25 전쟁이 일어나면서 세 사람은 헤어지게 되었는데, 이후 '나'는 우연히 B와 재회하고 경회가 그의 아내가 된 사실을 알게 된다. B는 이적 혐의로 구속되어 사형 판결을 받고 '나'는 B의 사형 집행수가 된다. 사형이 진행되는 동안 '나'는 일관되지 않은 모순된 감정 때문에 혼란을 느끼다가 사형 집행이 끝남과 동시에 의식을 잃고 쓰러진다.

㉡ 박상연 원작·박찬욱 외 각색, 「공동 경비 구역 JSA」

해제 | 이 작품은 박상연의 소설 'DMZ'를 시나리오로 각색한 작품이다. 이 작품의 서사는 남한군과 북한군이 대치 상태에 있는 공동 경비 구역이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벌어진 충격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추리극 형식으로 전개되고 있다. 남북한 병사의 우정을 그리는 동시에 비극적인 결말을 통해 분단 체제의 모순을 극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분단 문제에 대한 휴머니즘적 접근을 보여 주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주제 | 남북한 병사들의 우정과 분단 현실로 인한 비극

전체 줄거리 |

판문점의 공동 경비 구역 내 '돌아오지 않는 다리' 북측 초소에서 격렬한 총성이 나며 북측 병사 두 사람이 죽는 사건이 벌어진다. 이 사건의 해결을 위해 한국계 중립국 수사관 소피가 파견된다. 사건 현장에 함께 있었던 남한의 이수혁 병장과 북한의 오경필 중사는 서로 상반된 진술을 해 사건의 진실은 미궁으로 빠진다. 사건 발생 전, 수혁은 수색 작전 중에 낙오되었다가 북한군인 경필과 우진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진다. 이 일로 서로 친해지게 된 수혁은 성식을 경필과 우진에게 소개하여 네 사람은 함께 우정을 쌓아 간다. 수사 과정에서 소피의 아버지가 인민군 장교였던 사실이 드러나 소피의 수사관 자격이 문제가 된다. 소피는 수혁을 불러 자신의 추리를 이야기하고 수혁에게 진실을 말해 주면 오경필의 안전을 책임지겠다고 말한다. 사건의 진실을 알게 된 소피는 상부에 사실대로 보고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진을 쓴 사람이 바로 자신이었음을 알게 된 수혁은 죄책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18 서술상의 특징 파악

정답 ③

정답 해설 [A]에서는 목사의 기도가 끝나고 B에게 유언을 물은 상황이 제시된 후, B와의 대결에 대한 '나'의 내면 의식을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다시 다섯 명의 사수가 일렬로 횡대로 서 있고 B의 심장 위에 빨간 형질의 표지가 보이는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전개는 사건을 전개하는 중간에 인물의 내적 독백이 제시됨으로써 사건의 흐름이 지연된 것을 보여 준다.

오답 해설

- ① B의 표정에 대한 언급이 있으나 인물의 외양에 대한 세밀한 묘사를 통해 인물의 성격을 입체적으로 부각하는 서술은 찾지 못했다.
- ② '나'가 B를 사형장에서 만난 사건과 관련하여 '나'의 내면 의식이 제시되어 있다. 동시에 벌어진 사건들을 나란히 배치하고 있지는 않다.
- ④ 서술자는 1인칭 서술자인 '나'로 유지되고 있다.
- ⑤ 이야기 내부의 서술자인 '나'가 자신이 겪은 사건과 관련하여 자신의 내면 의식을 진술하고 있다. 인물의 행위를 관찰하여 제시하고 사건의 원인을 추리하고 있지는 않다.

19 구절의 의미와 기능 파악

정답 ③

정답 해설 ㉠ 앞에서 '나'는 과거를 떠올리고 있다. '나'는 사형장에서 과거를 떠올리다가 '눈을 뜨고' B가 사형수로 서 있는 상황을 응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눈을 떴다'는 ㉠의 진술은 현실 상황을 응시하게 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오답 해설

- ① '나'가 B에 대해 오해했었다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 ② '나'가 사형장에서 과거를 떠올림으로써 과거에 인식하지 못했던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 ③ '나'는 B와의 관계를 돌아보고 있으나, 반성적인 태도로 돌아보는 행위를 하고 있지는 않다.
- ⑤ '나'가 B를 마주 대하고 있는 사형장에서의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사건이 반전되고 있지 않다.

20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 ⑤

정답 해설 '나'는 사형장에서의 B와의 마지막 대결에서 '나는 또 지각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는 대결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못한 자신의 모습에 대한 성찰적 인식이다. 이러한 인식이 들자 '나'는 방아쇠를 당김으로써 B와 대결했다. '나는 또 지각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은 B에 대한 열등감의 산물인 무기력함 때문에 대결을 포기하는 태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오답 해설

- ① '나'는 자신이 사형 집행수이고 B가 사형수가 된 것과 관련해서 '복수의 만족감 같은 회심의 미소를 지을 뻔했던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태도는 대결 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② '나'는 대결을 해 온 B에 대해 '혐오'의 감정을 느끼다가도 '기적 같은 것'이 일어나 B가 사형장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심정도 드러낸다. 이와 같이 일관되지 않은 태도는 '나'가 복잡한 심리 상태에 있음을 나타낸다.
- ③ '나'는 곧 죽게 될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조금도 경악의 표정이 없는 B의 태도를 접하고 '이미 B에게 지고 있는 것'이란 생각을 한다. 이렇듯 B와의 대결에서 지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패배 의식과 관련이 있다.
- ④ '나'가 B와의 대결을 '불가피한 운명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B와의 대결을 숙명적인 것으로 여기는 태도를 보여 준다.

21 인물의 심리, 태도 파악

정답 ③

정답 해설 최 상위가 우진에게 수혁과 성식을 무장 해제시키라고 한 후 쏘라고 명령하자 우진은 도와 달라는 눈빛으로 경필을 바라보았다. 우진이 최 상위의 명령을 듣고 망설임 없이 수혁과 성식에게 총을 겨누었다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 ① 성식은 '아무래도 이상해요.'라고 말하며 긴장을 하더니 이윽고 불안한 마음을 떨치지 못하고 최 상위에게 총을 발사했다.
- ② 경필은 최 상위에게 수혁과 성식이 월북을 상의하러 북쪽 초소에 왔다고 말하였다. 이는 수혁과 성식이 월북하려는 것으로 가장해 최 상위를 설득하려 했음을 보여 준다.
- ④ 최 상위는 초소의 술과 안주들을 보고 경필과 우진이 보초 임무를 수행하지 않고 적군과 노닥거렸다고 나무랐다.
- ⑤ 서로 총을 겨누고 있던 최 상위와 수혁 사이에 경필이 위치하며 최 상위와 수혁의 총구 방향을 아래쪽으로 향하게 하자 수혁은 이제야 살았다는 듯이 이마의 땀을 닦는다. 이는 그가 안도감을 느꼈음을 나타낸다.

22 구절의 의미와 기능 파악

정답 ②

정답 해설 ⑥는 B의 심장을 관통하여 B를 죽이는 데 사용된 도구이다. B의 희생을 초래한 폭력적인 수단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오답 해설

- ① ④는 B가 모반 혐의로 구속되었다는 소식을 '나'에게 전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를 보고 '나'는 B의 집으로 경희를 만나러 갔다. B와는 오랫동안 대결해 왔기 때문에 ④ 때문에 '나'가 B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부정적으로 바뀌었다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③ ⑤는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인물들이 내면의 심정을 겉으로 표출하도록 자극하고 있지 않다.
- ④ ④는 인물들이 대치한 상황에서 긴장감을 심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인물들의 갈등이 머지않아 해소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⑤ ⑥는 인물들이 대치하고 있던 상황에서 총을 쏘는 사건이 발생했음을 나타내고 있다. 극적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르렀음을 나타내므로 사건의 전개 방향이 반전될 것임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23 서사 전개 과정 파악

정답 ②

정답 해설 (가)에서는 긴장감이 고조된 사형장의 상황을 '헛기침 소리 이외에는 아무의 입에서도 말이 없'는 상황에 대한 진술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 자연물들을 하나씩 묘사하는 것을 통해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나)는 인물들의 모습을 차례대로 보여 줌으로써 긴장감이 고조되는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오답 해설

- ① (가)에서 '나'는 언젠가 가족 동반에서 만났던 것이나 B의 집으로 경희를 찾았던 것을 압축적 진술로 제시하고 있다. (나)에서 #83은 경필의 회상 장면이다. 이와 같이 시나리오에서는 인물의 회상을 구체적인 장면으로 보여 준다.
- ③ (가)에서는 '나'의 시점으로 총의 가늠쇠 구멍으로 보이는 B의 가슴 위에 붙은 표지에 대해 진술하고 있으며, (나)에서는 카메라의 시점으로 전등 빛이 총구멍을 통해 초소 밖으로 새어 나가 빗줄기를 비추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 ④ (가)는 1인칭 서술자 '나'의 진술로 이루어져 있다. 이에 따라 '나'가 생각한 내용을 구체적인 진술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경필이 생각에 잠겼다는 사실만을 지시문으로 제시하여 배우가 연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⑤ (가)에서는 사수들이 총을 쏜 상황을 '뽕!'이라는 소리를 인용한 '나'의 진술로 제시하고 있다. (나)에서는 성식이 최 상위에게 총을 쏜 상황을 카메라가 클로즈업한 유리창의 모습을 통해 보여 주고 있다.

[24~27]

허난설헌, 「규원가」

해제 | 이 작품은 조선 시대 규방 가사의 하나로, 남편을 기다리는 여인의 절절한 마음을 노래하고 있다.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기다리는 화자는 남편을 처음 만났던 젊은 시절을 회상하면서, 높고 외로운 처지에 놓인 자신의 상황을 서글퍼하고 있다. 고사와 관공, 객관적 상관물 등을 활용하여 남편을 원망하면서도 남편에 대한 그리움으로 힘겨워하는 화자의 심정을 절절하게 드러냈다는 점에서 문학적 완성도가 높은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주제 | 남편을 기다리는 여인의 한스러운 마음

구성 |

- 1~15행: 젊었던 시절을 돌아보며 높고 외로운 자신의 처지를 한탄함.
- 16~28행: 집에 오지 않는 남편을 원망하며 외롭게 지내는 심정을 노래함.
- 29~37행: 한스러운 마음을 달래기 위한 화자의 헛된 노력
- 38~50행: 집에 오지 않는 남편의 소식을 기다리며 자신의 처지를 한탄함.

24 시어, 시구의 의미와 기능 파악

정답 ③

정답 해설 화자는 입과의 인연이 끊어졌다고 생각하면서도 입에 대한 그리움조차 없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⑥는 부재하는 입을 향한 그리움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화자는 입이 없는 방에 혼자 앉아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따라서 ⑤는 지속되는 입의 부재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 ① ④는 화자의 어린 시절과 입을 만나 마음고생을 하던 시절에 대한 생각과 관련된다. 점에서 과거의 회상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④는 입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을 나타낼 뿐, 앞으로 일어날 사건에 대한 추측과는 관련이 없다.
- ② ⑥는 입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낼 뿐, 입과 헤어지게 된 원인을 찾으려는 고뇌와는 관련이 없다.
- ④ ⑥는 입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낼 뿐 입과의 인연을 지속하기 위한 노력과 관련이 없다. ⑤는 입을 만나지 못하고 그리워하며 지내는 자신의 신세에 대한 한탄을 나타낼 뿐 입과의 인연을 단절한 것에 대한 후회와는 관련이 없다.
- ⑤ 화자는 입이 없는 방에 혼자 앉아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점에서 ⑤의 화자는 부재하는 입에 대한 원망을 나타낸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④는 화자의 과거에 대한 생각을 나타내고, ⑥는 입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낼 뿐 ④와 ⑥ 모두 입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싶은 화자의 의지와는 관련이 없다.

25 표현상의 특징 파악

정답 ⑤

정답 해설 [A]는 아름답던 과거의 모습과 세월이 흘러 늙어 버린 현재의 모습을 대비하며 화자의 처지를 드러내고 있다. [B]는 일 년에 한 번은 어김없이 입을 만날 수 있는 견우직녀와 달리, 소식조차 끊긴 채 입을 만날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드러내고 있다.

오답 해설

- ① [A]의 '설빈화안 어디 가고 면목가증 되었구나'는 주관적 관점에서 자신의 외모를 평가한 것에 해당한다.
- ② [B]는 다른 대상과의 비교와 설의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심리를 우회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③ [A]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B]는 다른 대상과의 비교를 통해 화자의 상황을 언급하고 있다. 시선의 이동과 공간의 변화는 [A], [B] 모두 관련이 없다.
- ④ [A]는 설빈화안 등을 통해 화자의 모습을 시각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B]는 청각적 심상을 활용하고 있지 않다.

26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

정답 ④

정답 해설 이 글과 <보기> 모두 시어를 반복하여 화자의 상황을 강조한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해설

- ① 이 글은 '설운 말씀', '참괴하니', '시름없다' 등을 통해, <보기>는 '마음 아프기만 해'라는 구절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② 이 글은 봄, 여름, 가을, 겨울 등 계절의 변화를 언급하며 입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고, <보기>는 봄날에 느끼는 입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내고 있다.
- ③ 이 글은 '어느 입이 날 사랑할까', '소식조차 그쳤는고'와 같은 물음의 방식을 사용하여 화자의 심리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보기>는 물음의 방식을 사용하지 않았다.
- ⑤ 이 글은 '이내 몸', '이 얼굴', '내 얼굴'과 같이 화자가 작품에 직접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보기>는 1행과 2행에서 계절적 배경 및 자연의 모습을 제시하고, 3행과 4행에서 입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내고 있을 뿐, 화자가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27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 ③

정답 해설 ㉠은 자신이 연주하는 거문고 소리가 마치 망주석 위에 천 년 만에 찾아온 학이 울고 있는 것처럼 매우 구슬프게 들리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말단직에 머물렀던 남편의 지위 때문에 힘겨워하는 화자의 모습과는 관련이 없다.

오답 해설

- ① ㉠은 사람들이 떼를 지어 술집에 기생을 만나러 가는 모습으로, 노류장화의 풍류에 빠진 남편의 모습을 나타낸 것에 해당한다.
- ② ㉠은 계절이 바뀌고 날이 저물어도 정처 없이 돌아다니는 모습으로,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집 밖에서 길도는 남편의 모습에 해당한다.
- ④ ㉠은 화자의 간장이 굵어질 듯 애통하다는 말로, 자신을 피해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 남편으로 인한 화자의 슬픔을 나타낸 것에 해당한다.
- ⑤ ㉠은 자신의 삶을 기구한 운명 탓으로 돌리는 말로, 자조적으로 삶에 대한 원망과 한탄을 나타낸 것에 해당한다.

[28~30]

이육사, 「노정기」 / 정호승, 「운동주 시집이 든 가방을 들고」

㉠ 이육사, 「노정기」

해제 | 이 작품은 조국을 잃고 세계와 단절되어 빛을 잃은 화자가 어둠 속을 걸어 온 자신의 삶의 역정을 노래한 작품으로, 치열한 현실 인식에서 배태된 비극적 자기 인식이 드러나 있다. 쫓기는 마음과 지친 몸을 이끌고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이상적 세계를 찾아가려고 하지만, '새벽 밀물에 밀려 온 거미'같이 살아온 화자로서는 그저 물처럼 흘러가 버린 지난 삶의 역정을 반추하고 있다.

주제 | 쫓기는 삶에서 느끼는 비애

구성 |

- 1연: 가난과 시련으로 점철된 삶
- 2연: 젊은 날을 시련과 불안 속에서 살아감
- 3연: 이상 세계에 대한 희망을 갖기 어려운 현실

- 4연: 고난의 현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고단한 삶
- 5연: 고뇌 어린 삶에 대한 비극적 자기 인식

㉡ 정호승, 「운동주 시집이 든 가방을 들고」

해제 | 이 작품은 일상적인 삶 속에서 발견한 자신의 위선적인 모습을 고백하고 자신의 옹졸함을 반성하는 시이다. 출근길에 구두에 오줌을 싸 강아지에게 화를 내는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타인에게는 생명의 가치 평등을 주장하고, 가방에는 운동주 시인의 시집을 들고 다니는 자신의 위선적인 태도를 반성하고 있다. 구체적인 상황을 제시하여 주제를 명확히 드러내고 있으며, 끊임없이 자기 성찰과 반성을 보여 준 운동주 시인의 시집을 언급함으로써 자신이 지향하는 삶의 가치를 보여 주고 있다.

주제 | 자신의 행동에 대한 성찰과 고백

구성 |

- 1~8행: 출근길에 구두에 오줌을 싸 놓은 강아지에게 분노함
- 9~13행: 생명의 가치 평등을 주장했던 자신을 돌아보며 성찰함
- 14~17행: 옹졸한 자신의 태도를 반성함
- 18~22행: 운동주 시인의 말을 떠올리며 인생의 순례자가 되기를 바램
- 23~24행: 강아지를 용서하지 못한 자신에 대해 괴로워함

28 표현상의 특징 파악

정답 ③

정답 해설 (나)는 '견디지 못하는가'를 반복하여 강아지 한 마리도 용서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반성적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오답 해설

- ① (가)와 (나) 모두, 다양한 색채어를 구사하여 시적 상황을 구체화하고 있지는 않다.
- ② (가)와 (나) 모두, 청자를 명시적으로 설정하여 화자의 바람을 표출하고 있지는 않다.
- ④ (나)가 상승 이미지와 하강 이미지를 활용하여 화자의 내적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 ⑤ (가)와 (나) 모두, 계절적 배경을 통해 시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지는 않다.

29 시어, 시구의 의미와 기능 파악

정답 ①

정답 해설 화자는 '항상 흐릿한 밤 암초를 벗어나면 태풍과 싸워 가'며 '쫓기는 마음 지친 몸'으로 살았다. ㉠은 뚜렷한 성과 없이 지나온 삶의 어두운 모습을 비유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목표를 설정하지 못해 염려하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 ② ㉠은 불안정하고 위태로운 삶을 나타내는 것으로 '쫓기는 마음 지친 몸'과 조응하면서 화자가 쫓기면서 조마조마하게 살아왔던 삶의 모습을 보여 준다.
- ③ ㉠은 '흐릿한 밤'과 같은 어두운 현실 속에서 삶의 지표가 될 수 있는 희망을 상징하는 것으로, 화자에게는 삶의 희망이나 긍정적 지표가 없었던 것이다.
- ④ ㉠은 '서해를 밀항하는 썰크'와 같았던 화자가 고통과 불안 속에서 그리워하고 소망하던 삶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⑤ ㉠은 화자의 '발목을 오여' 싸며 화자를 구속하는 것으로, 화자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현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0 작품의 종합적 이해와 감상

정답 ⑤

정답 해설 (나)에서 '강아지가 먼저 나를 용서할까 봐 두'렵다고 하는 것은 타자에 대한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자신의 신념, 가치관과 괴리되어 강아지에게 소리를 치고 구두를 내던지는 옹졸한 자신에 대한 슬픔, 자괴감을 강조한 것이다. '생명의 무게'로 인한 고통을 이겨 내고 인간의 본성에 대해 탐구하고자 했던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 ① (가)에서 '새벽 밀물에 밀려온 거미'처럼 '다 삭아 빠진 소라 껍질에' '붙어 왔다'는 것은 과거 자신이 '밀려'오고 '붙어' 온 존재로 능동적이고 주체적이지 못하였으며, '새벽 밀물에 밀려온 거미'와 같이 무력한 사람이었다고 고백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② (가)에서 '항구의 노정에 흘러간 생활을 들여다'본다는 것은 현재의 자신을 발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과거의 자신과 현재 공간이 아닌 공간에서의 자신을 두루 성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③ (나)에서 '구두에 질편하게 오줌을 싸 놓은 / 강아지'를 '용서하지 못하'었다고 자책한 것은 진실로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말하는 운동주 시인의 시집을 가방에 넣어 다니면서도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고 옹졸하게 행동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④ (나)에서 '강아지를 향해 구두를 내던지'고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운동주 시인의 말을 떠올린 것은 '인생의 순례자'가 되고자 하는 자신의 목표와 괴리된 자신의 모습을 반성하고 살피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1~34]

김만중, 「사씨남정기」

해제 | 사대부가에서 일어나는 처첩 간의 갈등을 중점적으로 다룬 가정 소설이다. 치밀한 사건 구성과 섬세한 심리 묘사로 당대의 현실을 구체적으로 그려 낸 작품으로, 당시 사대부들의 생활상을 잘 보여 주고 있다고 평가받는다. 처첩 갈등형 가정 소설의 대표작으로 간악한 교 씨와 고매한 사 씨의 대립을 통해 '권선징악', '사필귀정'이라는 주제를 전달하고 있다. 인현 왕후 폐위의 부당성을 풍간하기 위해 지은 작품으로 알려져 있으며, 집안을 망치는 교 씨의 잘못된 행동을 통해 축첩 제도의 불합리성도 드러내고 있다. 제시문에는 사 씨가 시아버지인 유 소사의 선택을 받아 유씨 가문에 시집을 오게 되는 과정이 그려지고 있는데, 이를 통해 유교 중심 사회에서 강조하는 부녀자의 올바른 덕성을 파악할 수 있다.

주제 | 사 씨의 고난과 지위 회복

전체 줄거리

유현의 아들로 태어난 유한림은 15세에 장원 급제하여 한림학사를 제수받는다. 유한림은 유 소사(유현)의 주선으로 재능과 부덕(婦德)을 겸비한 사 씨와 결혼하지만, 사 씨에게 후사가 생기지 않자 사 씨의 권유를 따라 교 씨를 첩으로 받아들인다. 교 씨는 아들 장주를 낳자 정실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품고, 적통인 아들을 낳은 사 씨를 참소하기 시작한다. 교 씨의 모함에 속아 넘어간 유한림은 결국 사 씨를 폐출하고 사 씨는 고난을 피해 남정(南征)을 떠나게 된다. 간악한 교 씨는 문객 동청과 간통하면서 남편 유한림을 모함하여 유배시킨다. 하지만 유한림의 무죄가 밝혀지면서 동청은 처형되고, 유한림은 사 씨와 해후한다. 고향에 돌아와 간악한 교 씨를 처형한 유한림은 사 씨와 함께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

31 작품의 내용 이해

정답 ③

정답 해설 | 사 씨가 조용히 한림에게 첩을 두라고 권고하였는데, 한림은 그 말이 진심이 아니라 생각하여 웃으며 대답하지 않았다. 유 한림은 첩을 맞으라는 사 씨의 제안이 빈말이라고 생각하고 만류하지 않은 것이다.

오답 해설

- ① '어린 시절 엄부름 여의고 편모의 과애를 받으며 성장하여 배운 것이 전혀 없습니다.'라는 사 소저의 말을 통해 사 소저는 어린 시절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의 보살핌 속에 자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② 유 소사가 매파를 통해 유 한림의 첩으로 적합한 사람을 물색하지는 않았다. 사 씨가 매파를 시켜 유 한림의 첩을 물색하였다.
- ④ 유 소사가 사 소저에게 풍월을 읊은 작품도 또한 적지는 않을 듯하다고 말하자 사 소저는 풍월을 읊는 것은 여자의 일이 아니라고 하면서, 관음찬을 마지못해 지었다고 하였다. 유 소사가 사 소저의 풍월을 읊는 모습을 보고 유 한림과 혼인시키기로 마음먹은 것은 아니다.
- ⑤ 사 소저는 부인들이 독서를 하는 까닭은 착한 일을 본받고 악한 일을 경계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하였다.

32 시점 및 서술상의 특징 파악

정답 ③

정답 해설 | '광경을 볼 수 있을 뿐이었다.'는 것은 사 소저를 응시한 사람들 모두가 사 소저의 단정함, 예의 바름, 아름다움 등 긍정적인 면모만을 발견하였다는 의미이다. 서술자가 사 소저를 응시한 사람들의 내면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지, 서술자가 관찰할 수 있는 공간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 ① '그윽하기 비할 바가 없었다.'에서 서술자가 유 한림과 사 소저의 혼인 상황에 대한 자신의 주관적 생각을 삽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② '못사람들 모두가 소저를 응시하고는'에서 서술자가 친척과 빈객들을 지각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알 수 있다.

- ④ '십 년 가까이 흘러갔다.'에서 서술자는 십 년 가까이 긴 시간을 압축하여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⑤ '몹시 근심하면서 홀로 생각하였다.'에서 서술자가 사 씨라는 등장인물의 내면을 파악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33 대화의 특징 파악

정답 ⑤

정답 해설 | [A]에서 두 부인은 집안에 첩을 두는 것은 환난의 근본이라는 자신의 생각이 타당한 이유를 고사와 관련지어 설명하면서 사 소저가 생각을 바꾸도록 설득하고 있다. [B]에서 사 소저는 일처일침은 인륜의 당연한 도리라는 자신의 생각이 타당한 이유를 당대 부녀자의 행실과 관련지어 설명하면서 두 부인이 생각을 바꾸도록 설득하고 있다.

오답 해설

- ① [A]에서 두 부인은 사 씨에게 충고를 하고 있다. 사 씨에게 도움을 제공할 것을 약속하고 있지는 않다. [B]에서 사 씨가 두 부인에게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있지도 않다.
- ② [A]에서 두 부인은 사 씨가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사 씨의 단점을 지적하는 것은 아니다. [B]에서 사 씨가 자신의 단점이 장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피력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 ③ [A]에서 두 부인은 일처일침은 당연한 도리라는 사 씨의 생각이 잘못된 것임을 지적하고 있다. [B]에서 사 씨가 자신의 주장의 타당성을 증명하는 사례를 열거하고 있지는 않다.
- ④ [A]에서 두 부인과 [B]에서 사 씨는 모두, 과거 자신의 경험을 밝히면서 상대방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고 있지는 않다.

34 작품의 종합적 이해와 감상

정답 ④

정답 해설 | 두 부인이 고금에 따라 도리가 다르고 투기하지 않는 것만을 믿을 수 없다고 한 것은 첩을 들이는 것은 인륜의 도리가 아니라 집안에 화를 부르는 것임을 강조한 것이다. 두 부인은 한 집안에 처첩이 공존하면 안 된다고 여기고 있다.

오답 해설

- ① 유 한림과 사 소저는 혼인을 맺은 뒤 그 이튿날 대추와 밤을 받들고 유 소사에게 예를 올렸고 사흔날 가묘로 올라가 조종 신령에게 고유하였다. 이를 통해 이 작품이 가문 의식을 중시하는 사회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② 사 소저는 한묵을 희롱하는 일은 여자가 해야 할 바가 아니라고 하였다. 이는 여자가 해야 할 일을 남자가 해야 할 일과 구분 짓고 있는 것으로, 유교적 이데올로기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③ 사 소저는 옛날 법도에 따르면 자녀를 하나도 두지 못한 자신은 응당 내침을 당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는 가문의 대를 잇는 것을 부녀자의 필수적 역할로 인식하는 유교적 가치관을 철저하게 따르고 있는 부녀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⑤ 사 소저는 근세의 부녀자들이 질투만을 일삼아 남의 가문을 어지럽게 하고 남의 선사를 끊어지게 한다고 하면서 그들을 본받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는 선사를 잇기 위한 방편으로 처첩제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이를 수용하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화법과 작문]

35 발표 표현 전략 사용하기

정답 ⑤

정답 해설 | 발표를 통해 시대에 따라 격구가 다양한 양상을 보였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으나, 발표 대상인 격구의 발전 과정을 파악할 수 있도록 발표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해설

- ① 『고려사』와 『무예도보통지』와 같이 인용한 자료의 출처를 밝히며 청중이 발표 내용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② '장시'와 '방미'와 같이 격구와 관련된 단어의 의미를 설명하며 청중의 이해를 돕고 있다.
- ③ 우리의 전통 놀이와 서양의 폴로의 뿌리가 같다는 점이 신기하지 않느냐며 청중에게 질문을 하고, 그 반응을 살피면서 청중과 상호 작용을 하고 있다.
- ④ 고려 의종의 일화를 제시하며 청중의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36 발표에서 자료, 매체 활용하기

정답 ⑤

정답 해설 ㉔은 격구 때 착용하는 복식의 용도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므로, 격구 때 착용하는 모자와 옷의 모양을 보여 주는 [자료 3]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해설

- ① 발표에서는 도구들의 사용 방법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 ② 발표에서는 경기 방식에 따라 이용했던 도구들의 차이점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 ③ 발표에서는 고려 시대와 조선 시대의 격구 기술의 명칭이 달라졌다는 점을 언급하지 않았다.
- ④ 발표에서는 조선 시대에 정조가 격구 기술을 정리한 이유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37 발표 맥락 분석하기

정답 ②

정답 해설 답변 내용이 발해 사신이 일본에 가서 격구 시범을 보였다는 점으므로 발표에 제시된 격구의 전파와 관련된 질문임을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격구가 다른 나라에 전파된 경우가 있는지에 대해 묻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오답 해설

- ① 발표 내용 중 격구가 페르시아에서 발생했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있지만, 답변에서 격구가 다른 나라에서 발생했다는 주장과 관련된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 ③ 발표 내용 중 삼국 시대부터 격구를 즐겼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있지만, 답변에서 삼국 시대에 격구가 전파되었다고 보는 근거와 관련된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 ④ 발표 내용 중 서양의 폴로와 격구의 뿌리가 같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있지만, 답변에서 격구와 뿌리가 같은 다른 나라의 놀이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와 관련된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 ⑤ 발표 내용 중 전통 격구를 복원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있지만, 답변에서 전통 격구의 복원과 관련된 문헌 자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와 관련된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38 토의 맥락 분석하기

정답 ②

정답 해설 ‘사회자’는 두 번째와 네 번째 발언에서 ‘그럼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까요?’, ‘혹시 더 논의할 사항이 있을까요?’와 같은 질문을 통해 토의 참여자의 발언을 유도하고 있으나, 새로운 대안의 효과를 제시하며 토의 참여자의 발언을 유도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해설

- ① ‘사회자’는 첫 번째 발언에서 작년에 실시했던 ‘나눔의 집’ 자선 행사에서 학생들의 참여율이 저조했다는 점과 자선 행사가 형식적인 봉사 활동만 진행되었다는 지적이 많았음을 언급한 후, ‘나눔의 집 자선 행사를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를 토의 주제로 선정할 것을 제안하며 토의를 시작하고 있다.
- ③ ‘사회자’는 두 번째 발언에서 ‘학생 1~3’이 제시한 작년 ‘나눔의 집’ 자선 행사의 문제점을 ‘자선 행사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었고, 학생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라고 요약하여 정리하고 있다.
- ④ ‘사회자’는 세 번째 발언에서 ‘학생 2’가 제시한 책 기부 행사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
- ⑤ ‘사회자’는 다섯 번째 발언에서 토의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태도 덕분에 토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말할 후 다음 회의에서는 자선 행사 안내문을 점검할 것이라고 소개하며 토의를 마무리하고 있다.

39 토의 표현 전략 사용하기

정답 ④

정답 해설 [A]에서 ‘학생 3’은 ‘학생 2’가 제시한 의견에 대해 ‘저도 예전 프로그램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한 후, 친구들의 말을 인용하여 학생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려는 노력이 부족했음을 언급하고 있다. [B]에서 ‘학생 3’은 ‘학생 2’가 제시한 의견에 대해 ‘좋은 생각입니다.’라고 말한 후, 책 경매가 학생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며 그 이유를 밝히고 있다.

오답 해설

- ① [A]에서 ‘학생 1’과 ‘학생 2’의 의견이 대립하는 상황은 나타나지 않는다.
- ② [B]에서 ‘학생 2’는 앞서 자신이 제안한 ‘책 기부 행사’의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을 뿐, ‘학생 3’이 제안한 의견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있지 않다.

③ [A]에서 ‘학생 1’이 ‘학생 2’의 의견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으며, [B]에서 ‘학생 1’이 ‘학생 2’의 의견에 대한 문제점을 언급하고 있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⑤ [A]와 [B]에서 ‘학생 3’은 ‘학생 2’가 제시한 의견에 동의하고 있을 뿐, ‘학생 2’가 제시한 의견을 듣고 자신의 의견을 수정하고 있지는 않다.

40 토의 내용 이해, 평가하기

정답 ④

정답 해설 토의 참여자들은 ‘책 경매’ 행사에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안내문을 작성하여 홍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다음 회의 때에는 작성한 안내문을 점검하기로 했을 뿐,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하지 않았다.

오답 해설

- ① ‘사회자’는 작년에 실시했던 ‘나눔의 집’ 자선 행사의 문제점을 언급하며 행사의 활성화를 위해 토의할 필요가 있음을 말하고 있다.
- ② ‘학생 1’은 학생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려는 노력 부족을, ‘학생 2’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지 않은 점을, ‘학생 3’은 행사 준비가 미흡하여 홍보가 부족했던 점을 자선 행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이유로 제시하고 있다.
- ③ ‘학생 1’과 ‘학생 2’는 ‘책 기부 행사’와 ‘책 경매’라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학생 3’은 행사 안내문을 작성하여 자선 행사를 홍보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⑤ ‘사회자’는 토의에서 논의한 대로 자선 행사가 진행된다면 학생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눔의 집 아이들에게 폭넓은 독서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말하고 있다.

41 소개 글쓰기 표현 전략 사용하기

정답 ④

정답 해설 안내문에서는 자선 행사의 의의와 참여 방법 등을 제시하고 있을 뿐, 책 경매 행사를 진행하는 구체적인 절차를 안내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해설

- ① 2문단의 “나눔의 집” 아이들이 읽을 책이므로 폭력성이나 선정성 있는 책들은 경매에서 제외되며, 책이 파손된 경우에도 경매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는 행사의 대상을 고려하여 자선 행사에 참여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을 안내한 부분에 해당한다.
- ② 1문단의 ‘나눔의 삶을 실천’과 3문단의 “나눔의 집” 아이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는 자선 행사의 의의를 안내한 부분에 해당한다.
- ③ 2문단의 ‘책 경매 행사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학교 누리집의 ‘나눔의 집 자선 행사’ 게시판에 여러분이 판매하고자 하는 책 제목과 책의 상태 등에 관한 정보를 기입하시면 됩니다.’는 작년 행사에 학생들의 참여가 저조했던 이유를 고려하여 자선 행사 참여 방법과 관련된 정보를 안내한 부분에 해당한다.
- ⑤ 1문단의 “나눔의 집” 아이들에게 폭넓은 독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책 경매를 통해 여러분의 책을 기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는 책 경매 형식으로 자선 행사를 진행하는 이유를 안내한 부분에 해당한다.

42 소개 글쓰기 내용 점검, 조정하기

정답 ⑤

정답 해설 <보기>의 초고에서는 자선 행사의 참여를 당부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나 자선 행사에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확인할 수 없다.

오답 해설

- ① 자선 행사에 참여해 달라는 당부를 완곡한 표현으로 바꾸자는 조언을 반영하여 ‘주저하지 말고 자선 행사에 참여해 주세요.’를 “나눔의 집” 아이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라고 수정하였다.
- ② 자선 행사의 시작 시기와 참여 대상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자는 조언을 반영하여 “나눔의 집” 자선 행사는 10년 전부터 시작되었으며,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장을 삭제하였다.
- ③ 자선 행사의 의의를 의미가 대비되는 어휘를 사용하여 추가하자는 조언을 반영하여 ‘조그마한 노력으로 ‘나눔의 집’ 아이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이라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 ④ 자선 행사에 기부하는 책이 지닌 가치를 비유적 표현으로 전달하자는 조언을 반영하여 ‘집에 꽂아 놓기만 하고 보지 않는 책들이 ‘나눔의 집’ 아이들에게 보석 같은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라는 문장으로 표현하였다.

43 보고 글쓰기 내용 조직하기

정답 ③

정답 해설 (나)에서는 우리나라 성인의 평생 학습 실태를 제시하며 2020년에 비해 2021년의 성인 평생 학습 참여율이 줄어들었음을 언급하고 있을 뿐, 우리나라 성인이 평생 학습에 참여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오답 해설

- ① (나)의 1문단에서 평생 학습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는 내용을 통해 조사의 필요성을 알 수 있다.
- ② (나)의 2문단에서 평생 학습의 종류에는 형식 교육과 비형식 교육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 ④ (나)의 4문단에서 시간 부족과 근무 시간과 겹치는 문제, 비싼 참여 비용, 근거리의 평생 학습 기관의 미비를 평생 학습의 참여를 방해하는 요소로 언급하고 있다.
- ⑤ (나)의 5문단에서 앞선 내용을 요약하고 있으며, 중심 화제와 관련된 문제와 관련하여 정부와 기업, 개인이 노력해야 할 개선 방안을 언급하고 있다.

44 보고 글쓰기 자료, 매체 활용하기

정답 ⑤

정답 해설 ④는 평생 학습에 참여하는 희망 정도를, ⑥는 소득별 평생 학습의 참여율을 보여 주는 자료에 해당한다. 특히 ⑥는 소득이 높을수록 평생 학습 참여율이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따라서 고소득층에 맞는 평생 학습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5문단에 추가한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 ① ④는 평생 학습의 프로그램 중에 참여자의 관심을 끌 만한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것과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힘들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이다. 이를 통해 평생 학습 프로그램의 내용이 학습 참여를 저해시키는 요소임을 알 수 있으므로, (나)의 4문단에 평생 학습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로 참여자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프로그램 및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은 적절하다.
- ② ⑥는 소득별 평생 학습의 참여율을 보여 주는 자료로, 소득이 높아질수록 평생 학습 참여율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평생 학습 참여 실태로 평생 학습 참여율이 소득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다는 내용을 3문단에 추가하는 것은 적절하다.
- ③ ⑤는 평생 학습에 참가한 성인들의 만족도를 구체적 수치를 통해 보여 주는 자료로, 형식 교육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비형식 교육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나)의 3문단에서는 평생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도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는 점만 간략히 언급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소개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평생 학습 참여 실태로 형식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비형식 교육보다 높다는 내용으로 3문단을 구체화하는 것은 적절하다.
- ④ ③를 통해 형식 교육에서는 '자기 계발'의 성과가, 비형식 교육에서는 '정신적 건강 유지'의 성과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알 수 있다. 5문단에서는 우리나라 성인의 평생 학습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만족도가 높은 '자기 계발'과 '정신적 건강 유지'와 관련된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평생 학습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5문단에 추가하는 것은 적절하다.

45 보고 글쓰기 표현 전략 사용하기

정답 ⑤

정답 해설 높은 참여 비용과 시간 및 시설 부족으로 인해 평생 학습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제도와 시설과 관련된 문제점을 언급한 것에 해당하며, '~ 더욱 필요하지 않을까요?'라는 설의법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강조하고 있다.

오답 해설

- ① 평생 학습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를 개인적 차원의 시간 부족으로만 언급하고 있을 뿐, 제도와 시설과 관련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 ② 설의적 표현은 사용하였으나, 제도 및 시설과 관련된 문제점을 언급하지 않았다.
- ③ 제도와 시설과 관련해서 근무 시간 조정과 평생 학습 시설의 확충을 언급하고 있지만, 설의적 표현을 활용하지 않았다.
- ④ 평생 학습의 효과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제도 및 시설의 문제점을 보완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으나,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언어와 매체]

35 서술어의 자릿수

정답 ④

정답 해설 ㄹ의 서술어는 두 개의 용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두다'는 주어와 목적어, 부사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세 자리 서술어이다.

오답 해설

- ① ㄱ의 서술어는 '아름답다'로, 주어 하나만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한 자리 서술어이다.
- ② ㄴ의 서술어는 '다르다'로, 비교 대상을 나타내는 부사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ㄴ에서 부사어는 '책과'이다.
- ③ ㄷ의 서술어는 '사람이지 않았다'로, '사람'이라는 명사에 서술격 조사를 결합한 본용언에 '않았다'라는 보조 용언이 덧붙은 것이다.
- ⑤ ㅁ의 서술어는 '주었다'로, '어찌하다', '어떠하다', '무엇이다' 가운데 '어찌하다'에 해당하며, 주어뿐 아니라 목적어, 부사어를 요구하는 세 자리 서술어이다.

36 서술절을 안은 문장

정답 ③

정답 해설 '그는 키는 크지만 운동에는 소질이 없었다.'라는 문장은 '그는 키는 크다.'와 '그는 운동에는 소질이 없었다.'라는 두 개의 서술절을 가진 안은문장이다.

오답 해설

- ① '고래는 어류가 아니다.'와 '고래는 포유류이다.'라는 문장이 이어진 문장이다.
- ② '그녀는 보석과 같다.'라는 인용절을 가진 안은문장이다.
- ④ '영지가 미소를 띠었다.'와 '영지가 소리 없이 나에게 다가왔다.'라는 문장이 이어진 문장이다.
- ⑤ '오늘 우리가 본'이라는 관형절을 가진 안은문장이다.

37 음운 변동

정답 ③

정답 해설 '눹죽하다'를 [넙쭈카다]로 발음하는 것은 맞지만, 받침 'ㅉ' 뒤에 이어지는 'ㅈ'은 어미의 첫소리가 아니다. 어미는 용언 및 서술격 조사가 활용하여 변하는 부분이다.

오답 해설

- ① '뫼개'를 [넙개]로 발음하는 것은 'ㅂ(ㅍ, ㅃ, ㅍ, ㅍ)'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ㅂ,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는 ㉠을 적용한 것이다.
- ② '앉다'를 [안따]로 발음하는 것은 어간 받침 'ㄴ(ㄴ)'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ㄱ, ㄷ, ㅂ,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는 ㉠을 적용한 것이다.
- ④ '갈등'을 [갈똥]으로 발음하는 것은 한자어에서 'ㄹ' 받침 뒤에 연결되는 'ㄷ,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는 ㉡을 적용한 것이다.
- ⑤ '이럴 수가'를 [이럴쭈가]로 발음하는 것은 관형사형 '-(으)ㄹ'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ㅂ,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는 ㉡을 적용한 것이다.

38 높임 표현

정답 ⑤

정답 해설 ㉡에는 객체 높임을 실현하는 조사 '께'가 사용되었다. 객체 높임을 실현하는 선어말 어미가 사용되지는 않았다. 또한 ㉢에서는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하고 있지 않다. '이야기하고'의 '-고'는 본용언에 붙는 연결 어미이다.

오답 해설

- ① ㉠의 '있으시겠습니까'의 '-시-'는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인데, '사장님의 말씀'을 높여 간접 높임을 실현하는 데 사용되었다.
- ② ㉠의 '뵙고'와 '드리겠니'는 객체 높임을 실현하는 특수 어휘이다.
- ③ ㉠의 '안겨'의 '-기-'는 사동사를 만드는 접미사이며, '드리겠니'의 '-겠-'은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이다.
- ④ ㉡의 '이야기하고 있는'의 '-는'은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관형사형 어미이며, '말했니'의 '-였-'은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이다.

39 중세 국어의 문법

정답 ④

정답 해설 '거북'은 존칭이 아닌 유정 체언에 해당하고 '누'는 음성 모음이기 때문에 관형격 조사로 '의'를 붙인다. '사름'은 존칭이 아닌 유정 체언에 해당하고 양성 모음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관형격 조사로 '이'를 붙인다. '술위'는 무정 체언이므로 관형격 조사로 '스'를 붙인다.

40 매체의 유형에 따른 특성

정답 ④

정답 해설 '진헌'은 도진으로부터 받은 자료의 형식을 pdf에서 jpg로 변환하여 '은아'가 해당 자료를 볼 수 있게 도와주고 있다. '진헌'은 매체 자료가 원활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것이다.

오답 해설

- ① '은아'는 한글의 자음자로 구성된 기호를 활용하지 않았다.
- ② '지수'는 비대면 의사소통의 장점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 ③ '도진'은 학교 누리집의 접속자 수를 근거로 자료 공유 방식에 변화를 주자고 제안하였다. 매체 자료에 삽입되는 시청각 자료를 바꿀 것을 제안하지는 않았다.
- ⑤ '도진'은 대화 참여자들과 파일을 공유하고 있으며 '진헌'은 파일 형식을 변환함으로써 '은아'가 필요로 하는 자료를 제공하였다. '지수'는 하이퍼링크를 사용하지 않았다.

41 매체 언어의 표현 방법

정답 ②

정답 해설 ㉠에서는 동아리의 활동 과제가 눈에 띄도록 강조하였다. 동아리 구성원의 진로 목표가 드러나도록 한 것이 아니다.

오답 해설

- ① ㉠에서는 동아리 구성원이 꿈을 키우고 이루기 위해 직업에 대해 공부하는 학생들이라는 점을 밝혀 동아리 구성원이 목표하고 있는 바를 드러내었다.
- ③ ㉡에서는 게시판을 '월별 진로 활동'과 '진로 정보 나누기'로 나누고 각 게시판의 하위 항목을 설정하여 각 게시판의 성격에 맞게 글을 올릴 수 있게 하였다.
- ④ ㉢에서는 작성한 글에 대한 댓글 수를 표시하여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파악할 수 있게 하였다.
- ⑤ ㉣에서는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한 글이 동아리 구성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게시물을 삭제하였다.

42 매체 자료의 주체적 수용

정답 ⑤

정답 해설 (가)에서 관심 있는 학과가 어느 학교에 있는지에 관한 정보를 넣자고 하였고, (나)에서 제시된 카드 뉴스의 세 번째 장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나)에서 기후 환경학과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검색 사이트를 제시하지는 않았으며, (가)에서 관심 있는 학과가 있는 학교의 특징을 제시하자고 말하지는 않았다.

오답 해설

- ① '~에 대해 아시나요?', '뭘 배우나요?'와 같이 말을 건네는 방식을 활용하고 환경과 관련한 이미지를 추가하여 카드 뉴스를 구성하였다.
- ② 카드 뉴스의 각 장에 '꿈을 키우고 이루기 위해 잡(Job)을 공부하는 이들, 꿈잡이'라는 문구를 삽입하여 동아리를 알릴 수 있도록 카드 뉴스를 구성하였다.
- ③ 해당 학과를 졸업하면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는지에 관한 내용을 넣자고 하였으나 카드 뉴스에는 이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
- ④ 카드 뉴스의 두 번째 장에서 기후 환경학과에서 배우는 내용과 그 학과에 가기 위해 필요한 자질에 대해 제시하였다.

43 매체 언어의 의미 전달 방식

정답 ③

정답 해설 진행자는 접시에 있는 딸기를 카메라 쪽으로 가까이 대고 보여 주다가 혼자 방송을 하니 클로즈업도 하기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 촬영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 대해 언급한 것이다. 그러면서 진행자는 접속자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있다.

오답 해설

- ① 진행자는 9시에 어김없이 방송을 진행하고 있다. 접속자 숫자를 확인한 후에 방송 시작 시간을 정하는 것이 아니다.
- ② 진행자가 방송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혜택에 대해 공지하고 있지는 않다.

④ 진행자는 접속자들의 채팅 내용을 확인하고 질문에 답변해 주고 있다. 진행자가 채팅 내용을 확인하고 방송의 주제를 수시로 바꾸고 있지는 않다.

⑤ 진행자가 접속자들에게 방송 내용에 오류가 있으면 이를 즉시 지적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는 않다.

44 사회적 상호 작용

정답 ③

정답 해설 [C]에서 '매의눈'은 수박 고르는 법과 관련하여 사람들이 수박을 두들겨 보는 이유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 진행자는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매의눈'이 진행자의 발화 내용 중에 자신이 이해하지 못한 내용을 질문한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 ① [A]에서 '딸기코'는 과일 고르는 법을 알려 달라는 자신의 요구가 반영된 것에 대해 만족감을 표현하였다. 진행자는 '딸기코'가 언제나 방송에 함께해 주고 있다고 언급하며 앞으로도 계속 함께하자며 친밀감을 표현하고 있다.
- ② [B]에서 '한달주부'는 방송에서 전달하는 생활 상식이 좋다고 긍정적으로 반응하였다. 진행자는 자신의 지식을 나누는 기쁨으로 방송을 하고 있다고 방송을 지속하는 이유를 말하고, 앞으로도 하루도 거르지 않고 방송을 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 ④ [D]에서 '절대음감'은 진행자의 설명만으로 잘 익은 수박과 아닌 수박을 구분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다른 설명을 요구하였다. 진행자는 직접 수박을 두들겨 보이면서 상대방이 지적한 부분을 해소하려고 하고 있다.
- ⑤ [E]에서 '나무늘보'는 방송 도중 접속하였다고 말하고 앞선 방송 내용에 대해 질문하였다. 진행자는 앞선 방송 내용을 정리하여 댓글로 남길 것이니, 댓글을 확인하라고 말하고 있다.

45 언어적 표현과 심미적 가치

정답 ⑤

정답 해설 ㉠의 '만큼'은 앞의 내용에 상당한 수량이나 정도임을 나타내는 의존 명사이다. '만큼'이 뒤에 나오는 내용의 원인이나 근거가 됨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는데, ㉠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에서 구독 버튼을 누를 이유가 되는 것은 기대가 아니라 기대만큼 유익했다는 사실이다.

오답 해설

- ① '은'은 어떤 대상이 다른 것과 대조됨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다. ㉠에서는 '은'을 사용하여 오늘의 방송 주제가 다른 날의 방송 주제와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 ② '언젠가'는 '미래의 어느 때에 가서는.'이라는 뜻의 말로, 진행자가 촬영팀을 고용하는 일이 일어날 시점을 특정할 수 없음을 드러내었다.
- ③ '-고'는 두 가지 이상의 사실을 대등하게 벌여 놓는 연결 어미이다. ㉡에서는 '-고'를 사용하여 오른쪽 접시의 딸기가 하얀 부분이 없다는 특징, 꼭지가 짙은 녹색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음을 표시하였다.
- ④ '그래도'는 뒤 문장의 내용이 앞 문장을 양보한 사실과는 상관이 없음을 나타내는 접속 부사이다. ㉢에서는 '그래도'를 사용하여 오른쪽 접시의 딸기가 맛있는 것이라는 자신의 확신과 무관하게 딸기의 맛을 보겠다는 것을 나타내었다.